

연구보고 07-R05-1

**국제기준 대비 청소년인권  
실태조사 연구 II**  
- 청소년인권 영역별 실태분석 -

연구진 : 이용교(광주대학교 · 교수)  
박창남(나사렛대학교 · 교수)  
이중섭(참여자치21 · 사회연대팀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전반적인 인권환경 수준의 실태와 문제점을 인권 영역별로 세부적으로 심층 분석하고 그 향상과 보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청소년 인권의 3개 분야, 즉 청소년 생존권과 노동권, 참여권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연구진이 분야별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종합하는 형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영역별 연구 내용은 개괄적으로 다음과 같다.

청소년 생존권은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생존과 삶의 질 보장에 관한 권리로서 신체적 건강의 유지, 각종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생존권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고 이미 경제개발기구(OECD) 가입국인 우리나라로서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영역이지만 그 중에서도 일부 취약한 부분을 발견하고 그에 상응할 만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청소년 노동권은 포괄적으로는 청소년들이 각종 차별이나 학대·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인 보호권의 하위 영역이지만 시간제 노동(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증가하는 최근 추세와 청소년의 교육에 집중된 각종 제도에 비해 청소년의 노동에 대한 대비는 충분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황을 고려할 때 특별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권에 대해서는 특히 노동참여권·노동보호권 중심의 실태분석을 실시했다. 청소년 참여권은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관련된 각종 의사결정과 선택과정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소년 인권의식의 신장과 함께 앞으로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빈곤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현황과 대책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연구결과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 생존권에 대해서는 생존권 관련 지표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한국 청소년의 생존권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 평균에 근접했으며 매년 조금씩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일부 취약한

영역도 발견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기대여명의 향상’과 같은 청소년의 생명권은 점차 향상되고 있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비율’은 선진국에 비교하여 매우 취약한(높은) 수준이고, 가난한 청소년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은 양극화의 진행과 함께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되었다.

청소년의 노동권에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노동참여권의 실태는 열악한 상황임이 확인되었다. 특히 현행 근로기준법은 청소년노동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청소년들의 합법적인 노동참여의 범위를 매우 좁혀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청소년의 노동보호권의 실태는 더욱 열악한 상황으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다. 본 연구관련 전국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신체적 구타 및 폭행경험은 8.3%, 임금체불 경험은 19%, 부상경험은 27%로 나타났고, 한국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를 기초로 노동보호권 분야의 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폭언 등 인격모독경험이 5~12%, 성희롱이나 성폭력경험은 1~3%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참여권, 특히 빈곤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현황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빈곤은 낮은 교육과 불안정한 고용 등의 향후 경제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영역으로부터의 참여기회 박탈이라고 하는 사회적 배제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청소년 빈곤의 원인은 고용능력의 저하, 낮은 학업 등 자신의 내적 요인에 의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가정의 빈곤이라고 하는 외적인 요인에 연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의 저학력이나 저임금 그리고 실업은 청소년의 학업능력과 고용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청소년 생존권에 관련해서는 유·초·중등학교에서의 안전교육 강화 및 운동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한 부모 가족, 조손가족 등의 아동과 청소년이 생계, 의료, 교육, 주거에서 기초생활

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생존권을 포함한 인권영역별 정확한 통계의 주기적 산출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노동권에 관련해서는 방학을 이용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빈곤층 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정부와 시민단체는 장시간노동이 가져올 수 있는 나쁜 결과를 청소년들(특히 실업고생)에게 홍보하여 청소년들 스스로가 장시간노동을 절제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청소년을 장시간 고용하고 있는 서빙·배달 직종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인권침해나 법적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장시간 일을 시키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

빈곤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대책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은 먼저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이전인 1차적 예방단계, 문제의 출현으로 사회적으로 배제된 특정 집단에 초점을 맞추는 2차적 예방 단계, 각 단계에서 시행된 정책들을 모니터하고 평가함으로써 문제의 재발을 차단하는 3차적 예방단계로 체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 목 차

① 청소년 생존권 분야	
- 청소년 생존권 관련 현황 분석 -	
.....	1
② 청소년 노동권 분야	
- 청소년 노동 참여권 · 노동보호권 실태 분석 -	
.....	99
③ 청소년 참여권 분야	
- 빈곤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현황과 대책 -	
.....	267



청소년 생존권 분야  
- 청소년 생존권 관련 현황 분석

이 용 교 (광주대학교)



## 목 차

I. 서 론 .....	5
II. 청소년의 기대여명과 복지정책	
1. 기대여명 지표의 의미 .....	8
2. 관련 통계 .....	8
3. 관련 정책과 대안 모색 .....	12
III. 청소년 유병률과 질병치료 대책	
1. 유병률 지표의 의미 .....	14
2. 관련 통계 .....	14
3. 관련 정책과 대안 모색 .....	25
IV. 청소년 결식비율과 저체중/비만 대책	
1. 결식비율 지표의 의미 .....	30
2. 관련 통계 .....	31
3. 관련 정책과 대안 모색 .....	39
V. 청소년의 건강관리와 규칙적 운동	
1. 규칙적 운동 지표의 의미 .....	42
2. 관련 통계 .....	43
3. 관련 정책과 대안 모색 .....	47
VI. 사회적 안전감의 수준과 향상 방안	
1. 사회적 안전감 지표의 의미 .....	51
2. 관련 통계 .....	51
3. 관련 정책과 대안 모색 .....	55

VII. 자동차 사고와 사고 방지책	
1. 자동차 사고율 지표의 의미 .....	58
2. 관련 통계 .....	58
3. 관련 정책과 대안 모색 .....	61
VIII. 가난한 청소년과 복지정책	
1. 빈곤청소년 관련 지표의 의미 .....	65
2. 관련 통계 .....	65
3. 관련 정책과 대안 모색 .....	72
IX. 결론 및 정책제언	
1. 청소년의 기대어명과 복지 .....	79
2. 청소년 유병률과 질병치료 .....	80
3. 청소년 결식비율과 저체중/비만 .....	82
4. 청소년의 건강관리와 규칙적 운동 .....	83
5. 사회적 안전감의 수준 .....	85
6. 자동차 사고와 사고 방지 .....	87
7. 가난한 청소년과 복지 .....	89
참고 문헌 .....	96

# I. 서 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구 한국청소년개발원)은 2006년에 ‘국제기준대비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 실태연구 I’를 수행하였고, 그 후속사업으로 2007년에 ‘국제기준대비 청소년인권실태조사 II’를 수행하고 있다.

2006년도 연구는 ‘청소년인권지표 개발’이란 부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인권지표를 청소년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그리고 청소년인권 인프라와 같은 5개 범주별로 개발하였다.

본 연구자는 2006년도 연구에서 청소년 생존권 지표로 아래 표와 같이 3개 영역별(고유의 생명권, 신체적 생존권, 질적 생존권)로 15개 영역을 개발하고, 36개 개별지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자는 2006년도 연구결과를 계승하면서도, 청소년의 생존권에 관한 36개 개별지표 중에서 ‘국제기준’으로 널리 활용되는 지표를 보다 선별하여, 한국 청소년의 생존권 실태를 살펴보고, 그것의 연도별 변화추이, 그리고 주요 외국의 지표와 비교하여 한국 청소년의 생존권 실태를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표 I-1〉 청소년 생존권 지표 개발(2006년)

관심영역	세부 관심영역	개별지표	본 연구에 반영된 지표
1. 고유의 생명권	1-1 출생	1-1-1 15~19세 여성 청소년 1000당 출산율	
	1-2 생명	1-2-1 청소년 인공 임신중절을	
		1-2-2 청소년타살률	
1-3 사망	1-3-1 청소년사망률	√	
2. 신체적 생존권	2-1 수명	2-1-1 15세 청소년 기대여명	√
	2-2 빈곤	2-2-1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사는 청소년의 비율	√
		2-2-2 최저생계비 미만 청소년의 비율	√

2. 신체적 생존권	2-3 질병	2-3-1 청소년 유병률	√
		2-3-2 청소년 주요만성질환 유병률	√
		2-3-3 청소년 HIV/AIDS 감염률	√
	2-4 영양	2-4-1 청소년 1일당 영양권장량 75% 미만 섭취자 비율	√
		2-4-2 청소년 아침식사 결식 비율	√
	2-5 신체충실도	2-5-1 청소년 신체질량지수상 저체중율	√
		2-5-2 청소년 신체질량지수상 비만율	√
	2-6 건강	2-6-1 청소년 장애유형별 장애율	
		2-6-2 청소년 흡연율	
		2-6-3 청소년 음주율	
		2-6-4 청소년 규칙적 운동실천율	√
		2-6-5 청소년 주관적 건강평가	√
		2-6-6 청소년 스트레스 인식정도	√
	2-7 치료	2-7-1 청소년 건강보험 가입자의 외래수진율	
		2-7-2 청소년 건강보험 가입자의 입원수진율	
		2-7-3 청소년 의료급여 대상자의 비율	
	2-8 안전	2-8-1 범죄피해에 대한 청소년의 두려움	√
		2-8-2 사회안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
2-8-3 학교 급식의 안전도에 대한 인식			
2-9 사고	2-9-1 청소년 자동차 사고 사망자율	√	
	2-9-2 청소년 가정내 사고 사망자율		
	2-9-3 청소년 학교 안전사고 발생율		
	2-9-4 학교급식에 대한 식중독 발생율		
3. 질적 생존권	3-1 자살	3-1-1 청소년자살율	√
		3-1-2 소년소녀가정 비율	√
	3-2 가족	3-2-2 조손가족 청소년 비율	√
		3-2-3 가출청소년 비율	
	3-3 사회보장	3-3-1 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비율	√
3-3-2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대한 청소년의 만족도			
3개 영역	15개 영역	36개 지표	21개 지표

본 연구자는 36개 개별지표 중에서 21개 지표를 선택하여, 일곱 가지 세부 관심영역별로 다음과 같이 질문을 제시하였다. 각 질문에 대해서는 1) 지표의 의미, 2) 관련 통계, 3) 관련 정책과 대안 모색 순으로 정리하였다. 가급적 각 지표의 의미를 간략히 소개하고, 관련 국내외 통계를 제시하며, 3) 관련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청소년의 기대여명과 복지정책
- 청소년 유병률과 질병치료 대책
- 청소년 결식비율과 저체중/비만 대책
- 청소년의 건강관리와 규칙적 운동
- 사회적 안전감의 수준과 향상 방안
- 자동차 사고와 사고 방지책
- 가난한 청소년과 복지정책

하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표가 한정되어 있기에 관련 지표에 대한 국내외 통계자료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이를 연도별 변화추이를 파악하고, 각 국가별로 비교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국제기준 대비 청소년인권 실태조사 II’의 하나로 수행되었기에 청소년의 생존권을 중심으로 가급적 국제기준에 맞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한국 청소년의 생존권 상황을 국제적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향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국제기준 대비 청소년인권 실태조사 3’를 통하여 한국 청소년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상황을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할 때 준거가 되는 선행연구가 될 것이다.

## II. 청소년의 기대여명과 복지정책

### 1. 기대여명 지표의 의미

생존권을 가장 대표하는 지표는 생명이고, 인간의 생명을 가장 대표하는 지표는 ‘기대여명’일 것이다. 기대여명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평균 생존년수를 말하고, 출생시의 기대여명을 평균 수명이다.

### 2. 관련 통계

한국은 매년 통계청이 ‘생명표’를 작성하여 성별 및 연령별 기대여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05년 0세의 기대여명은 78.63세이고, 15세의 기대여명은 64.23세이다(통계청, 2006: 172).

<표 II-1> 성 및 연령별 기대여명

		0세	10세	15세	20세	25세
1985	남자	64.45	56.48	51.67	47.05	42.47
	여자	72.82	64.95	60.12	55.37	50.64
	남녀	68.44	60.53	55.71	51.03	46.38
1995	남자	69.57	60.54	55.65	50.94	46.25
	여자	77.41	68.34	63.43	58.58	53.73
	남녀	73.53	64.48	59.58	54.81	50.05
2005	남자	75.14	65.70	60.76	55.87	51.3
	여자	81.89	72.42	67.46	62.53	57.65
	남녀	78.63	69.18	64.23	59.33	54.47

자료: 통계청, 2006 한국의사회지표, 통계청. 2006.

15세 청소년의 기대여명은 1985년에 55.71세에서 2005년에는 64.23세로 8.52세 연장되었다. 기대여명은 성별로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15세 남자의 기대여명은 1985년 51.67세에서 2005년 60.76세로 7.87세가 연장되었고, 15세 여자의 기대여명은 1985년 60.12세에서 2005년 67.46세로 7.34세가 연장되었다. 2005년 현재 15세 남자의 기대여명은 여자의 그것보다 6.7세가 적은데 이는 다른 연령층에서도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세계 주요 국가의 2003년도 기대여명을 보면, 한국은 76세로 일본(82세), 오스트레일리아(79세), 프랑스(79세), 미국(77세) 등의 나라보다는 몇 세씩 짧지만, 브라질(68세), 북한(63세), 이디오피아(46세) 등에 비교하여 훨씬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3년도에 한국의 5세 미만 사망률과 영아사망율은 각각 5로 다른 국가들에 비교하여도 매우 양호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5세 미만 사망률은 1960년에 127명에서 2003년에 5명으로 감소되었는데, 같은 기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120명에서 55명으로 감소한 것에 비교하여도 크게 양호한 수준이다.

<표 II-2> 주요 국가 아동의 5세미만 사망률, 영아사망율, 기대수명

나라	5세 미만 사망율		영아사망율		기대수명 2003
	1960	2003	1960	2003	
오스트레일리아	24	6	20	6	79
브라질	177	35	115	33	68
캐나다	33	6	28	5	79
이디오피아	269	169	180	112	46
프랑스	34	5	29	4	79
일본	40	4	31	3	82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120	55	85	42	63
대한민국	127	5	90	5	76
미국	30	8	26	7	77

자료: UNICEF, 2005 세계아동현황보고서, 2004.

한편, 보건복지부가 매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하는 ‘OECD 건강데이터 2007’의 주요지표를 보면, 2005년 한국의 평균수명은 2000년에 비해 2.5년이 늘어난 78.5세이다. 이는 OECD 회원국의 평균수명 78.6세와 비슷한 수준이다. OECD 국가 중 평균수명이 긴 국가는 일본(82.0세)과 스위스(81.3세)였고 짧은 국가는 터키(71.4세)와 헝가리(72.8세)였다(국정브리핑, 2007년 8월 16일).

이처럼 평균수명이 늘어난 것은 공공부문의 국민의료비 지출 비율이 5년 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의료 인프라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앞선 것 때문인 듯하다. 2005년 우리나라의 총 병상수는 인구 1000명당 7.9병상으로 2000년보다 1.8병상이 늘어 OECD 회원국의 평균인 5.6병상보다 많았다. 또 2005년 한국인 1인당 연간 외래진찰 회수는 1999년보다 3회 증가한 11.8회였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외래진찰 회수인 6.8회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편, 2002년 우리나라의 영아사망률은 1997년 6.2명에서 0.9명 줄어든 5.3명이었는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5.4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표 II-3〉 성 및 연령별 사망률

연도	성별	0~4세	5~9세	10~14세	15~19세	20~24세
1990	남자	3.7	0.7	0.6	1.2	1.5
	여자	3.2	0.5	0.4	0.5	0.7
1995	남자	2.4	0.5	0.4	1.1	1.2
	여자	2.1	0.3	0.2	0.5	0.6
2000	남자	1.3	0.3	0.2	0.6	0.9
	여자	1.2	0.2	0.2	0.3	0.4
2005	남자	1.0	0.2	0.2	0.4	0.6
	여자	0.9	0.1	0.1	0.2	0.4

자료: 통계청, 2006 한국의사회지표, 통계청, 2006.

인구 천명당 사망자수는 전체 연령대에서 1990년 남자 6.6명 여자 5.0명, 2000년 남자 5.8명 여자 4.7명, 2005년 남자 5.5명 여자 4.5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00년도에 남자의 경우 0~4세 사망률은 1000명당 1.3명이었지

만, 5~9세는 0.3명, 10~14세는 0.2명으로 크게 줄고, 15~19세에 0.6명과 20~24세에 0.9명으로 늘었다. 따라서 15~24세 청소년층의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청소년층의 주요 사망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공식적인 자료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주된 사망원인은 교통사고와 자살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4년도 사망원인통계’에 의하면 10대 청소년의 자살사망자수는 246명으로 해당연령 전체 사망자수의 16.1%를 차지해 운수사고에 이어 10대 사망원인의 2위를 차지했다. 한국인의 자살사망율은 5세 이상 인구 10만 명당 24.2명으로서, 국민들의 주요사망원인 중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에 이어 4위를 차지했고, 최근 20년간의 자살사망율의 증가 속도는 5.2%로 OECD 국가 중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그 문제가 심각하다. 정신보건전문가들에 의하면 자살시도자는 자살사망자수의 30~50배 수준으로 연간 약 6,000~10,000명의 청소년이 자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뉴시스, 2006년 9월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7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다. 2006년 청소년이 자살로 사망한 경우, 즉 자살 사망률(10만 명당 사망자수)은 10대 4.2명, 20대 17.7명으로 1년 사이 각각 0.5명, 3.9명 늘었다. 지난 1년간 자살 충동을 느낀 청소년은 12~14세 8.61%, 15~18세 18.41%, 19~29세 12.47%로 나타났다(서울신문, 2007년 5월 3일).

자살방법도 연령별로 차이가 크다. 20세 미만에서는 투신(51.4%)이 가장 높은 반면, 20~40대는 의사(목을 매 죽음), 50대 이상에서는 음독으로 인한 자살이 가장 많았다(뉴시스, 2007년 7월 6일).

국립서울병원 국립정신보건교육연구센터 홍현숙 박사는 ‘특히 청소년은 아파트나 학교, 학원 등의 옥상 등에서 투신하는 경우가 많다’며 ‘장기적으로는 생명존중 교육과 충동적 행동을 완화하기 위한 또래집단의 지지문화 확산이 필요하지만 먼저 이런 건물의 옥상 등 위험시설물에 대한 접근을 막는 제도적 장치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2007년 7월 6일).

### 3. 관련 정책과 대안 모색

청소년의 기대여명은 늘리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주된 사망원인인 교통사고와 자살을 줄여야 한다. 그중 교통사고에 대한 논의는 별도의 주제로 다루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자살율을 줄이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청소년의 자살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치료하기 위하여 부모와 보호자의 협조가 매우 절실하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유희정 박사에 따르면, 10대 자살의 원인은 점점 커지는 입시 압박, 학내 폭력, 급격히 늘어나는 가족 해체로 인한 대상의 상실 같은 것 등이다. 하지만 청소년의 경우, 부모 혹은 주변사람이 주의를 기울여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가능성은 성인이나 노인보다 훨씬 높다.

‘소아·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통해서 자살 등의 문제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정신보건사업이라는 것은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가 지역사회 안에서 정신 건강에 관한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교육과 정보 제공을 통해 정신장애를 예방하며, 고위험군을 미리 발견해서 조기치료하려는 공공보건사업이다.

우선 참여 학교의 신청을 받고, 정신보건 사회복지사와 임상심리사로 구성된 팀이 학교에 나가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우울증과 기분조절장애, 자살위험도, 사회성 문제 등을 선별할 수 있는 설문지를 나누어 주어 답을 받는다. 결과가 다 취합된 뒤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아이들, 즉 정신 건강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의 보호자에게 결과를 설명하는 우편물을 보내고, 2차 정밀검진에 들어간다. 설문지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단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므로 진짜 정신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직접 아이와 부모를 만나보고, 이야기를 들어 보고, 체계적인 평가를 해야만 한다. 이 경우에 부모나 보호자의 협조가 매우 절실하다.

성남시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살위험도 같은 경우에는 약 3.5%의 중·

고등학생이 자살생각에 대한 정밀검사가 필요한 수준이었다. 자살생각 설문지에서는 자살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 자살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자살을 문제 해결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인생에 대해 얼마나 가치를 두고 있는지 등을 본인에게 직접 묻게 되어 있다. 자살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2차 검진을 권할 때 조금 더 분명하게 통보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부모가 ‘그럴 리가 없다. 아이가 장난으로 작성했을 것’이라거나 ‘우리 아이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가만히 두라’고 냉랭한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게다가 자살의 원인 가운데 80%를 차지하는 우울증은 그 증상이 밖으로 잘 나타나지 않고 단지 좀 짜증이 많거나 게으르거나 집중력이 부족한 아이로 인식되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부모가 먼저 발견하기는 어렵다. 자살생각 역시 부모에게 숨기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아이가 그것을 표현하게 되면 ‘도움을 청하는 징후’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어느 날 학교에서 나눠 주는 설문지에 정말 죽고 싶다고 표시했다면, 그것이 정말 장난이 아닌 다음에야, 일시적인 것이든 오랜 기간 고통 받아 온 것이든 아이는 뭔가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 사실을 통보했을 때 부모가 보이는 반응을 보면, 어쩌면 ‘부정(否定)’이라는 기제가 많은 아이의 극단적 선택을 막는 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사람은 큰일을 당하거나 중요한 상실을 겪을 때, 거기에서 오는 심리적 불균형 상태를 처리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어기제를 작동시키는데 그 중 첫 번째 것이 부정이다. 이미 벌어진 일을 무의식중에 ‘없던 일’로 생각해 버리는 것이다. 자녀가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면, 엄마 마음속에는 자녀의 안녕에 대한 불안이 밀려오게 되고, 자연스럽게 ‘듣지 않은 일’로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더구나 자녀에게 직접 듣는 것도 아니고 낯선 사람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 받고 나니, 타인이 자신의 가족 일에 침범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불안까지 더해져 더 단호하게 거절해 버리게 되기 쉽다. 자살에 대한 생각이 반드시 자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살에 대한 생각은 오히려 그것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받아들여지고, 도움을 받을 때 행동으로 옮겨질 확률이 낮아진다(위클리조선, 2007년 9월 4일).

### Ⅲ. 청소년 유병률과 질병치료 대책

#### 1. 유병률 지표의 의미

청소년이 얼마나 건강한가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어떤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뜻인데, 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이 건강한 정도를 ‘질병’이 없는 정도와 같이 다소 소극적인 방식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현재 청소년이 질병이 없이 산다면 역으로 건강하게 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질병이 있는 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표는 유병률이다. 이 지표는 대개 조사하기 직전 2주 동안 아픈 적이 있는 지로 파악한다.

질병 중에는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병도 있지만, 비교적 오랫동안 치료를 하거나 관리를 해야 하는 만성질환이다. 대체로 청소년은 노인이나 성인에 비교하여 주요 만성질환이 덜한 편이지만, 이에 대한 통계는 유병률 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을 알려준다.

청소년은 질병에 의해서 사망에 이른 경우는 아동이나 노인 등 다른 연령층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큰 사회문제가 된 후천성 면역결핍증(HIV/AIDS)은 주로 성적인 접촉에 의해서 전염되고 있는데, 청소년은 성적으로 활발해지는 시기이고, 성적 접촉이 늘어나면서 HIV/AIDS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

#### 2. 관련 통계

한국은 10~14세, 15~19세, 20~24세 등 5세 간격으로 주요 만성질환유병률을 파악한다. 산식: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 = 기간내(2주간) 주요 만성질환

유병자수 ÷ 대상인구수 × 1,000. 관련 통계를 중심으로 한국 청소년의 유병률, 주요 만성질환유병률, 그리고 HIV/AIDS 감염율을 알아보고, 청소년이 보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유병률은 질환의 발생시기를 불문하고, 대상기간 중에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수를 대상기간중의 전체 조사대상 인구로 나누어 계산한다. 일정한 기간(2주간) 동안 조사 대상자 중에서 2주간 내의 신규 환자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아팠던 사람의 비율로 ‘아팠다’의 일반적 조사정의는 다음과 같다.

학생이나 직장인은 공부나 직장근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이다. 유병률에 대한 면접조사는 이미 선진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 인구가 일반화되는 장점이 있으나 자각되지 않는 질병은 조사하기 힘들고 계절적 질병(예, 감기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점 등 단점이 있음을 유의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산식: 유병률 = 기간내(2주간) 유병자수 ÷ 대상인구수 × 100

<표 III-1> 연령별 유병률(조사 직전 2주간)

	0~4세	5~9세	10~19세	20~29세	전국민
1992	37.4	19.6	9.8	12.5	18.5
1995	34.3	20.8	12.4	12.5	19.0
1999	39.8	24.8	13.6	15.2	22.4
2003	30.5	17.8	12.0	12.8	20.8
2006	23.8	13.5	8.8	11.4	19.5

자료: 통계청, 2006 한국의사회지표, 통계청. 2006.

유병률의 추이를 보면, 한국인은 1992년 18.5%에서 1995년 19.0%, 1999년 22.4%, 2003년 20.8%, 2006년 19.5%로 다소 증감하고 있다. 이처럼 유병률이 높은 것은 인구의 고령화로 60세 이상의 유병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유병률은 1992년 26.5세에서 1995년 28.8%, 1999년 36.4%, 2003년 44.3%, 2006년 45.3%로 다른 인구층에 비교하여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청소년의 유병률은 다른 인구계층에 비교할 때 매우 낮고, 지난 10여년간 안정되어 있다. 2006년의 경우에 0~4세의 유병률은 23.8%이지만, 10~19세 유병률은 8.8%로 인구집단 중에서 가장 낮고, 이후 연령이 높아지면서 유병률이 조금씩 상승한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10~19세 청소년은 유병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평균 유병일수도 4.7일로 전체 인구의 7.1일에 비해 낮고, 평균 외병일수도 0.4일로 전체 인구의 0.8일 보다 훨씬 낮다(통계청, 2006: 340). 한편, 청소년의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도 다른 인구층에 비교하여 양호한 수준이다.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은 주요 만성질환(관절염, 고혈압, 치아우식증, 위염/소화성궤양, 알레르기성 비염, 요통/좌골통, 당뇨, 디스크, 사고후유증, 신경통 등)으로 유병률을 파악한다.

<표 III-2>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2001)

(단위: 인구 1,000명당)

	0~4세	5~9세	10~14세	15~19세	20~24세	전체
관절염	0.42	0.38	0.39	2.25	6.72	63.9
고혈압	-	-	-	1.23	0.56	57.7
치아우식증	34.98	135.65	76.46	59.76	43.41	55.0
위염, 소화성궤양	-	0.81	3.25	6.66	26.94	48.7
알레르기성비염	26.19	73.14	6.59	50.39	38.41	36.9
요통, 좌골통	-	-	0.31	2.83	8.86	35.0
당뇨	-	-	-	0.94	0.45	25.5
디스크	-	-	-	1.04	12.79	21.6
사고후유증	16.23	23.80	18.40	12.42	21.55	17.9
신경통	-	-	-	0.69	3.04	17.3

자료: 통계청, 2005 한국의사회지표, 통계청, 2005.

2001년도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을 보면, 연령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15~19세 청소년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주요 질병별로 큰 차이가 있다. 인구 1000명 중에서 치아우식증(충치)이 59.76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알레르기성 비염이 50.39명, 사고후유증이 12.42명, 위염/소화성궤양이 6.66명의

순이다. 그 밖에 요통/좌골통이 2.83명, 관절염 2.25명, 고혈압 1.23명, 디스크 1.04명, 당뇨 0.94명, 신경통 0.69명 등이다. 흔히 성인병으로 알려진 고혈압, 당뇨, 신경통 등을 앓고 있는 청소년이 소수이지만 있는 것은 최근 비만 청소년이 늘어나면서 조기에 성인병을 앓는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005년도 ‘주요 만성질환유병률’은 2001년도에 조사된 질병의 범주와 약간 차이가 있고, 10세 미만의 자료는 없으며, 10~29세가 함께 묶여 있다. 인구 천명당 10~29세 인구층의 만성질환유병률을 보면, 치아우식증이 219.17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알레르기성 비염 84.84명, 아토피성 피부염/피부 알레르기 71.42명, 디스크 18.36명, 치질(치핵) 15.33명, 위/십이지장궤양 8.61명, 고혈압 7.08명, 천식 4.96명, 만성중이염 4.17명, 골관절염 3.97명, 고지혈증 3.26명, 당뇨병 2.57명 등의 순이다(통계청, 2006: 337).

청소년의 발병율이 높은 치아우식증, 알레르기성 질병, 우울증 등의 실태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는 2006년 151개 표본구에서 만6천명을 대상으로 국민구강건강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제 비교지표인 12세 아동의 치아우식(충치) 수는 2.2개로 2003년 3.3개보다는 줄었으나 OECD 평균 1.6개 보다는 크게 높았다. 충치 유병률과 경험율은 각각 23.5%, 61.0%로 3년전에 비해 각각 14.9%, 24.3%포인트 줄었다. 또 치주질환유병률의 경우도 청소년(15세-19세)과 성인(35세-44세)이 각각 27.8%, 56.8%로 3년 전보다 10.5%, 15.6% 포인트 낮아졌다. 이처럼 치아우식이 높은 것은 식사후 잇솔질 실천율이 낮기 때문이다. 8세 아동의 점심식사후 잇솔질 실천율이 27%에 그치고 35세에서 44세의 중년층의 정기구강검진 수진율이 6%에 머무르는 등 구강건강을 위한 생활습관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었다(노컷뉴스, 2007년 6월 18일).

대한소아알레르기 및 호흡기학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어린이 청소년 알레르기 질환은 1995년 초등생의 7.7%, 중학생의 2.7%에서 2000년 조사에서는

각각 16.3%, 7.3%로 크게 높아졌다. 아토피피부염 유병률도 1995년 초등생 16.3%, 중학생 7.3%에서 2000년 조사에서는 각각 24.9%, 12.8%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하대병원 임종한 교수는 '이처럼 어린이 및 사회적 약자가 대기오염에 더 많이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질병 부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어린이 및 사회적 약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는 치료에서 사전 예방중심으로 정책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07년 5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21세기에 인류를 괴롭히는 10대 질병 중 하나로 우울증을 지적했으며, 2020년에는 우울증이 심장병 다음으로 세계 2위의 질병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도 전 국민의 8%인 약 320만 명이 매년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우울증의 증상은 우울한 기분, 흥미와 즐거움 상실, 기운이 없으며 매우 피곤하고 활동 감소성의 증상이 있어야 한다. 일시적이고 일과적인 우울한 기분은 우울증이 아니다. 최소한 우울증의 상태가 2주간 지속되어야 하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증상이 있어야 우울증으로 진단이 내려지게 된다. 입맛이 떨어져서 식사를 못하거나, 수면에 영향을 미쳐서 불면증이 오거나 새벽에 일찍 깨고, 자신에 대한 느낌도 변해서 자신을 아무런 쓸모가 없는 하찮은 존재로 인식하기도 한다.

우울증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아동이나 청소년보다는 노인에게 흔한 질환이지만, 청소년도 우울증에서 예외는 아니다. 자살에 이르게 하기도 하는 우울증의 자기진단법을 하면 다음과 같다(머니투데이, 2005년 02월 25일).

#### <10대 청소년 우울증 진단법>

1. 민감해지고 화를 잘 낸다.
2. 쉽게 지루해 한다.
3. 지나치게 죄의식을 갖는다.
4. 돌연 소리를 지른다.

5. 불만을 토로하며 가출하겠다고 말을 한다.
6. 식습관이나 식욕, 체중이 변한다.
7. 잠을 못 이루거나 지나치게 많이 잔다.
8. 항상 비애감에 빠져 있다.
9. 지나치게 활력이 줄고 무기력해 있다.
10.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11.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말을 자주 한다.

※ 위 증상 가운데 4~5개 이상의 증상이 있으면 우울증 가능성

앞에서 살펴본 치아우식증, 알레르기성 질환, 우울증 등은 당사자가 생활 습관을 바꾸고 환경에 변화를 주면 상당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치료와 함께 예방에 보다 역점을 두어야 한다. 치아우식은 음식물을 먹고 칫솔질만 자주 하는 습관을 들여도 상당히 예방할 수 있고, 알레르기성 질환도 육식을 줄이고 채식을 많이 하며, 본인의 몸에 맞지 않는 음식물을 줄이고 청소만 더 자주해도 상당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생활습관을 들이고, 질병을 예방하려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유병률을 측정할 때,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지표가 청소년의 HIV/AIDS 감염율이다. 청소년은 성적으로 성숙하고 성생활을 시작할 경우에 불특정 다수와 성적 접촉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HIV/AIDS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HIV/AIDS 감염율은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감염되거나 환자(HIV/AIDS)인 사람의 수를 인구 100,000명으로 나눈 비율이다. 현재 한국은 매년 감염자, 환자수, 사망자수를 밝히고 있다. 산식: HIV/AIDS 감염율 = HIV/AIDS 감염자수 ÷ 대상인구수 × 100,000

〈표 III-3〉 AIDS 감염자 현황

	감염자			환자수	사망자		
	계	남자	여자		계	환자사망	기타사망
1995	107	88	19	14	21	14	7
2000	219	194	25	32	52	32	20
2005	680	640	40	67	91	65	26
1985년이후 합계	3,829	3,472	357	535	721	504	217

자료: 통계청, 2006 한국의사회지표, 통계청. 2006.

한국 아동의 유병률과 질병치료는 선진국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UNICEF가 발표한 ‘2005 세계아동현황보고서’에서, 주요 국가 아동의 보건 관련 지표를 보면 한국 아동의 보건 수준은 비교적 양호하다. 안전한 식수를 마치는 인구비율을 보면, 한국은 92%로 일본, 미국,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에 미치지 못하지만 22%인 이디오피아 등에 비교할 바는 아니다. 정부지원의 EPI 예방접종률을 보면 한국은 100%로 일본, 오스트레일리아와 같고, 미국의 56%보다 훨씬 양호하다. 특히 에이즈성인감염률(15~49세)의 추정치는 0.1% 미만으로 미국의 0.6%, 프랑스의 0.4%보다 훨씬 양호한 수준이다.

질병예방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국내 에이즈 감염자 수는 219명에 불과했으나 2001년 327명, 2002년 398명, 2003년 534명, 2004년에는 614명으로 증가한데 이어 2005년에는 680명을 기록하며 5년 사이 3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2006년 6월말까지 확인된 국내 에이즈 누적 감염인수는 4,227명이며 이중 773명이 사망해 현재 3,454명이 생존해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밝힌 2006년 상반기(1~6월) 보고된 신규 에이즈 감염인이 398명이라고 밝혔다. 하루 평균 약 2.2명씩 발견된 셈이다. 또한 관심을 끄는 것은 감염 경로인데, 신규 에이즈 감염인 중 감염경로가 확인된 202명 모두가 성 접촉에 의한 감염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뉴시스, 2006년 8월 22일).

〈표 III-4〉 주요 국가 아동의 보건과 에이즈

나라	안전한 식수를 마시는 인구비율(2002) %	위생적인 화장실을 이용하는 인구비율(2002) %	정부지원의 EPI예방접종률(2003) %	에이즈성인 감염률 (15~49세) 2003년말 추정치
오스트레일리아	100	100	100	0.1
브라질	89	75	100	0.7
캐나다	100	100	-	0.3
이디오피아	22	6	18	4.4
프랑스	100	-	-	0.4
일본	100	100	100	<0.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0	59	80	-
대한민국	92	-	100	<0.1
미국	100	100	56	0.6

자료: UNICEF, 2005 세계아동현황보고서, 2004.

에이즈바이러스(HIV)는 감염인의 체액(혈액, 정액, 질분비물, 모유)을 통해 감염되며 이런 체액을 통해 HIV에 감염되는 주된 경로는 HIV감염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 감염인이 사용한 주사기, 주사바늘을 같이 사용할 경우, HIV에 감염된 혈액을 수혈 받을 경우 등이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에이즈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확실히 해야 할 것은 성관계 감염 예방’이라며 ‘특히 예전보다 성문화가 더욱 개방적이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에이즈에 대한 교육이 더욱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조사실습팀이 6개 대학생 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혼전 성관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불가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14.5%, ‘사랑하는 사이라면 무방하다’가 52.5%, ‘결혼을 약속했다면 무방하다’가 27.5%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점점 개방되고 있는 성문화에 비해 콘돔사용이나 청소년의 성교육은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고 충고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연구결과 일시적인 상대자와의 성관

게시 콘돔사용률이 23.0%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3년(10.8%)과 비교할 때 증가했으나, 스웨덴 43% 등 다른 나라에 비하면 낮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삼육대 손애리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경우 첫 성경험 연령대가 16세 전후로 조사되었으며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다. 여고생의 성경험률의 범위가 2000년대 이후 0.8~5.4%에서 8.1~13.2%로 증가하고 있으며 성매매 비율도 전체 성관계 중 1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층의 에이즈 관련 지식도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콘돔 사용률도 남학생의 경우 12.5%, 여학생의 경우 10.6%에 그쳤다(연합뉴스, 2004년 11월 10일).

한편, 에이즈가 성인 뿐 아니라 어린이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알리는 보고도 있었다. 국제아동구호 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 한국 위원회, 월드비전, 플랜 코리아 등 4개 단체가 연대해 에이즈 감염 어린이 치료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하는 보고서와 성명서를 최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매 1분에 세계 어린이 중 한 명이 에이즈로 사망하고 있으며 하루 약 2,000명의 어린이가 에이즈에 감염되고 있다고 밝혀졌다.

국제아동구호단체연대는 '국제사회는 에이즈가 인류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여기고 있으나 15세 이하 230만명의 어린이가 에이즈 보균자이다'며 '이 감염 어린이 대다수는 어떤 형태의 보호나 치료도 받고 있지 못하다. 현재 감염 어린이중 5% 미만의 어린이만이 소아과적인 에이즈 치료를 받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에서 에이즈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진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은 2006년 12월 21일에 전문가 및 학계에 인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선정한 에이즈 10대뉴스 발표했다.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뉴시스, 2006년 12월 20일).

1. 에이즈 신규감염 하루 2.1명: 올해 들어 하루 평균 2.1명씩 에이즈 신규 감염인이 발견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13%나 증가한 것이다. 올해 국내 신규 감염인 572명 중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경로가 밝혀진 366명은 모두 성 접촉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2. 최후까지 에이즈·조류인플루엔자 예방 혼신…사망한 이종욱 WHO총장: 이종욱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한국인 최초의 유엔 산하 국제기구 수장이었다. 그는 2003년 7월21일 WHO 사무총장에 공식 취임했다. 이 총장은 이곳에서 에이즈(AIDS)와 결핵,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Avian Influenza), 중증급성호흡부전증후군(SARS) 등 전염병의 퇴치와 예방, 세계 각국의 보건통계 및 보건의료 행정 지원 등 그야말로 세계인의 건강과 복지관련 일을 도맡아 총괄했다.
3. 청소년 대상 에이즈 예방-성(性)교육 콘서트 열어: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에이즈(HIV/AIDS) 감염인 가운데 청소년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에이즈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청소년 콘서트 ‘아름다운 날들’을 개최했다.
4. 동남아 국제결혼 ‘에이즈’ 비상: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지난해 6~12월 혼인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받은 베트남 여성 532명 중 67명이 성병과 B형 감염 등을 보유하고 있었고 2명은 에이즈 감염인으로 밝혀져 비자 발급 허가를 취소했다.
5. 에이즈 외국인 감염률 내국인보다 월등히 높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가운데 매년 50여 명의 신규 에이즈 감염인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국내 신규 에이즈 감염인 500~600명의 10% 안팎이지만 인구 대비 감염인 비율은 외국인이 훨씬 높아 인구 10만명당 11.1명에 해당되는 수치다.
6. 에이즈 감염인 근로차별 금지: 보건복지부는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일체의 근로 차별을 금지하고 감염인 사망시 신고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으로는 병가 등 관련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며, 건강상의 이유로 해고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7. 질병 관련 외국인 추방 에이즈 최다: 질병 때문에 추방된 국내 체류 외국인중 에이즈가 주요 추방사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이후 올 6월까지 질병 문제로 추방된 보호외국인은 모두 143명으로 이중 61.5%인 88명이 에이즈에 감염됐던 것으로 집계됐다.

8.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에이즈예방지원센터(KHAP)’개소: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은 복권기금,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외국인 에이즈예방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지난 11월 6일 개소했다.
9. 성(性)-에이즈 가치관 정립 위한 ‘아우라’ 국제청소년영화제 개최: 청소년들의 성(性)과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주제로 청소년 영화제인 ‘제1회 청소년 국제영상 페스티벌 아우라’가 개최됐다.
10. 에이즈 감염인 인권 증진 위한 예방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애자 의원과 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에이즈 예방법 대응 공동행동은 지난 6일 오전, 에이즈 감염인 인권 증진을 위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전부개정안’ 입법을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정안은 기존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명칭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및 감염인 인권 증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실질적인 익명검사 고지, 전파매개행위 금지조항 삭제, 집단 강제검사 실시금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군입대 청소년이나 기숙사에서 단체생활을 하는 고등/대학생과 같이 특수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에이즈 예방교육도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국방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 반 동안 군내 에이즈 감염자 60명 중 12명이 내국인 동성자와 접촉해 에이즈에 걸렸다. 31명은 내국인 이성과의 성 접촉에 의해 감염됐다. 수혈로 감염된 경우도 1건 있었다. 나머지 16명은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다. 연도별로는 2005년 22명, 2006년 23명, 2007년 상반기까지 15명으로 증가 추세다. 계급별로는 훈련병에서 에이즈가 가장 많이 발견됐다. 2005년부터 해마다 13명, 15명, 11명으로 연도별 감염자의 3분의 2 가량이다. 상당수가 사회생활에서 에이즈에 감염된 뒤 입대했음을 뜻한다. 징병검사 때 에이즈 검사를 하지만, 검사 이후 입대까지 기간이 있어 감염자 입대를 실질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국민일보, 2007년 9월 11일).

### 3. 관련 정책과 대안 모색

청소년의 유병률을 낮추고 질병치료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습관의 유지와 질병의 예방사업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어린 시절의 예방접종은 성장한 후에도 건강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되고, 건강한 생활습관은 질병을 예방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와 사회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전문 진료과목을 만들고, 이들을 위한 전문병원을 더욱 증설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어린이병원을 건립하는 사업은 더욱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강원도는 보건복지부가 2007년도 어린이병원 건립희망기관을 공모/심사한 결과 최종 사업대상자로 강원대학교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2010년까지 국비 150억원과 자부담 150억원 등 3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00병상 규모의 병원을 강원대 병원내에 건립하게 된다. 어린이병원은 태아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산전 모자보건, 신생아 유아, 소아, 청소년 시기별로 특화된 전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어린이 전문의료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뉴시스, 2007년 8월 14일).

또한 민간병원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아 및 희귀질환아동 지원, 아동사고 방지, 아동학대 예방, 병원학교 운영, 청소년우울증의 조기검진 등으로 강원지역의 어린이질환 유병률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질환 발병 후에는 진행 및 합병증 발생을 예방해 환자와 그 가족들의 의료비 경감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와 복지를 연계하는 거점중추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최근 아동과 청소년 사이에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고혈압, 당뇨, 신경통 등은 비만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비만을 예방하거나 이미 비만인 청소년이 체중을 감량하도록 하는 사업을 다각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다.

예컨대 의학적으로 비알콜성 지방간은 비만 인구의 증가와 함께 발병율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이와 같은 지방간 질환을 되돌리거나 간경화로

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치료도 없다. 브라질 사우파울로대학 다마스 코 박사팀은 임상실험을 통해서 잘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뚱뚱한 소아들의 간에 지방이 쌓여 지방간이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뉴시스, 2006년 12월 22일).

다마스코 박사팀은 73명의 10대 비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12주간의 영양교육과 주 당 2회의 1시간의 운동이 지방간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연구했다. 연구 시작 당시 이 중 52%가 간 우측에 48%가 간 좌측 부위에 지방간 증상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결과 12주간의 영양교육과 운동 처방 후에 간 좌,우측 부위의 지방간의 유병률이 모두 29%로 현저하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만인 10대 청소년들이 복부 장기를 둘러싼 체지방이 감소됐으며 BMI로 불리는 체질량지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에 있어서는 48%가 체중이 연구 전후 같은 상태로 유지된 반면 4%에서 체중이 증가된 반면 48%에선 체중의 감소를 보였다. 다마스코 박사는 갑작스런 체중의 급격한 감소가 실제 간 기능을 악화 간부전을 유발할 수 있으며 점진적인 체중 감소가 지방간 위험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특히 청소년 사이에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는 HIV/AIDS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염 경로가 밝혀진 HIV/AIDS 발병의 대부분이 성적 접촉으로 밝혀졌으므로 보다 안전한 성생활을 적극 교육시켜야 할 것이다. 최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HIV/AIDS 감염율이 한국인보다 훨씬 높고, 한국인이 비교적 자주 여행하는 동남아에서 HIV/AIDS 감염율이 높기 때문에 안전한 성생활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에이즈예방을 위한 성교육과 함께, 국가는 에이즈 조기확인검사체계를 갖추어서 에이즈의 확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통제해야 할 것이다. 2007년 1월부터 서울시를 비롯한 16개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에이즈 조기확인검사체계는 에이즈확인진단기간을 종전 약 3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시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뉴시스, 2007년 9월 14일).

에이즈는 청소년의 삶도 비껴가지 않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다소 충격적인 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에이즈 예방을 위한 한 방법이다. 다음 사례는 2007년 6월 월드비전이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에서 소개한 ‘에이즈 체험관’에 대한 관련 기사이다. 좀 더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 인터넷언론 기사를 그대로 소개한다(오마이 뉴스, 2007년 6월 3일).

[기사] 열세 살 당신, 에이즈를 느껴보세요

에이즈(AIDS) 환자의 심정, 아시나요? 국내 최초로 에이즈 체험관이 생겼습니다. 국제구호개발기구인 월드비전(회장 박종삼)이 1일부터 사흘 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몰에서 연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에서입니다.

월드비전은 30평 규모의 체험관에서 에이즈에 걸린 소년 로모이(13·아프리카 말라위)의 일생 중 일부(2001년 12월~2003년 5월)를 체험케 했습니다. 단체가 제공한 MP3 파일을 들으며 체험관 안으로 들어가면, 사진과 재연된 로모이의 집 등을 통해 로모이의 삶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간은 약 30분 정도. 다음은 체험관 내용을 바탕으로 쓴 로모이의 가상 기사입니다.<오마이뉴스 편집자 주>

‘저벅, 저벅, 저벅.’

누군가 다가옵니다. 마을의 한 아저씨가 ‘로모이, 나와 함께 병원에 가자, 아니길 바라지만 혹시 너도 부모님처럼 에이즈에 걸렸을지 모르니까...’라며 제 손을 끌어 병원으로 갑니다.

나쁜 일이 벌어질 것 같던 예감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우리 가정의 ‘불청객’ 에이즈는 13살인 저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박지성 선수 같은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겠다는 꿈은 차츰 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 남동부의 말라위에 사는 로모이입니다. 월드비전 덕분에 사진으로나마 한국 친구들을 만나게 되네요. 부모님을 잃고 갈 곳 없던 제가 서울 친구들을 사귀게 되다니, 믿기지 않

는데요?

저는 여러분의 소년 시절 모습과 다름없는 13살 소년입니다. 축구를 좋아하고, 맨발로 친구들과 달리기 시합을 즐깁니다. 이곳이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 13살 에이즈 환자 로모이의 삶

하지만 에이즈는 저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에이즈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4살 때 아버지가 떠났습니다. 도시에서 일하던 아버지는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됐고, 곧 이 몹쓸 병은 어머니에게 전염됐습니다. 그리고 이 병에 감염된 제가 태어났습니다.

죽음은 어머니를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어머니는 온 몸이 상처투성이인 채로 돌아가셨습니다. 유언 한 마디 남기지 못하고 숨을 헐떡이며 떠났습니다. 저 혼자 이 세상에 남겨두고요. HIV와 함께.

HIV를 짊어지고 이 세상을 살기는 쉽지 않더군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따위 뭐가 중요하냐고요? 생계가 문제겠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에이즈에 걸린 아이가 왜 시장에 나오느냐', '너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는 불멘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구슬을 꿰어 하루 1달러씩 벌던 수입도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누워 계시는 동안, 물을 길어오고 나무를 해오던 집안 일도 제 몫이었습니다.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을 만나 떠들고 노는 13살짜리 일상과는 많이 다르죠. '모든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다'는 말은 저 같은 아이들에게는 예외인가 봅니다.

### 에이즈보다 더 큰 고통, 편견

들리는 말로는, HIV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깨끗한 환경에서 제대로 치료받으면 바이러스 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완전한 치료약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HIV에 감염된다고 해서 다 죽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사회도 AIDS에 대한 편견이 꽤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HIV가 접촉을 통해 전염된다는 것이나 AIDS는 더러운 병이라는 것 등. HIV보다 환자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들이죠.

얼마 전 한국에서 주목받았던 TV 드라마에 저와 같은 처지의 어린 친구가 등장해 큰 감동을 줬다고 들었습니다. HIV에 감염된 친구가 텅 빈 교실에서 혼자 친구들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찡했는데, 그 친구의 외로움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겨우 13살. HIV 감염의 고통, 부모님을 잃은 슬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등을 감당하기엔 전 너무 어렵습니다. AIDS에 대한 편견만이라도 깨주신다면, 어두운 일상에 희망이 보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전 세계 어린이 중에서 1분에 한 명꼴로 HIV에 감염되고 있고, 1,400만 아이들이 에이즈로 고아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난 3월까지 4,755명의 감염인 중 864명이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라에 사는 사람 중 4천여명도 저처럼 말 못할 고통을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할 권리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AIDS 체험관을 통해 30여분 동안 제 삶을 경험해보셨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이것은 체험일 뿐입니다. 체험관을 빠져나가면 여러분은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어두운 현실에 맞닥뜨린 HIV 감염인들의 심정, 조금만 알아주시면 안 될까요?

## IV. 청소년 결식비율과 저체중/비만 대책

### 1. 결식비율 지표의 의미

청소년의 생존권 관련 지표에서 영양의 중요성은 늘 강조되었다. 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지표는 ‘1일당 영양권장량 75% 미만 섭취자 비율’ 등 영양실조자의 비율이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영양실조자를 찾는다는 것은 어렵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하여 인구의 140만명 이상이 생계급여를 받고 있기에 이러한 지표는 그 실효성이 별로 없게 되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0교시 등 지나치게 빠른 등교로 말미암아 아침식사를 결식하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침 식사의 결식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른 인구층에도 널리 확산되는 생활양식이기에 생존권에서 다루기에는 적합성이 좀 떨어지지만 의미있는 한 지표로 다룰 수는 있겠다. 아침식사를 거의 매일 결식하는 사람의 백분율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산출될 수 있다. 산식: 아침식사 결식 비율 = 아침식사 결식자 수 ÷ 대상인구수 × 100

청소년 영양 관련 지표에서 의미있게 다루어야 할 것은 신체질량지수(BMI)상 저체중율과 비만율이다. 신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는 신장과 체중을 알고 있을 경우 신장에 대한 체중의 비율임. 지수의 범위는 남성과 여성간에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남녀의 경우 25정도(18.5~24.9)면 정상으로 18.5미만은 저체중을 의미하고, 25.0~29.9는 과체중, 30.0~34.9는 경도비만, 35.0이상은 고도비만을 의미한다.

현재 한국에서 신체질량지수(BMI)는 국민의 영양상태를 반영하는 성장지표이며 대표학년인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의 성장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측정된다. 그 산식은 다음과 같다. 산식: 신체질량지수(BMI) = 체중(kg) ÷ 신장m<sup>2</sup>

한국 사회에서는 신체질량지수상 저체중도 문제이지만, 최근 아동과 청소년

년의 과체중과 비만이 늘어나면서 신체질량지수상 비만이 더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 2. 관련 통계

건강한 생활은 물, 공기, 땅, 음식물 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 지구가 온난화 현상으로 영향을 받고, 지구촌 시대에 식료품이 전세계에서 자유롭게 유통되기 때문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물, 공기, 땅, 음식물 등 모든 요인을 점검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은 산업화와 도시화를 통해서 환경이 많이 오염되었지만, 식량증산 등을 통해서 영양실조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했다. 하지만, 전 세계는 아직도 빈곤과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에 관련된 통계를 먼저 개략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UNICEF가 밝힌 ‘2005 세계아동현황보고서’에 근거하여, 한국 아동의 영양 상태를 주요 국가 아동의 그것과 비교하면, 저체중신생아는 한국이 4%로 미국(8%), 일본(8%), 프랑스(7%) 등보다 훨씬 양호하다.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5세 미만 어린이도 한국은 관련 통계가 없을 만큼 양호한 수준이다. 반면에, 북한은 저체중 신생아의 비율이 7%이고, 약간 혹은 심각한 수준의 저체중이 21%, 쇠약이 8%, 발육부진이 42%로 영양수준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체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 주요 국가 아동의 영양

나라	저체중 신생아 (1998~2003) %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5세미만 어린이(1995~2003)			
		저체중/약간 혹은 심각	저체중/심각	쇠약/약간 혹은 심각	발육부진/ 약간혹은 심각
오스트레일리아	7	-	-	-	-
브라질	10	6	1	2	11
캐나다	6	-	-	-	-
이디오피아	15	47	16	11	52
프랑스	7	-	-	-	-
일본	8	-	-	-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7	21	-	8	42
대한민국	4	-	-	-	-
미국	8	1	0	1	2

자료: UNICEF, 2005 세계아동현황보고서, 2004.

전 세계적인 사망의 약 40% 가량이 물과 대기오염, 토양오염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HO의 최근 보고에 의하면 인구증가, 환경파괴 이 두 가지가 영양실조와 37억 인구의 질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2007년 8월 20일).

‘인류생태학저널’ 온라인 판에 발표된 이번 연구결과 인류가 물과 땅, 에너지 등의 환경자원문제와 더불어 식품공급 부족, 영양실조와 질병발생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영양부족 상태가 1950년대 25억의 인구 중 20%였던 데 비해 현재 65억 인구 중에서는 57%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에 영양실조는 한 해 6백만명 어린이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이 밖에도 수 백만명에게 급성 호흡기 감염, 말라리아, 기타 위협적인 질병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세계인구 중 절반이 적절한 위생시설이 부족하고 홍역이나 인플루엔자 같은 유행성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도시지역에 밀집해 살고 있으며 수질이 떨어지는 곳에 거주하는 120만 인구는 감염질환의 80%를 차지하는 수인성 전염병을 앓고 있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심각한 수질오염은 일년에 120만명에서 270만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말라리아 모기를 양산하고 있다. 한편 대기오염은 연간 300만명의 사망 원인이 되고 있으며 비위생적인 환경이 해마다 500만명의 사망을 초래하고 이 중 절반 이상이 어린이들이다. 매연과 화학물질에 의한 대기오염이 일년에 300만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며 미국에서만 300만톤에 달하는 독소화학성분이 환경으로 배출되고 이로 인해 이는 암과 선천성 결손, 면역체계결핍과 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연구팀은 깨끗한 물, 넉넉한 음식과 함께 하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며 이들의 경우 공기나 물, 그리고 토양오염으로 인해 영양실조로 전개될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갈수록 늘어나는 질병과 영양부족에 대해 인구 수 제한에만 의존하는 것은 모든 인류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인간이 생존하는데 꼭 필요한 깨끗한 식수조차도 확보하지 못한 곳이 지구촌 곳곳에 있다. 아프리카가 가장 심하고, 중남미,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가 특히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2005년 기아로 인한 희생자 수를 집계했다. 2005년 기준으로 10세 미만의 아동이 5초에 1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으며, 비타민 A부족으로 시력을 상실하는 사람이 1/3명꼴이다. 그리고 세계인구의 1/7에 이르는 8억5천만명이 심각한 만성적 영양실조 상태에 있다. 기아에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2000년 이후 1,200만명이나 증가한 것이다. 아프리카에서는 현재 전 인구의 36%가 굶주림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다(오마이뉴스, 2007년 8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중남미/카리브 해안지역에 사는 18세 미만 아동은 1/3이 식수공급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남미 및 카리브 지역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어린이/청소년의 3분의 1이 식수공급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엔 중남미/카리브 경

제위원회(CEPAL)가 2007년 7월 31일 발표했다(연합뉴스, 2007년 8월 1일).

칠레에 본부를 둔 CEPAL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중남미와 카리브 지역에 거주하는 0~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 가운데 35.3%가 식수공급도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에 살고 있으며, 영양실조로 인한 사망 위험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일부 지역의 경우 식수공급 부족 외에도 어린이/청소년의 42.7%가 매우 심각한 공중위생 불량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농촌지역과 원주민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주거환경이 극도로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이어 '식수공급 부족과 낙후된 공중위생 시설은 2천100만명으로 추산되는 이 지역의 0~5세 어린이들이 영양실조로 사망하는 비율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CEPAL은 중남미.카리브 지역의 이 같은 열악한 환경은 지난 2000년 유엔이 정한 새천년 개발목표(MDG) 달성에도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남한)에서는 어느 정도 해결한 결식과 영양실조의 문제는 2007년 오늘날도 북한에서는 현실의 문제라고 알려져 있다. 2007년 7월 25일에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은 소식지를 통해 '최근 한달 사이에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3백여명이 숨져 당국에서는 질병에 의한 사망자라고 밝히고 있으나 자연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망자는 기본적으로 영양실조 때문에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좋은벗들'은 사망자를 진단한 도 병원 의사의 말을 인용해 '숨진 주민들은 완전히 먹지 못해 굶어죽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영양실조에 각종 질병이 생긴데다 무더운 날씨에 고된 일을 하다 보니 체력이 급격히 저하되면서 제 때 영양보충이나 치료를 못해 사망한 것'이라고 말했다(노컷뉴스, 2007년 7월 25일).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참조] 2007년 7월 25일 (수) 18:26 노컷뉴스

‘북한, 함흥에서만 한달새 300명 굶어 죽어’

북한의 함경남북도 지역에서 아사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함흥시의 경우 최근 한 달 사이에 3백여명이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고 대북인권단체가 주장했다.

대북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은 25일 소식지를 통해 ‘최근 한달 사이에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3백여명이 숨져 당국에서는 질병에 의한 사망자라고 밝히고 있으나 자연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망자는 기본적으로 영양실조 때문에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함경북도 청진, 라남, 경성, 어랑, 부령, 길주, 명천 등지에서 아사자가 계속 발생해 각 병원에서 매일 3-5명이 숨지고 있으며 온성군의 통계에 따르면, 7월 들어서 현재까지 읍에서만 80여명 이상, 농촌 마을에서도 40~50명가량이 숨졌다고 말했다.

북한 당국에서는 아사자가 계속주민들의 동요를 우려해 시급히 식량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당국은 ‘쓸 만한 거 모두 팔아서라도 보름은 견지하라’면서 ‘함흥의 공장, 기업소, 기관별로 각자가 책임을 지고 식량을 해결하라는 지시를 내려 해외 관계자들과 무역상인들을 시켜 가능한 식량 통로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현지 상황을 긴박하게 전했다.

함경북도 무산지역에서도 이미 수십 명이 사망해 정부에서는 인민반이나 동사무소를 통해 극빈층이나 노약자만 사는 세대에 특별히 감자를 조금씩 보조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좋은벗들’은 사망자를 진단한 도 병원 의사의 말을 인용해 ‘숨진 주민들은 완전히 먹지 못해 굶어죽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영양실조에 각종 질병이 생긴데다 무더운 날씨에 고된 일을 하다 보니 체력이 급격히 저하되면서 제 때 영양보충이나 치료를 못해 사망한 것’이라고 말했다.

함경북도 주원에서는 인민반 25-30세대에서 하루 한 끼니도 먹지 못하는

집이 벌써 5-6세대나 되고 온성읍에서도 주민들의 생활이 점점 어려워 이렇게는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워져서 감자와 옥수수에 목지가루를 넣어 반죽한 음식을 먹고 있으며 사정이 나은 집들은 바닷가에 사는 친척들을 통해 미역보다 싼 바다풀 깐드레를 구입해 먹고 비교적 힘이 있는 단위나 기업소에서 인근 농장과 연계해 감자 배급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식량난이 계속되면서 쌀 가격은 1킬로그램에 7월 20일 현재 사리원은 가장 낮은 980원을 보이고 있으나 함경북도 온성은 1,060원, 회령 1,130원이었고, 청진은 1,400원까지 올랐으며 시장에서 쌀 구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좋은벗들'은 밝혔다.

이에 비해 평양 지역에는 지금까지 밀린 배급이 전량 공급됐으며 군인들에게도 식량이 공급되면서 안정을 찾고 있다고 말하고 평양지역은 외국 원조로 인해 식량이 공급된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컷뉴스 안윤석 대기자 [ysan@cbs.co.kr](mailto:ysan@cbs.co.kr)

1996년에 FAO 주최로 로마에서 열린 제 1회 세계식량 서밋에서는 '2015년까지는 지구상의 기아인구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모든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2000년 이후에도 세계의 굶주림은 더 심각해졌다. 본격화한 세계화가 가난한 나라를 다시 한번 늪에 빠뜨렸기 때문이다. 부의 쏠림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되었고, 국가는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극 속에서 장지글러는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책에서 식량가격을 결정하는 선진국의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이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미국이 생산할 수 있는 곡물 잠재량만으로도 전 세계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고, 프랑스의 곡물생산으로 유럽 전체가 먹고 살 수 있다고 한다. 식량을 비싼 가격에 팔기 위해서 노력하는 다국적 기업이 굶주리는 아동과 청소년을 양산한다는 것이다(오마이뉴스, 2007년 8월 21일).

지구촌의 한쪽에서는 결식과 영양실조가 걱정이지만, 한국사회는 아동과

청소년의 저체중과 비만이 동시에 새로운 사회문제로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침 결식은 청소년에 한정된 사안은 아니다. 주부클럽 충남지회의 조사에 따르면, 천안아산지역 주민들의 18.9%가 아침식사를 거의 먹지 않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결식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483명을 대상으로 주중 아침식사 횟수에 대해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18.9%가 거의 먹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거의 매일먹음’ 48.9%, 1-2회 13.7%, 3-4회 18.8% 등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아침을 거의 먹지 않는 비율이 23.5%로 여성 16.2%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연령별로는 20대가 33.0%로 가장 높았으며 30대 22.0%, 10대 21.5%, 40대 14.1% 순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2007년 8월 30일).

한국사회에서는 영양실조보다는 영양과다로 인한 비만이 더 큰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신체질량지수가 25정도(18.5~24.9)면 정상으로 18.5미만은 저체중을 의미하고, 25.0이상은 비만으로 일컬어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비만율은 1998년 22.8%에서 2001년 30.6%, 2005년 31.8%로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 20~24세 청소년의 비만율도 2001년 16.2%와 2005년 17.3%로 증가되고 있다. 반면에 저체중의 비율은 1998년 10.1%에서 2001년 4.6%와 2005년 4.7%로 낮아졌다.

청소년의 비만은 해가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다. 2006년 국내 초·중·고등학생 비만율은 11.6%로 저학년보다 고학년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비만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학생중 75.6%가 치아, 시력 등 적어도 1개 이상의 건강항목에서 이상 징후가 나왔고 학년이 높을수록 이상 소견 비율이 증가해 일선 교육현장 건강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문화일보, 2007년 9월 21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초·중·고생 2006년 신체 발달 상황 및 건강 검진 결과’에 따르면 비만율은 초등생 11.2%, 중학생 11.2%, 고교생 12.8% 등으로 평균 11.6%를 기록, 10명중 1명 이상이 비만으로 나타났다. 남학생 비만율은 초등생 13.0%, 중학생 13.6%, 고교생 15.0%로, 여학생 비만율 초등생 9.3%, 중학생 8.7%, 고교생 10.5%에 비해 더 높았다. 비만 정도는 경도비만이 6.4%, 중등도 비만 4.3%, 고도 비만 0.8% 등이며 특히 고도 비만은 2004년 0.7%, 2005년 0.7%에 비해 매년 높아지고 있다.

비만 학생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혈당상승 1.8%, 총콜레스테롤 상승 1.6%, 간기능 검사 이상 12.9%로 나왔다. 학생 1인당 검진항목 이상 소견 수는 1.22개로 학생 1명이 적어도 1개 이상의 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 1개 이상을 앓고 있는 학생 비율은 남 초등생 64.6%, 여 초등생 69.0%, 남 중학생 78.4%, 여 중학생 84.9%, 남 고교생 86.7%, 여 고교생 86.8%로 고교생의 경우 10명중 9명 가까이가 질환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전국 초·중·고 468곳을 표본 추출한 뒤 학생 11만2191명의 신체 발달 상황 및 3만7401명의 건강 검진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표 IV-2〉 청소년의 비만율

조사연도	연령집단	저체중	정상	비만
1998	10~18세	33.7	58.4	7.9
	전체	10.1	67.1	22.8
2001	20~24세	13.5	70.3	16.2
	전체	4.6	64.7	30.6
2005	20~24세	7.4	75.3	17.3
	전체	4.7	63.5	31.8

자료: 통계청, 2005 한국의사회지표, 통계청. 2005.

통계청, 2006 한국의사회지표, 통계청. 2006.

비만은 모든 성인병과 관련성이 있고 최근 아동과 청소년 중 성인병이 늘어나는 것도 비만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

르면 10~19세 청소년들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전체 평균 7.1%로 나타났는데 과체중 위험군에서는 11.2%, 과체중군에서는 36.6%로 나타났다(머니투데이, 2007년 6월 21일).

비만은 그 자체로 성인병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비만으로 인한 신체나 외모에 대한 불만족이 낮은 자존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대 대학원 신나영은 ‘아동기 비만과 자존감 및 우울의 관계: 신체상 매개모델 검증을 중심으로’란 학위논문을 통해서 비만과 자존감과는 상관성이 높다는 것을 밝혀냈다.

신씨는 대전·충남 지역 3개 초등학교 5~6학년 아동 506명과 부모를 조사해 정상, 과체중, 비만 집단의 신체상 만족감, 자존감 및 우울의 차이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비만 아동의 전반적 자존감 점수는 15.84로, 정상체중(17.46)이나 과체중(17.40) 아동에 비해 상당히 낮았다. 특히 비만 여아들의 경우 학업 영역 자존감 점수 평균이 13.90로 정상체중(15.41)이나 과체중(16.54) 여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비만이 학업 자신감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 아동들의 자기 신체에 대한 만족도를 계량화한 H-SPPC PA(외모에 대한 하터의 아동 자기지각 척도) 점수는 평균 11.91로, 정상체중(15.47)이나 과체중(14.47) 아동에 비해 현격히 낮았다(연합뉴스, 2006년 2월 16일).

### 3. 관련 정책과 대안 모색

유아사망률 감소와 저체중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영국의 ‘임신 중 건강보조금’ 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BBC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임신한 여성 모두에게 보조금 120파운드(약 23만 원)를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신 7개월째 지급되는 이 보조금으로 임신한 여성들이 과일, 야채 등을 구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는 태아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가 출생 전 아기의 건강까지 챙기는 셈이다.

‘임신 중 건강 보조금’이라는 이 계획은 2009년 4월부터 시행되며 매년 평균 63만 명의 임신부에게 8,000만 파운드(약 1,500억 원)가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큰 목적은 ‘유아 사망률 감소’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영양 섭취가 좋지 못한 임신부는 조기 출산을 하거나 저체중 아기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태아 때 필수 영양분이 부족하면 태어난 후 심장질환, 폐 기능 저하 등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동아일보, 2007년 9월 10일).

한국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급식을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다. 또한 방과후 학습지도와 중식 혹은 석식지급을 위하여 전국에 2,200여개소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의 비만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이미 비만인 청소년의 감량 등을 돕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비만을 예방하거나 관리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소아비만은 또한 잘못된 생활습관에서 온다. 부모들이 소아비만의 위험성에 대해 차분히 설명하고 소아의 생활습관을 조금씩 고쳐 나가는 행동수정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즉 식사와 관련해서는 천천히 먹기, 다른 일을 하면서 먹지 않기, 한 끼에 몰아서 식사하지 않기 등 구체적인 항목을 정해 두고 실천하는 게 좋다. 이후 행동의 변화와 체중 변화에 대해 포상을 하는 등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괜찮다. 생활습관이 단기간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소아비만에 대해서는 가족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운동을 하더라도 무분별한 식습관이 계속되면 소용이 없다. 운동 후 배가 고파 더 폭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패스트푸드 섭취를 줄이는 등 간식을 엄격하게 조절하는 부모들의 지혜가 필요하다(노컷뉴스, 2007년 1월 27일).

비만은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할 일이 아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비만을 관리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써야 한다. 이점에서 서울시

구로구의 노력은 돋보인다. 구로구는 비만이 대사증후군을 일으키는 결정적 원인이라고 보고 향후 10여년간 장기적으로 소아비만과 어린이 대사증후군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는데 이 계획은 다른 지역에서도 도입함직하다.

구로구는 어린이 대사증후군 관리를 위해 집단추적연구(코호트 측정)를 실시한다고 2007년 6월 21일 밝혔다. 구는 주로 성인들에게 나타나는 대사증후군(복부비만,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중 3가지 이상이 특정 기준치를 넘는 증세)이 어린이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아래 코호트 측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구는 고대 구로병원과 관내 초등학교를 연계해 어린이 대사증후군 퇴치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1단계로 초등학생들의 비만과 대사증후군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장기집단추적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어린이 대사증후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소아비만과의 관계 조사에 나선 것은 소아비만이 어린이 대사증후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조사방법은 관내 8개 초등학교 3학년 학생 1,052명을 대상으로 비만,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의 수치를 조사한 후 이 학생들이 6학년이 되는 해 다시 한번 동일한 검사를 실시한다(머니투데이, 2007년 6월 21일).

## V. 청소년의 건강관리와 규칙적 운동

### 1. 규칙적 운동 지표의 의미

청소년 생존권을 적극적으로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는 객관적인 건강상태와 함께 스스로 얼마나 건강하다고 인식하느냐이다. 객관적인 건강상태는 키, 몸무게, 가슴둘레 등 신체적 발육상태와 영양상태 등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청소년 본인이 청소년 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평가 수준도 매우 의미있는 지표이다. 한국의 사회지표는 ‘주관적 건강상태’를 매우 좋다, 건강한 편, 보통, 나쁜 편이다, 매우 나쁜 편이다 등 5점척도로 분석하고 있다. 산식: 청소년 주관적 건강평가 = 주관적 건강평가 수준 ÷ 대상인구수 × 100

주관적 건강상태와 함께 널리 사용되는 지표는 ‘스트레스 인식정도’이다. 청소년 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 인식정도의 백분율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의 사회지표는 스트레스가 매우 많음, 많이 느낌, 조금 느낌, 거의 없음 등 4점척도로 파악하고 있다. 산식: 청소년 스트레스 인식정도 = 스트레스 인식정도 수준 ÷ 대상인구수 × 100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실천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한국 청소년은 과중한 학업부담 때문에 여가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청소년이 현재 얼마나 운동을 하고 있는지는 건강관리 상태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성인으로 성장한 이후의 건강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이다.

청소년 규칙적 운동실천율은 규칙적으로 운동을 실천하는지와 그 정도를 파악한다. 즉, 청소년이 1일 30분 이상 걷는 비율, 중등도 운동실천율, 고강도 운동실천율 등으로 파악된다. 산식: 청소년 규칙적 운동실천율 = 규칙적 운동실천자수 ÷ 대상인구수 × 100

## 2. 관련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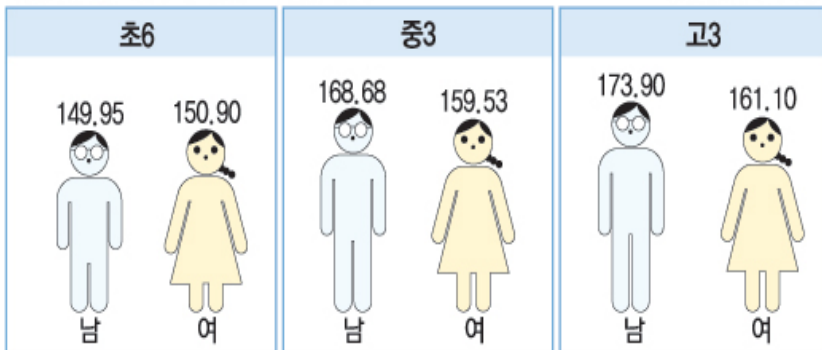
한국 청소년은 지난 20여년간 키가 3~8cm 더 커지고, 몸무게도 2~10kg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2006년도 학생 신체발달 상황 및 건강검사결과’에 따르면, 2006년 전국 468개 초중고교에서 초등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교 3학년 등 11만2191명의 신체발달 상황과 3만 7,401명의 건강상태를 조사한 결과 학년별 평균 키가 20년 전보다 3~8cm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의 평균 키는 149.95cm로 20년 전에 비해 8.05cm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학년 여학생 평균 키도 7.24cm가 커진 150.90cm였다. 중3의 경우 남학생은 168.68cm로 20년 전보다 7.98cm가, 여학생은 159.53cm로 3.94cm가 커졌다. 고3 남학생과 여학생도 각각 4.75cm와 3.35cm가 커진 173.90cm, 161.10cm로 나타났다. 이는 생활수준 향상으로 영양 섭취가 좋아졌고 운동 등 건강관리에도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몸무게도 20년 전보다 2~10kg 늘어났다. 고3 남학생은 20년 전에 비해 7.71kg이 늘어난 68.16kg으로, 여학생은 2.26kg 증가한 55.43kg이었다. 그러나 중3 남학생과 고3 여학생의 몸무게는 지난해보다 0.2~0.6kg 줄어 최근의 참살이 문화와 다이어트 열풍을 반영했다(동아일보, 2007년 9월 21일).

2006년 초중고교생 키(단위: cm)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같은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교생의 75.62%가 한 개 이상의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앓고 있는 질병이 1개인 학생이 40.77%였고, 2개인 학생은 24.84%, 3개인 학생은 7.82%였으며 최고 7개 질병을 앓는 경우도 있었다. 학년이 높을수록 질병이 많아서, 고교생은 남자의 86.75%, 여자의 86.84%가 1개 이상 질병이 있을 정도로 건강이상 현상이 가장 심각했다. 남녀 초등생은 64.60%와 69.06%, 남녀 중학생 78.43%와 84.96%가 질병을 앓고 있었다.

학생의 질병률은 치아 이상과 관련된 질병이 가장 높았다. 치아우식증(세균에 의해 치아가 녹는 현상)이 43.43%였고, 부정교합 9.39%, 치주질환 6.48% 순이었다. 42.19%는 시력 이상자였고, 코·목 등의 이비인후과 질환(8.16%)과 피부질환(3.83%)도 2005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다. 이처럼 질병이 급증한 것은 학생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는 점도 있지만, 2005년까지 학교에서 실시하던 건강검진을 2006년 처음 전문병원에서 실시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검진된 탓도 있다(쿠기뉴스, 2007년 9월 20일).



청소년이 주관적으로 인식한 건강평가는 다소 양호한 편이다. 2006년에 15~19세 청소년은 자신이 건강한 편(48.7%)이라고 인식하고, 매우 좋다(20.9%)를 포함하면 69.6%가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반면에 나쁜 편(2.3%)과 매우 나쁘다(0.1%)를 포함하여 2.4%는 나쁜 편이라고 했는데, 이는

전체 인구의 15.5%가 나쁜 편이라고 인식한 것과 비교할 때 양호한 편이다. 이는 청소년이 노인에 비교할 때, 실질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건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2003년에는 매우 좋다와 건강한 편을 합치면 66.2%이었는데, 3년후인 2006년에는 69.6%로 3.4% 포인트 더 건강한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표 V-1> 청소년 주관적 건강평가

연도	연령	매우좋다	건강한편	보통	나쁜 편이다	매우 나쁘다
2003년	15~19세	17.4	48.8	29.8	3.7	0.3
	20~29세	11.8	46.5	36.1	5.3	0.3
	전체	7.4	35.5	39.5	14.6	2.8
2006년	15~19세	20.9	48.7	28.0	2.3	0.1
	20~29세	15.0	46.3	34.7	3.7	0.3
	전체	8.5	36.1	39.9	13.0	2.5

자료: 통계청, 2005 한국의사회지표, 통계청. 2005.

통계청, 2006 한국의사회지표, 통계청. 2006.

이처럼 주관적 건강평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식정도는 다른 인구집단과 같이 상당히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20~29세 청소년이 인식하는 스트레스는 많이 느낌이 26.8%이고 매우 많음(6.1%)을 포함할 때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청소년이 전체의 32.9%이고 이는 2001년의 34.4%에 비교하여 1.5%포인트 밖에 낮아지지 않았다. 청소년은 주관적 건강평가에서는 노인 등 다른 인구집단에 비교하여 훨씬 매우 혹은 건강한 편이라고 응답하였지만, 스트레스 인식정도에는 다른 인구집단과 큰 차이가 없었다.

〈표 V-2〉 청소년 스트레스 인식정도

연도	연령	매우많음	많이느낌	조금느낌	거의없음
2001	20~29세	4.9	29.5	55.9	9.7
	전체	6.3	28.4	47.6	17.6
2005	20~29세	6.1	26.8	57.1	10.0
	전체	7.0	28.1	51.3	13.6

자료: 통계청, 2005 한국의사회지표, 통계청. 2005.  
통계청, 2006 한국의사회지표, 통계청. 2006.

청소년 스트레스 인식정도는 매우 주관적인 평가인데,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를 넘어서서 청소년이 행복감을 느끼는 경우는 어떤 상황일까?

서울에 사는 청소년들은 가정이 화목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개원 10주년을 맞아 서울시 19개 중·고교 재학생 및 17개 대안학교,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 1,553명을 대상으로 생활실태 및 의식조사를 한 결과 이처럼 나왔다고 밝혔다.

청소년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49.7%가 '가정의 화목'을 행복 조건 1순위로 뽑았으며, '좋은 친구가 있다고 느낄 때'(46.1%), '인터넷, 독서, 쇼핑 등 하고 싶은 일을 할 때(40.9%)의 순으로 꼽았다. 또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가족'(73.1%), '진정한 친구'(59.4%), '건강'(50.5%)으로 나타났다. 행복한 사람의 유형에 대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23.4%),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21.8%), '화목한 가정이 있는 사람'(21.6%)의 순으로 답했다.

한편 청소년들이 청소년들의 주요 고민은 역시 진로(61%)와 학업문제(59.2%)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험한 주요 스트레스도 시험(74%), 성적에 대한 부담 및 진로문제(55%)로 꼽았다(바이러스, 2007년 9월 12일).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2005년 20~29세 청소년의 규칙적인 운동실천율을 보면, 중등도 운동실천율은 19.4%이고, 고강도 운동실천율은 14.6%로 전체 인구집단의 22.0%와 15.3%에 각각 2.6%, 0.7% 포인트씩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30일 이상 걷는 비율도 61.2%로 하루에 30분도 걷지 않는 사람이 39.3%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2001년도에 20~29세 청소년의 중등도 운동실천율이 15.5%이고 고강도 운동실천율이 9.7%인 것에 비교할 때, 2005년에 각각 3.9%, 4.9% 포인트씩 향상되었다는 점이다. 최근 규칙적인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실천율이 높아졌기 때문인데, 1일 30분 이상 걷는 비율은 4년전에 비교하여 16.1%포인트나 낮아진 것은 자동차의 생활화로 일상생활 속에서 걷기는 더욱 줄어들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V-3〉 청소년 규칙적 운동실천율

연도	연령	중등도 운동 실천율	고강도 운동 실천율	1일 30분이상 걷는 비율
1998	20~29세	6.7	-	-
	전체	8.6	-	-
2001	20~29세	15.5	9.7	77.3
	전체	20.4	12.4	75.5
2005	20~29세	19.4	14.6	61.2
	전체	22.0	15.3	60.7

자료: 통계청, 2006 한국의사회지표, 통계청. 2006.

### 3. 관련 정책과 대안 모색

성장의 5대 요소는 적당한 운동, 적당한 영양, 충분한 수면, 적당한 야외활동, 스트레스 없는 생활 이 다섯 가지를 꼽는다. 특히 5대 요소 가운데 적당한 영양은 아이의 성장에 있어 더 없이 중요하다. 청소년이 지나치게 패스트푸드를 먹는 습관 때문에 칼슘 부족으로 키 성장에 방해받을 수 있다. 2006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건강 영양조사 분석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칼슘섭취량은 권장량의 5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칼슘 섭취를 위해서는 우유를 꾸준히 마시는 것이 좋다(뉴시스, 2007년 9월 20일).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는 획기적인 정책을 발표하였다. 2007년 연말까지 학교 매점 및 자판기에서 탄산음료를 판매하는 행위가 완전 금지된다. 또 2010년에는 교실 공기질은 물론 먹는물, 소음 등 건강환경 수준을 평가하는 학교건강 환경평가제가 도입된다(국민일보, 2007년 9월 3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생건강 증진대책’을 마련하고 17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2011년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11개 주요 추진사업으로 구성된 대책에 따르면 우선 학교 내 탄산음료가 올 연말까지 추방된다. 교육부는 패스트푸드와 라면, 튀김류 등도 비만을 유발하고 아침을 거르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보고 이 음식들도 함께 추방해나갈 계획이다.

학생 비만예방 프로그램도 실시된다. 이는 소아·청소년 시기의 비만 학생 80% 정도가 성인기 비만으로 이어져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학생 비만율을 2005년 18.2%에서 2011년 15%까지 감축한다는 목표로 2006년 9월 전국에 보급된 비만예방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모든 학교에서 의무 적용키로 했다.

학생들의 식생활 관리능력을 키우기 위한 학교급식 영양표시제는 내년부터 시작된다. 앞으로 학생들은 자기가 먹는 급식의 영양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 2010년에는 학교의 건강환경 수준을 나타내는 학교건강 환경평가제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교실 공기질과 먹는 물, 소음, 새학교 증후군, 석면, 미세먼지 등 학교환경 유지·관리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2008년부터 정책연구가 시작된다.

점심식사 후 이닦기와 1일 8회 30초 손씻기(1830) 운동은 올 하반기부터 전개된다. 점심 먹은 뒤 양치질을 해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 등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1830 운동을 통해 질병예방의 첫 걸음인 손씻기 생활화를 유도한다.

교육부는 이어 2007년 하반기 전국 96개교에서 하는 학생 정신건강 실태 조사를 전국 학교에 연차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2010년까지 학생 질병

이환 추세 및 원인 등을 학교별·도시 규모별로 분석한 뒤 음주·흡연·약물·우울·불안·주의력 결핍·인터넷 중독·폭력 등을 앓는 학생을 조기에 치료받게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밖에 약물남용 예방교육을 강화해 학생 흡연율과 음주율을 2005년 7.4%, 10.2%에서 2011년 각각 5%, 7%까지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흔히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시교육청이 2007년부터 서울지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울 어린이 체력인증제'를 다른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적용하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개발·보급한 체력 매뉴얼은 학교 체육수업과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짜여 있다. 체력 수준은 1등급(호랑이)부터 5등급(다람쥐)까지 구분돼 있으며 측정 종목은 앉아 윗몸 일으키기, 윗몸 일으키기(1분 기준), 1200m 오래달리기, 신체질량지수 등 4개 항목이다.

초등학교 1학년(남자)이 1등급을 받기 위해선 앉아서 발 끝에 걸쳐 있는 자를 17.9cm 이상 밀어낼 만큼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또 윗몸일으키기는 1분에 37.5회 이상, 오래달리기는 6분59초 이내, 신체질량지수는 14.0kg/m<sup>2</sup> 이하여야 한다. 6학년(남자)은 윗몸일으키기 45.6회 이상, 오래달리기 5분39초 이하 등으로 근력과 심폐지구력 기준이 저학년에 비해 높아진다(매일경제, 2007년 1월 5일).

한편, 교육인적자원부가 2008년부터 현재의 체력검사 대신 '맞춤형 학생 건강 체력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적절한 선택이다. 교육부가 새로 도입하려고 하는 체력검사는 학생들의 심폐지구력, 유연성, 근지구력, 체지방 등을 측정해 기초 체력을 알려주는 등 '건강 유지' 측면에 더 무게를 둔다. 심폐지구력 측정 종목에는 오래 걷기, 유연성 측정 종목에는 윗몸 앞으로 굽히기, 몸 뒤로 어깨를 늘려 양손이 바닥에 닿게 하기 등 종목을 넣을 예정이다. 근지구력 평가 종목으로는 무릎을 바닥에 대고 팔굽혀 펴기, 누워서 윗몸 절반 일으키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신체

질량지수, 체지방량, 허리와 엉덩이 둘레 비율을 따져 체지방 측정도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007년 2월 인천시교육청에 이 시스템에 관한 연구를 의뢰했고, 2007년 2월 결과를 받아 3월부터 인천 또는 수도권 지역의 초·중·고교에 1곳씩 시범운영한 뒤 2008년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하려 하고 있다. 새 체력검사는 초등학교 1학년~고교 3학년까지 매년 2회씩 실시하게 된다(조선일보, 2006년 10월 2일).

한편, 많은 대학교에서 보편화된 '학생상담센터' 혹은 '정신건강센터'를 학생수가 많은 초중고등학교에도 설치하고, 개별 학교단위에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생활권별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증설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상담센터는 주로 개인상담과 집단상담, 심리검사 등을 실시하고, 전문상담원이 학생들과 일대일 '맞춤상담'을 해야 할 것이다. 면접상담을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들을 위해 이메일 상담이나 화상상담 코너도 개설한다.

학생들은 정신건강 진단을 위해 우울과 의욕저하, 불안, 죄책감, 자살 충동 등 여러 가지 심리적 스트레스 상태를 파악하는 다면적 인성검사(MMPI), 적성탐색검사와 성인 지능측정 검사(K-WAIS), 대학 생활 적응도 측정 등의 심리검사를 이용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성격과 학교생활, 적성 등의 상담에서 취업·리더십 교육 등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도움을 주고, 멘토링(Mentoring) 프로그램을 확산시킨다. 멘토(Mentor·상담자) 혹은 멘티(Mentee·상담을 받는 사람)로 참가하는 학생들은 동문 선배들에게서 진로상담을 받거나 혹은 중·고생을 대상으로 직접 고민상담·학습지도 자원봉사를 하면서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바이러스, 2007년 9월 21일).

## VI. 사회적 안전감의 수준과 향상 방안

### 1. 사회적 안전감 지표의 의미

한 사회가 얼마나 안전한가는 각종 안전 지표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고, 범죄지표와 같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지표에 의해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는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 등 급격한 사회변화와 함께 사회적 안전감의 수준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객관적인 지표와 함께 당사자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 지를 파악하여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다.

주관적인 지표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범죄피해에 대한 청소년의 두려움’은 당사자가 인식하는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수준(느낌, 보통, 느끼지 못함)을 나타내는 백분율이다. 이 지표가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면, ‘야간보행에 대한 청소년의 안전도’는 청소년이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를 어떻게 느끼는지(있다, 없다)와, ‘야간에 혼자걷기 두려운 이유’(가로등이 없어서, 우범지역이므로, 인적이 드물어서, 기타)를 나타내는 백분율이다.

### 2. 관련 통계

경찰청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5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가 2004년 45만5601건, 2005년 48만7687건, 2006년 48만9,372건으로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과 사이버범죄도 계속 증가했다. 우리 사회의 이러한 범죄 증가 배경에는 경기불황 및 실업률 증가, 가족 해체, 사회규범 체제의 혼란, 계층간 갈등 등이 한몫했다. 범죄를

행한 개인의 독특한 생리, 심리적 문제도 크다(문화일보, 2007년 9월 22일).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일어 나기도 한다. 해마다 1,000여명의 아동이 5대 강력범죄에 희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3년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12세 이하 아동이 3,197명에 달 해 해마다 평균 1,000명이 넘었다. 유형별로는 폭력 피해가 1,959명으로 가 장 많았고, 절도와 강간, 살인 피해가 각각 650명과 404명, 109명으로 뒤를 이었다(문화일보, 2004년 10월 18일).

한국사회에서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커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공동체사회의 특징이 강한 농어촌지역에서는 좀 낮 고, 대도시로 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2005년 조사에서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느낌은 전국 57.9%이 고, 지역별로는 동부가 59.9%가 읍면부 48.7%보다 11.2%포인트 더 컸다. 범 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여자가 67.8%, 남자가 47.4%로 20.4%포인트 더 컸 다(통계청, 2006: 551).

15~19세 청소년이 느끼는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1997년 58.3%에서 2001년 57.7%로 다시 낮아졌다가 2005년 60.2%로 다소 높아졌다. 최근 택시 강도에 의한 승객 납치와 살해사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후 살해사건 등이 늘어나면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을 포함한 전체 연령층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표 VI-1〉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연도	연령	느낌	보통	느끼지못함
1997	15~19세	58.3	23.9	17.7
	20~29세	59.7	23.1	17.2
	전체	57.2	22.8	20.1
2001	15~19세	57.7	26.6	15.7
	20~29세	58.6	26.8	14.6
	전체	56.6	26.1	17.3
2005	15~19세	60.2	23.2	16.6
	20~29세	58.2	25.0	16.8
	전체	57.9	24.4	17.7

자료: 통계청, 2006 한국의사회지표, 통계청, 2006.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에 대해서 15~19세 청소년은 2005년에 있다가 53.8%, 없다가 46.2%로 안전하다는 사람이 7.6%포인트 더 많았다. 하지만, 2001년에 있다가 57.8%, 없다 42.2%인 것에 비교하여 안전도에 대한 신뢰가 4년 동안 4.0%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야간에 혼자걸기가 두려운 이유에 대해서 15~19세 청소년은 2005년에 인적이 드물어서가 62.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가로등이 없어서(29.7%), 우범지역이므로(7.4%) 등이라고 했다. 2001년에 비교하여 가로등이 없어서 혹은 우범지역이라는 이유는 줄고, 인적이 드물어서라는 이유는 더 늘었다. 이는 특정 지역이 우범지역이거나 가로등이 없어서 야간에 혼자 걸기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인적이 드물어서’ 두렵다는 것이다. 도시가 더욱 거대해져 익명성이 커지고, 자동차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야간에는 혼자 거리를 걷는 것조차도 두렵다는 현상이 더욱 커지고 있는 듯하다.

<표 VI-2>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연도	연령	야간 보행 안전도		혼자 걷기 두려운 이유			
		없다	있다	가로등 없어서	우범지역 이므로	인적이드물어서	기타
2001	15~19세	42.2	57.8	31.6	11.9	54.9	1.7
	20~29세	45.1	54.9	32.0	11.8	54.6	1.4
	전체	51.4	48.6	32.4	12.0	54.0	1.7
2005	15~19세	46.2	53.8	29.7	7.4	62.4	0.5
	20~29세	50.2	49.8	27.8	8.3	63.2	0.6
	전체	57.4	42.6	28.0	8.5	62.7	0.8

자료: 통계청, 2006 한국의사회지표, 통계청. 2006.

이러한 현상은 최근 서울특별시가 발표한 ‘2006년도 서울서베이 조사결과’에서도 볼 수 있다. 야간보행 안전도를 묻는 질문에 남성은 31.2%가 여성은 57.5%가 불안감을 나타냈다. 연령별로는 여성의 경우 20대의 67.1%가 불안하다고 응답,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많았으며, 30대(64.7%)와 10대(63.1%)가 뒤를 이었다. 남성은 40대(34.6%)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불안하다는 응답이 많았고, 이어 50대(33.4%), 30대(32.8%), 10대(30.2%) 등의 순이었다.

밤길을 걸어 다닐 경우에 대한 두려움의 척도(10점 만점)를 묻는 질문에는 남성의 경우 4.6, 여성은 6.3으로 역시 여성의 불안감이 더 높았다. 지역별로는 관악구와 강서구가 6.0으로 두려움의 척도가 가장 높았고, 금천구(5.9), 중랑·성북·강북·동작구(5.8) 등이 뒤를 이었다.

범죄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두려움의 척도(10점 만점)는 남성은 4.8, 여성은 6.4로 집계됐으며, 지역별로는 관악구가 남녀 평균 6.2로 가장 높았다.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남성의 경우 33.1%가, 여성은 58.8%가 두렵다(매우 두렵다·약간 두렵다)고 답했다(뉴시스, 2007년 9월 19일).

서울시의 통계는 한국의 사회지표의 통계에 비교하여 야간 보행의 안전도와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좀 낮게 나왔지만, 두 지표보다 남자보다 여자가 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서울시의 조사에서는 거주지에 따라 두려움의 차이가 상당히 나타났다. 이른바 강남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사는 주민이 느끼는 야간 보행의 안전도와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강부지역에 비교하여 낮고, 비교적 도시 빈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 관악구, 강서구, 금천구 등의 두려움 지수가 높게 나왔다.

### 3. 관련 정책과 대안 모색

아동과 청소년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적극 예방할 뿐만 아니라, 이미 범죄 피해자가 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지원센터가 절실해서 경찰청은 ‘학교·여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성폭력 피해자 등으로 한정된 사생활과 신변보호를 전체 범죄피해자로 확대할 예정인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함께 범죄 예방에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여성가족부로부터 위촉받아 성폭력 피해여성들의 신체적, 정신적 손상에 대한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운영되어 온 경찰병원 여성폭력 긴급의료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24시간 운영을 통해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치료와 상담, 수사에 필요한 진술녹화와 증거채취, 법률문제를 통합 지원한다.

여성 경찰관 3명과 사회복지사가 상주하면서 범죄피해 상담, 신고접수, 증거수집, 진술조서 작성 등 활동을 벌이며 조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와의 화상대질조사 시스템도 갖출 예정이다. 센터에는 의료지원을 위해 산부인과 전문의가 전담 배치되어 있고, 학교폭력 및 여성범죄 전문변호사 등 50여명으로 짜여진 법률지원단이 요일별로 번갈아 근무하며 민·형사 소송 지원을 비롯한 무료 법률상담을 해준다.

폭력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는 2005년 서울지역을 시발로 전국적으로 확대·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경찰청을 주축으로 여성가족부와 병원의 협력

을 받아 기획한 야심작이라 할 수 있다. 추진배경과 목적은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범죄피해를 입었을 때 수사는 물론 의료와 상담, 법률지원까지 한곳에서 모두 지원하는 이른바 맞춤형 통합서비스이다. 신속한 치료와 수사착수를 지향하고 반복진술과 반복출석 그리고 대질신문 등에 의한 2차 피해를 차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 이를 위해 센터에는 여경조사관과 함께 간호사, 상담사 등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영상진료실, 진술녹화실, 피해자 안정실 등 시설을 갖추어 24시간 지원체제를 유지하고 있다(조선일보, 2007년 9월 18일).

법무부가 범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범죄 피해자를 보호·지원키 위해 안내 전화를 개설하는 등 '범죄 피해자 종합(one-stop) 지원체제'를 구축해 2007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 첫해를 맞이해 유관기관들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업무 연계 체제를 구축하고 범죄 피해자 안내 전화를 개설하는 등 범죄 피해자 종합 지원체제를 구축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법무부는 구조지원과에 범죄피해 신고 및 상담 대표전화(02-500-9100)를 설치해 범죄피해자 및 가족으로부터 접수 받은 피해 상황을 적절한 지원기관·단체로 안내토록 했다. 또 검찰청·경찰청 등 각 기관별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운영해 상호 업무 연계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아시아경제, 2007년 7월 2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는 범죄피해자들이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 있도록 전용 콜센터가 설치되고 범죄피해 상담 등을 위한 홈페이지도 운영된다. 또 범죄피해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환자 지원을 위한 상담 전문가 육성이 추진된다.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 불기소에 불복, 법원에 적절성 심리를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모든 고소 사건으로 확대하고 형사 절차 단계별로 피해자가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범죄피해자 일시 보호를 위한 여성·아동 보호시설 등을 운영하고 가해자에

의해 다시 피해를 볼 수 있는 피해자를 ‘재(再)피해방지 대상자’로 정하는 등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 성폭력 피해자 등으로 한정된 사생활과 신변보호를 전체 범죄피해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국민일보, 2007년 1월 1일).

## VII. 자동차 사고와 사고 방지책

### 1. 자동차 사고율 지표의 의미

아동과 청소년의 사망에 대한 첫 번째 이유는 자동차 사고이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도시에서 거주하는 아동과 청소년이 늘어나고, 한국에서는 매일 출산아동수보다 새로 등록되는 자동차수가 더 많기 때문에 자동차사고를 줄이는 것이 아동과 청소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자동차 사고의 수준과 사고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 글에서는 ‘자동차사고에 의한 사상자수’와 ‘노약자나 어린이가 자동차 위험없이 보행’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한국의 사회지표가 매년 공표하는 ‘자동차 사고에 의한 사상자수’는 한 해 동안 발생한 자동차사고의 ‘발생건수’와 이로 인한 사망자수와 부상자수를 측정한다. 또한 사망자수와 부상자수는 인구 10만명당 그 수, 자동차 1만대당 그 수, 1일 평균 수로 그 비율을 파악한다.

자동차 사고의 증가는 자동차의 증가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지만, 차량의 증가속도에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이유도 크다. 자동차가 보행자의 안전을 생각하며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의 소통을 중심으로 운전을 하기 때문에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약자는 사고에 노출되기 쉽다. 한국의 사회지표가 ‘사회안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파악할 때, 당사자가 느끼는 ‘노약자나 어린이가 자동차 위험없이 보행’에 대한 사회안전 인식의 수준(안전하다, 보통이다, 불안하다)을 백분율로 파악하고 있다.

### 2. 관련 통계

차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사고의 발생건수가 줄어들고 이로 인한 사상자수가 꾸준히 감소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2004년 자동차사고 발생

건수는 220,755건이었는데, 이는 2000년의 290,481건에 비교하여 24.0% (69,726건)이나 감소된 것이다. 자동차사고가 감소하면서도 이로 인한 사망자수도 감소하였는데, 2000년 10,236명에서 2004년 6,563명으로 35.9%(3,673명)감소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같은 기간 동안에 자동차의 수는 꾸준히 증가되었기 때문에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7.4명에서 3.9명으로 감소되고, 부상자수는 307.5명에서 208.2명으로 감소되었다.

〈표 VII-1〉 자동차사고에 의한 사상자수

연도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수	인구10만명당	자동차1만대당	1일평균	수	인구10만명당	자동차1만대당	1일평균
1990	255,303	12,325	28.8	36	33.8	324,229	757.7	955	888.3
1995	248,865	10,323	22.9	9.6	28.3	331,747	735.7	308.9	908.9
2000	290,481	10,236	21.8	7.4	28.0	426,984	908.3	307.5	1169.8
2004	220,755	6,563	13.6	3.9	18.0	346,987	719.9	208.2	950.6

자료: 통계청, 2006 한국의사회지표, 통계청. 2006.

이처럼 과거에 비교하여 자동차사고에 의한 사상자수가 크게 감소되고 있지만,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교할 때 여전히 자동차사고와 다른 안전사고가 많고, 이로 인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많이 사망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한국생활안전연합은 사고로 사망하는 어린이의 수가 한 해 동안 일본은 2,697명, 한국은 1,894명이라고 밝히면서, 이 중 안전사고 사망자는 각각 906명(33.5%)과 895명(47.2%)에 이르며 전체 사망비율로 볼 때 한국 어린이 사망률은 일본에 비해 1.4배가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 어린이 사고사망률이 아동인구 10만명 기준으로 비교해 볼 때(2001년 기준, 1세~14세 사이 어린이) 13.3명에 이르러 일본(5.3명)보다 무려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사망을 유형별로 나눌 때 안전사고(10명 중 4.7명 사망)가 전체 사망률 1위를 기록했고 이어 백혈병을 포함한 암류 사망(10명 중 1.2명)이 그

뒤를 이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모든 연령대에서 교통사고 사망률이 사망원인 1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데일리서프, 2006년 5월 3일).

2006년 어린이교통사고는 총 1만 9,223건(사망 276명, 부상 2만 3,880명)이 발생, 그 중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는 총 323건(사망 9명, 부상 33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5년과 대비해 어린이 교통사고는 6% 감소,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는 7% 감소한 수치다. 연령별 어린이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초등학생 1만 1,302명(45%), 취학전 아동 8,436명(34%), 중학생 5,391명(21%)순이다(뉴시스, 2007년 8월 30일).

2006년 어린이 교통사고 총 1만 9,223건 중 어린이 과실은 단 5건뿐이다. 이중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총 323건 중 어린이 과실로 인한 사고는 아예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규위반별 어린이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운전자의 안전운전불이행이 1만 1,904건(61.9%)으로 가장 높았으며, 신호위반 2,116건(11%), 보행자보호의무위반 1,535건(8%), 교차로운행방법위반 1,143건(5.9%), 안전거리미확보 975건(5.1) 순으로 나타났다. 법규 위반별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의 경우, 안전운전불이행 206건(63.8%),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58건(18%), 신호위반 35건(10.8%)순이었다.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을 자동차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나 노약자가 자동차 위험 없이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편이다.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005년에 15~19세 청소년이 인식하는 수준은 '보행시'에 자동차의 위험 때문에 '불안하다'는 비율이 59.1%이고, 안전하다는 비율은 6.2%에 불과했다. 이러한 인식은 국민전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불안하다는 비율이 63.3%이고, 안전하다는 5.5%에 불과하다. 최근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상자의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노약자와 어린이가 자동차 위험 없이 보행하기는 어려운 환경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표 VII-2〉 노약자나 어린이가 자동차 위험 없이 보행(2005)

연령	안전하다	보통이다	불안하다
15~19세	6.2	34.7	59.1
20~29세	4.3	30.7	65.0
전체	5.5	31.2	63.3

자료: 통계청, 2006 한국의사회지표, 통계청, 2006.

### 3. 관련 정책과 대안 모색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상자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 각 분야가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한국 정부도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관련 엔지오와 함께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중 하나로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는 2007년 8월 31일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 회의장에서 연석회의 7차 본회의를 겸한 사회협약 체결식을 갖고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발표된 사회협약은 전문, 건강분야, 안전분야, 추진·지원체제 등 3개 분야 68개 세부 협약사항으로 되어 있다. 우선 안전 분야는 어린이교통사고 예방, 아동학대 방지, 아동 성범죄 예방 등 26개(협약)항, 건강분야는 당나트 립·지방 과다 식품, 비만, 인터넷 게임중독(과몰입) 대책 등 35개(협약)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추진·지원체제 부분에서는 채용 마련 노력 등의 7개 사항을 담고 있다(뷰스앤뉴스, 2007년 8월 31일).

이 협약에는 ‘2012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OECD 국가 평균이하로 감축’이란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기존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실효성 제고, 차량 유아보호장구(카시트) 안정성 강화 및 대여 확대 등을 실시하고, 이를 위하여 카시트 공동활용 운동 등을 펼치기로 했다.

한국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995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스쿨존은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반경 300m 이내

통학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이 구역 내에서는 등·하교 시간 때 차량속도는 시속 30km 이하로 달려야 하며 주·정차는 금지된다. 또 과속방지턱 등의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005년말 현재 전국에 지정된 스쿨존은 모두 7,065개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등으로 등·하교 길 어린이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운전자의 안전의식 부족으로 인해 스쿨존 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05년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349건. 이중 7명이 사망하고 378명이 부상을 입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 2003년 588건에서 2004년 529건, 2005년 349건 등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아이들이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스쿨존에서 사고를 당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스쿨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스쿨존 지정을 확대하고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적극 나서기로 했다(국정브리핑, 2006년 4월 4일).

스쿨존을 지정하고 운영할 때 미국의 사례를 참조할 만하다. 미국의 경우, 스쿨존 설치 및 운영기준이 주에 따라 그 차이는 있으나 '차량통행이 어린이 보행안전보다 결코 중요하지 않다'라는 간단하고 명쾌한 기준으로 처벌은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다.

워싱턴 주에서는 스쿨존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일반 도로보다 2배의 벌금 및 벌칙을 부과하고 있으며, 실제 펜실베이니아주의 필라델피아에서는 스쿨존 내 최고 시속 20마일(약 32km/h, 대한민국 30km/h)을 넘으면 최고 500달러의 벌금(벌점 3점)을 부과한다. 두 번째 위반시에는 500달러의 벌금(벌점 3점)에 60일 면허정지가 추가되는 등 스쿨존 내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뉴시스, 2007년 8월 30일).

한국에서도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쿨존에서 안전운행을 보다 엄격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다. 스쿨존의 노면에 표식을 좀 더 명확히 해서 모든 운전자가 서행을 하도록 하고, 횡단보도 옆에 있는 신호등

에는 보행자가 직접 누를 수 있는 버튼을 장착하여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자가 우선 지나가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차량이 쉽게 이동하도록 교통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스쿨존을 확대설치하면서 좁은 차도 신호등을 설치하고 통학시간대가 아닌 시간에도 보행자를 위한 신호등이 지나치게 자주 그리고 길게 켜지기 때문에 오히려 운전자들이 신호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보행자의 안전과 함께 자동차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보행자가 신호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나이가 어린 아동의 교통사고 사상자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 착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정부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06년 6월부터 유아를 자동차에 태울 때 유아보호용 장구를 반드시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위반시 3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으나 착용 비율은 2007년 6월 기준 18.9%로 저조하다.

경찰 관계자는 ‘통계에 따르면 유아 교통사고의 60% 이상이 자동차 승차중에 일어나며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유아보호용 장구는 교통사고시 탑승 유아의 사망·부상을 70% 가량 줄이는 효과가 있다’라며 보호장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건설교통부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연결할 수 있는 규격 장치를 2010년부터 모든 승용차에 달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교통안전공단은 2년 전부터 실시해 온 유아보호장구 무상대여 사업을 올해도 벌이기로 하고 저소득층과 장애인으로부터 우선 신청 받아 7천개를 대여기로 했다(연합뉴스, 2007년 9월 17일).

교통사고는 불시에 예기치 않는 상황에서 일어나지만, 조금만 주의하여 서행을 하고 안전띠를 매거나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하기만 해도 사고를 예방하거나 사고시에 사상의 수준을 훨씬 낮출 수 있다. 교통사고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주된 요인은 운전자에게 있고, 노후차량이나 정비불량도 결국은 운전자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보행자인 아동과 청소년의 교통사고 사상자수를 줄이고 그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운전자에 대한 교

육을 통해서 운전 습관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기존의 정책과 사업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통학길에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스쿨존의 지정과 운영으로 말미암아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가 2003년 588건에서 2006년 323건(사망 9명, 부상 338명)으로 45.1%(265건)나 감소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최근 건설교통부와 경찰청이 유아가 승용차에 탑승할 경우에 유아보호장구를 장착하도록 권장한 것 등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유아 사상자의 수를 크게 줄일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교통사고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보행자가 차량을 보다 쉽게 관찰하고 자신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행시 우측통행을 생활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 보행시 좌측통행을 장려하고 있는데, 좌측통행을 하면 등 뒤에서 진행되는 차량과 가깝게 보행하므로 차량의 움직임을 보기 어렵다. 보행자가 우측통행을 하면 진행되는 차량을 관찰하면서 보행을 할 수 있고, 등 뒤에서 진행되는 차량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보행시의 사고를 쉽게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우측통행을 할 때 진행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2미터 이상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도 우측통행을 권장하고 있는데, 보행자의 우측통행을 모든 상황으로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 VIII. 가난한 청소년과 복지정책

### 1. 빈곤청소년 관련 지표의 의미

가난한 청소년의 수는 얼마이고, 이들에 대한 복지정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청소년의 생존권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한 사회에서 가난한 청소년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누가 가난한 청소년이라고 정의하고 그 수를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 공식적으로 가난하다고 공표된 사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고, 그중에서도 보호자가 없는 20세 미만은 ‘소년소녀가정’으로 지정되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특정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낮은 세대를 말한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액수를 합친 금액이다.

소년소녀가정은 부모의 사망, 질병, 심신장애, 가출, 이혼 등으로 만 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가계를 책임진 세대로서 국가의 보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세대를 말한다.

### 2. 관련 통계

청소년의 빈곤은 단순히 생존권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흔히 빈곤이란 근본적인 생활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상태로 절대빈곤과 다른 사람의 생활수준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빈곤하다고 느끼는 상대빈곤으로 나눌 수 있다.

한국에서 절대빈곤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사람이고 빈곤아동은 18세 미만의 빈곤한 아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2006년 발표한 '주요아동지표'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의 아동 1,200여만명(2004년 기준) 가운데 100만명(8.8%) 정도의 아이들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 또한 상대빈곤층(가계 소득이 중위권 소득의 50% 이하)의 아이들은 164만명(14.6%)으로, 약 100만~164만명 아이들이 빈곤으로 고통받고 있다.

최근 통계청의 전국 가계조사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이하 아동 빈곤율은 8.79%에 이른다. 아동 10명중 1명꼴로 극심한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빈곤율은 한부모 가정의 경우 12.7%로 올라가고 65세 이상 노인과 18세 미만 아동으로 구성된 조손(祖孫) 가정은 48.5%에 달한다(연합뉴스, 2007년 5월 4일).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005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425,684명이고 그중 18세미만은 358,552명으로 전체의 25.1%이다. 이는 2001년 전체 수급자 1,345,526명 중 18세 미만이 332,628명인 것과 비교할 때, 18세 미만 수급자 수가 25,924명 늘어난 것이다(통계청, 2006: 477).

<표 VIII-1> 연령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연도	총수급자	18세 미만	18~30세
2001	1,345,526	332,628	134,822
2002	1,275,625	310,187	134,822
2003	1,292,690	314,580	129,822
2004	1,337,714	330,116	129,394
2005	1,425,684	358,552	134,429

자료: 통계청, 2006 한국의사회지표, 통계청. 2006.

보건복지부가 최근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가구 아동 5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동육구조사 결과에서도 38.6%만이 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가구가 40.1%, 별거 가구가 4.7%로 절반에 육박했다. 이는 가정 해체로 인한 빈곤의 무거운 짐이 자녀들에게로 고스란히 넘어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빈곤가족이 된 사유는 다양하지만, 빈곤한 아동과 청소년은 의식주에서

위기를 맞을 뿐만 아니라 질병에 노출되기 쉽고, 교육기회의 박탈, 여가생활에서 위축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빈곤아동들은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예로 빈곤가족은 경제적 이유로 아동에게 학습하기 적절한 공간을 제공해주지 못해 학업성취를 저해하기도 하고, 이러한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의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빈곤가족의 아동이 비빈곤가족의 아동보다 인지적으로 자극받을 수 있는 성장의 기회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빈곤아동의 부모들은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되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되고 그렇게 되면 자녀와의 상호작용, 예를 들면 자녀의 하루일과에 대한 대화라거나 자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게 된다. 이로 인해 보이는 부적절한 양육태도는 아동의 언어나 인지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빈곤아동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 보통 빈곤아동은 신체 건강이 비빈곤아동보다 훨씬 나쁜 편이다. 쌀을 살 돈이 없어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운다거나 그런 끼니마저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서 영양소 결핍 등의 문제로 신체적 건강이 매우 떨어져 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빈곤아동의 영양상태에 따른 건강상의 변화 실태조사’를 통해서 빈곤아동들의 건강·영양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2007년 3~5월까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빈곤아동 등 1,815명에 대한 건강·영양설문조사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진결과를 분석한 연구 이 같이 나타났다(뉴시스, 2007년 6월 13일).

현재 결식아동으로 분류돼 정부로부터 급식지원을 받는 만10~12세 아동(빈곤아동)들의 영양소 섭취량이 비빈곤아동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 의료급여대상자(저소득층) 자녀와 강남·서초구 건강보험 대상자(일반) 자녀의 천식 수진율도 큰 격차를 보였다. 의료급여대상자 중 0~6세 유아 천식수진율(치료 받은 비율)을 보면 동일 연령의 평균소득이 높은 강남·서초구의 아동평균 천식수진율은 15.36%인데 반해 빈곤층아동들은 44.75%로 약 2명에 1명꼴로 천식을 심하게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식아동의 경우, 라면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경우가 높은 것을 감안, 라면의 섭취량이 많을수록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 증상이 높게 나타나 결식아동의 ‘먹을거리 질’ 문제가 건강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민노당은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비타민 섭취량이 늘수록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에 대한 증상 경험률이 낮아짐을 확인했다. 따라서 빈곤아동의 경우, 과일과 신선채소 섭취량이 매우 낮아 비타민C 영양소 섭취율이 떨어져, 면역력이 약화돼 아동평균에 비해 천식·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에 더 노출될 우려가 더 높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빈곤 아동과 청소년은 신체적 질병에 더 노출될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스러기사랑나눔회가 2006년 8월 600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3,641명의 정신건강을 조사한 결과 내성적인 성격·정서불안·우울증을 가진 아이가 26.9%(981명), 다른 아이를 때리는 등 공격성을 보인 아이가 26.5%(965명)에 이르는 등 53.4%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신감이 없고 의존적 성격을 보이는 아이가 10.4%(379명), 따돌림을 당해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한 아이가 9.0%(326명), 구타 등 학대당한 경험이 있는 아이가 7.8%(283명)로 각각 파악됐다(쿠키뉴스, 2007년 4월 25일).

빈곤아동이 겪는 어려움은 신체적 건강뿐만이 아니다.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가 적기 때문에 인지능력이 낮고, 이로 인해 학업에 대한 성취역시 저하된다. 이는 아동이 가진 지능의 문제가 아닌 선행학습의 부족으로 인한 성취도의 저하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며 빈곤아동은 우울이나 불안 등을 느낄 확률이 높아진다. 또 자신이 추구하는 욕구에 대한 충족이 미달됐을 때 그 억압감에 대한 반응으로 비행이나 공격행동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가정이 더 이상 보호자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사회가 실질적으로 아동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는 이미 사회

여기저기에서 있어 왔다. 아동이 스스로 보호 기관에 보호를 요구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지역사회 복지기관에서 아동이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 될 때 친권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빈곤아동을 위한 복지는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정부가 빈곤가정에 지원하고 있는 것은 자녀학비, 양육비, 복지자금 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 등이지만 실제적으로 빈곤아동이 '빈곤아동'이라는 명칭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1996년부터 2004년까지, 빈곤아동의 비율은 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최근 빈곤아동과 청소년은 한부모가족에서 조손가족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등으로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고 조부모 혹은 외조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세대구성별 가구원수 자료에 따르면 총 1,587만 7,128가구 가운데 조손가정은 0.37%인 5만8101가구이었다. 2000년 4만5225가구에서 5년 새 1만 2,000여가구가 늘었다. 그러나 소년소녀가장이나 한부모 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꾸준히 지속된 반면 조손가정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뤄져 온 게 우리 현실이다.

조손가정의 문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경제적으로 더욱 빈곤하다. 정부 지원이 부족해 구성원 모두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일부는 가출한 아버지가 서류상 부양자로 되어 있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도 제외돼 있다. 현재 정부의 지원을 받는 조손가정 비율은 전체의 9%에 불과하다.

조부모는 손자녀에게 부모 노릇을 하다 보면 역할상 혼란을 겪기도 할 뿐더러 손자녀 양육에 따른 활동제한으로 고립감, 우울증을 초래할 수 있다. 여기에다 힘들게 양육하다 보면 건강이 악화되고 의료비, 생활비, 교육비 등 경제적 빈곤에 허덕이게 된다.

손자녀는 부모의 사망, 이혼, 불화, 실직 등으로 불건전한 환경에 노출돼

정서적인 문제가 심각하고 학습이 부진해도 조부모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와 함께 권위적인 조부모와 가치관의 차이를 겪거나 편애, 지나친 간섭으로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조손가정을 위한 정책으로 소득보장정책 수립, 지역사회 의료정책 강화, 조손가정의 조부모들을 위한 사회적 지지망 확보가 필요하다. 또 조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서비스나 개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현재 양육자로서의 조부모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개선하고 강화해야 한다.

조손가정에 대한 조사는 전국적인 실태조사조차 없는 상황이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조사한 조손가정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내 전체 학교 학생중 4,334명의 학생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호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학생수의 1.45%로 100명 중 1-2명이 조손가정 학생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무주, 진안, 장수, 부안 등 산골지역의 학교에 조손가정의 학생들이 많아 진안관내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1,249명 가운데 8.3%이르는 104명으로 파악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전체 결손 가정의 절반이상인 2,370명으로 조사됐다. 가정에서 기초학습이나 생활 습관 지도가 필요한 어린 나이의 많은 학생들이 부모의 직접적인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들 조손가정의 학생들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게 가장 큰 고충. 조부모의 가정 환경이 넉넉지 못한데다가 주민등록상 부모가 등재되어 있어 결손가정이 받아야 할 경제적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재 이들 조손가정은 위탁가정으로 분류돼 시·도에서 월 10만원의 가정 위탁 지원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실제 4,334명 학생 중 미미하나마 지원금을 받는 학생들은 도에서 집계한 495명으로 11%에 불과한 실정이다(쿠키뉴스, 2007년 5월 8일).

이러한 조손가정의 실태는 경기도 제 2청의 조사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제 2청에 따르면 최근 연천 의정부 가평 구리 남양주 파주 등 경기 북부지역 10개 시·군의 조손 가구 1,183가구(손자녀 1,876명)를 대상으로 생활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조손가정이 사회의 무관심 속에 방치돼 심

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의 연령대는 60~70대가 49%, 71살 이상 39.6% 차례로 나타났고, 전체의 45%가 고령임에도 전·월세 등에 살고 있었다. 또한 조사 대상 손자녀의 83.7%인 1,569명이 최근 3년 동안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들의 부양자로 있는 조부모 역시 건강검진 경험자는 절반에 불과했으며, 이들 가운데 81.5%가 현재 병이 있거나 건강하지 않았다(뉴시스, 2007년 1월 10일).

이처럼 조손가정에 사는 아동과 청소년도 문제이지만, 생활능력이 넉넉하지 않고 건강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손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조부모도 그 짐이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빈곤한 아동과 청소년은 최근 결혼이주가정이나 다문화가정에서도 늘어나고 있다. 모든 다문화가정이 빈곤한 것은 아니지만, 다문화가정은 경제적 빈곤과 함께 문화적 격차의 문제를 동시에 겪기 쉽다.

보건복지부가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다문화가정의 취학인원이 6,121명(2005년 10월)에서 7,998명(2006년 4월)으로, 6개월간 1,877명이 늘어났다. 2012년에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16만 5천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오마이뉴스, 2007년 7월 7일).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은 더욱 열악한 환경에 있다. 태어나자마자 불법체류자인 데다 보육지원이나 의료보험 부재, 입학의 어려움, 불안한 학교생활 등에 시달려야 한다. 부모를 따라 공장 노동자가 되기 쉽고, 취학 시기를 놓치면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다시 자퇴하기 쉽다. 이로 말미암아 한국 문화에 적응하지 못해 심리적 위축, 불안함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동과 청소년의 생존권은 그 나라의 주요 경제지표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한 나라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2003년도 1인당 GNI가 12,030\$로 일본의 34,510\$, 미국의 37,610\$에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브라질의 2,710\$에는 크게 앞선 것

으로 나타났다. 하루 1불 미만으로 살아가는 인구비율은 한국은 2%이고, 브라질은 8%이며, 이디오피아는 26%이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에 대한 관련 통계가 없는데, 아마도 사회복지제도가 잘 발달되어서 하루 1불 미만으로 살아가는 국민이 공식적으로는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VIII-2> 주요 국가의 경제지표

나라	1인당GNI(2003)\$	하루1불미만으로 살아가는 인구비율(1992-2002)%
오스트레일리아	21,650	-
브라질	2,710	8
캐나다	23,930	-
이디오피아	90	26
프랑스	24,770	-
일본	34,510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	-
대한민국	12,030	2
미국	37,610	-

자료: UNICEF, 2005 세계아동현황보고서, 2004.

### 3. 관련 정책과 대안 모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빈곤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주로 빈곤가정에 사는 아동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며,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등을 위하여 아동발달계좌를 도입하였다. 최근에는 지역사회의 엔지오와 협력하여 희망스타트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인데, 수급자로 지정된 가정의 아동에게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을 제공한다.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생계비를 지급하고, 교육급여는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지역사회에서 가난한 아동이 가장 광범위하게 서비스를 받는 곳은 지역아동센터이다. 이 기관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이용시설이며, 18세미만 모든 아동의 무료이용(2006년 말 5만9000명 이용)이 가능하고 보호·학습지도·상담·급식 등의 복지서비스 위주로 제공된다. 센터는 하루 8시간 운영하고 전국에 고루 설치(2006년 말 2029개소)돼 있고,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NGO 단체, 개인, 지자체 등의 인적(자원봉사)·물적 자원(운영비) 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주체들이 운영하고 있다(국정브리핑, 2007년 3월 19일).

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에서 2005년 4월 회원기관 342개소를 대상으로 전화응답을 통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지역아동센터는 일일 평균 약 30명의 아동들을 2명의 전담인력이 주40.5시간, 매일 5~7시간동안 돌보면서 매일 79.8%가 저녁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곳은 단독주택, 연립주택, 상가 등에 약 50.9% 교회 내 독립공간 40.9% 기타 공공건물 등에는 8.2%가 있다. 건물의 소유형태도 전/월세가 36.8%, 자가 34.8%, 무료임대가 28.4%이다. 위의 조사에서 밝혀진 상황들을 보면 지금까지 지역아동센터(공부방)들은 아동복지 시설로 전환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풀뿌리 현장 활동가들의 희생으로 운영되는지를 알 수 있다(민중의소리, 2007년 6월 26일).

지역아동센터가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시설, 운영, 교사 교육 등 제반여건을 발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전국의 곳곳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월 200만원씩을 지원하는 수준에서 지원수준을 좀더 현실화시키면 훨씬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부는 미국의 헤드 스타트(Head Start)와 영국의 슈어 스타트(Sure Start)를 모방한 희망 스타트를 실시하고 있다. 빈곤은 열악한 성장환경을 초래해 아동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빈곤아동은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해 빈곤을 대물림하게 된다.

선진국에선 보건과 복지, 교육이 연계된 사회적 서비스를 통해 양극화의 위협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일찍이 미국은 헤드스타트, 영국은 슈어 스타트

라는 아동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영유아의 조기교육, 건강 및 영양지원, 사회 발달 등 다방면에 걸친 포괄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빈곤의 악순환을 끊는데 힘을 쏟고 있다.

2005년도 미국 랜드 보고서에 따르면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는 취업률, 소득수준, 교육 성취도, 복지 서비스를 받는 정도 등의 측면에서 1달러 투자에 대해 최대 7.14달러의 환원효과가 발생한다. 즉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이 고등학교 졸업률, 재학입학률, 소득, 비행 등의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이 밝혀진 것이다.

희망스타트 센터를 통해 사회복지 방학프로그램에 참여해 기초학력을 높이고 무료로 연계된 피아노학원에서 특기적성교육을 받는 한편 건강검진 뒤 영양제를 공급받아 건강을 챙길 수 있다. 필요한 아동은 정신심리검사를 거쳐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희망스타트’가 아이들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현재 아이들은 학업성적도 나아지고 또래 집단과 관계도 개선되는 등 학교생활을 훨씬 잘 해내고 있다(국정브리핑, 2007년 9월 6일).

‘희망스타트’가 복지, 교육, 보건 등 세 분야의 전문 인력과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갖추고 저소득계층 아동에게 욕구별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희망스타트는 사후대처적인 단기적 소득지원형의 서비스를 탈피하고 지역사회내 보건복지자원을 연계하여 빈곤아동 개개인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아동의 잠재적 능력을 키워주는 예방적인 사업이다.

2007년 1월 희망스타트센터는 서울, 부산, 전남, 경북, 강원 등 13개 시/도 16곳에 신설 됐으며, 사업비(50억원)는 보건복지부에서 전액 지원하고, 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7월부터는 아동들에 대한 건강검진, 치과치료는 물론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아동들에 대하여는 방과후 학교를 열어 지도하거나 지역 학원들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활동 들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번 체결로 희망스타트센터를 이용하는 18세 이상 6세 이하(취학전) 아동에게 호흡기 질환(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동병하치’ 프로그램을 최소 3년 이상 제공할 예정이다. 동병하치는 7~8월에 진료를 해야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취학 아동들의 방학프로그램과 함께 취학전 아동에게는 동병하치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국정브리핑, 2007년 9월 6일).

지역단위로 아동에게 교육, 복지, 보건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이고,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의 지역을 전국화 시키고,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복지기관이 보다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아동발달 지원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를 도입했다. 2007년 4월에 시작된 CDA 사업은 시설아동과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등 성인이 되더라도 홀로 자립하기 힘든 아이들이 통장에 가입한 뒤 보호자나 후원자의 후원금 중 일부를 저축하면 정부도 이에 맞춰 최대 매월 3만원까지 함께 저축하는 사업이다. 일종의 ‘매칭 펀드’ 형태다. 만약 3만원을 저축하면 정부도 3만원을 붓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달 6만원씩 저축되는 ‘기쁨 2배’의 효과를 갖는다. 단 CDA 통장에 저금된 돈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아이가 18세가 넘어 사회에 진출할 때 학자금과 기술교육비, 취업 훈련비, 창업비, 주거마련비 등 자립을 위한 ‘종자돈’으로 쓰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국정브리핑, 2007년 9월 23일).

CDA 사업이 시작된 지 3개월인 6월말 현재 CDA 통장에 가입한 아동 수는 3만399명으로 CDA 지원 대상 아동 3만2362명의 94%에 달하고 있다. 같은 기간 아이들의 통장으로 들어온 금액은 20억7510만 원 가량이다. 정부가 지원한 18억1690만원까지 합하면 CDA에 적립된 전체 액수는 38억9210만원에 달한다(국정브리핑, 2007년 9월 23일).

가정환경 때문에 아이들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사회는 도저히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동안 저소득층 아이들은 ‘빈곤→저교육→저생산성→빈곤’이라는 악순환 고리를 끊지 못했다. CDA 통장은 개인의 능력과 관계없이 부모에 따라 빈곤을 대물림하는 불합리함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도움을 기대하기 힘든 아이들이라도 조금이나마 비슷한 출발선에서 경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가 협력하는 새로운 방식의 복지모델이다. 정부는 앞으로 지자체와 아동보호시설, 한국복지재단, 신한은행 등과 협력해 CDA 후원자를 계속 늘려갈 계획이다.

참여정부는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려는 정책을 향후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이 실현되어서 빈곤 아동과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빈곤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빈곤층 아동에 대해 교육·의료 등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스타트 시범지역을 2008년에는 2배로 확대(16→32개소)할 예정이다. 이와 아울러 2008년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를 '07대비 5% 인상한 126만원으로 결정하여 정부가 보호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4만 명 늘어난 160만 명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국정브리핑, 2007년 9월 21일).

최근 급증하는 국제결혼을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가 한국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의 추진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2007년 38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인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2008년은 80개소까지 확대하여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와 한국음식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가족에게 가족갈등 상담, 다문화 이해교육 등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센터이용이 어려운 가정에는 전문 도우미가 방문하여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육아 지원 및 자녀 학습지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다. 이를 위해 결혼이민자가족 전문도우미를 2007년 508명에서 2008년 2320명까지 확대 양성할 계획이다.

빈곤아동과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기획한 곳도 있다. 광주시 남구는 2006년 말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조손가정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2007년 예산에 조손가정 지원비 1500만원을 확보했다. 이 조례는 일터 부족, 소득 저하, 학습 부진, 성장 지체 등을 겪으면서도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조손가정한테 월정 수당 지급, 학습도우미 지원, 성장도우미 파견 등 복지사업을 펼치는 내용으로 짜여졌다(한겨레, 2007년 1월 12일).

지원할 대상은 조부모와 18살 이하 손자녀로 구성된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가구이다. 이 조례에 따라 남구는 이달부터 다달이 조손가정 62가구에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비뿐 아니라 조손가정 수당 2만원, 민간후원 수당 3만원을 추가로 준다. 또 손자녀의 학교 공부를 도와줄 도우미와 문화 활동을 함께할 도우미를 따로 보낸다. 이밖에 차상위 계층 100여 가구에도 구비에서 주는 조손가정 수당 2만원을 뺀 다른 서비스를 두루 제공한다. 이어 8월께 조손가정과 후원자들이 만나는 정나누기 행사도 열어 구민의 관심을 높일 방침이다.

조손가정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확산되고 있는데, 이미 전남의 장성군 등이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와 10세 미만 손자·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에 월 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빈곤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도 적지 않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모든 가난한 아동과 청소년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차상위계층의 아동과 청소년, 조손가정에서 살지만 서류상 보호자가 있는 아동은 기초생활보장사업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바꾸어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인정액을 갖춘 차상위계층에게도 교육급여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가구단위와 별도로 개인단위의 급여를 보다 폭넓게 인정해야 할 것이다.

지역아동센터를 전국에 좀 더 많이 설립하도록 지원액을 현실화시키고,

서비스의 내용을 표준화해서 방과후에 방임되기 쉬운 아동과 청소년에게 좀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현재 6만 여명의 아동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빈곤아동의 수가 10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것에 비춰볼 때 6% 내외에 불과한 수치이다.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사회복지사와 관련 단체도 신고에 의해서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조금만 더 현실화시키면 적은 예산으로도 많은 시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 IX. 결론 및 정책제언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06년에 수행한 ‘국제기준대비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 실태연구 I’의 후속사업인 ‘국제기준대비 청소년인권실태조사 II’의 하나이다. 이번 연구는 청소년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에 대한 실태조사로 이루어지는데, 본 연구는 그중 청소년의 생존권을 중심으로 한국의 관련 지표와 주요 외국의 지표를 비교 연구하였다.

본 연구자는 2006년도 연구에서 청소년 생존권 지표를 3개 영역별(고유의 생명권, 신체적 생존권, 질적 생존권)로 15개 영역을 개발하고, 36개 개별지표를 제시한 바 있었다. 이번 연구는 청소년의 생존권에 관한 36개 개별지표 중에서 ‘국제기준’으로 널리 활용되는 지표 21개를 선별하여, 한국 청소년의 생존권 실태를 살펴보고, 그것의 연도별 변화추이, 그리고 주요 외국의 지표와 비교하여 한국 청소년의 생존권 실태를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자는 21개 지표를 일곱 가지 세부 관심영역별로 범주화 한 후에 지표의 의미, 관련 통계, 관련 정책과 대안 모색 순으로 정리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의 기대여명과 복지

2005년도 한국인 0세의 기대여명은 78.63세이고, 15세의 기대여명은 64.23세이다. 15세 청소년의 기대여명은 1985년에 55.71세에서 2005년에는 64.23세로 8.52세 연장되었다. 15세 남자의 기대여명은 1985년 51.67세에서 2005년 60.76세로 9.09세가 연장되었고, 15세 여자의 기대여명은 1985년 60.12세에서 2005년 67.46세로 7.34세가 연장되었다. 2005년 현재 15세 남자의 기대여명은 여자의 그것보다 6.7세가 적는데 이는 다른 연령층에서도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세계 주요 국가의 2003년도 기대여명을 보면, 한국은 76세로 일본(82세), 오스트레일리아(79세), 프랑스(79세), 미국(77세) 등의 나라보다는 몇 세씩 짧지만, 브라질(68세), 북한(63세), 이디오피아(46세) 등에 비교하여 훨씬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3년도에 한국의 5세 미만 사망률과 영아사망율은 각각 5로 다른 국가들에 비교하여도 매우 양호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5세 미만 사망률은 1960년에 127명에서 2003년에 5명으로 감소되었는데, 같은 기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120명에서 55명으로 감소한 것에 비교하여도 크게 양호한 수준이다.

이처럼 평균수명이 늘어난 것은 공공부문의 국민의료비 지출 비율이 5년 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의료 인프라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앞선 것 때문인 듯하다. 2005년 우리나라의 총 병상수는 인구 1000명당 7.9병상으로 2000년보다 1.8병상이 늘어 OECD 회원국의 평균인 5.6병상보다 많았다. 또 2005년 한국인 1인당 연간 외래진찰 회수는 1999년보다 3회 증가한 11.8회였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외래진찰 회수인 6.8회보다 높은 수준이다.

## 2. 청소년 유병률과 질병치료

청소년의 유병률은 다른 인구계층에 비교할 때 매우 낮고, 지난 10여 년간 안정되어 있다. 2006년의 경우에 0~4세의 유병률은 23.8%이지만, 10~19세 유병률은 8.8%로 인구집단 중에서 가장 낮고, 이후 연령이 높아지면서 유병률이 조금씩 상승한다. 10~19세 청소년은 평균 유병일수도 4.7일로 전체 인구의 7.1일에 비해 낮고, 평균 외병일수도 0.4일로 전체 인구의 0.8일보다 훨씬 낮다.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을 보면, 연령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15~19세 청소년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주요 질병별로 큰 차이가 있다. 인구 1000명 중에서 치아우식증(충치)이 59.76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알레르기성 비

염이 50.39명, 사고후유증이 12.42명, 위염/소화성궤양이 6.66명의 순이다. 그 밖에 요통/좌골통이 2.83명, 관절염 2.25명, 고혈압 1.23명, 디스크 1.04명, 당뇨 0.94명, 신경통 0.69명 등이다. 흔히 성인병으로 알려진 고혈압, 당뇨, 신경통 등을 앓고 있는 청소년이 소수이지만 앓는 것은 최근 비만 청소년이 늘어나면서 조기에 성인병을 앓는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치아우식증, 알레르기성 질환, 우울증 등은 당사자가 생활습관을 바꾸고 환경에 변화를 주면 상당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치료와 함께 예방에 보다 역점을 두어야 한다. 치아우식증은 음식물을 먹고 칫솔질만 자주 하는 습관을 들여도 상당히 예방할 수 있고, 알레르기성 질환도 육식을 줄이고 채식을 많이 하며, 본인의 몸에 맞지 않는 음식물을 줄이고 청소만 더 자주해도 상당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위생을 청결히 하는 생활습관을 들이고, 질병을 예방하려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와 사회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전문 진료과목을 만들고, 이들을 위한 전문병원을 더욱 증설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어린이병원을 건립하는 사업은 더욱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2000년 한국 내 에이즈 감염자 수는 219명에 불과했으나 2001년 327명, 2002년 398명, 2003년 534명, 2004년에는 614명으로 증가한데 이어 2005년에는 680명을 기록하며 5년 사이 3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2006년 6월 말까지 확인된 국내 에이즈 누적 감염인수는 4,227명이며 이중 773명이 사망해 현재 3,454명이 생존해 있다.

청소년의 경우 첫 성경험 연령대가 16세 전후로 조사됐으며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다. 여고생의 성경험률의 범위가 2000년대 이후 0.8~5.4%에서 8.1~13.2%로 증가하고 있으며 성매매 비율도 전체 성관계 중 1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층의 에이즈 관련 지식도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콘돔 사용률도 남학생의 경우 12.5%, 여학생의 경우 10.6%에 그쳤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망된다.

### 3. 청소년 결식비율과 저체중/비만

유엔아동기금(UNICEF)이 밝힌 ‘2005 세계아동현황보고서’에 근거하여, 한국 아동의 영양상태를 주요 국가 아동의 그것과 비교하면, 저체중신생아는 한국이 4%로 미국(8%), 일본(8%), 프랑스(7%) 등보다 훨씬 양호하다. 영양실조로 고통 받는 5세 미만 어린이도 한국은 관련 통계가 없을 만큼 양호한 수준이다.

전 세계적인 사망의 약 40% 가량이 물과 대기오염, 토양오염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HO의 최근 보고에 의하면 인구증가, 환경파괴 이 두 가지가 영양실조와 37억 인구의 질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사회에서는 영양실조보다는 영양과다로 인한 비만이 더 큰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신체질량지수가 25정도(18.5~24.9)면 정상으로 18.5미만은 저체중을 의미하고, 25.0이상은 비만으로 일컬어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비만율은 1998년 22.8%에서 2001년 30.6%, 2005년 31.8%로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 20~24세 청소년의 비만율도 2001년 16.2%와 2005년 17.3%로 증가되고 있다. 반면에 저체중의 비율은 1998년 10.1%에서 2001년 4.6%와 2005년 4.7%로 낮아졌다.

청소년의 비만은 해가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다. 2006년 국내 초·중·고등학생 비만율은 11.6%로 저학년보다 고학년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비만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학생 중 75.6%가 치아, 시력 등 적어도 1개 이상의 건강항목에서 이상 징후가 나왔고 학년이 높을수록 이상 소견 비율이 증가해 일선 교육현장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비만은 그 자체로 성인병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비만으로 인한 신체나 외모에 대한 불만족이 낮은 자존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동과 청소년의 비만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이미 비만인 청소년의 감량 등을 돕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비만을 예방하거나 관리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비만은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할 일이 아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비만을 관리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써야 한다. 서울시 구로구는 어린이 대사증후군 관리를 위해 집단추적연구(코호트 측정)를 실시한다고 2007년 6월 21일 밝혔다. 구는 고대 구로병원과 관내 초등학교를 연계해 어린이 대사증후군 퇴치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1단계로 초등학생들의 비만과 대사증후군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장기집단추적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어린이 대사증후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소아비만과의 관계 조사에 나선 것은 소아비만이 어린이 대사증후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와 같이 과학적 연구와 체계적인 개입이 절실하다.

#### 4. 청소년의 건강관리와 규칙적 운동

청소년 생존권을 적극적으로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는 객관적인 건강상태와 함께 스스로 얼마나 건강하다고 인식하느냐이다.

한국 청소년은 지난 20여 년간 키가 3~8cm 더 커지고, 몸무게도 2~10kg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중3 남학생의 키는 168.68cm로 20년 전보다 7.98cm가, 여학생은 159.53cm로 3.94cm가 커졌다. 고3 남학생과 여학생도 각각 4.75cm와 3.35cm가 커진 173.90cm, 161.10cm로 나타났다. 이는 생활수준 향상으로 영양 섭취가 좋아졌고 운동 등 건강관리에도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몸무게도 20년 전보다 2~10kg 늘어났다. 고3 남학생은 20년 전에 비해 7.71kg이 늘어난 68.16kg으로, 여학생은 2.26kg 증가한 55.43kg이었다. 그러나 중3 남녀학생과 고3 여학생의 몸무게는 지난해보다 0.2~0.6kg 줄어 최근의 참살이 문화와 다이어트 열풍을 반영했다.

초·중·고교생의 75.62%가 한 개 이상의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앓고 있는 질병이 1개인 학생이 40.77%였고, 2개인 학생은 24.84%, 3개인 학생은 7.82%였으며 최고 7개 질병을 앓는 경우도 있었다.

학생의 질병률은 치아 이상과 관련된 질병이 가장 높았다. 치아우식증(세균에 의해 치아가 녹는 현상)이 43.43%였고, 부정교합 9.39%, 치주질환 6.48% 순이었다. 42.19%는 시력 이상자였고, 코·목 등의 이비인후과 질환(8.16%)과 피부질환(3.83%)도 2005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다. 이처럼 질병이 급증한 것은 학생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는 점도 있지만, 2005년까지 학교에서 실시하던 건강검진을 2006년 처음 전문병원에서 실시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검진된 탓도 있다.

청소년이 주관적으로 인식한 건강평가는 다소 양호한 편이다. 2006년에 15~19세 청소년은 자신이 건강한 편(48.7%)이라고 인식하고, 매우 좋다(20.9%)를 포함하면 69.6%가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반면에 나쁜 편(2.3%)과 매우 나쁘다(0.1%)를 포함하여 2.4%는 나쁜 편이라고 했는데, 이는 전체 인구의 15.5%가 나쁜 편이라고 인식한 것과 비교할 때 양호한 편이다.

2005년 20~29세 청소년이 인식하는 스트레스는 많이 느낌이 26.8%이고 매우 많음(6.1%)을 포함할 때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청소년이 전체의 32.9%이고 이는 2001년의 34.4%에 비교하여 1.5%포인트 밖에 낮아지지 않았다. 청소년은 주관적 건강평가에서는 노인 등 다른 인구집단에 비교하여 훨씬 매우 혹은 건강한 편이라고 응답하였지만, 스트레스 인식 정도에는 다른 인구집단과 큰 차이가 없었다.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2005년 20~29세 청소년의 규칙적인 운동실천율을 보면, 중등도 운동실천율은 19.4%이고, 고강도 운동실천율은 14.6%로 전체 인구집단의 22.0%와 15.3%에 각각 2.6%, 0.7% 포인트씩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30일 이상 걷는 비율도 61.2%로 하루에 30분도 걷지 않는 사람이 39.3%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2001년도에 20~29세 청소년의 중등도 운동실천율이 15.5%이고 고강도 운동실천율이 9.7%인 것에 비교할 때, 2005년에 각각 3.9%, 4.9% 포인트씩 향상되었다는 점이다. 최근 규칙적인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실천율이 높아졌기 때문인데, 1일 30분 이상 걷는 비율은 4년 전에 비교하여 16.1%포인트나 낮아진 것은 자동차의 생활화로 일상생활 속에서 걷기

는 더욱 줄어든 것임을 알 수 있다.

성장의 5대 요소는 적당한 운동, 적당한 영양, 충분한 수면, 적당한 야외활동, 스트레스 없는 생활 이 다섯 가지를 꼽는다. 특히 5대 요소 가운데 적당한 영양은 아이의 성장에 있어 더 없이 중요하다. 청소년이 지나치게 패스트푸드를 먹는 습관 때문에 칼슘 부족으로 키 성장에 방해를 받을 수 있다. 2006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건강 영양조사 분석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칼슘섭취량은 권장량의 5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칼슘 섭취를 위해서는 우유를 꾸준히 마시는 것이 좋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가 2008년부터 현재의 체력검사 대신 ‘맞춤형 학생 건강 체력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적절한 선택이다. 또한 많은 대학교에서 보편화된 ‘학생상담센터’ 혹은 ‘정신건강센터’를 학생수가 많은 초중고등학교에도 설치하고, 개별 학교단위에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생활권별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증설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상담센터는 주로 개인상담과 집단상담, 심리검사 등을 실시하고, 전문상담원이 학생들과 일대일 ‘맞춤상담’을 해야 할 것이다. 면접상담을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들을 위해 이메일 상담이나 화상상담 코너도 개설한다.

학생들에게 성격과 학교생활, 적성 등의 상담에서 취업·리더십 교육 등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도움을 주고, 멘토링(Mentoring) 프로그램을 확산시킨다. 멘토(Mentor·상담자) 혹은 멘티(Mentee·상담을 받는 사람)로 참가하는 학생들은 동문 선배들에게서 진로상담을 받거나 혹은 중·고생을 대상으로 직접 고민상담·학습지도 자원봉사를 하면서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 5. 사회적 안전감의 수준

한 사회가 얼마나 안전한가는 각종 안전 지표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고, 범죄지표와 같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지표에 의해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5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가 2004년 45만5601건, 2005년 48만7687건, 2006년 48만9372건으로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과 사이버범죄도 계속 증가했다. 우리 사회의 이러한 범죄 증가 배경에는 경기불황 및 실업률 증가, 가족 해체, 사회규범 체제의 혼란, 계층간 갈등 등이 한몫했다. 범죄를 행한 개인의 독특한 생리, 심리적 문제도 크다.

한국사회에서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커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공동체사회의 특징이 강한 농어촌지역에서는 좀 낮고, 대도시로 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15~19세 청소년이 느끼는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1997년 58.3%에서 2001년 57.7%로 다시 낮아졌다가 2005년 60.2%로 다소 높아졌다. 최근 택시 강도에 의한 승객 납치와 살해사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후 살해사건 등이 늘어나면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을 포함한 전체 연령층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에 대해서 15~19세 청소년은 2005년에 있다가 53.8%, 없다가 46.2%로 안전하다는 사람이 7.6%포인트 더 많았다. 하지만, 2001년에 있다가 57.8%, 없다 42.2%인 것에 비교하여 안전도에 대한 신뢰가 4년 동안 4.0%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야간에 혼자걸기가 두려운 이유에 대해서 15~19세 청소년은 2005년에 인적이 드물어서가 62.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가로등이 없어서(29.7%), 우범지역이므로(7.4%) 등이라고 했다. 2001년에 비교하여 가로등이 없어서 혹은 우범지역이라는 이유는 줄고, 인적이 드물어서라는 이유는 더 늘었다. 이는 특정 지역이 우범지역이거나 가로등이 없어서 야간에 혼자 걸기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인적이 드물어서’ 두렵다는 것이다. 도시가 더욱 거대해져 익명성이 커지고, 자동차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야간에는 혼자 거리를 걷는 것조차도 두렵다는 현상이 더욱 커지고 있는 듯하다.

아동과 청소년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적극 예방할 뿐만 아니라, 이미 범죄 피해자가 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지원센터가 절실해서 경찰청은 ‘학교·여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성폭력 피해자 등으로 한정된 사생활과 신변보호를 전체 범죄피해자로 확대할 예정인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함께 범죄 예방에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6. 자동차 사고와 사고 방지

아동과 청소년의 사망에 대한 첫 번째 이유는 자동차 사고이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도시에서 거주하는 아동과 청소년이 늘어나고, 한국에서는 매일 출산아동수보다 새로 등록되는 자동차수가 더 많기 때문에 자동차사고를 줄이는 것이 아동과 청소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차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사고의 발생건수가 줄어들고 이로 인한 사상자수가 꾸준히 감소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2004년 자동차사고 발생건수는 220,755건이었는데, 이는 2000년의 290,481건에 비교하여 24.0% (69,726건)이나 감소된 것이다. 자동차사고가 감소하면서도 이로 인한 사망자수도 감소하였는데, 2000년 10,236명에서 2004년 6,563명으로 35.9%(3,673명)감소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같은 기간 동안에 자동차의 수는 꾸준히 증가되었기 때문에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수는 7.4명에서 3.9명으로 감소되고, 부상자수는 307.5명에서 208.2명으로 감소되었다.

이처럼 과거에 비교하여 자동차사고에 의한 사상자수가 크게 감소되고 있지만,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교할 때 여전히 자동차사고와 다른 안전사고가 많고, 이로 인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많이 사망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사고로 사망하는 어린이의 수가 한 해 동안 일본은 2,697명, 한국은 1,894명이라고 밝히면서, 이 중 안전사고 사망자는 각각 906명(33.5%)과 895명

(47.2%)에 이르며 전체 사망비율로 볼 때 한국 어린이 사망률은 일본에 비해 1.4배가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 어린이 사고사망률이 아동인구 10만 명 기준으로 비교해 볼 때(2001년 기준, 1세~14세 사이 어린이) 13.3명에 이르러 일본(5.3명)보다 무려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사망을 유형별로 나눌 때 안전사고(10명 중 4.7명 사망)가 전체 사망률 1위를 기록했고 이어 백혈병을 포함한 암류 사망(10명 중 1.2명)이 그 뒤를 이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모든 연령대에서 교통사고 사망률이 사망원인 1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6년 어린이교통사고는 총 1만 9,223건(사망 276명, 부상 2만 3,880명)이 발생, 그 중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는 총 323건(사망 9명, 부상 33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5년과 대비해 어린이 교통사고는 6% 감소,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는 7% 감소한 수치다. 연령별 어린이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초등학생 1만 1,302명(45%), 취학전 아동 8,436명(34%), 중학생 5,391명(21%)순이다. 2006년 어린이 교통사고 총 1만 9,223건 중 어린이 과실은 단 5건뿐이다.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을 자동차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나 노약자가 자동차 위험 없이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편이다.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005년에 15~19세 청소년이 인식하는 수준은 ‘보행시’에 자동차의 위험 때문에 ‘불안하다’는 비율이 59.1%이고, 안전하다는 비율은 6.2%에 불과했다. 이러한 인식은 국민전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불안하다는 비율이 63.3%이고, 안전하다는 5.5%에 불과하다. 최근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상자의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노약자와 어린이가 자동차 위험 없이 보행하기는 어려운 환경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상자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 각 분야가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한국 정부도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관련 엔지오와 함께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중 하나로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했다. 사회협약은 전문, 건강 분야, 안전분야, 추진·지원체제 등 3개 분야 68개 세부 협약사항으로 되어 있다. 우선 안전 분야는 어린이교통사고 예방, 아동학대 방지, 아동 성범죄 예방 등 26개(협약)항, 건강분야는 당·나트륨·지방 과다 식품, 비만, 인터넷 게임중독(과몰입) 대책 등 35개(협약)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추진·지원체제 부분에서는 재원 마련 노력 등의 7개 사항을 담고 있다.

이 협약에는 '2012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OECD 국가 평균이하로 감축'이란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기존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실효성 제고, 차량 유아보호장구(카시트) 안정성 강화 및 대어 확대 등을 실시하고, 이를 위하여 카시트 공동활용 운동 등을 펼치기로 했다.

또한 교통사고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보행자가 차량을 보다 쉽게 관찰하고 자신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행시 우측통행을 생활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 보행시 좌측통행을 장려하고 있는데, 좌측통행을 하면 등 뒤에서 진행되는 차량과 가깝게 보행하므로 차량의 움직임을 보기 어렵다. 보행자가 우측통행을 하면 진행되는 차량을 관찰하면서 보행을 할 수 있고, 등 뒤에서 진행되는 차량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보행시의 사고를 쉽게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우측통행을 할 때 진행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2미터 이상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도 우측통행을 권장하고 있는데, 보행자의 우측통행을 모든 상황으로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 7. 가난한 청소년과 복지

청소년의 빈곤은 단순히 생존권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흔히 빈곤이란 근본적인 생활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상태로 절대빈곤과 다른 사람의 생활수준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빈곤하다고 느끼는 상대빈곤으로 나눌 수 있다.

한국에서 절대빈곤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사람이고 빈곤아동은 18세 미만의 빈곤한 아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2006년 발표한 '주요아동지표'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의 아동 1,200여 만 명(2004년 기준) 가운데 100만 명(8.8%) 정도의 아이들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 또한 상대빈곤층(가계 소득이 중위권 소득의 50% 이하)의 아이들은 164만 명(14.6%)으로, 약 100만~164만 명 아이들이 빈곤으로 고통 받고 있다.

최근 통계청의 전국 가계조사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이하 아동 빈곤율은 8.79%에 이른다. 아동 10명중 1명꼴로 극심한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빈곤율은 한부모 가정의 경우 12.7%로 올라가고 65세 이상 노인과 18세 미만 아동으로 구성된 조손(祖孫) 가정은 48.5%에 달한다.

빈곤가족이 된 사유는 다양하지만, 빈곤한 아동과 청소년은 의식주에서 위기를 맞을 뿐만 아니라 질병에 노출되기 쉽고, 교육기회의 박탈, 여가생활에서 위축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빈곤아동들은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예로 빈곤가족은 경제적 이유로 아동에게 학습하기 적절한 공간을 제공해주지 못해 학업성취를 저해하기도 하고, 이러한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의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빈곤가족의 아동이 비빈곤가족의 아동보다 인지적으로 자극받을 수 있는 성장의 기회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빈곤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주로 빈곤가정에 사는 아동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며,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등을 위하여 아동발달계좌를 도입하였다. 최근에는 지역사회와의 엔지오와 협력하여 희망스타트운동을 펼치고 있다.

참여정부는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려는 정책을 향후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이 실현되어서 빈곤 아동과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빈곤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에

서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도 적지 않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모든 가난한 아동과 청소년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차상위계층의 아동과 청소년, 조손가정에서 살지만 서류상 보호자가 있는 아동은 기초생활보장사업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바꾸어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인정액을 갖춘 차상위계층에게도 교육급여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가구단위와 별도로 개인단위의 급여를 보다 폭넓게 인정해야 할 것이다.

지역아동센터를 전국에 좀 더 많이 설립하도록 지원액을 현실화시키고, 서비스의 내용을 표준화해서 방과 후에 방임되기 쉬운 아동과 청소년에게 좀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현재 6만 여명의 아동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빈곤아동의 수가 10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것에 비춰볼 때 6% 내외에 불과한 수치이다.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사회복지사와 관련 단체도 신고에 의해서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조금만 더 현실화시키면 적은 예산으로도 많은 시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청소년의 생존권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생존권을 대표할만한 지표를 통해서 국내 실태를 파악하고, 접근 가능한 주요 외국의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비교분석하였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표가 한정되어 있기에 관련 지표에 대한 국내외 통계자료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이를 연도별 변화추이를 파악하고, 각 국가별로 비교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국제기준 대비 청소년인권실태조사 2’의 하나로 수행되었기에 청소년의 생존권을 중심으로 가급적 국제기준에 맞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한국 청소년의 생존권 상황을 국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향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국제기준 대비 청소년인권 실태조사 3’을 통하여 한국 청소년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상황

을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할 때 준거가 되는 선행연구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는 각종 통계자료를 산출할 때, 연령변수를 꼭 포함시켜서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독자적인 통계치를 생산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도시 가계연보를 만들 때, 1인, 2인, 3인, 4인가구의 가계소득과 지출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이 있는 가구와 그렇지 않는 가구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통계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생산된 통계도 자료의 성격상 아동과 청소년의 모든 측면을 배려하여 통계자료를 보고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계를 생산하는 기관에서 원 자료를 공개하거나 연구자가 원 자료를 접근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공기관이 수집한 통계 원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널리 개방하는 것이 어렵다면, 관련 연구기관과 같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게 제공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활용하도록 하면 청소년에게 적합한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통계청은 인구및주택총조사를 매 5년에 한 번씩 한다. 이 통계자료를 통해서 한국의 모든 인구와 주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알 수 있는데, 현재는 시/도별로 혹은 시부/군부별로 주요 통계가 공개될 뿐이다. 만약 4천 8백만의 인구 데이터 중에서 9세에서 24세까지 청소년에 관한 데이터만을 재가공하면 청소년의 인구, 가족, 주택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매우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에서 사는 아동과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과 가족과 어떻게 살고 주거상황은 어떠한지에 대한 전수조사 자료는 없다.

또한 통계청은 ‘한국의 사회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 통계자료를 재가공할 뿐만 아니라, 수만 명을 표본조사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수집된 정보는 매우 한정적으로 활용될 뿐이다. 대부분의 통계자료는 거주지역별, 성별, 연령계층별로 범주화되어 활용된다. 따라서 청소년집단 내에서도 세부 연령계층별, 성별, 연령/성별을 교차한 상황에서, 지역별로 구체적인 통계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통계는 생존권 뿐만 아니라, 보호받을 권리, 발달권, 참여권 등에도 해당되는 사항이다. 새로운 조사를 대규모로 하기 전에 기존

의 공신력 있는 통계자료의 원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꼭 필요한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생존권을 대표할 만한 지표를 통해서 볼 때, 한국 청소년의 생존권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가의 수준에 버금가는 수준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향상되고 있다. 기대여명의 향상과 같은 청소년의 생명권은 점차 향상되고 있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비율은 선진국에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고, 가난한 청소년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좀 부족하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청소년의 생존권이 과거의 비교하여 조금 나아진 것에 만족하지 말고, 선진국의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관련 엔지오와 가정, 학교, 사업체의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청소년의 영양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에서 식중독의 예방 수준의 개입이 아니라 영양식단으로 짜고 질 좋은 재료를 쓰도록 장려할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도 인스턴트 음식을 줄이고 아동과 청소년에게 탄산음료를 적게 먹이도록 식습관을 바꾸는 시민운동을 함께 펼쳐야 할 것이다. 한국 청소년의 생존권 문제가 과거 영양결핍과 같은 결핍 문제에서 과체중과 비만과 같은 넘치는 문제로 바뀌기 때문에 생존권에 대한 접근도 청소년의 개별적 특성에 맞추어서 좀 더 섬세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최근 청소년의 성적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성병의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매우 절실하다. 한국에서 청소년 에이즈환자는 다른 나라에 비교하여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청소년의 경우 첫 성경험 연령대가 16세 전후로 빨라져가고, 성매매의 경험도 적지 않은 상태에서 콘돔사용율은 매우 낮다. 이러한 것들을 비춰볼 때 청소년은 에이즈의 안전지대에서 살고 있지 않고 에이즈의 위협은 더욱 커질 것이다. 보다 적극적인 성교육과 함께 안전한 성생활의 중요성을 더욱 강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자는 2006년 ‘청소년 생존권 지표개발’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수행된 ‘청소년 생존권 연구2’를 마무리하면서, 한국 청소년의 생존권 증진을 위해서 10가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생존권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정책이 꼭 시행되어서 청소년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

- 1) 청소년의 기대여명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크게 낮아지고 있지 않기에 자동차 사고를 포함하여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 유치중고등학교에서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 2)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을 해치는 제일의 질병이 치아우식증이므로 어린 시절부터 칫솔질 등을 생활화하여 치아를 건강하게 관리하게 하고, 학교 내외에서 탄산음료 등을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음료수 자판기 등을 철거한다.
- 3) 청소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학교급식을 통해서 결식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비만과 과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초중고등학교에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실내/실외 운동기구를 구비하고, 운동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 4)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나 적극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운동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 운동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운동모임을 장려한다.
- 5) 한국 청소년의 과체중과 비만 그리고 낮은 운동실천율은 향후 한국 청소년의 건강을 가장 위협하는 잠재적 요인이 될 것이다. 과거 아동과 청소년의 생존권을 위한 정책이 깨끗한 물,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제공하였다면, 미래의 정책은 비만을 줄이고 운동을 늘리는 정책이 될 것이다. 따라서 모든 청소년의 건강기록부를 만들어서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컨설팅을 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 6) 청소년의 성적 활동이 활발해져서 첫 성경험의 연령이 낮아지고 성경

험의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콘돔의 사용과 같은 안전한 성생활을 가르치고, 에이즈 등 성병 예방을 위해서 가정, 학교, 사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7)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 범죄방지대책을 세우고, 특히 밤길에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오후 10시 이전에는 반드시 하교하도록 해야 한다.
- 8) 자동차 사고로 인한 아동과 청소년의 사망자 수를 10만 명당 3명 미만으로 줄이기 위해서 학교와 주택가에서 차량의 서행을 의무화하고 보행자의 우측통행을 장려한다.
- 9)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난해지기 쉬운 한 부모 가족, 조손가족 등의 아동과 청소년이 생계, 의료, 교육, 주거에서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복지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10) 한국 청소년의 생존권을 포함하여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을 대표할 만한 지표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주기적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적 기관이 생산한 통계의 원 자료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이 접근하여 재분석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보건복지부(2007). 2007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이용교(2006) 디지털 청소년복지, 인간과복지.
- 이용교·천정웅·안경순(2006). 청소년 생존권 현황과 지표개발. 한국청소년개발원.
- 통계청(2005). 한국의 사회지표 2005.
- 통계청(2006). 한국의 사회지표 2006.
- 최창욱·박영균·김진호·임성택·전성민(2006). 국제기준대비 한국 청소년의 인권 수준 실태연구 I. 서울:한국청소년개발원.
- UNICEF(2004). 2005 세계아동현황보고서.

- 국민일보, 2007년 1월 1일자
- 국민일보, 2007년 9월 3일자
- 국민일보, 2007년 9월 11일자
- 국정브리핑, 2006년 4월 4일자
- 국정브리핑, 2007년 3월 19일자
- 국정브리핑, 2007년 8월 16일자
- 국정브리핑, 2007년 9월 6일자
- 국정브리핑, 2007년 9월 21일자
- 국정브리핑, 2007년 9월 23일자
- 노컷뉴스, 2007년 1월 27일자
- 노컷뉴스, 2007년 6월 18일자
- 노컷뉴스, 2007년 7월 25일자
- 뉴시스, 2006년 8월 22일자
- 뉴시스, 2006년 9월 4일자
- 뉴시스, 2006년 12월 20일자
- 뉴시스, 2006년 12월 22일자
- 뉴시스, 2007년 1월 10일자
- 뉴시스, 2007년 6월 13일자
- 뉴시스, 2007년 7월 6일자
- 뉴시스, 2007년 8월 14일자
- 뉴시스, 2007년 8월 20일자
- 뉴시스, 2007년 8월 30일자
- 뉴시스, 2007년 9월 14일자

뉴시스, 2007년 9월 19일자  
뉴시스, 2007년 9월 20일자  
데일리서프, 2006년 5월 3일자  
동아일보, 2007년 9월 10일자  
동아일보, 2007년 9월 21일자  
매일경제, 2007년 1월 5일자  
머니투데이, 2005년 2월 25일자  
머니투데이, 2007년 6월 21일자  
문화일보, 2004년 10월 18일자  
문화일보, 2007년 9월 21일자  
민중의소리, 2007년 6월 26일자  
바이러스, 2007년 9월 12일자  
바이러스, 2007년 9월 21일자  
뉴스앤뉴스, 2007년 8월 31일자  
서울신문, 2007년 5월 3일자  
아시아경제, 2007년 7월 23일자  
연합뉴스, 2004년 11월 10일자  
연합뉴스, 2006년 2월 16일자  
연합뉴스, 2007년 5월 4일자  
연합뉴스, 2007년 5월 11일자  
연합뉴스, 2007년 7월 6일자  
연합뉴스, 2007년 8월 1일자  
연합뉴스, 2007년 8월 30일자  
연합뉴스, 2007년 9월 17일자  
위클리조선, 2007년 9월 4일자  
오마이뉴스, 2007년 6월 3일자  
오마이뉴스, 2007년 7월 7일자  
오마이뉴스, 2007년 8월 21일자  
조선일보, 2006년 10월 2일자  
조선일보, 2007년 9월 18일자  
쿠키뉴스, 2007년 4월 25일자  
쿠키뉴스, 2007년 5월 8일자  
쿠키뉴스, 2007년 9월 20일자  
한겨레, 2007년 1월 12일자



청소년 노동권 분야  
- 청소년 노동참여권·노동보호권 실태 분석

박 창 남(나사렛대학교)



# 목 차

I. 서 론 .....	103
II. 이론적 배경	
1. 인권의 개념과 성격 .....	105
2. 인권과 청소년권 .....	106
3. 인권과 청소년노동 .....	110
4. 청소년노동에 관한 국제협약 .....	113
5. 아르바이트(Arbeit)의 개념 .....	114
III. 청소년 노동참여권과 노동보호권 실태조사1	
- 청소년인권실태조사(2007년) 자료분석	
1. 아르바이트 참여경험 .....	117
2. 아르바이트 참여의 세부실태 .....	124
3. 아르바이트 작업장에서의 인권침해실태 .....	136
4.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이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 .....	143
5. 요약 .....	149
IV. 청소년 노동참여권과 노동보호권 실태조사2	
- 한국청소년패널 1차(2003년)~3차(2005년) 자료분석	
1. 아르바이트 참여경험 .....	155
2. 아르바이트 참여의 세부실태 .....	170
3. 아르바이트 작업장에서의 인권침해실태 .....	205
4.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이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 .....	242
5. 요약 .....	252
V. 결론 및 정책제언 .....	259
참고문헌 .....	265



## I. 서 론

청소년기는 신체적 성숙과 더불어 인지능력과 도덕성이 발달하고, 가치관이 형성되며, 자아정체감이 발달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청소년의 신체적·심리적 발달은 주변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으로 고려되어 왔던 것은 가정, 학교, 대중매체, 지역사회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주변 환경들을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가정과 학교는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 환경이고, 대중매체 또한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에 맞추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덜한 환경으로 간주되어왔던 지역사회가 최근 들어 청소년들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환경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한 가운데에 바로 임금을 목적으로 지역사회의 노동시장(labor market)에 참여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있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의 1차·2차·3차년도 자료에 따르면 중2부터 고1까지 한 번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27%에 이르고 있다. 최근 청소년들의 일과 소비에 대한 관심을 고려하면 앞으로 이러한 비율은 점차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최근 청소년의 아르바이트경험에 대한 연구들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노동현장에는 아직 큰 변화가 없어 보인다. 일터에서 청소년의 인권침해는 줄지 않는 가운데, 적지 않은 수의 청소년들이 방과 후, 혹은 방학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노동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재학 중 아르바이트 참여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밝힌 몇몇 종단적 연구들은 일관되게 청소년의 아르바이트경험이 학교성적의 저하, 비행 및 학교부적응의 증가와 같은 부정적 영향을 가져옴을 밝히고 있다(김기현 2003; 김기현 2006; 박창남 2006; 박창남 2007; 유성렬, 2006).

이제 변화는 일하는 청소년들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일하는 청소년들이 ‘인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터에서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보다 안전

하고 건전한 일자리를 창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청소년인권을 위해 일하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인권의 측면에서 청소년노동의 영역을 바라볼 때에는 두 가지 차원에서의 인권이 존재한다. 하나는 청소년의 노동참여의 권리, 즉 노동참여권이고, 다른 하나는 일하면서 보호받을 권리, 즉 노동보호권이다. 따라서 국가는 청소년에게 일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일을 하는 청소년이 작업장에서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는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진행시켜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노동 영역에서의 인권을 노동참여권과 노동보호권으로 나누어 각각의 정확한 실태를 분석하는 것이다. 노동참여권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동참여경험 및 참여 동기와 같은 전반적인 노동참여경험과 청소년이 참여하는 노동의 직종, 임금, 노동시간과 같은 아르바이트에 대한 세부적인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노동보호권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임금체불, 구타나 폭행, 폭언, 부상 등과 같은 작업장에서의 인권침해실태와 노동경험이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중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Arbeit)의 형태로 노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이다. 본 연구는 크게 청소년노동과 인권에 대한 이론적 검토, 청소년노동참여권과 노동보호권의 실태분석, 결론 및 정책제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론적 배경에서는 노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에게 있어서 인권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청소년노동참여권과 노동보호권의 실태분석은 두 가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첫 번째 자료는 200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전국의 중고등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 조사한 청소년인권실태조사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 사용된 설문지에 청소년노동에 관련된 문항들을 부가적으로 포함시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실태를 분석하였다. 두 번째 자료는 한국청소년패널의 1차·2차·3차년도(2003년~2005년) 자료이다. 이 자료는 2003년 전국의 중학교 2학년을 모집단으로 하여 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3차년도 동안 패널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이다. 마지막으로 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일하는 청소년의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인권의 개념과 성격

인권이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생명·자유·평등 등에 관한 기본적 권리’이다.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편성을 갖는다.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 권리가 모든 인간에게 있다는 인권의 보편성을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인류역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과연 보편적 인권의 개념이 전제로 하고 있는 보편적 인간이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인권개념이 성립하는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면 그 당시의 특수한 시대적 특성과 사회적 조건들이 중요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편적 인권의 전제가 되고 있는 보편적 인간이라는 개념이 시대를 초월하여 인종, 성, 연령, 계급, 문화, 종교 등에 따라 분화된 복잡한 사회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포괄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권 개념의 보편성은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현재의 인권은 고대의 자연법 사상, 문서화를 통한 전제왕권에 대한 권리의 확보, 혁명과 입헌국가 수립에 따른 권리선언, 그리고 인권의 국제화 또는 세계화 등과 같은 역사적 흐름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형성된 인권개념의 몇 가지 특성으로 인해 인권이 보편적 인권개념으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특성이란 단순한 지리적 한계가 아니라 정치적, 사상적, 문화적 한계를 포함하는 의미에서 유럽과 미국에 국한되는 ‘지역성’, 근대 전제적 왕권과 계급사회를 바탕으로 한 정치적 역학관계의 산물이라는 측면에서의 ‘정치적 특성’, 왕권을 제한하고 귀족 및 유산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계급적·경제적 특성’, 정치적으로 자유주의를, 경제적으로 자본주의를 전제로 하는 ‘사상적 특성’이다.<sup>1)</sup>

세계인권선언문의 내용에서도 이러한 보편성의 한계가 반영되어 있다는 주장이 있다. 개인간 평등(1조), 결혼의 자유선택(16조), 종교의 자유(18조), 사유재산권(17조)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조항들은 서구적 편견이며, 자민족 중심주의적인 조항으로 지적받고 있다. 그 이유는 개인간 평등은 위계적 사회질서에 근거한 국가들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결혼의 자유선택은 혼인을 가족간 선택으로 간주하는 나라들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종교의 자유는 많은 이슬람 국가들에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며, 사유재산권에 관한 조항은 아프리카의 전통사회처럼 공동체 소유가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와 같이 국가소유가 정상적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곳에서는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2)</sup>

이와 같이 인권은 보편적 가치로 인식되면서도 복합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 더욱이 사회마다 인권 발전의 역사가 다르고, 사회적 여건이나 문화적 바탕에 따라 실행양상도 달라 논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인권의 보편성이 갖고 있는 중요한 역사적 의의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인권의 보편성의 한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도 필요하다. 이러한 두가지 인식은 인권의 보편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인권의 기본정신을 각각의 사회에 뿌리 내리도록 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 2. 인권과 청소년권

보편적 인권이 한 사회의 청소년에게 적용되어 질 때는 두 가지 특수성을 갖는다. 첫 번째 특수성은 사회별 특수성으로서 청소년기는 근대역사의 산물로서 사회마다 다양한 연령범주와 개념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특수성은 사회내적 특수성으로서 청소년은 특정 사회내의 ‘어른’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sup>3)</sup>

1) 차병직, ‘인권의 역사적 맥락과 오늘의 의미’, 지산, 2003, pp. 53-58

2) 성미영, ‘국제 아동노동 반대운동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대응’,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 4

이 글에서는 두 번째 특수성의 측면에서 청소년이 갖는 인권에 대해 논의해보기로 한다. 청소년권이란 청소년으로서 갖고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권은 청소년 개념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성격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청소년은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는 인간’이다. 이러한 개념정의가 의미하는 바는 ‘청소년은 인간이다’라는 것이고, 동시에 ‘청소년은 어른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청소년이 인간이라는 사실에서 청소년은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권리를 갖는다. 동시에 청소년이 어른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청소년은 어른과 같은 보편적 권리가 제약된다. 그 대신에 아직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므로, 보호의 권리라는 새로운 권리가 청소년에게 부여된다. 이와 같이 ‘청소년이 어른이 아닌 인간’이라는 사실로부터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인권이 부여되는 동시에 일부 제약되는데, 이것이 청소년권이 갖는 이중성이다.

과연 청소년에게 있어서 보편적 인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어른이 갖는 보편적 권리 중 어디까지 제약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게된다. 이러한 청소년인권의 경계를 정하는 것은 사회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사회에서 청소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청소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 청소년권에 대한 대립적인 두 가지 입장이 존재한다.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는 인간에게 부여된 권리에 대하여 ‘성장과정’이라는 특성을 강조하여 청소년의 권리제한을 강조하는 ‘닫힌 입장’과 ‘인간’이라는 특성을 강조하여 청소년의 권리확대를 강조하는 ‘열린 입장’의 대립이 존재하는데, 각각의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4)</sup>

닫힌 입장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전통을 계승하는 것을 강조하는 보수적 가치를 존중하는 집단에게서 강하게 나타난다. 이들은 청소년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불완전하며 나약하여 보호받으며 자라야 하는 존재라고 본다. 어른이 될 때까지 어른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배워야하고, 어

3) 이봉철, ‘인권,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권’, ‘한국청소년연구’, 2권 4호, 한국청소년개발원, 1991, p. 19

4) 김종섭, ‘아이들의 인권: 이중성의 딜레마’, ‘한국어린이·청소년의 인권’, 2002, 오름, pp. 23-26

른을 잘 공경해야 한다고 보며, 어른과 대등한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어린’ 존재임을 강조한다.

열린 입장은 아이들이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아이들은 주체적이며 자율적인 존재로서 존엄성을 누리며 자유롭고 평등한 대우를 받으며 안녕 복리를 누릴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본다. 청소년이 미성숙하고 불완전하며, 따라서 일방적인 보호의 대상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닫힌 입장은 청소년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하다는 이유로 행동에 제한을 두고, 교육이나 훈육을 강조하지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청소년의 의견을 무시하고 억압하게 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소년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실제로는 청소년의 고유한 인권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열린 입장에서의 문제점은 청소년의 인권실천과정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어느 정도 허용해야 하는가는 단순하게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분별력을 배우고, 사회환경에 적응할 지식을 얻기 위하여 청소년은 일정한 수준의 도움이 요구된다. 이러한 도움은 청소년이 ‘올바르’ 성장하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무한한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

현실 사회에서는 닫힌 입장과 열린 입장사이의 다양한 스펙트럼의 형태를 띠고 청소년인권의 범주가 정해지고 있다.

청소년에게는 기본적인 인권의 제한과 더불어 어른에게는 없는 새로운 보호의 권리가 부여된다. 청소년이 아직 성장하고 있는 과정에 있으므로 양육받고, 보호받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것은 청소년에 대한 어른의 의무로 표현될 수 있으며, 어른이 부여한 권리이다.

그런데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과 ‘보호의 권리’가 갈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봉철은 청소년권중 인권적 요소와 사회위치권적 요소(보호의 권리)가 갈등할 경우에는 인권적 요소가 우선 준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사회위치권적 요소가 청소년의 생성적 기본권의 자발적 행사를 돕기 위한 보

족수단이고, 사회위치권적 요소 역시 그 궁극적인 정당화 기반은 생성적 기본인권에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위치권적 청소년권은 어찌보면 보호를 명분으로한 사회의 청소년에 대한 정당한 간섭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간섭의 기준과 목표가 생성적 기본인권을 해치는 방향으로 설정된다면 이는 이미 근본 취지를 벗어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sup>5)</sup>. 그런데 현실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의 해결모습은 인권에 대한 이와 같은 논리적인 판단과 얼마든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인간’이므로 갖게 되는 보편적 인권의 존중과 ‘어른이 아닌 청소년’이므로 갖게 되는 보편적 권리의 제약사이에는 갈등이 존재한다. 그리고 청소년에게 주어지는 ‘보호의 권리’와 ‘청소년 인권’사이에도 긴장이 존재할 수 있다. 청소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차이에 따라 이러한 갈등과 긴장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된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결국 청소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결정짓는 사람은 어른이라는 것이다. 기존 사회에 형성되어 있는 청소년에 대한 개념과 태도, 인권의식에 의해 청소년권의 범위와 내용이 결정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사회의 청소년의 경우는 어떠한가? 우리사회는 20세기 이후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어오고 있다. 급격한 사회변동이 세대적 차이를 심화시키는데 있어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sup>6)</sup> 사회전반적인 무규범상황과 더불어 세대간의 심각한 정도의 의사소통의 단절로 말미암아 청소년세대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아주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다. 현재 우리사회의 청소년에 대한 어른들의 입장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은 청소년권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짐작케 한다. 단지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한국청소년들이 과거보다 많은 사회적 힘을 가짐에 따라 청소년권의 자율적 요소가 앞으로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만은 가능하다.

---

5) 이봉철, 앞의 책, pp. 23-24

6) 정근식·김해식 역, ‘사회변동의 이론과 전망’, R. H. Rauer, (Karl Mannheim,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ed. Paul Kecskemeti, Routledge & Kegan Paul, 1952), pp. 309-310

### 3. 인권과 청소년노동

청소년의 노동은 한 사회의 전반적인 경제적 수준, 그리고 교육제도의 발달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반적인 경제적 수준이 낮은 사회에서는 가족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인처럼 노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청소년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제도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교육의 기회를 제대로 가질 수 없으므로 어느 정도만 성장하면 일찍 노동에 투입된다. 이러한 이유로 경제적 수준도 낮고 교육제도도 미비한 국가들에서 아동·청소년 노동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며, 이들에 대한 노동착취와 학대는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

한국사회는 1960-1980년대에 낮은 경제적 수준과 미비한 교육제도의 상황을 겪었다. 당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물결 속에 광범위한 청소년 노동이 대도시 공장에서 발생하였다. 학업을 포기하고 농촌을 떠나 도시로 몰려든 10대 청소년들은 대부분 공장에서 밤늦도록 일하였고, 번 돈의 상당 부분을 농촌의 부모님께 보내드렸다. 이들이 바로 한국사회에서 경제적 급성장기에 등장한 전통적인 근로청소년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예전과 같이 전업으로 일하는 근로청소년은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그 대신 용돈을 목적으로 전업이 아닌 부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청소년 노동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늘어난 소비수준으로 인하여 부모님의 용돈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 있다.

1960-1980년대에는 가족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하여 청소년이 노동에 내몰려 착취와 학대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므로 가급적이면 청소년들의 노동참여를 억제하고, 어쩔 수 없이 노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에는 제한적인 조건하에서의 노동만을 인정하도록 하는 노동정책이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요즘처럼 아르바이트 고용의 형태가 주류를 이루는 상황에서는 예전과 같이 노동참여 억제를 통한 소극적 노동보호정책보다는 노동참여의 영

역을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까지 확대하되, 그 참여의 영역에서 착취와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적극적 노동보호정책으로 노동정책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회변화에 따라 요즘의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노동참여의 동기와 목표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며, 외국의 경우에서처럼 일의 경험이 가져올 수 있는 교육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법률에서는 청소년들의 ‘노동에 참여할 권리, 즉 노동참여권’과 ‘일하면서 보호받을 권리, 즉 노동보호권’을 모두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32조 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64조에 의하면 「15세 미만인 자(18세 미만 중학생 포함)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15세 이상(18세 미만 중학생 제외)인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러한 권리가 실현되도록 도와줄 책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헌법 제5항에 의하면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되어있으며, 근로기준법 제69조에서 제72조까지 만18세 미만인자의 노동보호를 위하여 근로시간제한, 야업금지, 휴일근로금지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률상에도 ‘15세 이상 청소년(18세 미만 중학생 제외)’은 노동에 참여할 권리와 일하면서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도 동시에 보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의미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청소년의 노동참여권의 측면이다. 과거 청소년 노동의 보호를 위해 가급적 노동참여를 규제했던 근로기준법의 법률 중에서 이미 그 실효성을 상실하였거나, 현재 청소년의 노동참여권을 보장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는 법률이 적지 않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근로가능연령의 제한이다. 과거와 같이 전통적인 근로청소년이 양산되었던 상황에서는 청소년기에 노동으로 혹사당하여 건강하지 자라지 못하거나, 교육을 포기하는 경우

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 노동참여를 규제하고, 노동시장의 범위를 좁히는 것이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사회변화에 따라 아르바이트 취업형태가 양산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법적으로 용인된 노동의 범위를 계속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청소년의 노동보호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아래, 청소년의 노동참여권을 소외시키는 것이며, 이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법적인 영역의 청소년노동을 계속 증가시킬 것이므로 결국 청소년의 노동보호권마저도 위협받게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청소년의 노동보호권의 측면이다. 청소년들은 일을 하면서 노동으로 인하여 건강한 성장발육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학교수업에도 지장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성인보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특히 사회변화의 흐름에 따라 청소년의 노동참여의 영역이 점차 넓어지는 상황에서는 청소년의 노동착취와 폭력, 학대 등을 막기 위한 청소년 노동에 대한 감독 및 위반시의 처벌 등과 같은 조항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따라서 청소년 노동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처벌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법령들은 청소년 노동권을 침해하는 법령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청소년의 노동참여의 영역이 더욱 넓어지고 그 형태가 다양해질 경우 청소년 노동을 보호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 노동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전환을 유도하면서, 유연하고 다양한 노동형태를 포괄할 수 있는 적극적 노동보호정책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는 이중의 동시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그 하나는 청소년에게 일을 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에 참여하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다. 근로감독과 보호 기능이 현재보다 강화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노동참여의 확대는 자칫 노동착취와 인권침해를 양산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노동참여가 없는 근로감독과 보호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 4. 청소년노동에 관한 국제협약

1966년 유엔이 채택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하면 노동권이란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강제노동 및 노예노동의 금지’를 의미한다. 노동권에는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권적 요소와 강제노동 및 노예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권적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청소년노동에도 역시 자유권적 요소와 사회권적 요소가 모두 포함되는데, 일반적 노동권과 다른 점은 여기에는 청소년 인권의 이중성이 반영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인간으로서 갖게 되는 노동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 동시에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의 권리가 제약되고, 어른에게는 없는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추가적 권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청소년 노동권에는 성인에 비하여 자유권이 제약되고 사회권적 요소가 보다 강조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 노동에서 인권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국제노동기구 협약 중 청소년노동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2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당사국은 경제적 착취 및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본 조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여타 국제문서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단일 또는 복수의 최저 고용연령의 규정
  - 나. 고용시간 및 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의 마련
  - 다. 본 조의 효과적인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처벌 또는

## 기타 제재수단의 규정

다음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제138호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의 내용이다.

2조 취업의 최저연령은 의무교육 종료연령을 하회하여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15세를 하회하여서는 아니된다.

3조 업무의 성질에 따라 또는 업무가 행해지는 상황에 따라 연소자의 건강, 안전 또는 도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취업할 수 있는 최저연령은 18세를 하회하여서는 아니된다.

7조 국내법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노동에 관하여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의 자의 취업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건강 또는 발육에 유해할 우려가 없을 것

(나) 학교출석 또는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인정된 직업지도나 훈련과정의 참가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또는 학습능력을 손상시키지 아니할 것

권한있는 기관은 위의 규정에 의거 취업이 인정되는 경제활동을 결정하고, 그러한 취업의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위의 두 가지 협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노동은 청소년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건강의 권리, 안전의 권리, 교육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허용되어질 수 있으며, 허용되어지는 경우에도 청소년노동의 보호를 위해 연령, 업무,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 위반시 처벌조항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 5. 아르바이트(Arbeit)의 개념

본 연구의 대상은 중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의 형태로 노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이다. 여기서 아르바이트라는 단어

는 일, 노동, 근로 등의 뜻을 가진 독일어 *Arbeit*가 외래어화하여 우리말처럼 쓰이는 것으로서, ‘본래의 직업외에 임시로 하는 일’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본업이 공부인 학생이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할 경우 아르바이트라고 부를 수 있다(전경숙 외, 2003). 이러한 아르바이트는 대체로 시간제로 이루어지는 파트타임(*part time*) 근로가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 전일제(*full time*) 근로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파트타임 근로라고 하더라도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주업이 될 경우에는 이것은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직업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아르바이트는 파트타임 근로와 다른 개념으로서 ‘본업이외의 부업’과 ‘임시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개념이다.

### Ⅲ. 청소년 노동참여권과 노동보호권 실태1

#### - 2007년 청소년인권실태조사 자료분석

본 장에서는 200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 청소년노동에 관련된 문항들을 부가적으로 포함시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노동참여권과 노동보호권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설문문항들은 크게 아르바이트 경험, 아르바이트 세부실태, 작업장에서의 인권침해실태, 아르바이트의 영향과 같이 네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첫 번째 범주인 아르바이트 경험에는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 아르바이트 참여동기, 아르바이트 하는 동안 부당한 대우나 차별 경험의 유무, 최초 아르바이트 참여시기,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참여의도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두 번째 범주인 아르바이트 세부실태에는 아르바이트 직종, 구직 시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 구직방법, 시간당 임금, 1주일 평균노동시간, 하루에 가장 오랫동안 일해본 시간, 부모님의 아르바이트 인지 여부, 아르바이트의 미래 직업생활 도움정도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세 번째 범주인 작업장에서의 인권침해실태에는 신체적 구타 및 폭행, 임금체불, 부상, 근로계약서 작성, 부모동의서 제출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네 번째 범주인 아르바이트의 영향에는 수업시간의 줄음, 성적하락, 사회성 향상, 가족과 대화시간 부족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실태분석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교차표분석(crosstab)을 하였으며, 각각의 분석마다 카이제곱검증 결과를 제시하였다.

## 1. 아르바이트 참여경험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은 아래 <표 Ⅲ-1-1>과 같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 청소년의 2.8%를 차지했으며, 현재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해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까지 포함하면 전체 청소년의 21.4%가 1번 이상 아르바이트를 해 보았다고 할 수 있다.

<표 Ⅲ-1-1>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

구분	항목	전혀 없다	해 본 경험이 있지만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	지금 하고 있다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성별 (359)	남자	78.9	18.4	2.7	100.0
	여자	78.1	19.0	2.9	100.0
합계		78.6	18.6	2.8	100.0
교급 (309.686***)	중학교	86.4	12.4	1.2	100.0
	일반고	79.0	19.0	2.1	100.0
	실업고	50.4	39.2	10.3	100.0
합계		78.6	18.6	2.8	100.0
성적 (38.561***)	상	82.9	15.0	2.1	100.0
	중	79.2	18.5	2.3	100.0
	하	72.7	23.3	4.0	100.0
합계		78.4	18.8	2.8	100.0
부학력 (28.781***)	고졸이하	74.6	21.9	3.5	100.0
	대졸	81.8	16.1	2.1	100.0
	대학원졸	83.3	14.2	2.5	100.0
합계		78.3	18.8	2.8	100.0
경제수준 (49.170***)	하	70.3	24.2	5.4	100.0
	중	79.6	18.5	1.9	100.0
	상	83.1	14.3	2.6	100.0
합계		78.4	18.8	2.8	100.0

\* 구분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성별로는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이 있다는 남자 청소년이 21.1%, 여자 청소년이 21.9%로 그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교급별로는 중학교에서는 13.6%가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일반고는 21.1%, 그리고 실업고는 49.5%로서 실업고에서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이 가장 많았다. 성적별로는 성적이 높은 청소년은 17.1%로 가장 낮은 반면, 성적이 낮은 청소년은 27.3%로 가장 높았다. 또한 성적이 낮을수록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이 높아지고 있다. 아버지 학력별로는 고졸이하가 25.4%로 가장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이 높게 나타나고, 대졸이 18.2%, 그리고 대학원졸이 16.7%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이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경제수준별로는 하층이 29.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중간층이 20.4%, 그리고 상층은 16.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아질수록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은 낮아지고 있다.

아르바이트 참여동기의 현황은 아래 <표 III-1-2>와 같다. 원하는 물건을 사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참여했다는 응답이 78.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회생활경험을 쌓기 위해라는 응답이 15.2%,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생활비나 학비에 보태기 위해라는 응답이 6.2%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 남자 청소년이나 여자 청소년 모두 원하는 물건을 사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참여했다는 응답이 각각 77.0%와 80.3%로 가장 큰 동기임이 확인되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생활비나 학비에 보태기 위해라는 응답은 각각 7.6%와 4.6%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고, 사회생활 경험을 쌓기 위해라는 응답은 각각 15.4%와 15.0%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급별로도 중학교, 일반고, 그리고 실업고 모두 원하는 물건을 사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각각 79.0%, 77.5%, 그리고 79.6%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교급별 아르바이트 참여동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적별, 아버지 학력별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고, 원하는 물건을 사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수준별로도 원하는 물건을 사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

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하층의 경우에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생활비나 학비에 보태기 위해라는 응답이 14.5%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상층의 경우에는 사회생활 경험을 쌓기 위해라는 응답이 20.7%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I-1-2> 아르바이트 참여동기

구분	항목	원하는 물건을 사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생활비나 학비에 보태기 위해	사회생활 경험을 쌓기 위해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성별 (2.829)	남자	77.0	7.6	15.4	100.0
	여자	80.3	4.6	15.0	100.0
합계		78.6	6.2	15.2	100.0
교급 (0.653)	중학교	79.0	6.7	14.3	100.0
	일반고	77.5	6.1	16.4	100.0
	실업고	79.6	5.8	14.7	100.0
합계		78.6	6.2	15.2	100.0
성적 (6.064)	상	76.6	6.5	16.8	100.0
	중	81.1	2.7	16.2	100.0
	하	79.1	7.5	13.4	100.0
합계		78.9	6.0	15.2	100.0
부학력 (5.397)	고졸이하	78.7	7.5	13.8	100.0
	대졸	79.5	3.8	16.7	100.0
	대학원졸	73.6	5.7	20.8	100.0
합계		78.6	6.1	15.3	100.0
경제수준 (40.270***)	하	72.5	14.5	13.0	100.0
	중	83.5	2.1	14.4	100.0
	상	75.0	4.3	20.7	100.0
합계		79.0	6.0	15.1	100.0

\* 구분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아르바이트 하는 동안 부당한 대우나 차별 경험 유무에 대해서는 아래 <표 III-1-3>과 같다. 전반적으로 한 번 이상 부당한 대우나 차별 경험이 있

다는 응답이 41%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여러 번 있다는 응답이 9%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는 그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급별로는 한 번 이상 부당한 대우나 차별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중학교, 일반고, 그리고 실업고가 각각 39.2%, 40.0%, 41.0%로 그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여러 번 있다는 응답은 실업고의 경우 13.2%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I-1-3〉 아르바이트 하는 동안 부당한 대우나 차별 경험 유무

구분	항목	전혀없다	한번 있다	두세 번 정도 있다	여러 번 있다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성별 (1,636)	남자	59.1	17.1	13.3	10.6	100.0
	여자	60.9	18.9	12.0	8.3	100.0
합계		59.9	17.9	12.7	9.5	100.0
교급 (8,122)	중학교	60.8	16.5	13.2	9.4	100.0
	일반고	60.0	19.6	13.9	6.4	100.0
	실업고	59.0	17.2	10.6	13.2	100.0
합계		59.9	17.9	12.7	9.5	100.0
직종 (5,590)	전단지	62.4	17.5	13.1	7.0	100.0
	서빙, 배달	56.1	18.7	13.6	11.7	100.0
	기타	62.5	17.1	9.2	11.2	100.0
합계		60.2	17.8	12.3	9.7	100.0
주당노동시간 (31,727***)	1-9시간	66.5	18.1	10.5	4.8	100.0
	10-29시간	55.6	20.0	14.4	10.0	100.0
	30시간 이상	48.0	12.2	17.3	22.4	100.0
합계		59.5	17.6	13.0	9.9	100.0

\* 구분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직종별로는 전단지의 경우에 한 번 이상 부당한 대우나 차별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37.6%, 서빙·배달의 경우에는 43.9%, 그리고 기타 직종에서는 37.5%로 나타나고 있어서 서빙·배달과 같은 종류의 아르바이트에서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주당노동시간별로는 한 번 이상 부당한 대우나 차별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9시간의 경우에 33.5%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30시간 이상의 경우에는 52.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경험 정도에 대해서도 30시간 이상의 경우에 여러 번 있다는 응답이 22.4%로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아르바이트 경험자 중 최초 아르바이트 참여시기는 아래 <표 III-1-4>와 같다. 전체적으로 중학교 3학년 시기에 참여했다는 응답이 25% 정도로 다른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 초등학생 시기와 중학교 1학년 시기에 참여했다는 응답이 각각 18.9%와 14.5%로 여자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 시기 이후에 남자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여자 청소년에 비해 남자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시기가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급별로는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 중학교 3학년 시기라는 응답이 38.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데 비해, 실업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시기라는 응답이 36.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적별로는 전체적으로 중학교 3학년 시기에 처음 아르바이트를 참여했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집단별로 그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아버지 학력별로는 고졸이하와 대졸의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 시기에 처음 아르바이트를 했었다는 응답이 각각 26.8%와 27.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대학원졸의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 시기라는 응답이 29.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수준별로는 전체적으로 중학교 3학년 시기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표 III-1-4> 최초 아르바이트 참여시기(아르바이트 경험자)

구분	항목	초등학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합계
		생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성별 (17,421**)	남자	18.9	14.5	17.2	25.9	18.5	5.1	0.0	100.0
	여자	10.4	13.0	20.1	26.0	21.1	6.8	2.6	100.0
합계		14.5	13.7	18.7	26.0	19.8	6.0	1.3	100.0
교급 (284,826***)	중학교	35.1	31.6	27.5	5.8	0.0	0.0	0.0	100.0
	일반고	8.2	9.1	19.4	38.8	19.8	4.3	0.4	100.0
	실업고	4.5	4.0	10.4	28.2	36.6	12.9	3.5	100.0
합계		14.5	13.7	18.7	26.0	19.8	6.0	1.3	100.0
성적 (9,537)	상	16.4	11.3	18.6	25.4	19.2	8.5	0.6	100.0
	중	10.7	16.4	17.0	30.2	19.5	4.4	1.9	100.0
	하	14.4	13.6	20.1	24.2	20.8	5.3	1.5	100.0
합계		14.0	13.7	18.8	26.2	20.0	6.0	1.3	100.0
부학력 (22,496*)	고졸이하	13.0	12.7	15.8	26.8	22.9	7.1	1.7	100.0
	대졸	14.4	16.0	21.6	27.3	16.5	3.1	1.0	100.0
	대학원졸	23.4	12.8	29.8	10.6	14.9	8.5	0.0	100.0
합계		14.3	13.8	18.8	25.7	20.2	5.9	1.3	100.0
경제수준 (20,846)	하	13.4	11.2	16.2	24.1	24.0	6.7	3.4	100.0
	중	12.1	13.7	20.9	27.1	19.3	6.2	0.6	100.0
	상	21.0	19.0	16.0	25.0	15.0	4.0	0.0	100.0
합계		14.0	13.8	18.7	26.2	20.0	6.0	1.3	100.0

\* 구분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청소년 중 아르바이트를 할 의도가 있는 청소년의 현황은 <표 III-1-5>와 같다. 전체적으로 참여의도가 있다는 응답은 64%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 참여의도가 없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는 참여의도가 있다는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은 각각 63.6%와 65.3%로 그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교급별로는 중학교의 경우 참여의도가 있다는 응답이 55.6%로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실업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참여의도가 있다는 응답이 86.5%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적별로는 성적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에 참여의도가 있다는 응답은 54.6%로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

타나고 있는 반면, 성적이 낮은 청소년의 경우에는 73.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성적이 낮을수록 참여의도가 있다는 응답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버지 학력별로는 고졸이하의 경우에 참여의도가 있다는 응답이 70.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대학원졸의 경우에는 48.4%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아버지 학력이 높아질수록 아르바이트 참여의도가 있다는 응답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경제수준별로는 하층의 경우에 참여의도가 있다는 응답이 77.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상층의 경우에는 56.0%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아르바이트 참여의도가 있다는 응답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III-1-5> 아르바이트 참여의도(현재 아르바이트 하지 않는 청소년)

구분	항목	그렇다	아니다	합계
		비율	비율	비율
성별 (0.889)	남자	63.6	36.4	100.0
	여자	65.3	34.7	100.0
합계		64.4	35.6	100.0
교급 (132.911***)	중학교	55.6	44.4	100.0
	일반고	67.7	32.3	100.0
	실업고	86.5	13.5	100.0
합계		64.4	35.6	100.0
성적 (85.294***)	상	54.6	45.4	100.0
	중	66.4	33.6	100.0
	하	73.9	26.1	100.0
합계		64.4	35.6	100.0
부학력 (66.511***)	고졸이하	70.8	29.2	100.0
	대졸	60.0	40.0	100.0
	대학원졸	48.4	51.6	100.0
합계		64.3	35.7	100.0
경제수준 (62.750***)	하	77.4	22.6	100.0
	중	62.9	37.1	100.0
	상	56.0	44.0	100.0
합계		64.5	35.5	100.0

\* 구분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 2. 아르바이트 참여의 세부 실태

참여한 아르바이트 직종에 대해서는 아래 <표 III-2-1>과 같다. 전단지가 38.3%로 가장 비율이 높고, 서빙·배달이 36.0%, 기타가 25.7%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 전단지라는 응답이 39.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여자 청소년은 서빙·배달이라는 응답이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교급별로는 중학교와 일반고등학교의 경우에 전단지라는 응답이 각각 66.9%와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난 데 비해, 실업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서빙·배달이라는 응답이 57.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적별로는 성적이 높은 청소년은 서빙·배달이라는 응답이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성적이 중간 정도인 청소년은 전단지와 서빙·배달이 모두 35.2%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적이 낮은 청소년의 경우에는 전단지라는 응답이 41.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아버지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의 경우에 서빙·배달이라는 응답이 40.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대졸과 대학원졸의 경우에는 전단지라는 응답이 각각 45.8%와 47.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수준별로는 하층의 경우에 서빙·배달이라는 응답이 41.3%로 가장 높게 나타난 데 비해, 중간층과 상층의 경우에는 전단지라는 응답이 각각 37.4%와 47.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I-2-1〉 직종

구분	항목	전단지	서빙, 배달	기타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성별 (0.761)	남자	39.8	34.4	25.9	100.0
	여자	36.9	37.5	25.6	100.0
합계		38.3	36.0	25.7	100.0
교급 (122.846***)	중학교	66.9	13.6	19.5	100.0
	일반고	39.1	33.0	27.8	100.0
	실업고	13.7	57.8	28.4	100.0
합계		38.3	36.0	25.7	100.0
성적 (3.082)	상	35.8	38.0	26.3	100.0
	중	35.2	35.2	29.6	100.0
	하	41.4	35.2	23.4	100.0
합계		38.1	36.1	25.9	100.0
부학력 (15.858**)	고졸이하	32.3	40.1	27.6	100.0
	대졸	45.8	27.9	26.3	100.0
	대학원졸	47.8	39.1	13.0	100.0
합계		37.8	36.1	26.1	100.0
경제수준 (6.591)	하	35.3	41.3	23.4	100.0
	중	37.4	34.6	28.0	100.0
	상	47.4	29.9	22.7	100.0
합계		38.4	35.9	25.7	100.0

\* 구분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아르바이트 구직 시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에 대해서는 아래 <표 III-2-2>와 같다. 보수가 50.0%로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다음으로 시간적 여유, 무조건 구해지는 대로 함, 근무환경, 적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모두 보수라는 응답이 각각 48.1%와 51.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시간적 여유라는 응답이 각각 19.7%와 15.9%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급별로는 중학교, 일반고등학교, 그리고 실업고등학교 모두 보수라는 응답이 각각 44.7%, 56.3%, 그리고 47.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시간적 여유라는 응답은 중학교과 실업고등학교의 경우에 각각 20.0%와 19.0%로 나타나는 데 비해, 일반고등학교의 경우에는 14.8%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성적별, 아버지 학력별, 경제수준별로도 구직 시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으로 보

수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Ⅲ-2-2> 구직 시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

구분	항목	보수	시간 적 여유	나의 적성	일하 는 근무 환경	무조 건 구해 지는 대로 함	고용 주의 성격	숙식 제공 여부	계속 해서 일할 수 있는 가의 여부	기타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성별 (17.417*)	남자	48.1	19.7	5.1	2.0	10.2	2.7	1.0	2.4	8.8	100.0
	여자	51.8	15.9	2.9	6.8	11.7	1.0	0.0	2.6	7.4	100.0
합계		50.0	17.7	4.0	4.5	10.9	1.8	0.5	2.5	8.1	100.0
교급 (22.930)	중학교	44.7	20.0	6.5	3.5	8.8	2.4	0.0	2.4	11.8	100.0
	일반고	56.3	14.8	2.6	3.5	10.9	1.7	1.3	1.7	7.0	100.0
	실업고	47.3	19.0	3.4	6.3	12.7	1.5	0.0	3.4	6.3	100.0
합계		100.0	17.7	4.0	4.5	10.9	1.8	0.5	2.5	8.1	100.0
성적 (11.192)	상	48.9	15.7	4.5	6.2	12.4	1.1	0.6	1.7	9.0	100.0
	중	50.3	21.4	5.0	4.4	8.2	1.3	0.0	1.9	7.5	100.0
	하	50.6	16.7	3.0	3.4	11.8	2.7	0.8	3.4	7.6	100.0
합계		50.0	17.7	4.0	4.5	11.0	1.8	0.5	2.5	8.0	100.0
부학력 (19.730)	고졸이하	48.5	18.8	3.1	4.2	2.9	1.4	0.6	2.8	7.8	100.0
	대졸	52.4	15.7	6.3	4.2	7.3	2.6	0.5	1.0	9.9	100.0
	대학원졸	53.2	17.0	2.1	8.5	10.6	0.0	0.0	6.4	2.1	100.0
합계		50.1	17.6	4.0	4.5	10.9	1.7	0.5	2.5	8.1	100.0
경제수준 (19.672)	하	52.7	17.4	3.3	2.7	13.0	1.6	1.1	2.2	6.0	100.0
	중	48.7	17.6	3.8	6.3	10.1	0.9	0.3	2.8	9.4	100.0
	상	50.0	19.4	6.1	2.0	9.2	5.1	0.0	2.0	6.1	100.0
합계		50.2	17.8	4.0	4.5	10.8	1.8	0.5	2.5	7.8	100.0

\* 구분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구직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표 III-2-3>과 같다. 친구소개가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다음으로 가족이나 친척의 소개, 광고전단,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의 순서이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모두 친구 소개라는 응답이 각각 45.2%와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척의 소개라는 응답이 12.6%로 나타나고 있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길가에 붙은 광고전단을 보고라는 응답이 13.2%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급별로는 중학교, 일반고등학교, 그리고 실업고등학교 모두 친구소개라는 응답이 각각 39.4%, 47.6%, 그리고 39.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중학교의 경우에 길가에 붙은 광고전단을 보고라는 응답이 12.4%로 나타나고 있고, 일반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척의 소개라는 응답이 13.5%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실업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생활정보지에서 보고라는 응답이 13.7%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적별로도 친구소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성적이 높은 청소년과 중간정도의 성적인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척의 소개라는 응답이 각각 15.7%와 13.7%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적이 낮은 경우에는 길가에 붙은 광고전단을 보고가 11.5%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2-3> 구직방법

구분	항목	친구소개로	생활정보지에서 보고	길가에 붙은 광고전단을 보고	직업소개로	인터넷을 통해서	가족이나 친척의 소개로	기타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성별 (17.342**)	남자	45.2	8.5	6.8	4.1	6.8	12.6	16.0	100.0
	여자	40.0	8.7	13.2	0.6	10.3	11.0	16.1	100.0
합계		42.5	8.6	10.1	2.3	8.6	11.8	16.1	100.0
교급 (29.185**)	중학교	39.4	6.5	12.4	2.4	5.3	11.8	22.4	100.0
	일반고	47.6	5.7	10.5	1.3	7.4	13.5	14.0	100.0
	실업고	39.5	13.7	7.8	3.4	12.7	9.8	13.2	100.0
합계		42.5	8.6	10.1	2.3	8.6	11.8	16.1	100.0
성적 (19.008)	상	43.3	9.0	9.6	4.5	6.7	15.7	11.2	100.0
	중	42.9	6.2	8.7	1.2	9.3	13.7	18.0	100.0
	하	41.8	10.0	11.5	1.5	9.6	7.7	18.0	100.0
합계		42.5	8.7	10.2	2.3	8.7	11.7	16.0	100.0
부학력 (18.301)	고졸이하	38.8	10.9	10.1	2.8	9.2	10.6	17.6	100.0
	대졸	50.0	4.2	10.0	2.1	6.3	13.2	14.2	100.0
	대학원졸	37.5	10.4	8.3	0.0	14.9	16.7	12.5	100.0
합계		42.3	8.7	9.9	2.3	8.7	11.9	16.1	100.0
경제수준 (8.667)	하	39.1	12.5	9.8	1.6	8.2	12.0	16.8	100.0
	중	45.9	6.3	10.4	2.5	8.2	11.3	15.4	100.0
	상	38.8	9.2	10.2	2.0	11.2	13.3	15.3	100.0
합계		42.7	8.7	10.2	2.2	8.7	11.8	15.8	100.0

\* 구분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시간당 임금에 대해서는 아래 <표 III-2-4>와 같다. 3001-4000원이 38.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2001-3000원은 29.1%, 4001-5000원은 10.3%, 1001-2000원은 9.0%, 5001원 이상은 8.4%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모두 3001-4000원이라는 응답이 각각 36.5%와 40.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4001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23.3%인데 반해,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14.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교급별로는 중학교의 경우에 2001-3000원이라는 응답이 28.9%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데 비해, 일반고등학교와 실업고등학교의 경우

에는 3001-4000원이라는 응답이 각각 41.2%와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중학교의 경우에 4001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31.3%로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16.2%와 실업고등학교의 경우 13.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직종별로는 전단지의 경우에 2001-3000원이라는 응답이 28.0%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데 비해, 서빙·배달의 경우에는 3001-4000원이라는 응답이 49.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4001원 이상이라는 응답에 대해서는 전단지의 경우에 27.4%인데 비해, 서빙·배달의 경우에는 9.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주당노동시간별로는 4001원 이상이라는 응답에 대해서는 1-9시간의 경우에는 26.5%로 10-29시간과 30시간 이상의 경우에 각각 8.5%와 17.0%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I-2-4〉 시간당 임금

구분	항목	0-1000	1001-2000	2001-3000	3001-4000	4001-5000	5001 이상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성별 (12.285*)	남자	5.6	6.4	28.2	36.5	12.0	11.3	100.0
	여자	3.9	11.7	30.1	40.2	8.6	5.5	100.0
합계		4.8	9.0	29.1	38.3	10.3	8.4	100.0
교급 (63.705***)	중학교	7.8	15.6	28.9	16.4	13.3	18.0	100.0
	일반고	6.9	7.4	28.4	41.2	10.8	5.4	100.0
	실업고	0.5	6.3	30.0	50.0	7.9	5.3	100.0
합계		4.8	9.0	29.1	38.3	10.3	8.4	100.0
직종 (43.823***)	전단지	6.3	14.9	28.0	23.4	14.3	13.1	100.0
	서빙, 배달	4.5	6.4	30.2	49.0	5.4	4.5	100.0
	기타	3.5	5.7	29.8	40.4	12.1	8.5	100.0
합계		4.8	9.1	29.3	38.0	10.2	8.5	100.0
주당 노동시간 (28.893**)	1-9시간	6.5	9.6	27.4	30.0	14.3	12.2	100.0
	10-29시간	3.9	7.8	32.0	47.7	4.6	3.9	100.0
	30시간 이상	2.1	7.4	28.7	44.7	9.6	7.4	100.0
합계		4.8	8.6	29.1	38.6	10.3	8.6	100.0
경제수준 (18.287)	하	6.9	10.0	32.5	36.3	10.0	4.4	100.0
	중	2.9	7.7	29.4	40.1	11.8	8.1	100.0
	상	6.7	11.2	22.5	37.1	6.7	15.7	100.0
합계		4.8	9.0	29.2	38.4	10.4	8.3	100.0

\* 구분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1주일 평균노동시간에 대해서는 아래 <표 III-2-5>와 같다. 1-9시간이 49.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다음으로 10-29시간이 31.4%, 30시간 이상이 19.1%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모두 1-9시간이라는 응답이 각각 49.6%와 49.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10-29시간이라는 응답이 각각 31.4%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별로는 중학교와 일반고등학교의 경우에는 1-9시간이라는 응답이 각각 71.7%와 51.5%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업고등학교의 경우에는 10-29시간이라는 응답이 40.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적별로도 모든 성적범주에서 1-9시간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30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에 대해 성적이 높은 청소년과 낮은 청소년의 경우에는 각각 22.1%와 21.8%로 성적이 중간 정도인 청소년(11.9%)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아버지 학력별로도 1-9시간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30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에 대해 고졸이하와 대졸의 경우에는 각각 20.6%와 19.4%로 대학원졸(4.9%)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직종별로는 전단지 경우에 1-9시간이라는 응답이 73.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서빙·배달의 경우에는 10-29시간이라는 응답이 37.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서빙·배달은 30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이 31.4%로 전단지(2.8%)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I-2-5〉 1주일 평균노동시간

구분	항목	1-9시간	10-29시간	30시간 이상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성별 (0.004)	남자	49.6	31.4	19.0	100.0
	여자	49.4	31.4	19.2	100.0
합계		49.5	31.4	19.1	100.0
교급 (48.759***)	중학교	71.7	19.7	8.7	100.0
	일반고	51.5	30.7	17.8	100.0
	실업고	32.1	40.2	27.7	100.0
합계		49.5	31.4	19.1	100.0
성적 (6.882)	상	47.6	30.3	22.1	100.0
	중	55.2	32.9	11.9	100.0
	하	47.1	31.1	21.8	100.0
합계		49.5	31.4	19.1	100.0
부학력 (11.060*)	고졸이하	45.1	34.3	20.6	100.0
	대졸	55.5	25.2	19.4	100.0
	대학원졸	61.0	34.1	4.9	100.0
합계		49.5	31.5	19.0	100.0
경제수준 (5.844)	하	43.3	35.4	21.3	100.0
	중	51.0	29.7	19.4	100.0
	상	57.6	29.4	12.9	100.0
합계		49.6	31.4	18.9	100.0
직종 (82.281***)	전단지	73.3	23.9	2.8	100.0
	서빙, 배달	30.9	37.6	31.4	100.0
	기타	44.4	32.6	23.0	100.0
합계		49.5	31.4	19.1	100.0

\* 구분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하루에 가장 오랫동안 일해 본 시간에 대해서는 아래 <표 III-2-6>과 같다. 5-8시간이 37.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9시간과 1-4시간이 약 31%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모두 5-8시간이라는 응답이 각각 34.4%와 40.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교급별로는 중학교인 경우에 1-4시간이라는 응답이 55.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5-8시간이라는 응답이 37.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실업고등학교의 경우에는 9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이 45.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적별로는 성적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에는 1-4시간이라는 응답이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중간 정도의 성적과 성적이 낮은 청소년인 경우에는 5-8시간이라는 응답이 각각 38.8%와 40.3%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버지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와 대졸의 경우에는 5-8시간이라는 응답이 각각 38.9%와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대학원졸의 경우에는 1-4시간이라는 응답이 47.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수준별로는 하층의 경우에 9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이 37.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중간층의 경우에는 5-8시간이라는 응답이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상층의 경우에는 1-4시간이라는 응답이 36.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상층으로 갈수록 하루에 가장 오랫동안 일해 본 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직종별로는 전단지의 경우에 1-4시간이 57.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서빙·배달의 경우에는 9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이 45.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I-2-6> 하루에 가장 오랫동안 일해 본 시간

구분	항목	1-4시간	5-8시간	9시간 이상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성별 (2.645)	남자	34.1	34.4	31.5	100.0
	여자	28.5	40.2	31.3	100.0
합계		31.2	37.3	31.4	100.0
교급 (78.097***)	중학교	55.6	31.9	12.5	100.0
	일반고	31.3	37.3	31.3	100.0
	실업고	13.3	41.3	45.4	100.0
합계		31.2	37.3	31.4	100.0
성적 (6.985)	상	34.8	31.7	33.5	100.0
	중	34.9	38.8	26.3	100.0
	하	26.3	40.3	33.3	100.0
합계		31.1	37.4	31.5	100.0
부학력 (14.430**)	고졸이하	26.2	38.9	34.9	100.0
	대졸	36.5	38.2	25.3	100.0
	대학원졸	47.6	21.4	31.0	100.0
합계		31.2	37.3	31.5	100.0
경제수준 (8.148)	하	29.7	33.1	37.2	100.0
	중	30.6	41.9	27.5	100.0
	상	36.6	30.1	33.3	100.0
합계		31.3	37.2	31.5	100.0
직종 (131.121***)	전단지	57.3	35.2	7.5	100.0
	서빙, 배달	11.3	42.9	45.8	100.0
	기타	23.3	33.3	43.3	100.0
합계		31.2	37.5	31.3	100.0

\* 구분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부모님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표 III-2-7>과 같다. 알고 계신다는 비율이 70.5%로서 모르고 계신다는 29.5%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 부모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응답이 64.9%로 여자 청소년(75.8%)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급별로는 중학교의 경우에 부모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응답이 57.0%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일반고등학교의 경우에는 64.0%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실업고등학교의 경우에는 89.1%로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적별로는 부모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응답이 대체로 70% 정도

로 그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아버지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의 경우에 부모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응답이 73.5%로 대졸(67.9%)과 대학원졸(61.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수준별로는 하층의 경우에 부모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응답이 73.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상층의 경우에는 63.3%로 하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3-2-7> 부모님 인지 여부

구분	항목	알고 계신다	모르고 계신다	합계
		비율	비율	비율
성별 (8.461**)	남자	64.9	35.1	100.0
	여자	75.8	24.2	100.0
합계		70.5	29.5	100.0
교급 (52.419***)	중학교	57.0	43.0	100.0
	일반고	64.0	36.0	100.0
	실업고	89.1	10.9	100.0
합계		70.5	29.5	100.0
성적 (0.140)	상	71.2	28.8	100.0
	중	70.9	29.1	100.0
	하	69.6	30.4	100.0
합계		70.4	29.6	100.0
부학력 (3.894)	고졸이하	73.5	26.5	100.0
	대졸	67.9	32.1	100.0
	대학원졸	61.7	38.3	100.0
합계		70.7	29.3	100.0
경제수준 (3.359)	하	73.5	26.5	100.0
	중	71.4	28.6	100.0
	상	63.3	36.7	100.0
합계		70.7	29.3	100.0

\* 구분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미래 직업생활 도움정도에 대해서는 <표 III-2-8>과 같다. 부정적인 응답(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이 46.1%

이고, 긍정적인 응답(약간 도움이 될 것이다와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이 37.9%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모두 부정적인 응답(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이 각각 45.5%와 46.7%로 긍정적인 응답(약간 도움이 될 것이다와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각각 40.7%와 35.2%)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교급별로는 중학교와 일반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응답이 각각 59.4%와 46.0%로 긍정적인 응답(각각 26.7%와 34.6%)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실업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응답이 50.7%로 부정적인 응답(35.3%)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직종별로는 전단지의 경우에 부정적인 응답이 60.8%로 긍정적인 응답(24.8%)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서빙·배달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응답(41.0%)과 부정적인 응답(42.5%)이 그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주당노동시간별로는 1-9시간의 경우에 부정적인 응답이 50.2%로 긍정적인 응답(30.8%)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10-29시간과 3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긍정적인 응답이 각각 46.0%와 50.5%로 부정적인 응답(각각 39.1%와 40.2%)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수준별로는 하층과 중간층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응답이 각각 50.5%와 44.9%로 긍정적인 응답(각각 38.1%와 37.1%)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상층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응답(40.2%)과 부정적인 응답(42.3%) 간에 그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표 III-2-8〉 미래 직업생활 도움정도

구분	항목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약간 도움이 될 것이다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성별 (3,509)	남자	20.7	24.8	13.8	31.7	9.0	100.0
	여자	23.0	23.7	18.1	26.6	8.6	100.0
합계		21.9	24.2	16.0	29.1	8.8	100.0
교급 (30,805***)	중학교	30.3	29.1	13.9	20.6	6.1	100.0
	일반고	21.9	24.1	19.3	27.6	7.0	100.0
	실업고	14.9	20.4	13.9	37.8	12.9	100.0
합계		21.9	24.2	16.0	29.1	8.8	100.0
직종 (44,683***)	전단지	33.3	27.5	14.4	20.3	4.5	100.0
	서빙, 배달	17.0	25.5	16.5	30.2	10.8	100.0
	기타	13.0	18.2	16.9	40.3	11.7	100.0
합계		22.1	24.3	15.8	29.1	8.7	100.0
주당 노동시간 (20,961**)	1-9시간	26.5	23.7	19.0	24.1	6.7	100.0
	10-29시간	18.0	21.1	14.9	34.2	11.8	100.0
	30시간 이상	14.4	25.8	9.3	37.1	13.4	100.0
합계		21.5	23.3	15.9	29.7	9.6	100.0
경제수준 (19,318*)	하	23.9	26.6	11.4	24.5	13.6	100.0
	중	19.4	25.5	18.1	31.6	5.5	100.0
	상	25.8	16.5	17.5	29.9	10.3	100.0
합계		21.8	24.4	15.9	29.1	8.8	100.0

\* 구분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 3. 아르바이트 작업장에서의 인권침해실태

아르바이트 작업장에서의 인권침해실태 중에서 신체적 구타 및 폭행에 대해서는 <표 III-3-1>과 같다. 한두 번 있다는 응답이 4.8%, 여러번 있다는 응답이 3.5%, 없다는 응답이 91.7%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는 한 번 이상 신체적 구타 및 폭행을 경험했었다는 응답에 대해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13.3%로 나타나고 있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3.6%로 여자 청소년보다 남자 청소년이 더욱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급별로는 한 번 이상

신체적 구타 및 폭행을 경험했었다는 응답에 대해 중학교의 경우에는 10.2%이고, 일반고등학교는 10.7%로 나타나고 있다. 실업고등학교의 경우에는 4.0%로 중학교와 일반고등학교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직종별로는 전단지의 경우에 한 번 이상 신체적 구타 및 폭행을 경험했었다는 응답은 3.6%로 나타나고 있고, 서빙·배달의 경우에는 12.3%로 전단지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주당노동시간 별로는 1-9시간의 경우에 한 번 이상 신체적 구타 및 폭행을 경험했었다는 응답은 3.6%이고, 10-29시간의 경우에는 9.3%, 그리고 30시간 이상에서는 14.3%로 주당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신체적 구타 및 폭행을 더욱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수준별로는 하층과 상층의 경우에는 한 번 이상 신체적 구타 및 폭행을 경험했었다는 응답이 각각 11.3%와 14.3%로 나타나고 있고, 중간층의 경우에는 4.1%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I-3-1〉 신체적 구타 및 폭행

구분	항목	없다	한두번 있다	여러번 있다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성별 (18.697***)	남자	86.7	7.5	5.8	100.0
	여자	96.4	2.3	1.3	100.0
	합계	91.7	4.8	3.5	100.0
교급 (12.071*)	중학교	89.8	7.2	3.0	100.0
	일반고	89.2	4.7	6.0	100.0
	실업고	96.0	3.0	1.0	100.0
	합계	91.7	4.8	3.5	100.0
직종 (11.909*)	전단지	96.4	1.8	1.8	100.0
	서빙, 배달	87.7	6.6	5.7	100.0
	기타	91.0	5.8	3.2	100.0
	합계	91.9	4.6	3.5	100.0
주당 노동시간 (18.523**)	1-9시간	96.4	3.2	0.4	100.0
	10-29시간	90.7	4.3	5.0	100.0
	30시간 이상	85.7	5.1	9.2	100.0
	합계	92.5	3.9	3.5	100.0
경제수준 (14.957**)	하	88.6	7.0	4.3	100.0
	중	95.8	1.9	2.2	100.0
	상	85.7	8.2	6.1	100.0
	합계	91.9	4.5	3.5	100.0

\* 구분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아래 <표 III-3-2>와 같다. 임금체불을 경험했었다는 응답이 19.1%, 경험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80.8%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 임금체불을 경험했었다는 응답이 20.4%로 나타나고 있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18.0%로 나타나고 있다. 교급별로는 중학교, 일반고등학교, 그리고 실업고등학교의 경우에 임금체불을 경험했었다는 응답은 각각 18.8%, 21.1%, 그리고 17.2%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종별로는 전단지의 경우에 임금체불을 경험했었다는 응답은 13.8%로 나타나고 있고, 서빙·배달의 경우에는 25.5%로 전단지의 경우보다 더욱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당노동시간별로는 1-9시간의 경우에 임금체불을 경험했었다는 응답은 11.5%로 나타나고 있고, 10-29시간의 경우에는 20.5%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3-2> 임금체불

구분	항목	없다	한두번 있다	여러번 있다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성별 (8.101*)	남자	79.5	11.9	8.5	100.0
	여자	82.1	14.7	3.3	100.0
합계		80.8	13.3	5.8	100.0
교급 (1.116)	중학교	81.2	13.3	5.5	100.0
	일반고	78.9	14.7	6.5	100.0
	실업고	82.8	11.8	5.4	100.0
합계		80.8	13.3	5.8	100.0
직종 (13.391*)	전단지	86.2	11.6	2.2	100.0
	서빙, 배달	74.5	16.0	9.4	100.0
	기타	81.3	12.3	6.5	100.0
합계		80.7	13.3	5.9	100.0
주당노동시간 (26.053***)	1-9시간	88.5	10.3	1.2	100.0
	10-29시간	79.5	11.8	8.7	100.0
	30시간 이상	69.4	18.4	12.2	100.0
합계		82.0	12.3	5.7	100.0
경제수준 (7.139)	하	76.2	15.7	8.1	100.0
	중	83.7	12.5	3.8	100.0
	상	81.6	10.2	8.2	100.0
합계		81.0	13.1	5.9	100.0

\* 구분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그리고 30시간 이상의 경우에는 30.6%로 나타나고 있어 주당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임금체불을 더욱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수준별로는 하층, 중간층, 그리고 상층의 경우에 임금체불을 경험했었다는 응답은 각각 23.8%, 16.3%, 그리고 18.4%로 나타나고 있다.

부상에 대해서는 아래 <표 III-3-3>과 같다. 부상을 경험했었다는 응답이 26.9%이고, 경험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73.0%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 부상을 경험했었다는 응답이 29.4%로 나타나고 있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24.7%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여자 청소년보다 남자 청소년이 부상을 더욱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급별로는 중학교의 경우에 부상을 경험했었다는 응답은 19.3%이고, 일반고등학교는 27.2%로 나타나고 있다. 실업고등학교의 경우에는 33.0%로 다른 집단보다 더욱 많이 부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종별로는 전단지외의 경우 부상을 경험했었다는 응답이 16.0%로 나타나고 있고, 서빙·배달의 경우에는 42.7%로 나타나고 있어 전단지보다 더욱 많이 부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당노동시간별로는 1-9시간의 경우에 부상을 경험했었다는 응답이 20.2%로 나타나고 있고, 10-29시간의 경우에는 34.2%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30시간 이상의 경우에는 41.8%로 다른 집단보다 부상을 더욱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주당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부상을 더욱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수준별로는 중간층과 상층의 경우에는 부상을 경험했었다는 응답이 각각 22.0%와 25.5%로 그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하층의 경우에는 36.2%로 다른 집단에 비해 부상을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3-3> 부상

구분	항목	없다	한두번 있다	여러번 있다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성별 (9.332**)	남자	70.6	21.2	8.2	100.0
	여자	75.3	22.1	2.6	100.0
합계		73.0	21.6	5.3	100.0
교급 (11.872*)	중학교	80.7	14.5	4.8	100.0
	일반고	72.8	20.7	6.5	100.0
	실업고	67.0	28.6	4.4	100.0
합계		73.0	21.6	5.3	100.0
직종 (44.800***)	전단지	84.0	13.3	2.7	100.0
	서빙, 배달	57.3	33.3	9.4	100.0
	기타	79.4	17.4	3.2	100.0
합계		73.2	21.6	5.2	100.0
주당 노동시간 (23.385***)	1-9시간	79.8	18.3	2.0	100.0
	10-29시간	65.8	26.1	8.1	100.0
	30시간 이상	58.2	31.6	10.2	100.0
합계		71.2	23.3	5.5	100.0
경제수준 (16.740**)	하	63.8	29.7	6.5	100.0
	중	78.0	18.5	3.5	100.0
	상	74.5	16.3	9.2	100.0
합계		73.0	21.6	5.4	100.0

\* 구분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는 아래 <표 III-3-4>와 같다. 작성을 해봤었다는 응답이 12.8%이고, 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87.2%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모두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봤었다는 응답이 각각 14.4%와 11.3%으로 그리 큰 차이는 보이고 있지 않다. 교급별로는 중학교와 일반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봤었다는 응답이 각각 11.4%와 11.2%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업고등학교의 경우에는 15.8%로 다른 집단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직종별로는 전단지의 경우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봤었다는 응답이 5.8%인 반면, 서빙·배달의 경우에는 20.2%로 전단지보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 본 경험이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당노동시간별로는 1-9시간의 경우에 근로계

약서 작성을 해봤었다는 응답은 6.7%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고, 10-29시간의 경우에는 15.5%, 그리고 30시간 이상의 경우에는 22.4%로 주당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수준별로는 하층, 중간층, 그리고 상층 모두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봤었다는 응답이 각각 22.4%, 23.4%, 그리고 20.2%로 그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경험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3-4〉 근로계약서 작성

구분	항목	없다	한두번 있다	여러번 있다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성별 (1.711)	남자	85.7	9.6	4.8	100.0
	여자	88.6	8.4	2.9	100.0
합계		87.2	9.0	3.8	100.0
교급 (2.800)	중학교	88.6	8.4	3.0	100.0
	일반고	88.8	7.3	3.9	100.0
	실업고	84.2	11.3	4.4	100.0
합계		87.2	9.0	3.8	100.0
직종 (24.537***)	전단지	94.2	5.3	0.4	100.0
	서빙, 배달	79.8	12.7	7.5	100.0
	기타	89.0	7.7	3.2	100.0
합계		87.7	8.6	3.7	100.0
주당 노동시간 (26.040***)	1-9시간	93.3	6.0	0.8	100.0
	10-29시간	84.5	11.2	4.3	100.0
	30시간 이상	77.6	11.2	11.2	100.0
합계		87.5	8.6	3.9	100.0
경제수준 (2.024)	하	87.6	9.7	2.7	100.0
	중	86.6	8.9	4.5	100.0
	상	89.8	6.1	4.1	100.0
합계		87.4	8.7	3.9	100.0

\* 구분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부모동의서 제출에 대해서는 아래 <표 III-3-5>와 같다. 제출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23.6%이고, 제출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76.4%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 부모동의서를 제출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각각 24.3%과 23.0%로 그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급별로는 중학교의 경우에 부모동의서를 제출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14.0%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고, 일반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0.3%로 나타나고 있다. 실업고등학교의 경우에는 35.1%로 다른 집단에 비해 부모동의서를 제출한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종별로는 전단지의 경우에 부모동의서를 제출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7.6%인 반면, 서빙·배달의 경우에는 40.5%로 전단지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주당노동시간별로는 1-9시간의 경우에 부모동의서를 제출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14.8%로 나타나고 있고, 10-29시간의 경우에는 29.4%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3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0.8%로 주당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부모동의서를 제출한 경험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경제수준별로는 하층과 중간층의 경우에는 부모동의서를 제출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각각 23.4%와 26.0%로 그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상층의 경우에는 15.2%로 다른 집단에 비해 부모동의서를 제출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경험할 때 부모동의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3-5> 부모동의서 제출

구분	항목	없다	한두번 있다	여러번 있다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성별 (1.990)	남자	75.8	14.7	9.6	100.0
	여자	77.0	16.4	6.6	100.0
	합계	76.4	15.6	8.0	100.0
교급 (27.503***)	중학교	86.0	6.7	7.3	100.0
	일반고	79.7	14.2	6.0	100.0
	실업고	64.9	24.3	10.9	100.0
	합계	76.4	15.6	8.0	100.0
직종 (65.532***)	전단지	92.4	4.5	3.1	100.0
	서빙, 배달	59.5	27.6	12.9	100.0
	기타	76.8	14.8	8.4	100.0
	합계	76.5	15.5	8.0	100.0
주당 노동시간 (33.373***)	1-9시간	85.2	10.0	4.8	100.0
	10-29시간	70.6	21.3	8.1	100.0
	30시간 이상	59.2	22.4	18.4	100.0
	합계	75.6	15.9	8.5	100.0
경제수준 (6.277)	하	76.6	14.7	8.7	100.0
	중	74.0	18.0	8.0	100.0
	상	84.8	8.1	7.1	100.0
	합계	76.6	15.3	8.1	100.0

\* 구분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 4.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이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이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 중 수업시간에 잠을 자게 된 경우는 아래 <표 III-4-1>과 같다. 잠을 잔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34.5%이고,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65.5%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모두 수업시간에 잠을 잔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각각 34.8%와 34.2%로 그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급별로는 중학교의 경우에 수업시간에 잠을 잔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7.1%로 나타나고 있고, 일반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7.4%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업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57.0%로 다른 집단에 비해 수업시간에 잠을 잔 경험이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종별로는 전단지의 경우에 수업시간에 잠을 잔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4.9%로 나타나고 있고, 서빙·배달의 경우에는 54.9%로 전단지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주당노동시간별로는 1-9시간의 경우에는 수업시간에 잠을 잔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21.9%로 나타나고 있고, 10-29시간의 경우에는 46.5%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30시간 이상의 경우에는 59.8%로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고, 주당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수업시간에 잠을 잔 경험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수준별로는 하층, 중간층, 그리고 상층 모두 수업시간에 잠을 잔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각각 35.7%, 34.2%, 그리고 33.7%로 그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표 III-4-1〉 수업시간에 잠을 잔

구분	항목	전혀 그런 적이 없다	한두 번 있다	여러 번 있었다	매우 자주 있었다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성별 (4.538)	남자	65.2	19.3	9.0	6.6	100.0
	여자	65.8	21.7	9.5	3.0	100.0
	합계	65.5	20.5	9.3	4.7	100.0
교급 (77.861***)	중학교	82.9	9.8	4.9	2.4	100.0
	일반고	72.6	17.4	4.8	5.2	100.0
	실업고	43.0	33.0	18.0	6.0	100.0
합계	65.5	20.5	9.3	4.7	100.0	
직종 (84.581***)	전단지	85.1	10.9	3.6	0.5	100.0
	서빙, 배달	45.1	28.6	17.4	8.9	100.0
	기타	65.4	23.5	6.5	4.6	100.0
합계	65.4	20.6	9.4	4.6	100.0	
주당 노동시간 (61.220***)	1-9시간	78.1	14.3	5.2	2.4	100.0
	10-29시간	53.5	27.7	14.5	4.4	100.0
	30시간 이상	40.2	28.9	17.5	13.4	100.0
합계	63.1	21.3	10.5	5.1	100.0	
경제수준 (1.444)	하	64.3	20.0	10.3	5.4	100.0
	중	65.8	20.8	9.4	3.9	100.0
	상	66.3	21.4	7.1	5.1	100.0
합계	65.4	20.7	9.3	4.6	100.0	

\* 구분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아르바이트로 인한 성적이 떨어짐에 대해서는 아래 <표 III-4-2>와 같다. 성적이 떨어진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24.8%이고,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75.2%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의 경우 성적이 떨어진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각각 27.3%와 22.4%로 그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교급별로는 중학교의 경우에는 성적이 떨어진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8.3%로 나타나고 있고, 일반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0.4%로 나타나고 있다. 실업고등학교의 경우에는 35.2%로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직종별로는 전단지의 경우에 성적이 떨어진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3.2%로 나타나고 있고,

<표 III-4-2> 성적이 떨어짐

구분	항목	전혀 그런 적이 없다	한두 번 있다	여러 번 있었다	매우 자주 있었다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성별 (6,678)	남자	72.7	12.8	7.3	7.3	100.0
	여자	77.6	13.8	5.6	3.0	100.0
합계		75.2	13.3	6.4	5.1	100.0
교급 (22,048**)	중학교	81.7	9.8	4.9	3.7	100.0
	일반고	79.6	10.0	4.3	6.1	100.0
	실업고	64.8	20.1	10.1	5.0	100.0
합계		75.2	13.3	6.4	5.1	100.0
직종 (49,309***)	전단지	86.8	7.7	4.5	0.9	100.0
	서빙, 배달	59.8	20.1	10.7	9.3	100.0
	기타	80.3	11.8	3.3	4.6	100.0
합계		75.3	13.3	6.5	4.9	100.0
주당 노동시간 (27,738***)	1-9시간	82.0	10.8	4.4	2.8	100.0
	10-29시간	71.1	13.8	9.4	5.7	100.0
	30시간 이상	56.1	21.4	11.2	11.2	100.0
합계		73.6	13.8	7.3	5.3	100.0
경제수준 (6,641)	하	72.3	15.2	5.4	7.1	100.0
	중	78.2	12.4	6.2	3.3	100.0
	상	71.4	13.3	9.2	6.1	100.0
합계		75.2	13.4	6.5	4.9	100.0

\* 구분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서빙·배달의 경우에는 40.2%로 나타나고 있어 전단지에 비해 서빙·배달의 경우에 성적이 떨어진 경험이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당노동시간별로는 1-9시간의 경우에 성적이 떨어진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8.0%로 나타나고 있고, 10-29시간의 경우에는 28.9%로 나타나고 있다. 30시간 이상의 경우에는 43.9%로 다른 집단에 비해 성적이 떨어진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수준별로는 하층, 중간층, 그리고 상층 모두 성적이 떨어진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각각 27.7%, 21.8%, 그리고 28.6%로 그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아르바이트로 인한 사회성 향상에 대해서는 아래 <표 III-4-3>과 같다. 사회성이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54.4%이고, 그런적이 없다는 응답이 45.6%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 사회성이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각각 54.0%와 54.8%로 그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교급별로는 중학교의 경우에 사회성이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34.8%로 나타나고 있고, 일반고등학교의 경우에는 53.3%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실업고등학교의 경우에는 71.9%로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직종별로는 전단지의 경우에 사회성이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35.6%로 나타나고 있고, 서빙·배달의 경우에는 68.7%로 나타나고 있어 전단지에 비해 서빙·배달로 사회성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주당노동시간별로는 1-9시간의 경우에 사회성이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48.4%로 나타나고 있고, 10-29시간의 경우에는 64.6%로 나타나고 있다. 30시간 이상의 경우에는 69.4%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주당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사회성이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수준별로는 하층과 중간층의 경우에 사회성이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각각 56.0%와 56.2%로 그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고, 상층의 경우에는 46.9%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I-4-3> 사회성 향상

구분	항목	전혀 그런 적이 없다	한두 번 있다	여러 번 있었다	매우 자주 있었다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성별 (6.322)	남자	46.0	24.9	15.9	13.1	100.0
	여자	45.2	31.7	15.2	7.9	100.0
합계		45.6	28.4	15.5	10.5	100.0
교급 (55.096***)	중학교	65.2	18.9	7.3	8.5	100.0
	일반고	46.7	29.7	13.5	10.0	100.0
	실업고	28.1	34.7	24.6	12.6	100.0
합계		45.6	28.4	15.5	10.5	100.0
직종 (58.605***)	전단지	64.4	23.7	7.3	4.6	100.0
	서빙, 배달	31.3	34.1	20.6	14.0	100.0
	기타	38.8	27.6	20.4	13.2	100.0
합계		45.6	28.5	15.6	10.3	100.0
주당 노동시간 (38.188***)	1-9시간	51.6	29.6	12.4	6.4	100.0
	10-29시간	35.4	33.5	17.7	13.3	100.0
	30시간 이상	30.6	20.4	26.5	22.4	100.0
합계		42.5	29.1	16.8	11.7	100.0
경제수준 (8.773)	하	44.0	26.6	16.3	13.0	100.0
	중	43.8	32.4	15.7	8.2	100.0
	상	53.1	20.4	14.3	12.2	100.0
합계		45.4	28.6	15.6	10.4	100.0

\* 구분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아르바이트로 인한 가족과 대화시간 부족에 대해서는 아래 <표 III-4-4>와 같다. 가족과 대화시간이 부족해졌다는 응답이 23.8%이고, 그런적이 없다는 응답이 76.2%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 가족과 대화시간이 부족해졌다는 응답이 각각 26.6%와 20.8%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교급별로는 중학교의 경우에 가족과 대화시간이 부족해졌다는 응답이 16.2%로 나타나고 있고, 일반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1.9%로 나타나고 있다. 실업고등학교의 경우에는 33.0%로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직종별로는 전단지의 경우에 가족과 대화시간이 부족해졌다는 응답이 21.1%로 나타나고 있는 데 비해, 서빙·배달의 경우에는

40.7%로 전단지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주당노동시간별로는 1-9시간의 경우에 가족과 대화시간이 부족해졌다는 응답이 15.6%로 나타나고 있고, 10-29시간의 경우에는 31.6%로 나타나고 있다. 30시간 이상의 경우에는 42.9%로 주당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가족과 대화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아지고 있다. 경제수준별로는 하층의 경우에 가족과 대화시간이 부족해졌다는 응답이 31.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상층이 23.6%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간층의 경우에는 19.6%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I-4-4〉 가족과 대화시간 부족

구분	항목	전혀 그런 적이 없다	한두 번 있다	여러 번 있었다	매우 자주 있었다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성별 (3,470)	남자	73.4	14.3	5.4	6.9	100.0
	여자	79.2	11.7	3.6	5.4	100.0
합계		76.2	13.1	4.6	6.2	100.0
교급 (20,244**)	중학교	83.8	8.1	4.1	4.1	100.0
	일반고	78.1	11.9	3.0	7.1	100.0
	실업고	67.0	19.1	7.0	7.0	100.0
합계		76.2	13.1	4.6	6.2	100.0
직종 (57,913***)	전단지	88.9	6.5	1.8	2.8	100.0
	서빙, 배달	59.3	22.0	8.4	10.3	100.0
	기타	81.5	11.9	1.3	5.3	100.0
합계		76.1	13.6	4.1	6.2	100.0
주당 노동시간 (35,997***)	1-9시간	84.4	10.0	2.0	3.6	100.0
	10-29시간	68.4	17.4	7.7	6.5	100.0
	30시간 이상	57.1	20.4	8.2	14.3	100.0
합계		74.2	14.3	5.0	6.6	100.0
경제수준 (14,411*)	하	68.9	18.0	5.3	7.8	100.0
	중	80.4	11.7	4.1	3.8	100.0
	상	76.4	9.4	4.7	9.4	100.0
합계		76.1	13.2	4.6	6.1	100.0

\* 구분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 5. 요약

### 1) 아르바이트 참여경험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은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비율이 2.8%이며, 현재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해 본 경험이 있는 비율까지 합하면 21.4%이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이 21.1%, 여자 청소년이 21.9%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교육별로는 중학교에서는 13.6%가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이 있다고 나타났고, 일반고는 21.1%, 그리고 실업고는 49.5%로 나타나고 있어 실업고에서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적별로는 성적이 높은 청소년은 17.1%로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성적이 낮은 청소년은 27.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적이 낮을수록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이 높았다. 아버지 학력별로는 고졸이하가 25.4%로 가장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이 높게 나타났고, 대졸이 18.2%, 그리고 대학원졸이 16.7%로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경제수준별로는 하층이 29.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중간층이 20.4%, 그리고 상층은 16.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아질수록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은 낮아지고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르바이트 참여동기에 대해서 원하는 물건을 사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참여했다는 응답이 79%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사회생활 경험을 쌓기 위해서라는 응답이었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 생활비나 학비에 보태기 위해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수준별로는 모든 계층에서 원하는 물건을 사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층의 경우에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생활비나 학비에 보태기 위해라는 응답이 14.5%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상층의 경우에는 사회생활 경험을 쌓기 위해라는 응답이 20.7%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아르바이트 하는 동안 부당한 대우나 차별 경험 유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 번 이상 부당한 대우나 차별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41% 정도로 나타나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당노동시간별로 30시간 이상의 경우에는 52.0%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아르바이트 경험자 중 최초 아르바이트 참여시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중학교 3학년 시기에 참여했다는 응답이 25% 정도로 다른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여자 청소년에 비해 남자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시기가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청소년 중 아르바이트 참여의도는 전체적으로 참여의도가 있다는 응답은 64% 정도로 나타나 참여의도가 없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성적별로 성적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에 참여의도가 있다는 응답은 54.6%로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성적이 낮은 청소년의 경우에는 73.9%로 가장 높게 나타나 성적이 낮을수록 참여의도가 있다는 응답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실업고에서, 부학력이 낮을수록,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아르바이트의 참여의도가 높았다.

## 2) 아르바이트 참여의 세부 실태

참여한 아르바이트 직종을 살펴보면, 전단지가 38.3%로 가장 비율이 높고, 서빙·배달이 36.0%, 기타가 25.7%로 나타나고 있다. 교급별로는 중학교와 일반고등학교의 경우에 전단지라는 응답이 각각 66.9%와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난 데 비해, 실업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서빙·배달이라는 응답이 57.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아버지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의 경우에 서빙·배달이라는 응답이 40.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대졸과 대학원졸의 경우에는 전단지라는 응답이 각각 45.8%와 47.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아르바이트 구직 시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정도가 보수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시간적 여유라는 응답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르바이트 구직방법으로는 친구 소개라는 응답이 40%를 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간당 임금은 3001-4000원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대체로 임금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교급별로는 중학교의 경우에 2001~3000원이라는 응답이 28.9%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데 비해, 일반고등학교와 실업고등학교의 경우에는 3001~ 4000원이라는 응답이 각각 41.2%와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단지의 경우에 2001-3000원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데 비해, 서빙·배달의 경우에는 3001-4000원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주일 평균노동시간은 1-9시간이 49.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다음으로 10-29시간이 31.4%, 30시간 이상이 19.1%로 나타나고 있다. 교급별로는 중학교와 일반고등학교의 경우에는 1-9시간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비해 실업고등학교의 경우에는 10-29시간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직종별로는 전단지의 경우에 1-9시간이라는 응답이 73.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서빙·배달의 경우에는 10-29시간이라는 응답이 37.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서빙·배달은 30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이 31.4%로 전단지(2.8%)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1주일 30시간 이상 일하는 청소년은 대체로 실업고의 비율이 높고, 부의 학력이 낮고, 서빙·배달 및 기타 직종에 일하는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루에 가장 오랫동안 일해 본 시간은 5-8시간이 37.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9시간과 14시간이 약 31%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실업고에서, 서빙·배달 및 기타 직종에서 9시간 이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아르바이트에 대한 부모님 인지 여부에 대해 부모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응답이 70%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에게서, 중학교보다는 일반고에서, 일반고보다는 실업고에서 부모님께서 아시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아르바이트가 미래 직업생활에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응답에서 이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보다도 부정적인 응답이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실업고등학교의 경우에, 주당노동시간이 길수록, 기타 직종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부정적인 응답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 3) 아르바이트 작업장에서의 인권침해실태

아르바이트 작업장에서의 신체적 구타 및 폭행의 경험에 대하여 한두 번 있다는 응답이 4.8%, 여러번 있다는 응답이 3.5%, 없다는 응답이 91.7%로 나타나고 있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13.3%로 나타나고 있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3.6%로 여자 청소년보다 남자 청소년이 더욱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주당노동시간별로는 1-9시간의 경우에 한 번 이상 신체적 구타 및 폭행을 경험했었다는 응답은 3.6%이고, 10-29시간의 경우에는 9.3%, 그리고 30시간 이상에서는 14.3%로 주당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신체적 구타 및 폭행을 더욱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금체불 경험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을 경험했었다는 응답이 19.1%, 경험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80.8%로 나타나고 있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 임금체불을 경험했었다는 응답이 20.4%로 나타나고 있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18.0%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주당노동시간별로는 1-9시간의 경우에 임금체불을 경험했었다는 응답은 11.5%로 나타나고 있고, 10-29시간의 경우에는 20.5%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30시간 이상의 경우에는 30.6%로 나타나고 있어 주당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임금체불을 더욱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상경험에 대해서는 경험했었다는 응답이 26.9%이고, 경험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73.0%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 부상을 경험했었다는 응답이 29.4%로 나타나고 있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24.7%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당노동시간별로는 1-9시간의 경우에 부상을 경험했었다는 응답이 20.2%로 나타나고 있고, 10-29시간의 경우에는 34.2%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30시간 이상의 경우에는 41.8%로 다른 집단보다 부상을 더욱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주당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부상을 더욱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작성을 해봤었다는 응답이 12.8%이고, 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87.2%로 나타나고 있다. 서빙·배달 직종에서, 그리고 주당노동시간이 길수록 작성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부모동의서 제출에 대해서는 제출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23.6%이고, 제출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76.4%로 나타나고 있다. 실업고에서, 서빙·배달 직종에서, 주당노동시간이

길수록 제출경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 4)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이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이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 중 수업시간에 잠을 잠에 대해 수업시간에 잠을 잔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교급별로는 실업고등학교의 경우에는 57.0%로 다른 집단에 비해 수업시간에 잠을 잔 경험이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주당노동시간별로는 30시간 이상의 경우에 수업시간에 잠을 잔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59.8%로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주당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수업시간에 잠을 잔 경험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르바이트로 인해 성적이 떨어졌다는 응답이 약 25%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교급별로는 중학교의 경우에는 성적이 떨어진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8.3%로 나타나고 있고, 일반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0.4%로 나타나고 있다. 실업고등학교의 경우에는 35.2%로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주당노동시간별로는 1-9시간의 경우에 성적이 떨어진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8.0%로 나타나고 있고, 10-29시간의 경우에는 28.9%로 나타나고 있다. 30시간 이상의 경우에는 43.9%로 다른 집단에 비해 성적이 떨어진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르바이트로 인해 사회성이 향상되었다는 응답은 5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교급별로는 중학교의 경우에 사회성이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34.8%로 나타나고 있고, 일반고등학교의 경우에는 53.3%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실업고등학교의 경우에는 71.9%로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주당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사회성이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로 인해 가족과 대화시간이 부족해졌다는 응답은 20%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당노동시간별로는 1-9시간의 경우에 가족과 대화시간이 부족해졌다는 응답이 15.6%로 나타나고 있고, 10-29시간의 경우에는 31.6%로 나타나고 있다. 30시간 이상의 경우에는 42.9%로 주당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가족과 대화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아지고 있다.

## IV. 청소년 노동참여권과 노동보호권 실태2

### - 한국청소년패널 1차(2003년)~3차(2005년) 자료분석

본 장에서는 한국청소년패널(KYPS) 1차(2003년), 2차(2004년), 3차(2005년) 자료 중에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참여와 인권침해에 관련된 문항들만을 뽑아서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설문문항들은 크게 아르바이트 경험, 아르바이트 세부실태, 작업장에서의 인권침해실태, 아르바이트의 영향과 같이 네 가지 범주로 나뉠 수 있다. 첫 번째 범주인 아르바이트 경험에는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 참여횟수, 아르바이트 참여동기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두 번째 범주인 아르바이트 세부실태에는 아르바이트 직종, 구직 시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 지속기간, 주간근무일수, 일일근무시간, 시간당 임금, 아르바이트의 미래 직업생활 도움정도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세 번째 범주인 작업장에서의 인권침해실태에는 임금체불, 야근 및 휴일수당 체불, 초과근로수당 체불, 약속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시킴, 불결하고 위험한 작업환경, 부상, 인격모독, 구타나 폭행, 성희롱이나 성폭력, 근로계약서 작성, 부모동의서 제출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네 번째 범주인 아르바이트의 영향에는 수업시간의 줄임, 숙제를 못함, 성적하락, 친구와 만나는 시간 부족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실태분석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교차표분석(crosstab)을 하였으며, 각각의 분석마다 카이제곱검증 결과를 제시하였다. 교차표분석은 두 가지 과정으로 실시되었는데, 먼저 각 문항에 대하여 조사시기별(1차/2차/3차)로 교차표분석을 하였고<sup>7)</sup>, 다음으로 이러한 조사시기별 교차표분석에 대하여 다시 몇몇 집단구분변수들별로 교차표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차표분석에 사용된 집단구분변수로는 성(남/녀), 교급(중학교/일반고/실업고), 성적(상/중/하), 부학력(고

7) 각 문항들에 관한 조사시기별 교차표와 분석은 유성렬(2006)의 글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졸이하/대졸/대학원졸이상), 경제수준(상/중/하), 아르바이트 직종(전단지/서빙·배달), 주당노동시간(1-9시간/10-29시간/30시간이상)이 있으며, 각 문항별 성격에 따라 이 중에서 적절한 집단구분변수를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 1. 아르바이트 참여경험

### 1)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아르바이트 경험의 추이는 아래 <표 IV-1-1>과 같다.

<표 IV-1-1> 조사 시기별 아르바이트 경험 비율

경험여부 \ 조사시기	1차시기 (중2)	2차시기 (중3)	3차시기 (고1)
있다	510 (14.8)	364 (11.4)	379 (12.1)
없다	2,939 (85.2)	2,824 (88.6)	2,741 (87.9)
계	3,449 (100.0)	3,188 (100.0)	3,120 (100.0)

1) ( )안은 백분율임

<표 IV-1-1>에 의하면, 조사 첫해인 중학교 2학년 시기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 응답자 3,449명 가운데 14.8%인 510명이었으나, 중학교 3학년 시기에는 11.4%로 감소하였다가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12.1%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 조사된 수치보다 낮은 편인데 이는 아르바이트 경험을 묻는 질문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은 응답 시점까지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가로

구성되어 있다(이철위 외, 2000). 그러나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서는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가로 묻고 있어 2차시기와 3차시기의 아르바이트 경험 수치는 2004년과 2005년의 한 해 동안의 경험을 나타내는 수치이다. 따라서 고등학교 1학년 가운데 이제까지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비율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3년 동안 한 번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 학생들의 비율을 산출해야 하며, 이 결과는 <표 IV-1-2>에 제시되어 있다.

<표 IV-1-2> 조사 기간 중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의 변화

구분	빈도(백분율)
3년 모두 경험 있음	56(1.9)
2년 경험 있음	203(6.7)
1년 경험 있음	578(19.2)
3년 모두 경험 없음	2,175(72.2)
계	3,012(100.0)

<표 IV-1-2>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아르바이트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 학생은 3년 동안 아르바이트 관련 자료를 모두 제공한 3,012명 가운데 837명으로 27.8%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기존의 연구에서 보고된 수준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3년 동안 매 해마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1.9%로 비교적 적은 수의 학생들이 중학교 2학년 이래 꾸준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년 중 한 해에만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19.2%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들 가운데 약 70%에 달하고 있다. 이는 우리 청소년의 경우 노동시장에의 참여 정도가 아직은 간헐적인 수준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성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에 대해서는 아래 <표 IV-1-3>과 같다. 1차년도 남자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은 14.7%이고, 여자 청소년은 14.9%로 그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2차년도에는 남자 청소년이 10.4%이고,

여자 청소년이 12.4%로 1차년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별 차이가 약간 커졌지만 여전히 그리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3차년도에는 남자 청소년이 12.0%이고, 여자 청소년이 12.3%로 나타나고 있어 다시 그리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표 IV-1-3> 성별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

시기	구분	한 번 이상 있다	전혀 없다	합계
		비율	비율	비율
1차년도 (0.040)	남자	14.7	85.3	100.0
	여자	14.9	85.0	100.0
합계		14.8	85.2	100.0
2차년도 (3.176)	남자	10.4	89.6	100.0
	여자	12.4	87.6	100.0
합계		11.4	88.6	100.0
3차년도 (0.089)	남자	12.0	88.0	100.0
	여자	12.3	87.7	100.0
합계		12.1	87.9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성적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에 대해서는 아래 <표 IV-1-4>와 같다. 1-3차년도 까지 성적이 낮은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은 각각 22.1%, 21.0%, 그리고 18.2%로 성적이 높은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참여경험(각각 9.3%, 5.4%, 그리고 9.1%)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3차년도 모두에 걸쳐서 성적이 낮아질수록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1-4> 성적별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

시기	구분	한 번 이상 있다	전혀 없다	합계
		비율	비율	비율
1차년도 (67.115***)	상	9.3	90.7	100.0
	중	15.4	84.6	100.0
	하	22.1	77.9	100.0
합계		14.7	85.3	100.0
2차년도 (104.998***)	상	5.4	94.6	100.0
	중	13.1	86.9	100.0
	하	21.0	79.0	100.0
합계		11.3	88.7	100.0
3차년도 (27.892***)	상	9.1	90.9	100.0
	중	12.9	87.1	100.0
	하	18.2	81.8	100.0
합계		12.1	87.9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아버지 학력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에 대해서는 아래 <표 IV-1-5>와 같다. 1-3차년도 까지 고졸이하의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은 각각 16.6%, 13.0%, 그리고 14.1%로 나타나고 있어 대학원졸(각각 10.2%, 6.5%, 그리고 3.6%)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아버지 학력이 높아질수록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1-5> 부학력별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

시기	구분	한 번 이상 있다	전혀 없다	합계
		비율	비율	비율
1차년도 (12.450**)	고졸이하	16.6	83.4	100.0
	대졸	12.9	87.1	100.0
	대학원졸	10.2	89.8	100.0
합계		14.7	85.3	100.0
2차년도 (13.558**)	고졸이하	13.0	87.0	100.0
	대졸	9.5	90.5	100.0
	대학원졸	6.5	93.5	100.0
합계		11.2	88.8	100.0
3차년도 (27.704***)	고졸이하	14.1	85.9	100.0
	대졸	9.5	90.5	100.0
	대학원졸	3.6	96.4	100.0
합계		11.7	88.3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경제수준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에 대해서는 아래 <표 IV-1-6>과 같다. 1차년도에는 하층, 중간층, 그리고 상층의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은 각각 15.9%, 14.8%, 그리고 13.5%로 그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2차년도와 3차년도에서는 하층의 경우에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이 각각 14.4%와 16.8%로 나타나고 있어 상층(각각 8.6%와 8.5%)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은 더욱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IV-1-6> 경제수준별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

시기	구분	한 번 이상 있다	전혀 없다	합계
		비율	비율	비율
1차년도 (2.949)	하	15.9	84.1	100.0
	중	14.8	85.2	100.0
	상	13.5	86.5	100.0
합계		14.8	85.2	100.0
2차년도 (17.968***)	하	14.4	85.6	100.0
	중	11.1	88.9	100.0
	상	8.6	91.4	100.0
합계		11.4	88.6	100.0
3차년도 (35.085***)	하	16.8	83.2	100.0
	중	11.5	88.5	100.0
	상	8.5	91.5	100.0
합계		12.1	87.9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 2)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 참여횟수

<표 IV-1-7>은 각 조사 시기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각 시기의 한 해 동안 아르바이트 참여 횟수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르면, 1차 시기에 3회 이하의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80.7%였던 반면, 3차 시기에는 87.3%로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6회 이상의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도 1차 시기의 8.6%에서 3차 시기에는 5.1%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 형태가 고등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보다 안정적인 양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IV-1-7> 조사 시기별 아르바이트 참여 횟수

조사시기 참여횟수	1차시기(백분율)	2차시기(백분율)	3차시기(백분율)
1회	251(50.3)	206(57.9)	212(59.9)
2회	96(19.2)	51(14.3)	61(17.2)
3회	56(11.2)	49(13.8)	36(10.2)
4회	24(4.8)	11(3.1)	16(4.5)
5회	29(5.8)	16(4.5)	11(3.1)
6회 이상	43(8.6)	23(6.5)	18(5.1)
계	499(100.0)	365(100.0)	354(100.0)

성별 아르바이트 참여횟수에 대해서는 아래 <표 IV-1-8>과 같다. 1차년도에는 남자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참여횟수가 1회라는 응답은 45.5%로 여자 청소년(52.9%)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남자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참여횟수가 2회 이상이라는 응답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5회 이상의 아르바이트 참여횟수에 대해 남자 청소년은 21.3%로 여자 청소년의 11.3%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차년도와 3차년도에서는 남자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참여횟수가 1회라는 응답이 각각 57.2%와 55.3%로 여자 청소년(각각 56.1%와 56.5%)과 그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표 IV-1-8> 성별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 참여횟수

시기	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이상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차년도 (15,707**)	남자	45.5	20.2	10.7	2.4	7.5	13.8	100.0
	여자	52.9	17.5	11.3	7.0	3.9	7.4	100.0
합계		49.2	18.8	11.0	4.7	5.7	10.6	100.0
2차년도 (3,632)	남자	57.2	13.3	13.3	3.6	6.0	6.6	100.0
	여자	56.1	14.6	13.6	2.5	3.0	10.1	100.0
합계		56.6	14.0	13.5	3.0	4.4	8.5	100.0
3차년도 (2,245)	남자	55.3	17.6	9.0	5.3	2.7	10.1	100.0
	여자	56.5	14.7	9.9	3.1	3.1	12.6	100.0
합계		55.9	16.1	9.5	4.2	2.9	11.3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성적별 아르바이트 참여횟수에 대해서는 아래 <표 IV-1-9>와 같다. 1차년도에서는 성적이 높은 청소년, 중간 정도의 청소년, 그리고 낮은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참여횟수가 1회라는 응답은 각각 54.2%, 44.7%, 그리고 49.2%로 집단 간 차이가 약간 나타나고 있으나 5회 이상이라는 응답은 각각 15.9%, 15.6%, 그리고 18.4%로 그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2차년도에서는 성적이 높은 청소년, 중간 정도의 청소년, 그리고 낮은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참여횟수가 1회라는 응답은 각각 59.4%, 53.4%, 그리고 57.1%로 그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3차년도에서는 성적이 높은 청소년, 중간 정도의 청소년, 그리고 낮은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참여횟수가 1회라는 응답은 각각 61.9%, 57.1%, 그리고 45.3%로 나타나고 있어 성적이 낮은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참여횟수가 2회 이상이라는 응답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1-9> 성적별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 참여횟수

시기	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이상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차년도 (14,163)	상	54.2	20.0	7.5	2.5	4.2	11.7	100.0
	중	44.7	24.0	11.2	4.5	6.1	9.5	100.0
	하	49.2	12.4	14.1	5.9	7.0	11.4	100.0
합계		48.8	18.6	11.4	4.5	6.0	10.7	100.0
2차년도 (9,442)	상	59.4	10.1	17.4	0.0	2.9	10.1	100.0
	중	53.4	17.3	14.3	1.5	4.5	9.0	100.0
	하	57.1	14.3	11.1	4.8	5.6	7.1	100.0
합계		56.1	14.6	13.7	2.4	4.6	8.5	100.0
3차년도 (12,887)	상	61.9	14.4	5.1	4.2	4.2	10.2	100.0
	중	57.1	17.1	12.1	3.6	1.4	8.6	100.0
	하	45.3	16.3	11.6	7.0	3.5	16.3	100.0
합계		55.8	16.0	9.6	4.7	2.9	11.0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아버지 학력별 아르바이트 참여횟수에 대해서는 아래 <표 IV-1-10>과 같다. 1차년도에서는 고졸이하의 아르바이트 참여횟수가 1회라는 응답이 45.2%로 대졸(54.9%)과 대학원졸(66.7%)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어서 2회 이상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2차년도 고졸이하와 대졸의 아르바이트 참여횟수가 1회라는 응답이 각각 57.0%와 56.4%로 대학원졸(61.5%)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3차년도에서는 고졸이하의 아르바이트 참여횟수가 1회라는 응답이 53.1%로 대졸(61.7%)와 대학원졸(57.1%)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1-10> 부학력별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 참여횟수

시기	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이상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차년도 (17.117)	고졸이하	45.2	18.9	12.2	5.4	7.1	11.2	100.0
	대졸	54.9	21.0	8.0	2.5	3.7	9.9	100.0
	대학원졸	66.7	12.5	4.2	12.5	4.2	0.0	100.0
합계		49.4	19.3	10.4	4.8	5.8	10.2	100.0
2차년도 (13.716)	고졸이하	57.0	15.4	10.5	3.1	5.3	8.8	100.0
	대졸	56.4	13.6	19.1	1.8	1.8	7.3	100.0
	대학원졸	61.5	0.0	7.7	7.7	15.4	7.7	100.0
합계		57.0	14.2	13.1	2.8	4.6	8.3	100.0
3차년도 (9.402)	고졸이하	53.1	18.0	10.6	3.3	2.4	12.7	100.0
	대졸	61.7	10.3	9.3	6.5	3.7	8.4	100.0
	대학원졸	57.1	28.6	0.0	0.0	0.0	14.3	100.0
합계		55.7	15.9	10.0	4.2	2.8	11.4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경제수준별 아르바이트 참여횟수에 대해서는 아래 <표 IV-1-11>과 같다. 1차년도에서는 하층과 중간층의 경우에 아르바이트 참여횟수가 1회라는 응답이 각각 46.5%와 47.8%로 나타나고 있어 상층의 54.1%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 집단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참여횟수가 2회 이상이라는 응답이 상층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차년도에서는 하층과 상층의 경우에 아르바이트 참여횟수가 1회라는 응답이 각각 59.6%와 58.7%로 나타나고 있고 중간층(51.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아르바이트 참여횟수가 5회 이상이라는 응답이 중간층의 경우에는 16.0%로 하층(11.8%)과 상층(10.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3차년도에서는 상층에서 아르바이트 참여횟수가 1회라는 응답이 51.0%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중간층에서는 62.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1-11〉 경제수준별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 참여횟수

시기	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이상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차년도 (6.828)	하	46.5	20.9	11.6	4.7	6.0	10.2	100.0
	중	47.8	7.4	10.1	3.6	6.5	14.5	100.0
	상	54.1	17.2	10.8	5.7	4.5	7.6	100.0
합계		49.2	18.8	11.0	4.7	5.7	10.6	100.0
2차년도 (18.814*)	하	59.6	16.1	11.2	1.2	1.9	9.9	100.0
	중	51.0	15.0	15.0	3.0	9.0	7.0	100.0
	상	58.7	7.6	16.3	6.5	4.3	6.5	100.0
합계		56.9	13.6	13.6	3.1	4.5	8.2	100.0
3차년도 (12.877)	하	55.4	15.5	10.1	2.4	2.4	14.3	100.0
	중	62.4	13.8	11.0	6.4	1.8	4.6	100.0
	상	51.0	17.7	7.3	5.2	4.2	14.6	100.0
합계		56.3	15.5	9.7	4.3	2.7	11.5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 3) 아르바이트 참여동기

〈표 IV-1-12〉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이유의 변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3년 동안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여가 시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는 1차시기의 25.3%에서 3차시기의 18.2%로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부족한 용돈을 보충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50% 내외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아르바이트가 학생들에게 있어서 주로 용돈을 버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크게 변화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2> 조사 시기별 아르바이트 참여동기

이유 \ 조사시기	1차시기 (백분율)	2차시기 (백분율)	3차시기 (백분율)
생활비를 벌기 위해	13(2.5)	12(3.3)	16(4.2)
학비를 벌기 위해	3(0.6)	2(0.6)	6(1.6)
용돈이 부족해서	249(48.8)	208(57.3)	207(54.6)
취업경험을 쌓기 위해	19(3.7)	19(5.2)	31(8.2)
여가시간을 활용하려고	129(25.3)	64(17.6)	69(18.2)
주위의 권유로	74(14.5)	42(11.6)	39(10.3)
친구를 돕기 위해	11(2.2)	8(2.2)	5(1.3)
기타	12(2.4)	8(2.2)	6(1.6)
계	510(100.0)	363(100.0)	379(100.0)

성별 아르바이트 참여동기에 대해서는 아래 <표 IV-1-13>과 같다. 전체적으로 1-3차년도 모두 아르바이트 참여동기가 용돈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모두 아르바이트 참여동기로 용돈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아르바이트 참여동기로는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나타나고 있다. 아르바이트의 참여동기로 이러한 두 가지 동기가 1-3차년도까지 65%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1-13> 성별 아르바이트 참여동기

시기	구분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학비를 벌기 위해	용돈이 부족해서	취업경험을 쌓기 위해	여가시간을 활용하려고	주위의 권유로	친구를 돕기 위해	기타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차년도 (6.574)	남자	2.4	0.4	45.1	4.3	28.5	15.0	2.8	1.6	100.0
	여자	2.7	0.8	52.5	3.1	22.2	14.0	1.6	3.1	100.0
합계		2.5	0.6	48.8	3.7	25.3	14.5	2.2	2.4	100.0
2차년도 (15.025*)	남자	4.8	0.6	51.8	7.8	18.7	14.5	0.6	1.2	100.0
	여자	2.0	0.5	61.9	3.0	16.8	9.1	3.6	3.0	100.0
합계		3.3	0.6	57.3	5.2	17.6	11.6	2.2	2.2	100.0
3차년도 (2.920)	남자	4.8	1.6	51.6	9.0	17.6	12.2	1.6	1.6	100.0
	여자	3.7	1.6	57.6	7.3	18.8	8.4	1.0	1.6	100.0
합계		4.2	1.6	54.6	8.2	18.2	10.3	1.3	1.6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성적별 아르바이트 참여동기에 대해서는 아래 <표 IV-1-14>와 같다. 전체적으로 1-3차년도 모두 아르바이트 참여동기가 용돈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모든 성적 범주에서 아르바이트 참여동기로 용돈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아르바이트 참여동기로는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나타나고 있다. 아르바이트의 참여동기로 이러한 두 가지 동기가 1-3차년도까지 70%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1-14> 성적별 아르바이트 참여동기

시기	구분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학비를 벌기 위해	용돈이 부족해서	취업경험을 쌓기 위해	여가시간을 활용하려고	주위의 권유로	친구를 돕기 위해	기타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차년도 (14.163)	상	0.0	0.0	44.2	5.0	27.5	19.2	1.7	2.5	100.0
	중	2.2	0.6	52.0	2.2	25.7	12.8	1.7	2.8	100.0
	하	3.8	1.1	52.4	3.8	22.2	13.0	2.7	1.1	100.0
합계		2.3	0.6	50.2	3.5	24.8	14.5	2.1	2.1	100.0
2차년도 (17.642)	상	1.4	0.0	50.7	7.2	21.7	15.9	1.4	1.4	100.0
	중	1.5	1.5	58.3	3.8	15.2	12.9	3.0	3.8	100.0
	하	5.6	0.0	58.7	4.0	20.6	9.5	0.0	1.6	100.0
합계		3.1	0.6	56.9	4.6	18.7	12.2	1.5	2.4	100.0
3차년도 (14.722)	상	2.5	0.8	49.2	7.6	22.0	15.3	0.8	1.7	100.0
	중	2.9	2.1	52.1	7.1	20.7	10.0	2.9	2.1	100.0
	하	3.5	1.2	66.3	9.3	12.8	5.8	0.0	1.2	100.0
합계		2.9	1.5	54.7	7.8	19.2	10.8	1.5	1.7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아버지 학력별 아르바이트 참여동기에 대해서는 아래 <표 IV-1-15>와 같다. 전체적으로 1-3차년도 모두 아르바이트 참여동기가 용돈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모든 아버지 학력 범주에서 아르바이트 참여동기로 용돈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아르바이트 참여동기로는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나타나고 있다. 아르바이트의 참여동기로 이러한 두 가지 동기가 1-3차년도까지 65%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3차년도 대학원졸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참여동기로 용돈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85.7%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1-15> 부학력별 아르바이트 참여동기

시기	구분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학비를 벌기 위해	용돈이 부족해서	취업경험을 쌓기 위해	여가시간을 활용하려고	주위의 권유로	친구를 돕기 위해	기타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차년도 (6.898)	고졸이하	2.2	0.6	49.0	3.8	26.6	14.1	1.9	1.6	100.0
	대졸	3.1	0.6	48.1	3.7	23.5	14.2	2.5	4.3	100.0
	대학원졸	0.0	0.0	50.0	4.2	20.8	20.8	4.2	0.0	100.0
합계		2.4	0.6	48.8	3.8	25.3	14.5	2.2	2.4	100.0
2차년도 (14.996)	고졸이하	4.4	0.4	56.4	4.4	19.4	12.3	1.3	1.3	100.0
	대졸	0.9	0.9	58.2	6.4	15.5	9.1	4.5	4.5	100.0
	대학원졸	0.0	0.0	46.2	7.7	23.1	23.1	0.0	0.0	100.0
합계		3.1	0.6	56.6	5.1	18.3	11.7	2.3	2.3	100.0
3차년도 (12.444)	고졸이하	3.3	0.8	57.6	7.8	17.6	10.6	1.2	1.2	100.0
	대졸	5.6	1.9	44.9	9.3	22.4	12.1	0.9	2.8	100.0
	대학원졸	14.3	0.0	85.7	0.0	0.0	0.0	0.0	0.0	100.0
합계		4.2	(1.1)	54.3	8.1	18.7	10.9	1.1	1.7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경제수준별 아르바이트 참여동기에 대해서는 아래 <표 IV-1-16>과 같다. 전체적으로 1-3차년도 모두 아르바이트 참여동기가 용돈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체로 모든 경제수준별 범주에서 아르바이트 참여동기로 용돈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아르바이트 참여동기로는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나타나고 있다. 아르바이트의 참여동기로 이러한 두 가지 동기가 1-3차년도까지 65%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차년도 하층의 경우에는 두 번째로 많은 아르바이트 참여동기로는 주위의 권유라는 응답으로 나타나고 있어 다른 집단에 비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IV-1-16> 경제수준별 아르바이트 참여동기

시기	구분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학비를 벌기 위해	용돈이 부족해서	취업경험을 쌓기 위해	여가시간을 활용하려고	주위의 권유로	친구를 돕기 위해	기타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차년도 (6.898)	하	2.8	1.4)	49.3	3.3	20.0	18.6	1.9	2.8	100.0
	중	3.6	0.0	47.8	2.9	29.7	12.3	2.2	1.4	100.0
	상	1.2	0.0	49.0	5.1	28.7	10.8	2.5	2.5	100.0
합계		2.5	0.6	48.8	3.7	25.3	14.5	2.2	2.4	100.0
2차년도 (14.861)	하	4.4	0.0	56.9	5.0	13.8	15.0	3.1	1.9	100.0
	중	4.0	2.0	55.0	6.0	20.0	9.0	1.0	3.0	100.0
	상	1.1	0.0	58.7	3.3	22.8	9.8	2.2	2.2	100.0
합계		3.4	0.6	56.8	4.8	17.9	11.9	2.3	2.3	100.0
3차년도 (14.460)	하	4.2	1.8	58.9	9.5	15.5	7.7	1.2	1.2	100.0
	중	6.4	0.0	55.0	6.4	20.2	10.1	0.9	0.9	100.0
	상	2.1	3.1	46.9	7.3	20.8	14.6	2.1	3.1	100.0
합계		4.3	1.6	54.7	8.0	18.2	10.2	1.3	1.6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 2. 아르바이트 참여의 세부 실태

### 1) 직종

3년간의 아르바이트 경험의 변화와 관련하여 가장 특기할 만한 것은 아르바이트 직종의 변화이다. 1차년도 조사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 가운데 약 80%정도가 가장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 직종이 전단지 돌리기라고 응답한 바 있어 본 연구에서는 아르바이트 직종을 전단지돌리기와 기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기타 직종으로는 서빙/카운터/배달, 건설/공장노동, 주유소, 판매, 기타 배달 등이 포함되는데, 전단지 돌리기와 비

교하여 이러한 직종이 갖는 특성은 성인의 직접적인 감독과 지시 하에 작업을 수행하는 경향이 많으며, 따라서 성인과 유사한 작업환경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르바이트 직종에 있어서의 3년간 변화를 살펴보면, 1차년도에 전단지 돌리기를 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79.2%에서 2차년도에는 66%로 감소하다가 3차년도에는 무려 29.3%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표 IV-2-1> 조사 시기별 아르바이트 직종

직종 \ 조사시기	1차시기(백분율)	2차시기(백분율)	3차시기(백분율)
전단지	404(79.2)	237(66.0)	111(29.3)
기타	106(20.8)	122(34.0)	268(70.7)
계	510(100.0)	359(100.0)	379(100.0)

이는 고등학교에 들어서면서 전단지 돌리기를 한 학생이 전체의 1/3 수준에 머무른 반면, 기타 직종의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의 비율이 급증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으로는 기타 직종의 경우 특성상 중학생들이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고용주들이 중학생을 고용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고등학생은 중학생에 비해 상당 수준의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정신적·신체적 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고용주들의 입장에서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성별 아르바이트 직종에 대해서는 아래 <표 IV-2-2>와 같다. 1차년도에서 남자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직종으로 전단지라는 응답은 75.5%로 여자 청소년(82.9%)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차년도와 3차년도에서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 각각 69.3%와 35.6%로 여자 청소년(각각 63.3%와 23.0%)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아르바이트 직종으로 서빙·배달의 경우에는 1차년도에 남자 청소년의 비율(15.4%)이 여자 청소년(9.7%)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2차년도와 3차년도에서는 남자 청소년들(각각 20.9%와 36.2%)에 비해 여자 청소년(각각 24.0%와 46.6%)의 비율이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2-2> 성별 아르바이트 직종

시기	구분	전단지	서빙, 배달	기타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차년도 (4.610)	남자	75.5	15.4	9.1	100.0
	여자	82.9	9.7	7.4	100.0
합계		79.2	12.5	8.2	100.0
2차년도 (1.552)	남자	69.3	20.9	9.8	100.0
	여자	63.3	24.0	12.8	100.0
합계		66.0	22.6	11.4	100.0
3차년도 (7.777*)	남자	35.6	36.2	28.2	100.0
	여자	23.0	46.6	30.4	100.0
합계		29.3	41.4	29.3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성적별 아르바이트 직종에 대해서는 아래 <표 IV-2-3>과 같다. 1차년도에서 성적이 높은 청소년과 중간 정도의 청소년의 경우에 아르바이트 직종으로 전단지라는 응답이 각각 82.5%와 83.2%로 성적이 낮은 청소년(75.1%)에 비해 약간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서빙·배달이라는 응답은 성적이 높은 청소년(11.7%)과 중간 정도의 청소년(10.1%)에 비해 성적이 낮은 청소년(14.1%)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2차년도에서는 성적이 높은 청소년과 낮은 청소년의 경우에 아르바이트 직종으로 전단지라는 응답이 각각 64.7%와 64.5%로 성적이 중간 정도의 청소년(71.2%)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서빙·배달이라는 응답은 성적이 높은 청소년(25.0%)과 낮은 청소년(25.8%)에 비해 성적이 중간 정도의 청소년(17.4%)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3차년도에서는 성적이 높은 청소년과 낮은 청소년의 경우에 아르바이트 직종으로 전단지라는 응답이 각각 33.9%와 33.7%로 성적이

중간 정도의 청소년(25.7%)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2-3> 성적별 아르바이트 직종

시기	구분	전단지	서빙, 배달	기타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차년도 (4.987)	상	82.5	11.7	5.8	100.0
	중	83.2	10.1	6.7	100.0
	하	75.1	14.1	10.8	100.0
합계		80.0	12.0	8.1	100.0
2차년도 (3.008)	상	64.7	25.0	10.3	100.0
	중	71.2	17.4	11.4	100.0
	하	64.5	25.8	9.7	100.0
합계		67.3	22.2	10.5	100.0
3차년도 (3.202)	상	33.9	39.8	26.3	100.0
	중	25.7	41.4	32.9	100.0
	하	33.7	40.7	25.6	100.0
합계		30.5	40.7	28.8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아버지 학력별 아르바이트 직종에 대해서는 아래 <표 IV-2-4>와 같다. 1차년도에서는 고졸이하와 대졸의 경우에 아르바이트 직종으로 전단지라는 응답이 각각 80.8%와 80.9%로 대학원졸(62.5%)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대학원졸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직종으로 기타라는 응답이 20.8%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2차년도의 경우에는 모든 범주에서 아르바이트 직종으로 전단지라는 응답이 각각 64.3%, 72.7%, 그리고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3차년도에서는 고졸이하의 경우에 아르바이트 직종으로 서빙·배달이라는 응답이 44.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대졸의 경우에는 전단지라는 응답이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학원졸의 경우에는 기타라는 응답이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2-4> 부학력별 아르바이트 직종

시기	구분	전단지	서빙, 배달	기타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차년도 (8,210)	고졸이하	80.8	10.9	8.3	100.0
	대졸	80.9	13.6	5.6	100.0
	대학원졸	62.5	16.7	20.8	100.0
합계		79.9	12.0	8.0	100.0
2차년도 (3,995)	고졸이하	64.3	22.8	12.9	100.0
	대졸	72.7	20.9	6.4	100.0
	대학원졸	66.7	25.0	8.3	100.0
합계		67.1	22.3	10.7	100.0
3차년도 (4,476)	고졸이하	27.8	44.5	27.8	100.0
	대졸	36.4	34.6	29.0	100.0
	대학원졸	28.6	28.6	42.9	100.0
합계		30.4	41.2	28.4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경제수준별 아르바이트 직종에 대해서는 아래 <표 IV-2-5>와 같다. 1차년도와 2차년도에서는 모든 경제수준별 범주에서 전단지라는 응답이 60%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에 비해 3차년도에서는 모든 경제수준별 범주에서 서빙·배달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2-5〉 경제수준별 아르바이트 직종

시기	구분	전단지	서빙, 배달	기타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차년도 (3.934)	하	75.8	14.0	10.2	100.0
	중	83.3	11.6	5.1	100.0
	상	80.3	11.5	8.3	100.0
합계		79.2	12.5	8.2	100.0
2차년도 (7.289)	하	60.4	25.2	14.5	100.0
	중	67.7	21.2	11.1	100.0
	상	76.7	16.7	6.7	100.0
합계		66.7	21.8	11.5	100.0
3차년도 (10.725)	하	22.6	42.9	34.5	100.0
	중	35.8	44.0	20.2	100.0
	상	34.4	35.4	30.2	100.0
합계		29.5	41.3	29.2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 2) 구직 시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

조사시기별 아르바이트 구직 시 중요하게 생각한 요인에 대해서는 아래 <표 IV-2-6>과 같다. 1-3차년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요인은 보수로 1차년도에 65.3%, 2차년도에 68.5%, 그리고 3차년도에 62.3%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시간적 여유로 1차년도에 15.7%, 2차년도에 13.0%, 그리고 3차년도에 12.7%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무조건 구해지는 대로 함이라는 응답도 1차년도에 10.8%, 2차년도에 10.2%, 그리고 3차년도에 0.2%로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2-6> 조사시기별 아르바이트 구직 시 중요하게 생각한 요인(1순위)

요인	조사시기	1차년도 (백분율)	2차년도 (백분율)	3차년도 (백분율)
보수(돈)		65.3	68.5	62.3
시간적 여유		15.7	13.0	12.7
나의 적성		2.2	3.6	4.0
근무환경		2.0	2.5	8.7
숙식제공 여부		0.1	0.3	0.3
오랫동안 계속 일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		0.2	1.4	1.8
무조건 구해지는 대로 함		10.8	10.2	9.2
기타		2.5	0.6	1.1
합계		100.0	100.0	100.0

성별 구직 시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에 대해서는 아래 <표 IV-2-7>과 같다. 1-3차년도에서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모두 구직 시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으로 보수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시간적 여유라는 응답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2-7> 성별 구직 시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1순위)

시기	구분	보수	시간적 여유	나의 적성	근무 환경	숙식 제공 여부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을 지 여부	무조건 구해지는 대로	기타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차년도 (11.155)	남자	63.6	18.2	3.2	2.8	0.0	1.2	8.3	2.8	100.0
	여자	66.9	13.2	1.2	1.2	0.8	1.2	13.2	2.3	100.0
합계		65.3	15.7	2.2	2.0	0.4	1.2	10.8	2.5	100.0
2차년도 (14.348*)	남자	71.3	11.0	6.1	1.8	0.6	1.2	6.7	1.2	100.0
	여자	66.2	14.6	1.5	3.0	0.0	1.5	13.1	0.0	100.0
합계		68.5	13.0	3.6	2.5	0.3	1.4	10.2	0.6	100.0
3차년도 (15.606*)	남자	70.7	9.6	3.2	7.4	0.0	2.1	6.9	0.0	100.0
	여자	53.9	15.7	4.7	9.9	0.5	1.6	11.5	2.1	100.0
합계		62.3	12.7	4.0	8.7	0.3	1.8	9.2	1.1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성적별 구직 시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에 대해서는 <표 IV-2-8>과 같다. 1-3차년도 모든 성적별 범주에서 구직 시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으로는 보수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1차년도의 경우에 모든 성적별 범주에서 시간적 여유라고 나타나고 있다. 2차년도의 경우에는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요인으로 성적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에는 무조건 구해지는 대로라는 응답이 16.2%로 나타나고 있고, 중간 정도 청소년의 경우에는 시간적 여유와 무조건 구해지는 대로라는 응답이 각각 11.4%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적이 낮은 청소년의 경우에는 시간적 여유라는 응답이 14.3%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차년도의 경우에는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요인으로는 성적이 높은 청소년과 중간 정도 청소년인 경우에 시간적 여유라는 응답이 각각 15.3%와 13.6%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성적이 낮은 청소년의 경우에는 무조건 구해지는 대로라는 응답이 10.5%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2-8> 성적별 구직 시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1순위)

시기	구분	보수	시간적 여유	나의 적성	근무 환경	숙식 제공 여부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을 지 여부	무조건 구해지는 대로	기타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차년도 (8.510)	상	60.8	15.0	4.2	2.5	0.0	0.8	14.2	2.5	100.0
	중	69.3	15.1	1.7	0.6	0.0	1.1	10.1	2.2	100.0
	하	64.9	16.8	1.6	3.2	0.0	1.1	9.7	2.7	100.0
합계		65.5	15.7	2.3	2.1	0.0	1.0	11.0	2.5	100.0
2차년도 (13.002)	상	66.2	11.8	2.9	1.5	0.0	0.0	16.2	1.5	100.0
	중	68.2	11.4	3.0	3.8	0.0	1.5	11.4	0.8	100.0
	하	72.2	14.3	3.2	2.4	0.8	2.4	4.8	0.0	100.0
합계		69.3	12.6	3.1	2.8	0.3	1.5	9.8	0.6	100.0
3차년도 (10.633)	상	58.5	15.3	1.7	11.0	0.8	1.7	10.2	0.8	100.0
	중	62.1	13.6	4.3	8.6	0.0	2.1	7.9	1.4	100.0
	하	67.4	9.3	5.8	4.7	0.0	2.3	10.5	0.0	100.0
합계		62.2	13.1	3.8	8.4	0.3	2.0	9.3	0.9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아버지 학력별 구직 시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에 대해서는 아래 <표 IV-2-9>와 같다. 1-3차년도 모든 아버지 학력별 범주에서 구직 시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으로는 보수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1차년도의 경우에 모든 아버지 학력별 범주에서 시간적 여유라고 나타나고 있다. 2차년도에서는 고졸이하에서는 두 번째 중요한 요인으로 시간적 여유라는 응답이 14.6%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대졸의 경우에는 무조건 구해지는 대로라는 응답이 11.8%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차년도에서는 고졸이하와 대졸의 경우에 두 번째 중요한 요인으로 시간적 여유라는 응답이 각각 11.8%와 13.1%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2-9> 부학력별 구직 시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1순위)

시기	구분	보수	시간적 여유	나의 적성	근무 환경	숙식 제공 여부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을 지 여부	무조건 구해 지는 대로	기타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차년도 (10.970)	고졸이하	64.7	16.0	1.9	1.9	0.6	1.9	10.9	1.9	100.0
	대졸	65.4	14.8	2.5	2.5	0.0	0.0	11.7	3.1	100.0
	대학원졸	66.7	16.7	4.2	0.0	0.0	0.0	4.2	8.3	100.0
합계		65.1	15.7	2.2	2.0	0.4	1.2	10.8	2.6	100.0
2차년도 (11.620)	고졸이하	67.7	14.6	3.1	2.2	0.4	1.3	10.2	0.4	100.0
	대졸	70.0	8.2	3.6	3.6	0.0	1.8	11.8	0.9	100.0
	대학원졸	76.9	7.7	15.4	0.0	0.0	0.0	0.0	0.0	100.0
합계		68.8	12.3	3.7	2.6	0.3	1.4	10.3	0.6	100.0
3차년도 (10.963)	고졸이하	60.0	11.8	4.9	9.4	0.0	2.4	10.6	0.8	100.0
	대졸	69.2	13.1	1.9	6.5	0.9	0.9	5.6	1.9	100.0
	대학원졸	71.4	14.3	0.0	0.0	0.0	0.0	14.3	0.0	100.0
합계		63.0	12.3	3.9	8.4	0.3	1.9	9.2	1.1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경제수준별 구직 시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으로는 아래 <표 IV-2-10>과 같다. 1-3차년도 모든 경제수준별 범주에서 구직 시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으로는 보수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1차년도의 경우에 모든 경제수준별 범주에서 시간적 여유라고 나타나고 있다. 2차년도에서는 상층과 하층의 경우 두 번째 중요한 요인으로 시간적 여유라는 응답이 각각 15.6%와 14.3%로 나타나고 있고, 중간층의 경우에는 무조건 구해 지는 대로라는 응답이 14.0%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차년도에서도 상층과 하층의 경우 두 번째 중요한 요인으로 시간적 여유라는 응답이 각각 14.3%와 12.5%로 나타나고 있고, 중간층의 경우에는 무조건 구해 지는 대로라는 응답이 12.8%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2-10> 경제수준별 구직 시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1순위)

시기	구분	보수	시간적 여유	나의 적성	근무 환경	숙식 제공 여부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을 지 여부	무조건 구해 지는 대로	기타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차년도 (13.322)	상	63.3	17.7	0.9	2.8	0.5	1.4	10.7	2.8	100.0
	중	73.2	11.6	2.9	0.7	0.7	0.0	9.4	1.4	100.0
	하	61.1	16.6	3.2	1.9	0.0	1.9	12.1	3.2	100.0
합계		65.3	15.7	2.2	1.0	0.4	1.2	10.8	2.5	100.0
2차년도 (14.317)	상	65.6	15.6	5.0	1.9	0.0	2.5	8.8	0.6	100.0
	중	69.0	9.0	3.0	2.0	1.0	1.0	14.0	1.0	100.0
	하	70.3	14.3	1.1	1.1	0.0	0.0	9.9	0.0	100.0
합계		67.8	13.4	3.4	2.6	0.3	1.4	10.5	0.6	100.0
3차년도 (26.154*)	상	56.5	14.3	5.4	13.7	0.0	2.4	6.0	1.8	100.0
	중	71.6	11.0	1.8	0.9	0.9	0.9	12.8	0.0	100.0
	하	60.4	12.5	4.2	9.4	0.0	2.1	10.4	1.0	100.0
합계		61.9	12.9	4.0	8.8	0.3	1.9	9.1	1.1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 3) 아르바이트 지속기간

<표 IV-2-11>는 조사 시기별로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의 지속기간의 변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1차년도에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 가운데 83.7%가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에서 21일 이하로 일을 하였다고 응답한 반면, 3차년도에는 이 수치가 59.1%로 상당히 감소하였다. 게다가 1달 이상 일하였다고 응답한 학생도 1차년도에는 4.5%에 불과하였지만, 3차년도에는 18.5%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아르바이트 참여 횟수의 변화 추이와 연관지어 살펴보면, 고등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지난 1년간 참여한 아르바이트 횟수는 감소한 반

면, 일단 시작한 아르바이트의 지속기간은 상당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의 성장 과정에서 아르바이트가 상당히 안정적인 형태로 변화해 감을 의미한다. 즉 일단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 비교적 오랜 기간 그 일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따라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단기적으로 하기 보다는 소수의 아르바이트에서 장기간 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영향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지닌다. 즉 여러 가지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경우 그 일로부터 영향을 받기에는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않지만, 적은 수의 아르바이트를 장기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증대하기 때문이다.

<표 IV-2-11> 조사 시기별 아르바이트 지속 기간

조사시기 지속 기간	1차시기(백분율)	2차시기(백분율)	3차시기(백분율)
1일~7일	364(71.5)	241(66.2)	157(41.1)
8일~14일	31(6.1)	27(7.4)	32(8.5)
15일~21일	31(6.1)	25(6.9)	35(9.2)
22일~30일	60(11.8)	55(15.1)	85(22.4)
31일 이상	23(4.5)	16(4.4)	70(18.5)
계	509(100.0)	364(100.0)	379(100.0)

성별 아르바이트 지속기간에 대해서는 아래 <표 IV-2-12>와 같다. 1차년도에 남자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지속기간이 1~7일이라는 응답은 68.0%로 여자 청소년(74.7%)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 여자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아르바이트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2~30일이라는 응답이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14.2%로 여자 청소년 9.3%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차년도와 3차년도의 경우에는 남자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지속기간이 1~7일이라는 응답이 각각 66.3%와 41.5%로 여자 청소년의 경우(각각 66.2%와 41.4%)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아르바이트 지속기간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31일 이상이라는 응답이 1차년도에 4.7%에서 3차년도에 18.5%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2-9> 성별 아르바이트 지속기간

시기	구분	1~7일	8~14일	15~21일	22~30일	31일 이상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차년도 (3.790)	남자	68.0	6.7	6.3	14.2	4.7	100.0
	여자	74.7	5.4	5.8	9.3	4.7	100.0
합계		71.4	6.1	6.1	11.8	4.7	100.0
2차년도 (6.321)	남자	66.3	4.8	8.4	17.5	3.0	100.0
	여자	66.2	9.6	5.6	13.1	5.6	100.0
합계		66.2	7.4	6.9	15.1	4.4	100.0
3차년도 (0.985)	남자	41.5	8.0	10.6	21.8	18.1	100.0
	여자	41.4	8.9	7.9	23.0	18.8	100.0
합계		41.4	8.4	9.2	22.4	18.5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성적별 아르바이트 지속기간에 대해서는 아래 <표 IV-2-13>과 같다. 1차년도에서 성적이 높은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지속기간이 1~7일이라는 응답은 82.5%로 중간 정도의 청소년(73.2%)과 성적이 낮은 청소년(64.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성적이 낮을수록 아르바이트 지속기간이 1~7일이라는 응답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성적이 낮을수록 아르바이트 지속기간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데, 특히 아르바이트 지속기간이 22일 이상이라는 응답이 성적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에는 8.3%, 중간 정도의 청소년은 15.7%, 그리고 성적이 낮은 청소년은 20.0%로 나타나고 있다. 2차년도에서는 성적이 높은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지속기간이 1~7일이라는 응답은 72.5%이고, 중간 정도의 청소년은 67.7%, 그리고 성적이 낮은 청소년은 63.5%로 1차년도에 비해 그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3차년도에서는 성적이 높은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지속기간이 1~7일이라는 응답은 41.5%이고, 중간 정도의 청소년은 45.7%, 그리고 성적이 낮은 청소년은

37.2%로 1차년도와 2차년도에 비해 매우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2-13> 성적별 아르바이트 지속기간

시기	구분	1~7일	8~14일	15~21일	22~30일	31일 이상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차년도 (19,570*)	상	82.5	4.2	5.0	5.8	2.5	100.0
	중	73.2	6.1	5.0	14.0	1.7	100.0
	하	64.3	8.1	7.6	12.4	7.6	100.0
합계		72.1	6.4	6.0	11.4	4.1	100.0
2차년도 (7,307)	상	72.5	1.4	5.8	15.9	4.3	100.0
	중	67.7	7.5	9.0	11.3	4.5	100.0
	하	63.5	10.3	6.3	14.3	5.6	100.0
합계		67.1	7.3	7.3	13.4	4.9	100.0
3차년도 (7,944)	상	41.5	9.3	7.6	26.3	15.3	100.0
	중	45.7	7.9	10.7	15.7	20.0	100.0
	하	37.2	8.1	11.6	27.9	15.1	100.0
합계		42.2	8.4	9.9	22.4	17.2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아버지 학력별 아르바이트 지속기간에 대해서는 아래 <표 IV-2-14>와 같다. 1차년도에서 고졸이하, 대졸, 그리고 대학원졸의 경우에 아르바이트 지속기간이 1~7일이라는 응답이 각각 73.4%, 69.1%, 그리고 70.8%로 나타나고 있어 집단 간 그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지속기간이 22일 이상이라는 응답에 대해서는 고졸이하와 대졸의 경우에 각각 14.7%와 18.6%로 나타나고 있어서 대학원졸(25.0%)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차년도에서는 고졸이하와 대졸의 경우에 아르바이트 지속기간이 1~7일이라는 응답이 각각 65.8%와 69.1%로 나타나고 있어 대학원졸(53.8%)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아르바이트 지속기간이 22일 이상이라는 응답은 대학원졸의 경우에 30.8%로 고졸이하(18.8%)와 대졸(19.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3차년도에서는 고졸이하,

대졸, 그리고 대학원졸의 경우에 아르바이트 지속기간이 1~7일이라는 응답이 각각 42.9%, 42.1%, 그리고 42.9%로 나타나고 있어 집단 간 그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표 IV-2-14> 아버지 학력별 아르바이트 지속기간

시기	구분	1~7일	8~14일	15~21일	22~30일	31일 이상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차년도 (8.021)	고졸이하	73.4	5.8	6.1	9.9	4.8	100.0
	대졸	69.1	5.6	6.8	13.0	5.6	100.0
	대학원졸	70.8	4.2	0.0	25.0	0.0	100.0
합계		71.9	5.6	6.0	11.6	4.8	100.0
2차년도 (9.279)	고졸이하	65.8	9.2	6.1	14.9	3.9	100.0
	대졸	69.1	2.7	9.1	14.5	4.5	100.0
	대학원졸	53.8	7.7	7.7	15.4	15.4	100.0
합계		66.4	7.1	7.1	14.8	4.6	100.0
3차년도 (9.279)	고졸이하	42.9	9.0	8.2	21.2	18.8	100.0
	대졸	42.1	7.5	12.1	21.5	16.8	100.0
	대학원졸	42.9	14.3	0.0	28.6	14.3	100.0
합계		42.6	8.6	9.2	21.4	18.1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경제수준별 아르바이트 지속기간에 대해서는 아래 <표 IV-2-15>와 같다. 1차년도와 2차년도의 경우에 하층의 아르바이트 지속기간이 1~7일이라는 응답은 각각 74.0%와 64.0%로 중간층(각각 68.8%와 67.0%)과 상층(각각 70.1%와 68.5%)에 비해 그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3차년도의 경우에는 하층과 상층의 아르바이트 지속기간이 1~7일이라는 응답이 각각 35.1%와 42.7%로 중간층(50.5%)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아르바이트 지속기간이 22일 이상이라는 응답은 하층과 상의 경우에 각각 44.0%와 42.7%로 중간층(33.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2-15> 경제수준별 아르바이트 지속기간

시기	구분	1~7일	8~14일	15~21일	22~30일	31일 이상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차년도 (12,964)	하	74.0	4.2	5.1	9.3	7.4	100.0
	중	68.8	6.5	8.7	13.0	2.9	100.0
	상	70.1	8.3	5.1	14.0	2.5	100.0
합계		71.4	6.1	6.1	11.8	4.7	100.0
2차년도 (8,760)	하	64.0	9.9	6.2	16.8	3.1	100.0
	중	67.0	6.0	8.0	16.0	3.0	100.0
	상	68.5	5.4	6.5	10.9	8.7	100.0
합계		66.0	7.6	6.8	15.0	4.5	100.0
3차년도 (12,598)	하	35.1	11.3	9.5	20.2	23.8	100.0
	중	50.5	6.4	10.1	19.3	13.8	100.0
	상	42.7	6.3	8.3	27.1	15.6	100.0
합계		41.6	8.6	9.4	21.7	18.8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 4) 주간근무일수

<표 IV-2-16>은 조사시기별 주간 근무일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차 시기의 경우 주간 근무일수가 5일 이상인 경우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23.3%였으나 꾸준히 증가하여 3차년도에는 44.6%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7일 모두 일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도 1차년도의 9.1%에서 3차년도에는 21.6%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이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의 경우 한 주일에 많은 시간을 아르바이트에 사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가운데 5명에 1명 정도는 일주일 내내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2-16> 조사 시기별 아르바이트 주간 근무일수

근무일수 \ 조사시기	1차시기(백분율)	2차시기(백분율)	3차시기(백분율)
1일	45.4	39.6	23.7
2일	15.2	13.7	16.1
3일	13.0	12.9	10.8
4일	3.0	5.2	4.7
5일	6.7	8.2	13.2
6일	7.5	5.2	9.8
7일	9.1	15.1	21.6
계	100.0	100.0	100.0

성별 주간근무일수에 대해서는 아래 <표 IV-2-17>과 같다. 1-3차년도에서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의 주간근무일수에 대해 1일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1차년도에 2일이라는 응답이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각각 12.5%와 18.0%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차년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주간근무일수로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 7일이라는 응답이 15.1%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2일이라는 응답이 7일이라는 응답이 각각 15.2%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차년도에서도 두 번째로 높은 주간근무일수로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 7일이라는 응답이 15.1%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2일과 7일이라는 응답이 각각 15.2%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2-17> 성별 주간근무일수

시기	구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차년도 (11,893)	남자	45.6	12.5	12.1	3.2	8.9	10.1	7.7	100.0
	여자	45.3	18.0	13.9	2.9	4.5	4.9	10.6	100.0
합계		45.4	15.2	13.0	3.0	6.7	7.5	9.1	100.0
2차년도 (3,971)	남자	41.6	12.0	13.9	3.6	9.6	4.2	15.1	100.0
	여자	37.9	15.2	12.1	6.6	7.1	6.1	15.2	100.0
합계		45.4	15.2	13.0	3.0	6.7	7.5	9.1	100.0
3차년도 (6,440)	남자	41.6	12.0	13.9	3.6	9.6	4.2	15.1	100.0
	여자	37.9	15.2	12.1	6.6	7.1	6.1	15.2	100.0
합계		39.6	13.7	12.9	5.2	8.2	5.2	15.1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성적별 주간근무일수에 대해서는 아래 <표 IV-2-18>과 같다. 1차년도에서 성적이 높은 청소년의 주간근무일수에 대해서 1일이라는 응답은 60.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중간 정도의 청소년은 44.1%, 그리고 성적이 낮은 청소년은 38.3%로 성적이 낮아질수록 주간근무일수가 1일이라는 응답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성적이 낮은 청소년의 경우에 주간근무일수가 7일이라는 응답이 15.3%로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2차년도에서 성적이 높은 청소년, 중간 정도의 청소년, 그리고 성적이 낮은 청소년의 주간근무일수에 대해 1일이라는 응답은 각각 36.2%, 40.6%, 그리고 40.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3차년도에서는 성적이 높은 청소년과 중간 정도의 청소년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일수에 대해 1일이라는 응답이 각각 22.9%와 27.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성적이 낮은 청소년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일수가 7일이라는 응답이 26.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2-18> 성적별 주간근무일수

시기	구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차년도 (31.626**)	상	60.3	10.3	13.8	0.0	3.4	6.9	5.2	100.0
	중	44.1	20.0	12.4	2.9	6.5	8.2	5.9	100.0
	하	38.3	15.3	13.1	4.4	8.2	5.5	15.3	100.0
합계		45.8	15.8	13.0	2.8	6.4	6.8	9.4	100.0
2차년도 (11.970)	상	36.2	13.0	20.3	7.2	5.8	4.3	13.0	100.0
	중	40.6	17.3	10.5	7.5	6.8	3.0	14.3	100.0
	하	40.5	11.9	12.7	2.4	8.7	7.1	16.7	100.0
합계		39.6	14.3	13.4	5.5	7.3	4.9	14.9	100.0
3차년도 (7.994)	상	22.9	21.2	8.5	5.1	12.7	8.5	21.2	100.0
	중	27.1	12.9	12.9	5.0	14.3	10.7	17.1	100.0
	하	20.9	16.3	11.6	4.7	11.6	8.1	26.7	100.0
합계		24.1	16.6	11.0	4.9	13.1	9.3	20.9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아버지 학력별 주간근무일수에 대해서는 아래 <표 IV-2-19>와 같다. 1차년도에서 모든 아버지 학력 범주에서 주간근무일수가 1일이라는 응답이 각각 45.1%, 47.8%, 그리고 45.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집단간 차이도 그리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다. 2차년도에서는 고졸이하와 대졸의 경우에 주간근무일수가 1일이라는 응답이 각각 39.9%와 43.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대학원졸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일수가 2일과 3일이라는 응답이 각각 30.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3차년도에서는 고졸이하의 경우에 주간근무일수가 1일과 7일이라는 응답이 23.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졸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일수가 1일이라는 응답이 28.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학원졸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일수가 3일이라는 응답이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2-19> 부학력별 주간근무일수

시기	구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차년도 (8.1954)	고졸이하	45.1	16.8	13.8	2.4	6.7	7.1	8.1	100.0
	대졸	47.8	13.0	9.9	3.7	6.8	8.1	10.6	100.0
	대학원졸	45.8	12.5	16.7	8.3	0.0	8.3	8.3	100.0
합계		46.1	15.4	12.7	3.1	6.4	7.5	8.9	100.0
2차년도 (22.985*)	고졸이하	39.9	15.4	11.4	3.1	8.8	4.8	16.7	100.0
	대졸	43.6	9.1	11.8	10.9	7.3	6.4	10.9	100.0
	대학원졸	15.4	30.8	30.8	0.0	7.7	0.0	15.4	100.0
합계		40.2	14.0	12.3	5.4	8.3	5.1	14.8	100.0
3차년도 (10.669)	고졸이하	23.7	16.3	9.0	4.9	12.7	9.8	23.7	100.0
	대졸	28.0	18.7	14.0	3.7	12.1	6.5	16.8	100.0
	대학원졸	14.3	0.0	28.6	14.3	14.3	14.3	14.3	100.0
합계		24.8	16.7	10.9	4.7	12.5	8.9	21.4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경제수준별 주간근무일수에 대해서는 아래 <표 IV-2-20>과 같다. 1차년도에서 하층, 중간층, 그리고 상층에 대해 주간근무일수가 1일이라는 응답은 각각 43.4%, 44.1%, 그리고 49.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집단간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차년도에서도 하층, 중간층, 그리고 상층에 대해 주간근무일수가 1일이라는 응답이 각각 37.9%, 37.0%, 그리고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하층과 중간층의 경우에 주간근무일수가 7일이라는 응답은 각각 16.8%와 18.0%로 나타나고 있는 데 비해, 상층에서는 8.7%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3차년도에서는 중간층과 상층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일수가 1일이라는 응답이 각각 31.2%와 24.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하층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일수가 7일이라는 응답이 22.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2-20> 경제수준별 주간근무일수

시기	구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차년도 (11.017)	하	43.4	18.4	13.7	2.4	4.7	8.0	9.4	100.0
	중	44.1	12.6	15.0	3.1	9.4	4.7	11.0	100.0
	상	49.4	13.0	10.4	3.9	7.1	9.1	7.1	100.0
합계		45.4	15.2	13.0	3.0	6.7	7.5	9.1	100.0
2차년도 (17.886)	하	37.9	14.3	13.0	3.7	5.6	8.7	16.8	100.0
	중	37.0	15.0	11.0	8.0	8.0	3.0	18.0	100.0
	상	43.5	10.9	16.3	5.4	13.0	2.2	8.7	100.0
합계		39.1	13.6	13.3	5.4	8.2	5.4	15.0	100.0
3차년도 (16.268)	하	19.6	13.1	11.9	5.4	14.3	13.1	22.6	100.0
	중	31.2	15.6	11.9	3.7	8.3	5.5	23.9	100.0
	상	24.0	21.9	7.3	5.2	15.6	8.3	17.7	100.0
합계		24.1	16.1	10.7	4.8	12.9	9.7	21.7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직종별 주간근무일수에 대해서는 아래 <표 IV-2-21>과 같다. 1-3차년도에서 직종이 전단지인 경우에는 주간근무일수가 1일이라는 응답이 각각 51.5%, 46.8%, 그리고 43.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직종이 서빙·배달인 경우에는 1차년도에 주간근무일수가 6일이라는 응답이 20.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2차년도와 3차년도에서는 주간근무일수가 7일이라는 응답이 각각 24.7%와 27.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직종별 주간근무일수는 전단지보다는 서빙·배달의 경우에 더욱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IV-2-17〉 직종별 주간근무일수

시기	구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차년도 (63.376 <sup>***</sup> )	전단지	51.5	15.7	12.9	2.8	6.4	4.4	6.2	100.0
	서빙, 배달	15.6	15.6	15.6	3.1	10.9	20.3	18.8	100.0
	기타	34.1	9.8	9.8	4.9	2.4	17.1	22.0	100.0
합계		45.4	15.2	13.0	3.0	6.7	7.5	9.1	100.0
2차년도 (42.826 <sup>***</sup> )	전단지	46.8	14.3	14.3	5.5	6.3	3.0	9.7	100.0
	서빙, 배달	18.5	17.3	12.3	4.9	12.3	9.9	24.7	100.0
	기타	39.0	2.4	7.3	2.4	12.2	9.8	26.8	100.0
합계		39.6	13.6	13.1	5.0	8.4	5.3	15.0	100.0
3차년도 (51.135 <sup>***</sup> )	전단지	43.2	16.2	14.4	4.5	8.1	5.4	8.1	100.0
	서빙, 배달	11.5	15.9	10.2	5.7	16.6	12.7	27.4	100.0
	기타	21.6	16.2	8.1	3.6	13.5	9.9	27.0	100.0
합계		23.7	16.1	10.8	4.7	13.2	9.8	21.6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 5) 일일근무시간

〈표 IV-2-22〉은 아르바이트 일일 근무시간의 변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하루에 4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1차년도에는 32.5%였으나 3차년도에는 무려 77%에 이르고 있다. 물론 이러한 수치는 주말의 근무 시간을 포함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상당히 우려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부 학생들의 경우 학업보다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음을 시사하는데, 이는 고등학교 진학과 함께 대학 진학 등과 관련하여 학업을 포기하였을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학생들의 성향과 더불어 미래 계획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적절한 지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IV-2-22> 조사 시기별 아르바이트 일일 근무시간

근무시간 \ 조사시기	1차시기(백분율)	2차시기(백분율)	3차시기(백분율)
1시간	11.4	9.1	2.1
2시간	28.2	23.4	10.3
3시간	27.8	25.3	10.6
4시간	12.5	11.6	14.2
5시간	9.0	12.4	17.9
6시간 이상	11.0	18.2	44.9
계	100.0	100.0	100.0

성별 일일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아래 <표 IV-2-23>과 같다. 1차년도에서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 일일근무시간이 2-3시간이라는 응답이 56.1%로 나타나고 있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56.0%로 집단 간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차년도에서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 일일근무시간이 2-3시간이라는 응답이 57.2%로 나타나고 있는 데 비해,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41.4%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 일일 근무시간이 6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이 24.2%로 남자 청소년(11.4%)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3차년도에서는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의 일일근무시간이 2-3시간이라는 응답은 각각 21.3%와 20.4%로 그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일일근무시간이 6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이 각각 44.7%와 45.0%로 1차년도와 2차년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2-23> 성별 일일근무시간

시기	구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이상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차년도 (9.167)	남자	14.6	29.2	26.9	9.5	8.3	11.5	100.0
	여자	8.2	27.2	28.8	15.6	9.7	10.5	100.0
합계		11.4	28.2	27.8	12.5	9.0	11.0	100.0
2차년도 (24.720***)	남자	13.3	25.9	31.3	10.2	7.8	11.4	100.0
	여자	5.6	21.2	20.2	12.6	16.2	24.2	100.0
합계		9.1	23.4	25.3	11.5	12.4	18.4	100.0
3차년도 (1.837)	남자	2.7	11.7	9.6	13.3	18.1	44.7	100.0
	여자	1.6	8.9	11.5	15.2	17.8	45.0	100.0
합계		2.1	10.3	10.6	14.2	17.9	44.9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성적별 일일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아래 <표 IV-2-24>와 같다. 1차년도에서 성적이 높은 청소년과 중간 정도의 청소년, 그리고 성적이 낮은 청소년의 일일근무시간이 2-3시간이라는 응답은 각각 62.5%, 60.9%, 그리고 49.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적이 낮은 청소년의 경우에는 다른 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일일근무시간이 5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이 27.6%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2차년도에서는 성적이 높은 청소년과 중간 정도의 청소년, 그리고 성적이 낮은 청소년의 일일근무시간이 2-3시간이라는 응답은 각각 59.4%, 54.2%, 그리고 39.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1차년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성적이 낮은 청소년의 경우에는 다른 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일일근무시간이 1시간과 4시간이라는 응답이 각각 15.1%와 16.7%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3차년도에서는 성적이 높은 청소년과 중간 정도의 청소년, 그리고 성적이 낮은 청소년의 일일근무시간이 5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은 각각 65.3%, 62.1%, 그리고 54.7%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2-24> 성적별 일일근무시간

시기	구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이상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차년도 (16.551)	상	11.7	30.0	32.5	13.3	5.0	7.5	100.0
	중	9.5	26.8	34.1	12.8	7.8	8.9	100.0
	하	11.9	27.6	21.6	11.4	13.0	14.6	100.0
합계		11.0	27.9	28.9	12.4	9.1	10.7	100.0
2차년도 (21.379*)	상	4.3	29.0	30.4	7.2	14.5	14.5	100.0
	중	4.5	28.6	25.6	9.8	12.0	19.5	100.0
	하	15.1	16.7	23.0	16.7	10.3	18.3	100.0
합계		8.5	24.1	25.6	11.9	11.9	18.0	100.0
3차년도 (8.252)	상	1.7	7.6	12.7	12.7	21.2	44.1	100.0
	중	2.9	12.9	14.0	13.6	17.1	45.0	100.0
	하	1.2	10.5	14.0	19.8	12.8	41.9	100.0
합계		2.0	10.5	11.3	14.8	17.4	43.9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아버지 학력별 일일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아래 <표 IV-2-25>와 같다. 1차년도에서는 아버지 학력이 고졸이하, 대졸, 그리고 대학원졸인 경우에 일일근무시간이 2-3시간이라는 응답이 각각 54.8%, 58.0%, 그리고 58.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2차년도에서도 아버지 학력이 고졸이하, 대졸, 그리고 대학원졸인 경우에 일일근무시간이 2-3시간이라는 응답이 각각 45.1%, 52.7%, 그리고 69.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3차년도에서는 아버지 학력이 고졸이하, 대졸, 그리고 대학원졸인 경우에 일일근무시간이 6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이 각각 48.2%, 36.4%, 그리고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2-25> 부학력별 일일근무시간

시기	구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이상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차년도 (6.390)	고졸이하	10.6	27.2	27.6	13.5	8.7	12.5	100.0
	대졸	14.2	29.6	29.0	11.7	8.6	6.8	100.0
	대학원졸	8.3	33.3	25.0	8.3	12.5	12.5	100.0
합계		11.6	28.3	27.9	12.7	8.8	10.6	100.0
2차년도 (11.419)	고졸이하	8.8	19.7	25.4	12.7	12.7	20.6	100.0
	대졸	10.0	30.0	22.7	11.8	12.7	12.7	100.0
	대학원졸	15.4	30.8	38.5	0.0	0.0	15.4	100.0
합계		9.4	23.4	25.1	12.0	12.3	17.9	100.0
3차년도 (12.569)	고졸이하	1.6	8.2	9.4	14.3	18.4	48.2	100.0
	대졸	3.7	15.9	13.1	15.0	15.9	36.4	100.0
	대학원졸	0.0	14.3	28.6	0.0	14.3	42.9	100.0
합계		2.2	10.6	10.9	14.2	17.5	44.6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경제수준별 일일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아래 <표 IV-2-26>과 같다. 1차년도에서 하층과 중간층, 그리고 상층의 경우에 일일근무시간이 2-3시간이라는 응답이 각각 51.6%, 57.3%, 그리고 61.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2차년도에서도 하층과 중간층, 그리고 상층의 경우에 일일근무시간이 2-3시간이라는 응답이 각각 46.0%, 49.0%, 그리고 54.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3차년도에서는 하층과 중간층, 그리고 상층의 경우에 일일근무시간이 6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이 각각 52.4%, 38.5%, 그리고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2-26> 경제수준별 일일근무시간

시기	구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이상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차년도 (16.687)	하	12.6	28.8	22.8	12.1	8.8	14.9	100.0
	중	9.4	25.4	31.9	18.1	7.2	8.0	100.0
	상	11.5	29.9	31.2	8.3	10.8	8.3	100.0
합계		11.4	28.2	27.8	12.5	9.0	11.0	100.0
2차년도 (9.401)	하	11.2	22.4	23.6	9.9	13.0	19.9	100.0
	중	10.0	22.0	27.0	10.0	8.0	23.0	100.0
	상	5.4	26.1	28.3	14.1	14.1	12.0	100.0
합계		9.3	23.2	25.8	11.0	11.9	18.7	100.0
3차년도 (16.058)	하	3.0	6.5	9.5	10.7	17.9	52.4	100.0
	중	0.9	14.7	8.3	18.3	19.3	38.5	100.0
	상	2.1	11.5	15.6	15.6	17.7	37.5	100.0
합계		2.1	10.2	10.7	14.2	18.2	44.5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직종별 일일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아래 <표 IV-2-27>과 같다. 1차년도에서 직종이 전단지인 경우에는 일일근무시간이 2시간이라는 응답이 30.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서빙·배달의 경우에는 6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이 26.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2차년도에서는 직종이 전단지인 경우에 일일근무시간이 3시간이라는 응답이 31.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서빙·배달의 경우에는 6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이 37.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3차년도에서는 1차년도와 유사하게 직종이 전단지인 경우에는 일일근무시간이 2시간이라는 응답이 27.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서빙·배달의 경우에는 6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이 52.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4-2-27> 직종별 일일근무시간

시기	구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이상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차년도 (137.890***)	전단지	13.1	30.9	30.7	13.1	8.4	3.7	100.0
	서빙, 배달	7.8	25.0	20.3	10.9	9.4	26.6	100.0
	기타	0.0	7.1	11.9	9.5	14.3	57.1	100.0
합계		11.4	28.2	27.8	12.5	9.0	11.0	100.0
2차년도 (88.869***)	전단지	11.8	28.3	31.6	12.7	8.9	6.8	100.0
	서빙, 배달	3.7	17.3	13.6	13.6	14.8	37.0	100.0
	기타	4.9	9.8	9.8	2.4	24.4	48.8	100.0
합계		9.2	23.7	25.1	11.7	12.0	18.4	100.0
3차년도 (138.658***)	전단지	4.5	27.0	23.4	18.9	12.6	13.5	100.0
	서빙, 배달	0.0	1.3	1.9	17.8	26.8	52.2	100.0
	기타	2.7	6.3	9.9	4.5	10.8	65.8	100.0
합계		2.1	10.3	10.6	14.2	17.9	44.9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 6) 임금

<표 IV-2-28>에 따르면, 1차시기의 경우 2,001원 이상 3,000원 이하의 시간당 보수를 받는 학생의 비율이 29.6%였으나 3차시기에는 42.7%로 증가하였다. 2,000원 미만의 보수를 받는 학생들의 비율도 1차시기에는 41.2%에 달하였으나, 3차시기에는 13.9%로 최저 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보수를 받는 학생 수가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학생들의 성장함에 따라 지나치게 낮은 보수를 지급하는 직종에 일하는 것을 피하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시간당 3,000을 넘게 받는 학생의 비율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표 IV-2-28> 조사 시기별 아르바이트 시간당 보수

조사시기 시간당 보수	1차시기 (백분율)	2차시기 (백분율)	3차시기 (백분율)
~ 1000원	11.6	4.7	2.1
1001원 ~ 2000원	29.6	20.5	11.8
2001원 ~ 3000원	25.1	31.6	42.7
3001원 ~ 4000원	8.7	10.0	20.1
4001원 ~ 5000원	19.6	12.7	8.6
5001원 ~	5.4	20.5	14.7
계	100.0	100.0	100.0

성별 시간당 임금에 대해서는 아래 <표 IV-2-29>와 같다. 1차년도에서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시간당 임금이 1000~2000원이라는 응답이 각각 27.3%와 23.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2차년도에서는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모두 시간당 임금이 2000~3000원이라는 응답이 각각 28.3%와 33.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3차년도에서도 2차년도와 마찬가지로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모두 시간당 임금이 2000~3000원이라는 응답이 각각 38.8%와 45.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2-29> 성별 시간당 임금

시기	구분	0~	1001~	2003~	3001~	4001~	5001원	합계
		1000원 비율	2000원 비율	3000원 비율	4000원 비율	5000원 비율	이상 비율	
1차년도 (2.426)	남자	8.7	27.3	21.7	6.3	17.4	18.6	100.0
	여자	11.3	23.7	21.4	8.6	16.3	18.7	100.0
합계		10.0	25.5	21.6	7.5	16.9	18.6	100.0
2차년도 (7.824)	남자	4.2	16.9	28.3	9.6	16.3	24.7	100.0
	여자	5.1	23.2	33.8	10.1	9.6	18.2	100.0
합계		4.7	20.3	31.3	9.9	12.6	21.2	100.0
3차년도 (8.001)	남자	1.6	9.0	38.8	21.8	11.2	17.6	100.0
	여자	2.6	14.1	45.0	17.8	5.8	14.7	100.0
합계		2.1	11.6	42.0	19.8	8.4	16.1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직종별 시간당 임금에 대해서는 아래 <표 IV-2-30>와 같다. 1차년도에서 직종이 전단지과 서빙·배달의 경우 모두 시간당 임금이 1000~2000원이라는 응답이 각각 23.3%와 34.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2차년도에서는 직종이 전단지인 경우에 시간당 임금이 5000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24.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서빙·배달의 경우에는 2000~3000원이라는 응답이 45.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3차년도에서도 2차년도와 유사하게 직종이 전단지인 경우에 시간당 임금이 5000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34.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서빙·배달의 경우에는 2000~3000원이라는 응답이 47.8%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2-30> 직종별 시간당 임금

시기	구분	0~1000원	1001~2000원	2003~3000원	3001~4000원	4001~5000원	5001원 이상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차년도 (16.591)	전단지	9.7	23.3	20.8	7.7	19.1	19.6	100.0
	서빙, 배달	14.1	34.4	18.8	9.4	7.8	15.6	100.0
	기타	7.1	33.3	33.3	2.4	9.5	14.3	100.0
합계		10.0	25.5	21.6	7.5	16.9	18.6	100.0
2차년도 (30.856**)	전단지	5.5	19.4	23.2	11.8	16.0	24.1	100.0
	서빙, 배달	4.9	22.2	45.7	6.2	4.9	16.0	100.0
	기타	0.0	22.0	51.2	7.3	9.8	9.8	100.0
합계		4.7	20.3	31.5	10.0	12.8	20.6	100.0
3차년도 (77.961***)	전단지	2.7	10.8	30.6	5.4	16.2	34.2	100.0
	서빙, 배달	1.3	13.4	47.8	30.6	3.2	3.8	100.0
	기타	2.7	9.9	45.0	18.9	8.1	15.3	100.0
합계		2.1	11.6	42.0	19.8	8.4	16.1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주당노동시간별 시간당 임금에 대해서는 아래 <표 IV-2-31>과 같다. 1차년도에서 주당노동시간이 1~9시간과 10~29시간인 경우에는 시간당 임금이 1000~2000원이라는 응답이 각각 24.3%와 29.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30시간 이상의 경우에는 2000~3000원이라는 응답이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2차년도에서는 주당노동시간이 1~9시간인 경우에 시간당 임금이 5000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25.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10~29시간인 경우에는 2000~3000원이라는 응답이 44.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3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000~2000원이라는 응답이 37.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3차년도에서는 주당노동시간이 1~9시간인 경우에는 시간당 임금이 5000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10~29시간과 3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2000~3000원이라는 응답이 각각 41.9%와 50.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2-31> 주간노동시간별 시간당 임금

시기	구분	0~1000원	1001~2000원	2003~3000원	3001~4000원	4001~5000원	5001원 이상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차년도 (19.738*)	1~9시간	10.3	24.3	20.2	6.5	19.3	19.3	100.0
	10~29시간	10.6	29.1	20.6	8.5	12.8	18.4	100.0
	30시간 이상	6.5	25.8	41.9	16.1	3.2	6.5	100.0
합계		10.1	25.8	21.7	7.7	16.4	18.3	100.0
2차년도 (29.389**)	1~9시간	4.1	17.8	25.1	11.0	16.4	25.6	100.0
	10~29시간	5.0	18.8	44.6	8.9	8.9	13.9	100.0
	30시간 이상	7.0	37.2	32.6	7.0	2.3	14.0	100.0
합계		4.7	20.4	31.4	9.9	12.7	20.9	100.0
3차년도 (61.347***)	1~9시간	1.9	6.6	33.0	9.4	13.2	35.8	100.0
	10~29시간	1.3	14.4	41.9	22.5	7.5	12.5	100.0
	30시간 이상	3.5	12.4	50.4	25.7	5.3	2.7	100.0
합계		2.1	11.6	42.0	19.8	8.4	16.1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 7) 미래 직업생활 도움 정도

조사시기별 아르바이트 경험의 미래 직업생활 도움 정도에 대해서는 아래 <표 IV-2-32>와 같다. 1차년도에 부정적 응답(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은 67.1%이고, 2차년도에는 52.5%, 그리고 3차년도에는 42.3%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들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긍정적 응답(약간 도움이 될 것이다와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은 1차년도에 18.7%, 2차년도에는 17.3%, 그리고 3차년도에는 33.8%로 특히 3차년도에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2-32> 조사시기별 아르바이트 경험의 미래 직업생활 도움 정도

요인 \ 조사시기	1차년도 (백분율)	2차년도 (백분율)	3차년도 (백분율)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41.4	29.1	20.6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25.7	23.4	21.7
보통이다	14.3	30.2	23.8
약간 도움이 될 것이다	16.9	16.2	27.2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8	1.1	6.6
합계	100.0	100.0	100.0

성별 직업생활 도움정도에 대해서는 아래 <표 IV-2-33>과 같다. 1차년도에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모두 직업생활 도움정도에 대한 부정적 응답(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은 각각 62.9%와 71.2%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2차년도에도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모두 부정적 응답이 각각 51.8%와 53.0%로 여전히 높지만 1차년도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차년도에는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모두 부정적 응답이 각각 40.9%와 43.7%로 조사시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부정적 응답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긍정적 응답(약간 도움이 될 것이다와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은 여전히 부정적 응답보다 낮지만 35.1%와 32.6%로 이전 시기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2-33> 성별 직업생활 도움정도

시기	구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약간 도움이 될 것이다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차년도 (11.512*)	남자	36.8	26.1	17.4	16.6	3.2	100.0
	여자	45.9	25.3	11.3	17.1	0.4	100.0
합계		41.4	25.7	14.3	16.7	1.8	100.0
2차년도 (2.526)	남자	27.1	24.7	28.9	17.5	1.8	100.0
	여자	30.8	22.2	31.3	15.2	0.5	100.0
합계		29.1	23.4	30.2	16.2	1.1	100.0
3차년도 (3.719)	남자	20.2	20.7	23.9	26.1	9.0	100.0
	여자	21.1	22.6	23.7	28.4	4.2	100.0
합계		20.6	21.7	23.8	27.2	6.6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직종별 미래 직업생활 도움정도에 대해서는 아래 <표 IV-2-34>와 같다. 1차년도에서는 직종이 전단지인 경우에 부정적 응답이 71.3%로 나타나고 있어 서빙·배달(57.9%)에 비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긍정적 응답은 전단지가 15.4%이고, 서빙·배달이 32.8%로 전단지에 비해 서빙·배달의 경우에 미래 직업생활 도움정도에 더욱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차년도에서는 직종이 전단지인 경우에 부정적 응답이 59.5%로 나타나고, 서빙·배달은 44.5%로 여전히 전단지의 경우에 서빙·배달보다 부정적인 응답이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차년도에서도 직종이 전단지인 경우에 부정적 응답이 51.3%로 나타나고, 서빙·배달은 39.7%로 여전히 전단지의 경우에 서빙·배달보다 부정적인 응답이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2-34> 직종별 미래 직업생활 도움정도

시기	구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약간 도움이 될 것이다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차년도 (31.075***)	전단지	44.3	27.0	13.4	14.4	1.0	100.0
	서빙, 배달	31.3	26.6	9.4	28.1	4.7	100.0
	기타	28.6	11.9	31.0	23.8	4.8	100.0
합계		41.4	25.7	14.3	16.9	1.8	100.0
2차년도 (24.500**)	전단지	34.2	25.3	28.3	12.2	0.0	100.0
	서빙, 배달	21.0	23.5	30.9	21.0	3.7	100.0
	기타	19.5	12.2	36.6	29.3	2.4	100.0
합계		29.5	23.4	29.8	16.2	1.1	100.0
3차년도 (29.982***)	전단지	31.5	19.8	29.7	16.2	2.7	100.0
	서빙, 배달	16.0	23.7	19.9	35.3	5.1	100.0
	기타	16.2	20.7	23.4	27.0	12.6	100.0
합계		20.6	21.7	23.8	27.2	6.6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주당노동시간별 미래 직업생활 도움정도에 대해서는 아래 <표 IV-2-35>와 같다. 1차년도에서 주당노동시간이 1~9시간인 경우에 부정적 응답은 71.3%로 나타나고 있어서 10~29시간(61.7%)과 30시간 이상(45.1%)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주당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부정적 응답은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반해 1~9시간인 경우에 긍정적 응답은 14.6%로 나타나고 있고, 10~29시간의 경우에는 25.5%, 그리고 3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2.3%로 주당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긍정적 응답은 늘어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2차년도에서는 주당노동시간이 1~9시간인 경우에 부정적 응답은 53.9%로 나타나고 있고, 10~29시간인 경우에는 58.5%, 그리고 30시간 이상에서는 30.2%로 나타나고 있다. 긍정적 응답에 대해서는 1~9시간인 경우에 15.5%로 나타나고 있고, 10~29시간인 경우에는 15.9%, 그리고 30시간 이

상인 경우에는 30.2%로 나타나고 있다. 2차년도에서는 주당노동시간이 1~9시간인 경우와 10~29시간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30시간 이상인 경우와는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3차년도에서는 주당노동시간이 1~9시간인 경우에 부정적 응답은 51.8%로 나타나고 있고, 10~29시간인 경우에는 44.1%, 그리고 3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9%로 주당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부정적 응답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IV-2-35> 주간노동시간별 미래 직업생활 도움정도

시기	구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약간 도움이 될 것이다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차년도 (17,461*)	1~9시간	44.2	27.1	14.0	13.7	0.9	100.0
	10~29시간	37.6	24.1	12.8	22.7	2.8	100.0
	30시간 이상	29.0	16.1	22.6	25.8	6.5	100.0
합계		41.4	25.6	14.2	17.0	1.8	100.0
2차년도 (17,749*)	1~9시간	28.8	25.1	30.6	15.5	0.0	100.0
	10~29시간	33.7	24.8	25.7	12.9	3.0	100.0
	30시간 이상	18.6	11.6	39.5	27.9	2.3	100.0
합계		28.9	23.4	30.3	16.3	1.1	100.0
3차년도 (27,693**)	1~9시간	29.2	22.6	28.3	19.8	0.0	100.0
	10~29시간	18.9	25.2	23.3	25.2	7.5	100.0
	30시간 이상	15.0	15.9	20.4	37.2	11.5	100.0
합계		20.6	21.7	23.8	27.2	6.6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 3. 아르바이트 작업장에서의 인권침해 실태

조사시기별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는 대해서는 아래 <표 IV-3-1>과 같다. 1차년도에 한 번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는 응답은 13.0%로 나타나고 있고, 2차년도에는 15.4%, 그리고 3차년도에는 12.2%로 조사시기별로 그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1) 임금 체불

<표 IV-3-1>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요인 \ 조사시기	1차년도 (백분율)	2차년도 (백분율)	3차년도 (백분율)
없다	87.1	84.6	87.9
한두 번	11.2	14.3	10.6
여러 번	1.8	1.1	1.6
합계	100.0	100.0	100.0

성별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는 대해서는 아래 <표 IV-3-2>와 같다. 1차년도에서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 한 번 이상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는 응답은 13.9%로 나타나고 있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12.1%로 성별 차이는 그리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다. 2차년도에서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 한 번 이상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는 응답은 18.7%로 나타나고 있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12.6%로 1차년도에 비해서는 집단 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3차년도에서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 한 번 이상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는 응답은 11.2%로 나타나고 있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13.1%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3-2> 성별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시기	구분	없다	한두 번	여러 번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차년도 (2.908)	남자	86.2	11.1	2.8	100.0
	여자	87.9	11.3	0.8	100.0
합계		87.1	11.2	1.8	100.0
2차년도 (4.138)	남자	81.3	18.1	0.6	100.0
	여자	87.4	11.1	1.5	100.0
합계		84.6	14.3	1.1	100.0
3차년도 (0.379)	남자	88.8	9.6	1.6	100.0
	여자	86.9	11.5	1.6	100.0
합계		87.9	10.6	1.6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직종별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에 대해서는 아래 <표 IV-3-3>와 같다. 1차년도에서 직종이 전단지의 경우에 한 번 이상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는 응답은 14.1%로 나타나고 있고, 서빙·배달의 경우에는 9.4%로 전단지에 비해 서빙·배달의 경우에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는 응답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차년도에서는 직종이 전단지의 경우에 한 번 이상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는 응답이 15.6%로 나타나고 있고, 서빙·배달의 경우에는 19.7%로 나타나고 있다. 1차년도와는 달리 2차년도에는 서빙·배달의 경우에 전단지보다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는 응답이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차년도에서는 직종이 전단지의 경우에 한 번 이상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는 응답이 13.5%로 나타나고 있고, 서빙·배달의 경우에는 14.6%로 나타나고 있어 그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표 IV-3-3> 직종별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시기	구분	없다	한두 번	여러 번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차년도 (4.255)	전단지	85.9	12.4	1.7	100.0
	서빙, 배달	90.6	6.3	3.1	100.0
	기타	92.9	7.1	0.0	100.0
합계		87.1	11.2	1.8	100.0
2차년도 (8.522)	전단지	84.4	15.2	0.4	100.0
	서빙, 배달	80.2	16.0	3.7	100.0
	기타	92.7	7.3	0.0	100.0
합계		84.4	14.5	1.1	100.0
3차년도 (3.659)	전단지	86.5	11.7	1.8	100.0
	서빙, 배달	85.4	12.7	1.9	100.0
	기타	92.8	6.3	0.9	100.0
합계		87.9	10.6	1.6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주당노동시간별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에 대해서는 아래 <표 IV-3-4>와 같다. 1차년도에서 주당노동시간이 1~9시간인 경우에 한 번 이상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는 응답은 11.9%로 나타나고 있고, 10~29시간인 경우에는 15.6%, 그리고 30시간 이상의 경우에는 9.7%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차년도에서 주당노동시간이 1~9시간인 경우에 한 번 이상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는 응답은 16.0%로 나타나고 있고, 10~29시간인 경우에는 16.9%, 그리고 30시간 이상의 경우에는 9.3%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차년도에서는 주당노동시간이 1~9시간인 경우에 한 번 이상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는 응답은 10.3%로 나타나고 있고, 10~29시간인 경우에는 14.4%, 그리고 3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0.6%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3-4〉 주간노동시간별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시기	구분	없다	한두 번	여러 번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차년도 (2.280)	1~9시간	88.2	10.3	1.6	100.0
	10~29시간	84.4	12.8	2.8	100.0
	30시간 이상	90.3	9.7	0.0	100.0
합계		87.2	11.0	1.8	100.0
2차년도 (5.716)	1~9시간	84.0	15.5	0.5	100.0
	10~29시간	83.2	13.9	3.0	100.0
	30시간 이상	90.7	9.3	0.0	100.0
합계		84.6	14.3	1.1	100.0
3차년도 (7.060)	1~9시간	89.6	9.4	0.9	100.0
	10~29시간	85.6	13.8	0.6	100.0
	30시간 이상	89.4	7.1	3.5	100.0
합계		87.9	10.6	1.6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 2) 야근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조사시기별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 일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에 대해서는 아래 <표 IV-3-5>와 같다. 1차년도에 한 번 이상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 일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2.2%로 나타나고 있고, 2차년도에는 4.7%. 그리고 3차년도에는 6.0%로 나타나고 있어서, 조사시기별로 그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비율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3-5>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 일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

요인 \ 조사시기	1차년도 (백분율)	2차년도 (백분율)	3차년도 (백분율)
없다	14.5	95.3	93.9
한두 번	1.4	3.3	4.7
여러 번	0.8	1.4	1.3
합계	100.0	100.0	100.0

성별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 일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대해서는 아래 <표 IV-3-6>과 같다. 1차년도에서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모두 한 번 이상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 일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각각 2.4%와 2.0%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집단 간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차년도에서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 한 번 이상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 일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6.6%로 나타나고 있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3.0%로 남자 청소년이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3차년도에서는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 한 번 이상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 일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7.3%로 나타나고 있어 남자 청소년 (4.8%)에 비해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3-6> 성별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 일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

시기	구분	없다	한두 번	여러 번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차년도 (0.162)	남자	97.6	1.6	0.8	100.0
	여자	98.1	1.2	0.8	100.0
합계		97.8	1.4	0.8	100.0
2차년도 (2.686)	남자	93.4	4.8	1.8	100.0
	여자	97.0	2.0	1.0	100.0
합계		95.3	3.3	1.4	100.0
3차년도 (5.343)	남자	95.2	2.7	2.1	100.0
	여자	92.7	6.8	0.5	100.0
합계		93.9	4.7	1.3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직종별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 일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대해서는 아래 <표 IV-3-7>과 같다. 1차년도에서는 직종이 전단지인 경우에 한 번 이상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 일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1.2%로 나타나고 있고, 서빙·배달의 경우에는 6.2%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2차년도에서는 직종이 전단지인 경우에 한 번 이상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 일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4.7%로 나타나고 있고, 서빙·배달의 경우에는 7.4%로 나타나고 있으나 1차년도에 비해 그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3차년도에서는 직종이 전단지의 경우에 한 번 이상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 일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6.3%로 나타나고 있고, 서빙·배달의 경우에는 7.6%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3-7> 직종별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 일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

시기	구분	없다	한두 번	여러 번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차년도 (11,520*)	전단지	98.8	0.7	0.5	100.0
	서빙, 배달	93.8	3.1	3.1	100.0
	기타	95.2	4.8	0.0	100.0
합계		97.8	1.4	0.8	100.0
2차년도 (3,418)	전단지	95.4	3.4	1.3	100.0
	서빙, 배달	92.6	4.9	2.5	100.0
	기타	100.0	0.0	0.0	100.0
합계		95.3	3.3	1.4	100.0
3차년도 (4,788)	전단지	93.7	4.5	1.8	100.0
	서빙, 배달	92.4	7.0	0.6	100.0
	기타	96.4	1.8	1.8	100.0
합계		93.9	4.7	1.3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주당노동시간별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 일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대해서는 아래 <표 IV-3-8>과 같다. 1차년도에서 주당노동시간이 1~9시간인 경우에 한 번 이상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 일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응

답이 1.2%로 나타나고 있고, 10~29시간인 경우에 4.2%, 그리고 3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2%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차년도에서는 주당노동시간이 1~9시간인 경우에 한 번 이상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 일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3.2%로 나타나고 있고, 10~29시간인 경우에는 10.0%, 그리고 3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0%로 나타나고 있어 10~29시간인 경우에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집단 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차년도에서는 주당노동시간이 1~9시간인 경우에 한 번 이상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 일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3.8%로 나타나고 있고, 10~29시간인 경우에는 5.0%, 그리고 3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9.8%로 주당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한 번 이상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 일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IV-3-8> 주간노동시간별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 일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

시기	구분	없다	한두 번	여러 번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차년도 (5,268)	1~9시간	98.8	0.6	0.6	100.0
	10~29시간	95.7	2.8	1.4	100.0
	30시간 이상	96.8	3.2	0.0	100.0
합계		97.8	1.4	0.8	100.0
2차년도 (15,664**)	1~9시간	96.8	3.2	0.0	100.0
	10~29시간	90.1	5.0	5.0	100.0
	30시간 이상	100.0	0.0	0.0	100.0
합계		95.3	3.3	1.4	100.0
3차년도 (5,594)	1~9시간	96.2	1.9	1.9	100.0
	10~29시간	95.0	4.4	0.6	100.0
	30시간 이상	90.3	8.0	1.8	100.0
합계		93.9	4.7	1.3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 3)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조사시기별 계약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시켰으나 임금을 올려주지 않았다는 대해서는 아래 <표 IV-3-9>와 같다. 1차년도에 한 번 이상 계약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시켰으나 임금을 올려주지 않았다는 응답은 8.3%로 나타나고 있고, 2차년도에는 8.2%, 그리고 3차년도에는 10.1%로 조사시기별로 그 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표 IV-3-9> 계약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시켰으나 임금을 올려주지 않았다

요인 \ 조사시기	1차년도 (백분율)	2차년도 (백분율)	3차년도 (백분율)
없다	91.8	91.8	89.9
한두 번	7.1	7.4	8.2
여러 번	1.2	0.8	1.9
합계	100.0	100.0	100.0

성별 계약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시켰으나 임금을 올려주지 않았다는 대해서는 아래 <표 IV-3-10>과 같다. 1차년도에서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 한 번 이상 계약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시켰으나 임금을 올려주지 않았다는 응답이 7.9%로 나타나고 있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8.6%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차년도에서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 한 번 이상 계약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시켰으나 임금을 올려주지 않았다는 응답이 8.4%로 나타나고 있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8.1%로 나타나고 있다. 3차년도에서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 한 번 이상 계약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시켰으나 임금을 올려주지 않았다는 응답이 9.7%로 나타나고 있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10.5%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3-10> 성별 계약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시켰으나 임금을 올려주지 않았다

시기	구분	없다	한두 번	여러 번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차년도 (3,644)	남자	92.1	5.9	2.0	100.0
	여자	91.4	8.2	0.4	100.0
합계		91.8	7.1	1.2	100.0
2차년도 (0,254)	남자	91.6	7.8	0.6	100.0
	여자	91.9	7.1	1.0	100.0
합계		91.8	7.4	0.8	100.0
3차년도 (1,288)	남자	90.4	8.6	1.1	100.0
	여자	89.5	7.9	2.6	100.0
합계		89.9	8.2	1.9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직종별 계약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시켰으나 임금을 올려주지 않았다는 대해서는 아래 <표 IV-3-11>과 같다. 1차년도에서 직종이 전단지인 경우에 한 번 이상 계약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시켰으나 임금을 올려주지 않았다는 응답이 7.1%로 나타나고 있고, 서빙·배달의 경우에는 14.1%로 전단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차년도에서도 직종이 전단지인 경우에 한 번 이상 계약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시켰으나 임금을 올려주지 않았다는 응답이 7.2%로 나타나고 있고, 서빙·배달의 경우에는 14.8%로 전단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3차년도에서는 직종이 전단지인 경우에 한 번 이상 계약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시켰으나 임금을 올려주지 않았다는 응답이 12.7%로 나타나고 있고, 서빙·배달의 경우에는 11.5%로 거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표 IV-3-11> 직종별 계약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시켰으나 임금을 올려주지 않았다

시기	구분	없다	한두 번	여러 번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차년도 (4,643)	전단지	92.8	5.9	1.2	100.0
	서빙, 배달	85.9	12.5	1.6	100.0
	기타	90.5	9.5	0.0	100.0
합계		91.8	7.1	1.2	100.0
2차년도 (8,078)	전단지	2.8	6.8	0.4	100.0
	서빙, 배달	85.2	12.3	2.5	100.0
	기타	97.6	2.4	0.0	100.0
합계		91.6	7.5	0.8	100.0
3차년도 (7,551)	전단지	87.3	11.8	0.9	100.0
	서빙, 배달	88.5	9.6	1.9	100.0
	기타	94.6	2.7	2.7	100.0
합계		89.9	8.2	1.9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주당노동시간별 계약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시켰으나 임금을 올려주지 않았다는 대해서는 아래 <표 IV-3-12>와 같다. 1차년도에서 주당노동시간이 1~9시간인 경우에 한 번 이상 계약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시켰으나 임금을 올려주지 않았다는 응답이 6.5%로 나타나고 있고, 10~29시간의 경우에는 11.3%, 그리고 30시간 이상의 경우에는 12.9%로 주당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더욱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차년도에서도 주당노동시간이 1~9시간인 경우에 한 번 이상 계약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시켰으나 임금을 올려주지 않았다는 응답이 5.9%로 나타나고 있고, 10~29시간인 경우에는 9.9%, 그리고 3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6.3%로 나타나고 있다. 3차년도에는 주당노동시간이 1~9시간인 경우에 한 번 이상 계약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시켰으나 임금을 올려주지 않았다는 응답이 6.7%로 나타나고 있고, 10~29시간인 경우에는 11.3%, 그리고 3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1.5%로 1차년도와 2차년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당노동시간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표 IV-3-12〉 주간노동시간별 계약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시켰으나  
임금을 올려주지 않았다

시기	구분	없다	한두 번	여러 번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차년도 (4.495)	1~9시간	93.5	5.6	0.9	100.0
	10~29시간	88.7	9.9	1.4	100.0
	30시간 이상	87.1	9.7	3.2	100.0
합계		91.7	7.1	1.2	100.0
2차년도 (8.216)	1~9시간	94.1	5.9	0.0	100.0
	10~29시간	90.1	7.9	2.0	100.0
	30시간 이상	83.7	14.0	2.3	100.0
합계		91.7	7.4	0.8	100.0
3차년도 (3.305)	1~9시간	93.3	6.7	0.0	100.0
	10~29시간	88.8	8.8	2.5	100.0
	30시간 이상	88.5	8.8	2.7	100.0
합계		89.9	8.2	1.9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 4) 약속한 일과 다른 일을 시킴

조사시기별 처음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시켰다에 대해서는 아래 <표 IV-3-13>과 같다. 1차년도에 한 번 이상 처음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시켰다는 응답은 4.7%로 나타나고 있고, 2차년도에는 6.8%, 그리고 3차년도에는 6.7%로 나타나고 있다. 2차년도와 3차년도에는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3-13> 처음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시켰다

요인 \ 조사시기	1차년도 (백분율)	2차년도 (백분율)	3차년도 (백분율)
없다	95.3	93.1	93.4
한두 번	4.5	6.0	4.8
여러 번	0.2	0.8	1.9
합계	100.0	100.0	100.0

성별 처음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시켰다에 대해서는 아래 <표 IV-3-14>와 같다. 1차년도에서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모두 한 번 이상 처음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시켰다는 응답이 각각 4.0%와 5.4%로 그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2차년도에서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 한 번 이상 처음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시켰다는 응답이 9.0%로 나타나고 있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5.0%로 나타나고 있다. 3차년도에서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 한 번 이상 처음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시켰다는 응답이 6.9%로 나타나고 있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6.3%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3-14> 성별 처음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시켰다

시기	구분	없다	한두 번	여러 번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차년도 (2.056)	남자	96.0	3.6	0.4	100.0
	여자	94.6	5.4	0.0	100.0
합계		95.3	4.5	0.2	100.0
2차년도 (2.304)	남자	91.0	7.8	1.2	100.0
	여자	94.9	4.5	0.5	100.0
합계		93.1	6.0	0.8	100.0
3차년도 (0.171)	남자	93.0	4.8	2.1	100.0
	여자	93.7	4.7	1.6	100.0
합계		93.4	4.8	1.9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직종별 처음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시켰다에 대해서는 아래 < 표 IV-3-15 >와 같다. 1차년도에서 직종이 전단지인 경우에 한 번 이상 처음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시켰다는 응답이 4.4%로 나타나고 있고, 서빙·배달의 경우에는 9.4%로 나타나고 있어 전단지보다는 서빙·배달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2차년도에서도 직종이 전단지인 경우에 한 번 이상 처음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시켰다는 응답이 6.3%로 나타나고 있고, 서빙·배달의 경우에는 11.1%로 나타나고 있다. 3차년도에서는 직종이 전단지인 경우에 한 번 이상 처음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시켰다는 응답이 6.3%로 나타나고 있고, 서빙·배달의 경우에는 8.3%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3-15> 직종별 처음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시켰다

시기	구분	없다	한두 번	여러 번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차년도 (5.844)	전단지	95.5	4.2	0.2	100.0
	서빙, 배달	90.6	9.4	0.0	100.0
	기타	100.0	0.0	0.0	100.0
	합계	95.3	4.5	0.2	100.0
2차년도 (6.540)	전단지	93.7	5.9	0.4	100.0
	서빙, 배달	88.9	9.9	1.2	100.0
	기타	97.6	0.0	2.4	100.0
	합계	93.0	6.1	0.8	100.0
3차년도 (4.113)	전단지	93.7	5.4	0.9	100.0
	서빙, 배달	91.7	6.4	1.9	100.0
	기타	95.5	1.8	2.7	100.0
	합계	93.4	4.8	1.9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주당노동시간별 처음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시켰다에 대해서는 아래 <표 IV-3-16>과 같다. 1차년도에서 주당노동시간이 1~9시간인 경우에 한 번 이상 처음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시켰다는 응답이 3.1%로 나

타나고 있고, 10~29시간인 경우에는 8.5%, 그리고 3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6.5%로 나타나고 있다. 2차년도에서는 주당노동시간이 1~9시간인 경우에 한 번 이상 처음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시켰다는 응답이 5.5%로 나타나고 있고, 10~29시간인 경우에는 11.9%, 그리고 3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6%로 나타나고 있어, 주당노동시간이 10~29시간인 경우에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3차년도에서는 주당노동시간이 1~9시간인 경우에 한 번 이상 처음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시켰다는 응답이 4.7%로 나타나고 있고, 10~29시간인 경우에는 5.1%, 그리고 3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0.8%로 나타나고 있어, 주당노동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경우에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3-16> 주간노동시간별 처음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시켰다

시기	구분	없다	한두 번	여러 번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차년도 (7.643)	1~9시간	96.9	3.1	0.0	100.0
	10~29시간	91.5	7.8	0.7	100.0
	30시간 이상	93.5	6.5	0.0	100.0
합계		95.1	4.7	0.2	100.0
2차년도 (7.315)	1~9시간	94.5	5.5	0.0	100.0
	10~29시간	89.1	8.9	2.0	100.0
	30시간 이상	95.3	2.3	2.3	100.0
합계		93.1	6.1	0.8	100.0
3차년도 (7.556)	1~9시간	95.3	4.7	0.0	100.0
	10~29시간	95.0	3.8	1.3	100.0
	30시간 이상	89.3	6.3	4.5	100.0
합계		93.4	4.8	1.9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 5) 불결하고 위험한 작업환경

조사시기별 작업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에 대해서는 아래 <표 IV-3-17>과 같다. 1차년도에 한 번 이상 작업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는 응답은 8.5%로 나타나고 있고, 2차년도에는 9.3%, 그리고 3차년도에는 11.0%로 조사시기별로 조금씩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IV-3-17> 작업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

요인	조사시기	1차년도 (백분율)	2차년도 (백분율)	3차년도 (백분율)
	없다	91.6	90.7	88.9
	한두 번	7.3	7.7	8.4
	여러 번	1.2	1.6	2.6
	합계	100.0	100.0	100.0

성별 작업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에 대해서는 아래 <표 4-3-18>과 같다. 1차년도에서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모두 한 번 이상 작업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는 응답이 각각 7.9%와 8.9%로 그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차년도에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 한 번 이상 작업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는 응답이 8.4%로 나타나고 있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10.1%로 나타나고 있다. 3차년도에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 한 번 이상 작업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는 응답이 14.4%로 나타나고 있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7.8%로 나타나고 있어,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 여자 청소년보다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3-18> 성별 작업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

시기	구분	없다	한두 번	여러 번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차년도 (2.665)	남자	92.1	7.5	0.4	100.0
	여자	91.1	7.0	1.9	100.0
합계		91.6	7.3	1.2	100.0
2차년도 (0.477)	남자	91.6	7.2	1.2	100.0
	여자	89.9	8.1	2.0	100.0
합계		90.7	7.7	1.6	100.0
3차년도 (7.544*)	남자	85.6	9.6	4.8	100.0
	여자	92.1	7.3	0.5	100.0
합계		88.9	8.4	2.6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직종별 작업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는 대해서는 아래 <표 IV-3-19>와 같다. 1차년도에서 직종이 전단지인 경우에는 한 번 이상 작업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는 응답이 8.4%로 나타나고 있고, 서빙·배달의 경우에는 9.4%로 나타나고 있어 그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2차년도에는 직종이 전단지인 경우에 한 번 이상 작업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는 응답이 8.5%로 나타나고 있고, 서빙·배달의 경우에는 14.8%로 나타나고 있어, 서빙·배달의 경우에 전단지보다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3차년도에는 직종이 전단지인 경우에 한 번 이상 작업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는 응답이 9.0%로 나타나고 있고, 서빙·배달의 경우에는 10.9%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3-19> 직종별 작업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

시기	구분	없다	한두 번	여러 번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차년도 (2,799)	전단지	91.6	7.4	1.0	100.0
	서빙, 배달	90.6	6.3	3.1	100.0
	기타	92.9	7.1	0.0	100.0
합계		91.6	7.3	1.2	100.0
2차년도 (5,931)	전단지	91.6	6.8	1.7	100.0
	서빙, 배달	85.2	13.6	1.2	100.0
	기타	95.1	2.4	2.4	100.0
합계		90.5	7.8	1.7	100.0
3차년도 (3,746)	전단지	91.0	5.4	3.6	100.0
	서빙, 배달	89.2	9.6	1.3	100.0
	기타	86.5	9.9	3.6	100.0
합계		88.9	8.4	2.6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주당노동시간별 작업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는 대해서는 아래 <표 IV-3-20>와 같다. 1차년도에서 주당노동시간이 1~9시간인 경우에 한 번 이상 작업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는 응답이 8.1%로 나타나고 있고, 10~29시간인 경우에는 11.3%, 그리고 3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2%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차년도에는 주당노동시간이 1~9시간인 경우에 한 번 이상 작업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는 응답이 9.1%로 나타나고 있고, 10~29시간인 경우에는 11.9%, 그리고 3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6%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차년도에는 주당노동시간이 1~9시간인 경우에 한 번 이상 작업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는 응답이 8.5%로 나타나고 있고, 10~29시간인 경우에는 11.3%, 그리고 3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3.2%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3-20> 주간노동시간별 작업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

시기	구분	없다	한두 번	여러 번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차년도 (5.517)	1~9시간	91.9	7.5	0.6	100.0
	10~29시간	88.7	8.5	2.8	100.0
	30시간 이상	96.8	3.2	0.0	100.0
	합계	91.3	7.5	1.2	100.0
2차년도 (3.959)	1~9시간	90.9	8.2	0.9	100.0
	10~29시간	88.1	8.9	3.0	100.0
	30시간 이상	95.3	2.3	2.3	100.0
	합계	90.6	7.7	1.7	100.0
3차년도 (4.146)	1~9시간	91.5	5.7	2.8	100.0
	10~29시간	88.8	10.0	1.3	100.0
	30시간 이상	86.7	8.8	4.4	100.0
	합계	88.9	8.4	2.6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 6) 부상경험

조사시기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친 적이 있다에 대해서는 아래 <표 4-3-21>과 같다. 1차년도 한 번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친 적이 있다는 응답은 18.9%로 나타나고 있고, 2차년도에는 12.6%, 그리고 3차년도에는 14.8%로 조사시기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다른 시기보다 중학교 2학년 시기인 1차년도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친 경험이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3-21>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친 적이 있다

요인 \ 조사시기	1차년도 (백분율)	2차년도 (백분율)	3차년도 (백분율)
없다	81.2	87.4	85.2
한두 번	17.5	10.4	12.7
여러 번	1.4	2.2	2.1
합계	100.0	100.0	100.0

성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친 적이 있다에 대해서는 아래 <표 IV-3-22>와 같다. 1차년도에서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 한 번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친 적이 있다는 응답이 20.6%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17.1%로 나타나고 있다. 2차년도에서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 한 번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친 적이 있다는 응답이 11.4%로 나타나고 있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13.6%로 1차년도와 달리 여자 청소년이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3차년도에서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 한 번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친 적이 있다는 응답이 14.9%로 나타나고 있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한 번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친 적이 있다는 응답이 14.7%로 성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3-22> 성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친 적이 있다

시기	구분	없다	한두 번	여러 번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차년도 (1.883)	남자	79.4	18.6	2.0	100.0
	여자	82.9	16.3	0.8	100.0
합계		81.2	17.5	1.4	100.0
2차년도 (0.449)	남자	88.6	9.6	1.8	100.0
	여자	86.4	11.1	2.5	100.0
합계		87.4	10.4	2.2	100.0
3차년도 (0.587)	남자	85.1	12.2	2.7	100.0
	여자	85.3	13.1	1.6	100.0
합계		85.2	12.7	2.1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직종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친 적이 있다에 대해서는 아래 <표 IV-3-23>과 같다. 1차년도에서 직종이 전단지인 경우에는 한 번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친 적이 있다는 응답이 18.8%로 나타나고 있고, 서빙·배달의 경우에는 20.3%로 나타나고 있다. 2차년도에서는 직종이 전단지인 경우에 한 번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친 적이 있다는 응답이 10.5%로 나타나

고 있고, 서빙·배달의 경우에는 22.3%로 서빙·배달의 경우에 전단지 보다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3차년도에는 직종이 전단지인 경우에 한 번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친 적이 있다는 응답이 10.8%로 나타나고 있고, 서빙·배달의 경우에는 20.3%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3-17> 직종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친 적이 있다

시기	구분	없다	한두 번	여러 번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차년도 (6.341)	전단지	81.2	17.8	1.0	100.0
	서빙, 배달	79.7	15.6	4.7	100.0
	기타	83.3	16.7	0.0	100.0
합계		81.2	17.5	1.4	100.0
2차년도 (10.459**)	전단지	89.5	8.0	2.5	100.0
	서빙, 배달	77.8	19.8	2.5	100.0
	기타	92.7	7.3	0.0	100.0
합계		87.2	10.6	2.2	100.0
3차년도 (7.882)	전단지	89.2	9.9	0.9	100.0
	서빙, 배달	79.6	17.8	2.5	100.0
	기타	89.2	8.1	2.7	100.0
합계		85.2	12.7	2.1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주당노동시간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친 적이 있다에 대해서는 아래 <표 IV-3-24>와 같다. 1차년도에서 주당노동시간이 1~9시간인 경우에는 한 번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친 적이 있다는 응답이 16.2%로 나타나고 있고, 10~29시간인 경우에는 24.1%, 그리고 3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9.4%로 나타나고 있다. 2차년도에서는 주당노동시간이 1~9시간인 경우에 한 번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친 적이 있다는 응답이 10.1%로 나타나고 있고, 10~29시간인 경우에는 20.8%, 그리고 3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7.0%로 주당노동시간이 10~29시간인 경우에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3차년도에서 주당노동시간이 1~9시간인 경우에 한 번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친 적

이 있다는 응답이 7.5%로 나타나고 있고, 10~29시간인 경우에는 17.6%, 그리고 3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7.7%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당노동시간이 1~9시간인 경우에 다른 집단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3-24> 주당노동시간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친 적이 있다

시기	구분	없다	한두 번	여러 번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차년도 (8.622)	1~9시간	83.8	15.6	0.6	100.0
	10~29시간	75.9	20.6	3.5	100.0
	30시간 이상	80.6	19.4	0.0	100.0
합계		81.3	17.2	1.4	100.0
2차년도 (9.172)	1~9시간	90.0	8.7	1.4	100.0
	10~29시간	79.2	16.8	4.0	100.0
	30시간 이상	93.0	4.7	2.3	100.0
합계		87.3	10.5	2.2	100.0
3차년도 (9.747*)	1~9시간	92.5	6.6	0.9	100.0
	10~29시간	82.5	16.3	1.3	100.0
	30시간 이상	82.3	13.3	4.4	100.0
합계		85.2	12.7	2.1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 7) 인격모독 경험

조사시기별 폭언 등 인격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에 대해서는 아래 <표 IV-3-25>와 같다. 1차년도에 한 번 이상 폭언 등 인격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4.5%로 나타나고 있고, 2차년도에는 4.3%, 그리고 3차년도에는 11.6%로 조사시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3차년도에는 이전 시기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3-25> 폭언 등 인격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

요인 \ 조사시기	1차년도 (백분율)	2차년도 (백분율)	3차년도 (백분율)
없다	95.5	95.6	88.4
한두 번	3.7	3.8	9.0
여러 번	0.8	0.5	2.6
합계	100.0	100.0	100.0

성별 폭언 등 인격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에 대해서는 아래 <표 IV-3-26>과 같다. 1차년도에서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 한 번 이상 폭언 등 인격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5.9%로 나타나고 있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3.1%로 나타나고 있어 여자 청소년보다 남자 청소년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2차년도에서도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 한 번 이상 폭언 등 인격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5.4%로 나타나고 있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3.5%로 나타나고 있다. 3차년도에서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 한 번 이상 폭언 등 인격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11.2%로 나타나고 있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12.0%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1차년도와 2차년도에 비해 3차년도에 한 번 이상 폭언 등 인격모독을 당한 경험이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3-26> 성별 폭언 등 인격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

시기	구분	없다	한두 번	여러 번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차년도 (4.691)	남자	94.1	4.3	1.6	100.0
	여자	96.9	3.1	0.0	100.0
합계		95.5	3.7	0.8	100.0
2차년도 (3.680)	남자	94.6	5.4	0.0	100.0
	여자	96.5	2.5	1.0	100.0
합계		95.6	3.8	0.5	100.0
3차년도 (0.850)	남자	88.8	8.0	3.2	100.0
	여자	88.0	9.9	2.1	100.0
합계		88.4	9.0	2.6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직종별 폭언 등 인격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에 대해서는 아래 <표 IV-3-27>과 같다. 1차년도에서 직종이 전단지인 경우에 한 번 이상 폭언 등 인격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4.0%로 나타나고 있고, 서빙·배달의 경우에는 7.9%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차년도에는 직종이 전단지인 경우에 한 번 이상 폭언 등 인격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3.4%로 나타나고 있고, 서빙·배달의 경우에는 8.7%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차년도에는 직종이 전단지인 경우에 한 번 이상 폭언 등 인격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2.7%로 나타나고 있고, 서빙·배달의 경우에는 17.9%로 나타나고 있어 전단에 비해 서빙·배달의 경우에 폭언 등 인격모독을 당한 적이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3-27> 직종별 폭언 등 인격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

시기	구분	없다	한두 번	여러 번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차년도 (3,748)	전단지	96.0	3.5	0.5	100.0
	서빙, 배달	92.2	6.3	1.6	100.0
	기타	95.2	2.4	2.4	100.0
합계		95.5	3.7	0.8	100.0
2차년도 (8,524)	전단지	96.6	3.4	0.0	100.0
	서빙, 배달	91.4	6.2	2.5	100.0
	기타	97.6	2.4	0.0	100.0
합계		95.5	3.9	0.6	100.0
3차년도 (17,093**)	전단지	97.3	0.9	1.8	100.0
	서빙, 배달	82.2	13.4	4.5	100.0
	기타	88.3	10.8	0.9	100.0
합계		88.4	9.0	2.6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주당노동시간별 폭언 등 인격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에 대해서는 아래 <표 IV-3-28>과 같다. 1차년도에서 주당노동시간이 1~9시간인 경우에 한 번 이상 폭언 등 인격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3.1%로 나타나고 있고, 10~29시간인 경우에는 6.4%, 그리고 3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9.7%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당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차년도에서는 주당노동시간이 1~9시간인 경우에 한 번 이상 폭언 등 인격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4.6%로 나타나고 있고, 10~29시간인 경우에는 4.0%, 그리고 3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7%로 집단 간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차년도에서는 주당노동시간이 1~9시간인 경우에 한 번 이상 폭언 등 인격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5.7%로 나타나고 있고, 10~29시간인 경우에는 8.8%, 그리고 3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21.2%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표 IV-3-28> 주당노동시간별 폭언 등 인격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

시기	구분	없다	한두 번	여러 번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차년도 (8.310)	1~9시간	96.9	2.8	0.3	100.0
	10~29시간	93.6	4.3	2.1	100.0
	30시간 이상	90.3	9.7	0.0	100.0
	합계	95.5	3.7	0.8	100.0
2차년도 (6.469)	1~9시간	95.4	4.6	0.0	100.0
	10~29시간	96.0	2.0	2.0	100.0
	30시간 이상	95.3	4.7	0.0	100.0
	합계	95.6	3.9	0.6	100.0
3차년도 (15.429**)	1~9시간	94.3	3.8	1.9	100.0
	10~29시간	91.3	6.9	1.9	100.0
	30시간 이상	78.8	16.8	4.4	100.0
	합계	88.4	9.0	2.6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 8) 구타나 폭행 경험

조사시기별 구타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에 대해서는 아래 <표 IV-3-29>와 같다. 1차년도에 한 번 이상 구타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1.2%로 나타나고 있고, 2차년도에는 2.4%, 그리고 3차년도에는 2.9%로 조사시기별로 그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구타나 폭행을 당한 경험이 조사시기별로 약간씩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IV-3-29> 구타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요인 \ 조사시기	1차년도 (백분율)	2차년도 (백분율)	3차년도 (백분율)
없다	98.8	97.5	97.1
한두 번	0.8	1.9	2.6
여러 번	0.4	0.5	0.3
합계	100.0	100.0	100.0

성별 구타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에 대해서는 아래 <표 IV-3-30>과 같다. 1차년도에서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 한 번 이상 구타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1.6%로 나타나고 있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0.8%로 나타나고 있다. 2차년도에서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한 번 이상 구타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4.8%로 나타나고 있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0.5%로 1차년도에 비해 집단 간 차이가 두드러지고 있다. 3차년도에서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 한 번 이상 구타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4.2%로 나타나고 있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1.6%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3-30> 성별 구타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시기	구분	없다	한두 번	여러 번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차년도 (1.040)	남자	98.4	1.2	0.4	100.0
	여자	99.2	0.4	0.4	100.0
합계		98.8	0.8	0.4	100.0
2차년도 (8.537*)	남자	95.2	4.2	0.6	100.0
	여자	99.5	0.0	0.5	100.0
합계		97.5	1.9	0.5	100.0
3차년도 (2.750)	남자	95.7	3.7	0.5	100.0
	여자	98.4	1.6	0.0	100.0
합계		97.1	2.6	0.3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직종별 구타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에 대해서는 아래 <표 IV-3-31>과 같다. 1차년도에서 직종이 전단지인 경우에 한 번 이상 구타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0.9%로 나타나고 있고, 서빙·배달의 경우에는 3.2%로 나타나고 있다. 2차년도에서는 직종이 전단지인 경우에 한 번 이상 구타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2.1%로 나타나고 있고, 서빙·배달의 경우에는 4.9%로 나타나고 있다. 3차년도에는 직종이 전단지인 경우에 한 번 이상 구타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4.5%로 나타나고 있고, 서빙·배달의

경우에는 3.2%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3-31> 직종별 구타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시기	구분	없다	한두 번	여러 번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차년도 (3.480)	전단지	99.0	0.7	0.2	100.0
	서빙, 배달	96.9	1.6	1.6	100.0
	기타	100.0	0.0	0.0	100.0
	합계	98.8	0.8	0.4	100.0
2차년도 (3.214)	전단지	97.9	1.7	0.4	100.0
	서빙, 배달	95.1	3.7	1.2	100.0
	기타	100.0	0.0	0.0	100.0
	합계	97.5	1.9	0.6	100.0
3차년도 (4.330)	전단지	95.5	3.6	0.9	100.0
	서빙, 배달	96.8	3.2	0.0	100.0
	기타	99.1	0.9	0.0	100.0
	합계	97.1	2.6	0.3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주당노동시간별 구타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에 대해서는 아래 <표 4-3-32>와 같다. 1차년도에서 주당노동시간이 1~9시간인 경우에는 한 번 이상 구타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0.6%로 나타나고 있고, 10~29시간인 경우에는 2.8%, 그리고 3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0.0%로 나타나고 있다. 2차년도에는 주당노동시간이 1~9시간인 경우에는 한 번 이상 구타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2.3%로 나타나고 있고, 10~29시간인 경우에는 4.0%, 그리고 3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0.0%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차년도에서는 주당노동시간이 1~9시간인 경우에는 3.8%로 나타나고 있고, 10~29시간인 경우에는 1.9%, 그리고 3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5%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3-32> 주당노동시간별 구타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시기	구분	없다	한두 번	여러 번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차년도 (4.821)	1~9시간	99.4	0.3	0.3	100.0
	10~29시간	97.2	2.1	0.7	100.0
	30시간 이상	100.0	0.0	0.0	100.0
	합계	98.8	0.8	0.4	100.0
2차년도 (2.086)	1~9시간	97.7	1.8	0.5	100.0
	10~29시간	96.0	3.0	1.0	100.0
	30시간 이상	100.0	0.0	0.0	100.0
	합계	97.5	1.9	0.6	100.0
3차년도 (3.434)	1~9시간	96.2	3.8	0.0	100.0
	10~29시간	98.1	1.3	0.6	100.0
	30시간 이상	96.5	3.5	0.0	100.0
	합계	97.1	2.6	0.3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 9) 성희롱이나 성폭력 경험

조사시기별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에 대해서는 아래 < 표 4-3-33 >과 같다. 1차년도에 한 번 이상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0.8%로 나타나고 있고, 2차년도에는 2.7%, 그리고 3차년도에는 1.5%로 나타나고 있다.

<표 4-3-33>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

요인 \ 조사시기	1차년도 (백분율)	2차년도 (백분율)	3차년도 (백분율)
없다	99.2	97.3	98.4
한두 번	0.2	2.2	1.2
여러 번	0.6	0.5	0.3
합계	100.0	100.0	100.0

성별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에 대해서는 아래 <표 IV-3-34>와 같다. 1차년도에서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 한 번 이상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1.2%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0.4%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차년도에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 한 번 이상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4.2%로 나타나고 있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1.5%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차년도에서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한 번 이상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1.1%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2.1%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3-34> 성별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

시기	구분	없다	한두 번	여러 번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차년도 (4.040)	남자	98.8	0.0	1.2	100.0
	여자	99.6	0.4	0.0	100.0
합계		99.2	0.2	0.6	100.0
2차년도 (2.870)	남자	95.8	3.6	0.6	100.0
	여자	98.5	1.0	0.5	100.0
합계		97.3	2.2	0.5	100.0
3차년도 (1.169)	남자	98.9	1.1	0.0	100.0
	여자	97.9	1.6	0.5	100.0
합계		98.4	1.3	0.3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직종별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에 대해서는 아래 <표 4-3-35>와 같다. 1차년도에서 직종이 전단지인 경우에는 한 번 이상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0.2%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서빙·배달의 경우에는 4.7%로 나타나고 있다. 2차년도에서는 직종이 전단지인 경우에 한 번 이상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2.5%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서빙·배달의 경우에는 4.9%인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3차년도에서는 직종이 전단지인 경우에 한 번 이상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0.9%로 나타나고 있고, 서빙·배달의 경우에는 2.5%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3-35> 직종별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

시기	구분	없다	한두 번	여러 번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차년도 (15.127**)	전단지	99.8	0.0	0.2	100.0
	서빙, 배달	95.3	1.6	3.1	100.0
	기타	100.0	0.0	0.0	100.0
	합계	99.2	0.2	0.6	100.0
2차년도 (2.766)	전단지	97.5	2.1	0.4	100.0
	서빙, 배달	95.1	3.7	1.2	100.0
	기타	100.0	0.0	0.0	100.0
	합계	97.2	2.2	0.6	100.0
3차년도 (2.173)	전단지	99.1	0.9	0.0	100.0
	서빙, 배달	97.4	1.9	0.6	100.0
	기타	99.1	0.9	0.0	100.0
	합계	98.4	1.3	0.3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주당노동시간별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에 대해서는 아래 <표 IV-3-36>과 같다. 주당노동시간이 1~9시간인 경우에는 0.3%로 나타나고 있고, 10~29시간인 경우에는 2.1%, 그리고 3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0.0%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차년도에서는 주당노동시간이 1~9시간인 경우에 2.7%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10~29시간인 경우에는 4.0%, 그리고 3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0.0%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차년도에서는 주당노동시간이 1~9시간인 경우에는 0.9%로 나타나고 있고, 10~29시간인 경우에는 1.9%, 그리고 3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8%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3-36〉 주당노동시간별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

시기	구분	없다	한두 번	여러 번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차년도 (8.060)	1~9시간	99.7	0.3	0.0	100.0
	10~29시간	97.9	0.0	2.1	100.0
	30시간 이상	100.0	0.0	0.0	100.0
합계		99.2	0.2	0.6	100.0
2차년도 (6.493)	1~9시간	97.3	2.7	0.0	100.0
	10~29시간	96.0	2.0	2.0	100.0
	30시간 이상	100.0	0.0	0.0	100.0
합계		97.2	2.2	0.6	100.0
3차년도 (1.672)	1~9시간	99.1	0.9	0.0	100.0
	10~29시간	98.1	1.3	0.6	100.0
	30시간 이상	98.2	1.8	0.0	100.0
합계		98.4	1.3	0.3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 10) 근로계약서 작성

조사시기별 회사나 고용주와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 표 4-3-37 >과 같다. 1차년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응답은 3.9%로 나타나고 있고, 2차년도에는 9.6%, 그리고 3차년도에는 22.0%로 나타나고 있어 조사시기별로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다른 조사시기보다 3차년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3-37〉 회사나 고용주와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요인 \ 조사시기	1차년도 (백분율)	2차년도 (백분율)	3차년도 (백분율)
작성하지 않았다	96.1	90.4	78.0
작성했다	3.9	9.6	22.0
합계	100.0	100.0	100.0

성별 회사나 고용주와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표 IV-3-38>과 같다. 1차년도에서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모두 회사나 고용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응답이 각각 4.0%와 3.9%로 나타나고 있어 집단 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차년도에서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 회사나 고용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응답이 12.7%로 나타나고 있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7.1%로 나타나고 있다. 3차년도에서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 회사나 고용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응답이 22.3%로 나타나고 있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21.6%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3-38> 성별 회사나 고용주와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시기	구분	작성하지 않았다	작성했다	합계
		비율	비율	비율
1차년도 (0.001)	남자	96.0	4.0	100.0
	여자	96.1	3.9	100.0
합계		96.1	3.9	100.0
2차년도 (3.235)	남자	87.3	12.7	100.0
	여자	92.9	7.1	100.0
합계		90.4	9.6	100.0
3차년도 (0.032)	남자	77.7	22.3	100.0
	여자	78.4	21.6	100.0
합계		78.0	22.0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직종별 회사나 고용주와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표 4-3-39>와 같다. 1차년도에서 직종이 전단지인 경우에 회사나 고용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응답이 3.7%로 나타나고 있고, 서빙·배달의 경우에는 4.7%로 나타나고 있다. 2차년도에서는 직종이 전단지인 경우에 회사나 고용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응답이 3.8%로 나타나고 있고, 서빙·배달의 경우에는 28.4%로 전단지보다 서빙·배달의 경우에 회사나 고용주와 근로계

약서를 작성했다는 응답이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3차년도에서도 직종이 전단지인 경우에 회사나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작성했다는 응답이 8.1%로 나타나고 있고, 서빙·배달의 경우에는 32.5%로 전단지보다 서빙·배달의 경우에 회사나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작성했다는 응답이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3-39> 직종별 회사나 고용주와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시기	구분	작성하지 않았다	작성했다	합계
		비율	비율	비율
1차년도 (0.225)	전단지	96.3	3.7	100.0
	서빙, 배달	95.3	4.7	100.0
	기타	95.2	4.8	100.0
합계		96.1	3.9	100.0
2차년도 (41.823***)	전단지	96.2	3.8	100.0
	서빙, 배달	71.6	28.4	100.0
	기타	92.7	7.3	100.0
합계		90.3	9.7	100.0
3차년도 (22.647***)	전단지	91.9	8.1	100.0
	서빙, 배달	67.5	32.5	100.0
	기타	79.1	20.9	100.0
합계		78.0	22.0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주당노동시간별 회사나 고용주와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표 IV-3-40>과 같다. 주당노동시간이 1~9시간인 경우에는 회사나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작성했다는 응답이 1.9%로 나타나고 있고, 10~29시간인 경우에는 7.8%, 그리고 3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6.5%로 나타나고 있어, 주당노동시간이 1~9시간인 경우보다 10시간 이상인 경우에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차년도에서는 주당노동시간이 1~9시간인 경우에 회사나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작성했다는 응답이 4.6%, 그리고 10~29시간인 경우에는

16.8%, 그리고 3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8.6%로 주당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회사나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작성한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3차년도에서도 주당노동시간이 1~9시간인 경우에 회사나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작성했다는 응답이 8.1%, 그리고 10~29시간인 경우에는 27.0%, 그리고 3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1.9%로 주당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회사나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작성한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표 IV-3-40> 주간노동시간별 회사나 고용주와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시기	구분	작성하지 않았다	작성했다	합계
		비율	비율	비율
1차년도 (9.907**)	1~9시간	98.1	1.9	100.0
	10~29시간	92.2	7.8	100.0
	30시간 이상	93.5	6.5	100.0
합계		96.1	3.9	100.0
2차년도 (16.434***)	1~9시간	95.4	4.6	100.0
	10~29시간	83.2	16.8	100.0
	30시간 이상	81.4	18.6	100.0
합계		90.4	9.6	100.0
3차년도 (29.318***)	1~9시간	96.2	3.8	100.0
	10~29시간	73.0	27.0	100.0
	30시간 이상	68.1	31.9	100.0
합계		78.0	22.0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 11) 부모동의서 제출

조사시기별 회사나 고용주에게 부모동의서 제출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표 IV-3-41>과 같다. 1차년도에 부모동의서를 제출했다는 응답은 7.5%로 나타나고 있고, 2차년도에는 15.7%, 그리고 3차년도에는 34.3%로 나타나고 있어 조사시기별로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다른 조사시기보다 3

차년도에 부모동의서를 제출했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3-41> 회사나 고용주에게 부모동의서 제출여부

요인 \ 조사시기	1차년도 (백분율)	2차년도 (백분율)	3차년도 (백분율)
제출하지 않았다	92.5	84.3	65.7
제출했다	7.5	15.7	34.3
합계	100.0	100.0	100.0

성별 회사나 고용주에게 부모동의서 제출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표 4-3-42>와 같다. 1차년도에서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회사나 고용주에게 부모동의서를 제출했다는 응답이 9.1%로 나타나고 있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5.8%로 나타나고 있다. 2차년도에서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 회사나 고용주에게 부모동의서를 제출했다는 응답이 16.9%로 나타나고 있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14.6%로 나타나고 있다. 3차년도에서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 회사나 고용주에게 부모동의서를 제출했다는 응답이 30.3%로 나타나고 있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38.2%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3-42> 성별 회사나 고용주에게 부모동의서 제출여부

시기	구분	작성하지 않았다	작성했다	합계
		비율	비율	비율
1차년도 (1.958)	남자	90.9	9.1	100.0
	여자	94.2	5.8	100.0
합계		92.5	7.5	100.0
2차년도 (0.337)	남자	83.1	16.9	100.0
	여자	85.4	14.6	100.0
합계		84.3	15.7	100.0
3차년도 (2.624)	남자	69.7	30.3	100.0
	여자	61.8	38.2	100.0
합계		65.7	34.3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직종별 회사나 고용주에게 부모동의서 제출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표 IV-3-43>과 같다. 1차년도에서 직종이 전단지의 경우에 회사나 고용주에게 부모동의서를 제출했다는 응답이 4.0%로 나타나고 있고, 서빙·배달의 경우에는 18.8%로 나타나고 있어 전단지보다는 서빙·배달의 경우에 회사나 고용주에게 부모동의서를 제출했다는 비율이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2차년도에서도 직종이 전단지의 경우에 회사나 고용주에게 부모동의서를 제출했다는 응답이 7.2%로 나타나고 있고, 서빙·배달의 경우에는 37.0%로 나타나고 있다. 3차년도에서도 직종이 전단지인 경우에 회사나 고용주에게 부모동의서를 제출했다는 응답이 15.3%로 나타나고 있고, 서빙·배달의 경우에는 45.9%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3-43> 직종별 회사나 고용주에게 부모동의서 제출여부

시기	구분	작성하지 않았다	작성했다	합계
		비율	비율	비율
1차년도 (35.286***)	전단지	96.0	4.0	100.0
	서빙, 배달	81.3	18.8	100.0
	기타	76.2	23.8	100.0
합계		92.5	7.5	100.0
2차년도 (42.128***)	전단지	92.8	7.2	100.0
	서빙, 배달	63.0	37.0	100.0
	기타	80.5	19.5	100.0
합계		84.7	15.3	100.0
3차년도 (27.405***)	전단지	84.7	15.3	100.0
	서빙, 배달	54.1	45.9	100.0
	기타	63.1	36.9	100.0
합계		65.7	34.3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주당노동시간별 회사나 고용주에게 부모동의서 제출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표 IV-3-44>와 같다. 1차년도에서 주당노동시간이 1~9시간인 경우에는 회사

나 고용주에게 부모동의서를 제출했다는 응답이 2.7%로 나타나고 있고, 10~29시간인 경우에는 12.8%, 그리고 3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22.6%로 나타나고 있어 주당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회사나 고용주에게 부모동의서를 제출했다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차년도에서도 주당노동시간이 1~9시간인 경우에 회사나 고용주에게 부모동의서를 제출했다는 응답이 7.8%로 나타나고 있고, 10~29시간인 경우에는 27.7%, 그리고 3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27.9%로 나타나고 있다. 3차년도에서도 주당노동시간이 1~9시간인 경우에 회사나 고용주에게 부모동의서를 제출했다는 응답이 8.5%로 나타나고 있고, 10~29시간인 경우에는 41.3%, 그리고 3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8.7%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3-44> 주간노동시간별 회사나 고용주에게 부모동의서 제출여부

시기	구분	작성하지 않았다	작성했다	합계
		비율	비율	비율
1차년도 (22.332***)	1~9시간	96.3	3.7	100.0
	10~29시간	87.2	12.8	100.0
	30시간 이상	77.4	22.6	100.0
합계		92.5	7.5	100.0
2차년도 (26.294***)	1~9시간	92.2	7.8	100.0
	10~29시간	72.3	27.7	100.0
	30시간 이상	72.1	27.9	100.0
합계		84.3	15.7	100.0
3차년도 (45.120***)	1~9시간	91.5	8.5	100.0
	10~29시간	58.8	41.3	100.0
	30시간 이상	51.3	48.7	100.0
합계		65.7	34.3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 4.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이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

##### 1) 시기별 영향

<표 IV-4-1>은 2차시기와 3차시기에 있어서 아르바이트로 인하여 겪게 된 학교생활의 어려움 정도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는데 표에는 각 문항의 평균값들이 제시되어 있다. 이 결과는 2차시기와 비교하여 3차시기에 아르바이트로 인해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겪은 정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아르바이트로 인해 수업시간에 잠을 잔 적이 있거나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 줄어든 정도의 변화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르바이트는 숙제를 하는 것이나 성적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한 정도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앞에 나타난 결과와 연관지어 살펴보면, 아르바이트 주당 근무 일수와 일일 근무 시간의 증가는 학교생활 뿐 아니라 친구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표 IV-4-1> 조사 시기별 아르바이트와 학교 생활과의 관계(평균)

학교생활	조사시기	2차시기	3차시기
	수업시간에 잠을 잔 적이 있다		1.84(1.17)
숙제를 제때에 해가지 못한 적이 있다		1.74(1.07)	1.99(1.16)
성적이 떨어진 적이 있다		1.65(0.95)	1.89(1.08)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2.03(1.28)	2.40(1.33)

1) ( )안은 표준편차임

##### 2) 수업시간 줄음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이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으로 성별 수업시간에 잠을 잠에 대해서는 아래 <표 IV-4-2>와 같다. 2차년도에서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 긍정적 응답(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은 12.0%로 나타나고 있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15.6%로 나타나고 있다. 3차년도에서는 남자 청소년의 경

우에 긍정적 응답이 17.0%로 나타나고 있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24.1%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의 긍정적 응답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4-2> 성별 수업시간에 잠을 잠

시기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2차년도 (1,650)	남자	59.6	19.3	9.0	9.0	3.0	100.0
	여자	55.1	18.2	11.1	12.1	3.5	100.0
합계		57.1	18.7	10.2	10.7	3.3	100.0
3차년도 (4,383)	남자	44.1	25.0	13.8	13.3	3.7	100.0
	여자	39.3	26.7	9.9	19.9	4.2	100.0
합계		41.7	25.9	11.9	16.6	4.0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직종별 수업시간에 잠을 잠에 대해서는 아래 <표 IV-4-3>과 같다. 2차년도에서 직종이 전단지인 경우에 긍정적 응답이 10.1%로 나타나고 있고, 서빙·배달의 경우에는 27.2%로 나타나고 있어, 전단지인 경우보다 서빙·배달의 경우에 수업시간에 잠을 잔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3차년도에서도 직종이 전단지인 경우에 긍정적 응답이 5.4%로 나타나고 있고, 서빙·배달의 경우에는 31.8%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4-3> 직종별 수업시간에 잠을 잠

시기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2차년도 (18.670*)	전단지	59.5	20.3	10.1	7.6	2.5	100.0
	서빙, 배달	43.2	17.3	12.3	21.0	6.2	100.0
	기타	68.3	14.6	4.9	9.8	2.4	100.0
합계		56.8	18.9	10.0	10.9	3.3	100.0
3차년도 (38.248***)	전단지	57.7	27.9	9.0	4.5	0.9	100.0
	서빙, 배달	29.3	23.6	15.3	26.1	5.7	100.0
	기타	43.2	27.0	9.9	15.3	4.5	100.0
합계		41.7	25.9	11.9	16.6	4.0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주당노동시간별 수업시간에 잠을 잠에 대해서는 아래 <표 IV-4-4>와 같다. 2차년도에서 주당노동시간이 1~9시간인 경우에 긍정적 응답이 8.6%로 나타나고 있고, 10~29시간인 경우에는 16.9%, 그리고 3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4.9%로 나타나고 있어, 주당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긍정적 응답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차년도에서도 주당노동시간이 1~9시간인 경우에 6.6%로 나타나고 있고, 10~29시간인 경우에는 22.5%, 그리고 3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1.0%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4-4> 주간노동시간별 수업시간에 잠을 잠

시기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2차년도 (28.745***)	1~9시간	63.9	19.6	7.8	5.9	2.7	100.0
	10~29시간	50.5	17.8	14.9	13.9	3.0	100.0
	30시간 이상	37.2	16.3	11.6	27.9	7.0	100.0
합계		57.0	18.7	10.2	10.7	3.3	100.0
3차년도 (34.462***)	1~9시간	59.4	26.4	7.5	6.6	0.0	100.0
	10~29시간	40.6	24.4	12.5	18.1	4.4	100.0
	30시간 이상	26.5	27.4	15.0	23.9	7.1	100.0
합계		41.7	25.9	11.9	16.6	4.0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 2) 숙제 미제출

성별 숙제를 제때에 해가지 못함에 대해서는 아래 <표 IV-4-5>와 같다. 2차년도에서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긍정적 응답이 7.8%로 나타나고 있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12.1%로 나타나고 있다. 3차년도에서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 긍정적 응답이 11.7%로 나타나고 있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18.3%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4-5> 성별 숙제를 제때에 해가지 못함

시기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2차년도 (4.797)	남자	63.9	18.1	10.2	6.6	1.2	100.0
	여자	54.5	23.7	9.6	9.1	3.0	100.0
합계		58.8	21.2	9.9	8.0	2.2	100.0
3차년도 (5.226)	남자	48.4	29.8	10.1	8.0	3.7	100.0
	여자	42.4	28.3	11.0	15.2	3.1	100.0
합계		45.4	29.0	10.6	11.6	3.4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직종별 숙제를 제때에 해가지 못함에 대해서는 아래 <표 IV-4-6>과 같다. 2차년도에서 직종이 전단지인 경우에는 긍정적 응답이 8.9%로 나타나고 있고, 서빙·배달의 경우에는 16.0%로 나타나고 있다. 3차년도에서는 직종이 전단지인 경우에 긍정적 응답이 5.4%로 나타나고 있고, 서빙·배달의 경우에는 22.3%로 전단지의 경우보다 서빙·배달의 경우에 긍정적 응답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4-6> 직종별 숙제를 제때에 해가지 못함

시기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2차년도 (14.187)	전단지	61.6	21.1	8.4	7.6	1.3	100.0
	서빙, 배달	44.4	23.5	16.0	11.1	4.9	100.0
	기타	68.3	19.5	7.3	2.4	2.4	100.0
합계		58.5	21.4	10.0	7.8	2.2	100.0
3차년도 (22.966**)	전단지	56.8	29.7	8.1	4.5	0.9	100.0
	서빙, 배달	35.7	28.0	14.0	17.8	4.5	100.0
	기타	47.7	29.7	8.1	9.9	4.5	100.0
합계		45.4	29.0	10.6	11.6	3.4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주당노동시간별 숙제를 제때에 해가지 못함에 대해서는 아래 <표 IV-4-7>과 같다. 2차년도에서 주당노동시간이 1~9시간인 경우에 긍정적 응답이 6.0%로 나타나고 있고, 10~29시간인 경우에는 12.9%, 그리고 3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25.6%로 나타나고 있어 주당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긍정적 응답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차년도에서도 주당노동시간이 1~9시간인 경우에 긍정적 응답이 2.8%로 나타나고 있고, 10~29시간인 경우에는 15.1%, 그리고 3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26.6%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4-7> 주간노동시간별 숙제를 제때에 해가지 못함

시기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2차년도 (31.617***)	1~9시간	66.2	18.7	9.1	4.6	1.4	100.0
	10~29시간	52.5	21.8	12.9	11.9	1.0	100.0
	30시간 이상	34.9	32.6	7.0	16.3	9.3	100.0
합계		58.7	21.2	9.9	8.0	2.2	100.0
3차년도 (32.007***)	1~9시간	59.4	30.2	7.5	2.8	0.0	100.0
	10~29시간	44.4	26.9	13.8	11.3	3.8	100.0
	30시간 이상	33.6	31.0	8.8	20.4	6.2	100.0
합계		45.4	29.0	10.6	11.6	3.4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 3) 성적 저하

성별 성적이 떨어짐에 대해서는 아래 <표 IV-4-8>과 같다. 2차년도에서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긍정적 응답이 5.4%로 나타나고 있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6.0%로 나타나고 있다. 3차년도에서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6.4%로 나타나고 있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15.2%로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서 보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 긍정적 응답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4-8> 성별 성적이 떨어짐

시기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2차년도 (4.459)	남자	63.9	19.9	10.8	4.8	0.6	100.0
	여자	56.6	25.3	12.1	3.5	2.5	100.0
합계		59.9	22.8	11.5	4.1	1.6	100.0
3차년도 (10.868*)	남자	51.1	28.7	13.8	3.7	2.7	100.0
	여자	45.0	26.7	13.1	13.1	2.1	100.0
합계		48.0	27.7	13.5	8.4	2.4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직종별 성적이 떨어짐에 대해서는 아래 <표 IV-4-9>와 같다. 2차년도에서 직종이 전단지인 경우에는 긍정적 응답이 5.0%로 나타나고 있고, 서빙·배달의 경우에는 9.9%로 전단지인 경우에서 보다 서빙·배달의 경우에 긍정적 응답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차년도에서도 직종이 전단지인 경우에는 긍정적 응답이 5.4%로 나타나고 있고, 서빙·배달의 경우에는 16.6%로 나타나고 있다.

<표 4-4-9> 직종별 성적이 떨어짐

시기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2차년도 (15.651*)	전단지	62.9	22.4	9.7	4.2	0.8	100.0
	서빙, 배달	44.4	27.2	18.5	6.2	3.7	100.0
	기타	70.7	19.5	7.3	0.0	2.4	100.0
합계		59.6	23.1	11.4	4.2	1.7	100.0
3차년도 (18.125*)	전단지	58.6	27.0	9.0	4.5	0.9	100.0
	서빙, 배달	38.9	27.4	17.2	13.4	3.2	100.0
	기타	50.5	28.8	12.6	5.4	2.7	100.0
합계		48.0	27.7	13.5	8.4	2.4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주당노동시간별 성적이 떨어짐에 대해서는 아래 <표 IV-4-10>과 같다. 2차년도에서 주당노동시간이 1~9시간인 경우에 긍정적 응답이 4.1%로 나타나고 있고, 10~29시간인 경우에는 6.0%, 그리고 30시간 이상에서는 14.0%로 나타나고 있어 주당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긍정적 응답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차년도에서도 주당노동시간이 1~9시간인 경우에 긍정적 응답이 2.8%로 나타나고 있고, 10~29시간인 경우에는 11.9%, 그리고 3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6.8%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4-10> 주간노동시간별 성적이 떨어짐

시기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2차년도 (20.914**)	1~9시간	66.2	21.0	8.7	3.2	0.9	100.0
	10~29시간	54.4	25.7	13.9	5.0	1.0	100.0
	30시간 이상	39.5	25.6	20.9	7.0	7.0	100.0
합계		59.8	22.9	11.6	4.1	1.7	100.0
3차년도 (29.558***)	1~9시간	64.2	27.4	5.7	2.8	0.0	100.0
	10~29시간	43.8	25.6	18.8	10.0	1.9	100.0
	30시간 이상	38.9	31.0	13.3	11.5	5.3	100.0
합계		48.0	27.7	13.5	8.4	2.4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 4) 친한 친구 교제시간 감소

성별 친한 친구를 만나는 사람이 줄어들음에 대해서는 아래 <표 IV-4-11>과 같다. 2차년도에서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 긍정적 응답은 12.6%로 나타나고 있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21.2%로 나타나고 있다. 3차년도에서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 긍정적 응답은 25.0%로 나타나고 있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26.7%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4-11> 성별 친한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

시기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2차년도 (8.089)	남자	54.2	15.1	18.1	10.2	2.4	100.0
	여자	50.0	16.7	12.1	13.6	7.6	100.0
합계		51.9	15.9	14.8	12.1	5.2	100.0
3차년도 (2.634)	남자	36.7	23.4	14.9	19.1	5.9	100.0
	여자	34.6	20.9	17.8	17.3	9.4	100.0
합계		35.6	22.2	16.4	18.2	7.7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직종별 친한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에 대해서는 아래 <표 IV-4-12>와 같다. 2차년도에서 직종이 전단지인 경우에 긍정적 응답은 12.3%로 나타나고 있고, 서빙·배달의 경우에는 29.6%로 나타나고 있어, 전단지의 경우에서 보다 서빙·배달의 경우에 긍정적 응답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차년도에서도 직종이 전단지인 경우에 긍정적 응답은 10.8%로 나타나고 있고, 서빙·배달의 경우에는 38.8%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4-12> 직종별 친한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

시기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2차년도 (21.796**)	전단지	57.8	16.0	13.9	9.3	3.0	100.0
	서빙, 배달	34.6	17.3	18.5	17.3	12.3	100.0
	기타	51.2	14.6	12.2	17.1	4.9	100.0
합계		51.8	16.2	14.8	12.0	5.3	100.0
3차년도 (38.167***)	전단지	50.5	27.0	11.7	8.1	2.7	100.0
	서빙, 배달	24.2	18.5	18.5	26.1	12.7	100.0
	기타	36.9	22.5	18.0	17.1	5.4	100.0
합계		35.6	22.2	16.4	18.2	7.7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주당노동시간별 친한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에 대해서는 아래 <표 IV-4-13>과 같다. 2차년도에서 주당노동시간이 1~9시간인 경우에는 긍정적 응답이 8.7%로 나타나고 있고, 10~29시간인 경우에는 24.7%, 그리고 30시간 이상의 경우에는 44.2%로 나타나고 있어, 주당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긍정적 응답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차년도에서도 주당노동시간이 1~9시간인 경우에 긍정적 응답이 12.2%로 나타나고 있고, 10~29시간의 경우에는 23.8%, 3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1.6%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4-13> 주당노동시간별 친한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

시기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2차년도 (41.551***)	1~9시간	60.7	16.4	14.2	6.4	2.3	100.0
	10~29시간	42.6	14.9	17.8	16.8	7.9	100.0
	30시간 이상	27.9	16.3	11.6	30.2	14.0	100.0
합계		51.8	16.0	14.9	12.1	5.2	100.0
3차년도 (42.460***)	1~9시간	52.8	22.6	12.3	9.4	2.8	100.0
	10~29시간	33.8	22.5	20.0	19.4	4.4	100.0
	30시간 이상	22.1	21.2	15.0	24.8	16.8	100.0
합계		35.6	22.2	16.4	18.2	7.7	100.0

\* 시기 내 ()는 Chi-square 값임(\*: P < .05, \*\*: P < .01, \*\*\*: P < .001)

## 5. 요약

### 1) 아르바이트 참여경험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이 있다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은 14.8%이었으나, 중학교 3학년 시기에는 11.4%로 감소하였다가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12.1%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아르바이트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 학생은 3년 동안 아르바이트 관련 자료를 모두 제공한 3,012명 가운데 837명으로 2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수치는 기존의 연구에서 보고된 수준과 유사하게 나타난 것이다. 이 가운데 3년 동안 매 해마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1.9%로 비교적 적은 수의 학생들이 중학교 2학년 이래 꾸준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년 중 한 해에만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19.2%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들 가운데 약 70%에 달하고 있다. 이는 우리 청소년의 경우 노동시장에의 참여 정도가 아직은 간헐적인 수준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3차년도 모두에 걸쳐서 성적이 낮아질수록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한편, 아버지 학력이 높아질수록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수준별로는 3차년도 모두에 걸쳐서 역시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참여경험이 증가하는 가운데, 시간이 갈수록 상층과 중층의 참여경험율은 감소하는 반면, 하층의 참여경험율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 참여횟수를 살펴보면, 1차 시기에 3회 이하의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80.7%였던 반면, 3차 시기에는 87.3%로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6회 이상의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도 1차 시기의 8.6%에서 3차 시기에는 5.1%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 형태가 고등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보다 안정적인 양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 참여동기로는 용돈이 부족해서(1차년도 48.8%, 2차년도 57.3%,

3차년도 54.6%)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시간이 갈수록 이 응답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체로 증가하는 반면, 여가시간을 활용하려고(1차년도 25.3%, 2차년도 17.6%, 3차년도 18.2%)라는 응답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르바이트가 학생들에게 있어서 주로 용돈을 버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2) 가장 최근 참여한 아르바이트의 세부 실태

가장 최근 참여한 아르바이트 직종으로는 전단지가 1차년도 79.2%, 2차년도 66.0%, 그리고 3차년도 29.3%라고 응답하였고, 서빙·배달이라는 응답은 1차년도 12.5%, 2차년도 22.6%, 3차년도 41.4%로 나타나고 있고, 기타 직종이라는 응답은 1차년도 8.2%, 2차년도 11.4%, 3차년도 29.3%로 나타나고 있다.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되면서 전단지의 비율이 매우 낮아진 반면, 서빙·배달과 기타 직종의 비율은 높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력의 차이, 즉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차이에 따라 고용되는 노동부문의 차이와 고용주가 기대하는 역할 및 업무의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결과는 결국 청소년노동시장이 학력별로 분절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아르바이트 직종의 시기적 변화는 성별로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이 되는 3차년도에 남자 청소년은 전단지와 서빙·배달이 각각 약 36%로서 비슷한 비율을 보이는데 반해, 여자 청소년은 서빙·배달의 비율(46.6%)이 가장 높고, 기타 직종이 30.4%, 전단지가 23.0%를 나타내고 있어, 여자 청소년의 서빙·배달 직종에의 집중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음식점에서의 단순 서빙 업무에서 여자 고등학생 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구직 시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으로는 보수(1차년도 65.3%, 2차년도 68.5%, 3차년도 62.3%)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시간적 여유(1차년도 15.7%, 2차년도 13.0%, 3차년도 12.7%)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르바이트 지속기간에 대해서는 1~7일(1차년도 71.4%, 2차년도 66.2%, 3차년도 41.4%)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22일 이상(1차년도 16.5%, 2차년도 19.5%, 3차년도 40.9%)이라는 응답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지난 1년간 참여한 아르바이트 횟수는 감소한 반면, 일단 시작한 아르바이트의 지속기간은 상당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는 청소년의 성장 과정에서 아르바이트가 상당히 안정적인 형태로 변화해 감을 의미한다. 즉 일단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 비교적 오랜 기간 그 일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따라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단기적으로 하기 보다는 소수의 아르바이트에서 장기간 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간근무일수에 대해서는 1일(1차년도 45.4%, 2차년도 45.4%, 3차년도 39.6%)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가운데 점차 감소하는 반면, 7일(1차년도 7.7%, 2차년도 9.1%, 3차년도 15.1%)이라는 응답은 2차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한 주일에 근무하는 시간이 중학생 시기보다 증가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직종별 주간근무일수를 살펴보면, 전단지일 경우에 7일(1차년도 6.2%, 2차년도 9.7%, 3차년도 8.1%)이라는 응답이 조사시기별로 그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서빙·배달 직종과 기타 직종의 경우에 주간근무일수가 7일이라는 응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일근무시간에 대해서는 2시간(1차년도 28.2%, 2차년도 23.4%, 3차년도 10.3%)이라는 응답과 3시간(1차년도 27.8%, 2차년도 25.3%, 3차년도 10.6%)이라는 응답이 1차년도와 2차년도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6시간 이상(1차년도 11.0%, 2차년도 18.4%, 3차년도 44.9%)이라는 응답은 3차년도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직종별로 살펴보면, 전단지일 경우에 2시간(1차년도 30.9%, 2차년도 28.3%, 3차년도 27.0%)과 3시간(1차년도 30.7%, 2차년도 31.6%, 3차년도 23.4%)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데 비해,

서빙·배달의 경우에는 6시간 이상(1차년도 26.6%, 2차년도 37.0%, 3차년도 52.2%)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기타 직종의 경우에도 6시간 이상(1차년도 57.1%, 2차년도 48.8%, 3차년도 65.8%)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전단지 참여율은 줄어들고 서빙·배달 및 기타 직종의 참여율이 늘어남에 따라 전반적으로 일일근무시간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3차년도에서는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일일근무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시간당 임금에 대해서는 1차시기의 경우 2,001원 이상 3,000원 이하의 시간당 보수를 받는 학생의 비율이 29.6%였으나 3차시기에는 42.7%로 증가하였다. 2,000원 미만의 보수를 받는 학생들의 비율도 1차시기에는 41.2%에 달하였으나, 3차시기에는 13.9%로 최저 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보수를 받는 학생 수가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래 직업생활의 도움정도에 대해서는 부정적 응답(1차년도 67.1%, 2차년도 52.5%, 3차년도 42.3%)이 긍정적 응답(1차년도 18.5%, 2차년도 17.3%, 3차년도 33.8%)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부정적 응답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줄어들고 있고, 긍정적 응답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서빙·배달과 기타 직종에서 이러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당노동시간별로는 1~9시간인 경우에 부정적 응답(1차년도 71.3%, 2차년도 53.9%, 3차년도 51.8%)이 지속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30시간 이상의 긍정적 응답(1차년도 32.3%, 2차년도 30.2%, 3차년도 48.7%)인 경우에는 2차년도 이후에 긍정적 응답이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 3) 아르바이트 작업장에서의 인권침해 실태

한 번 이상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는 응답은 1차년도 13.0%, 2차년도 15.4%, 그리고 3차년도 12.2%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종별로는 전단지에서 이러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 번 이상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 일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1차년도 2.2%, 2차년도 4.7%, 그리고 3차년도 6.0%인 것으로 나타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서빙·배달에서 이러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주당노동시간별로는 3차년도에서는 30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 이러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 번 이상 계약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시켰으나 임금을 올려주지 않았다는 응답은 1차년도 8.3%, 2차년도 8.2%, 그리고 3차년도 10.1%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 번 이상 처음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시켰다는 응답은 1차년도 4.7%, 2차년도 6.8%, 그리고 3차년도에는 6.7%로 나타나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한 번 이상 작업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는 응답은 1차년도 8.5%, 2차년도 9.3%, 그리고 3차년도 11.0%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 번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친 적이 있다는 응답은 1차년도 18.9%, 2차년도 12.6%, 그리고 3차년도에는 14.8%로 나타나고 있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전단지나 기타 직종보다 서빙·배달의 경우에 더욱 높은 비율(1차년도 20.3%, 2차년도 22.3%, 3차년도 20.3%)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3차년도의 경우 주당노동시간이 길수록 부상경험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한 번 이상 폭언 등 인격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1차년도 4.5%, 2차년도 4.3%, 그리고 3차년도 11.6%로 특히 3차년도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직종별로 살펴보면, 서빙·배달의 경우 3차년도에 한 번 이상 폭언 등 인격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17.9%로 전년도(8.7%)에 비해 급증을 하였고, 기타 직종의 경우에도 3차년도에서의 비율이 11.7%로 전년도(2.4%)에 비해 급증하였다. 역시 3차년도의 자료를 주당노동시간별로 살펴보면, 30시간 이상인 경우에 21.2%로 전년도(4.7%)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한 번 이상 구타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1차년도 1.2%, 2차년도 2.4%, 그리고 3차년도 2.9%로 나타나고 있어, 그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 번 이상 성희롱이나 성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1차년도 0.8%, 2차년도 2.7%, 그리고 3차년도 1.6%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회사나 고용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응답은 1차년도 3.9%, 2차년도 9.6%, 그리고 3차년도 22.0%로 조사시기별로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직종별로 전단지에 비해 서빙·배달(1차년도 4.7%, 2차년도 28.4%, 3차년도 32.5%)과 기타 직종(1차년도 4.8%, 2차년도 7.3%, 3차년도 20.9%)에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주당노동시간별로 살펴보면, 노동시간이 길수록 작성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10~29시간의 경우(1차년도 7.8%, 2차년도 16.8%, 3차년도 27.0%)와 30시간 이상의 경우(1차년도 6.5%, 2차년도 18.6%, 3차년도 31.9%)에 이러한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회사나 고용주에게 부모동의서를 제출했다는 응답은 1차년도 7.5%, 2차년도 15.7%, 3차년도 34.3%로 조사시기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종별로는 서빙·배달의 경우에 회사나 고용주에게 부모동의서를 제출했다는 응답이 1차년도 18.8%, 2차년도 37.0%, 그리고 3차년도 45.9%로 증가하고 있고, 기타 직종의 경우에도 1차년도 23.8%, 2차년도 19.5%, 3차년도 36.9%로 증가하였다. 주당노동시간별로는 노동시간이 길수록 제출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10~29시간(1차년도 12.8%, 2차년도 27.7%, 3차년도 41.3%)과 30시간 이상(1차년도 22.6%, 2차년도 27.9%, 3차년도 48.7%)의 경우에 이러한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 4)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이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이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으로 수업시간에 잠을 잠에 대해서 긍정적 응답은 2차년도에 14.0%였고, 3차년도에는 20.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직종별로 서빙·배달의 경우에 긍정적 응답은 2차년도에 27.2%였고, 3차년도에는 31.8%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주당노동시간별로는 30시간 이상의 경우에 긍정적 응답이 2차년도 34.9%였고, 3차년도에는 31.0%로 나타나고 있다.

숙제를 제때에 해가지 못함에 대해서 긍정적 응답은 2차년도에 10.2%였

고, 3차년도에는 15.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직종별로 서빙·배달의 경우에 긍정적 응답은 2차년도에 16.0%였고, 3차년도에는 22.3%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주당노동시간별로는 30시간 이상의 경우에 긍정적 응답이 2차년도 25.6%였고, 3차년도에는 26.6%로 나타나고 있다.

성적이 떨어짐에 대해서 긍정적 응답은 2차년도에 5.7%였고, 3차년도에는 10.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직종별로 서빙·배달의 경우에 긍정적 응답은 2차년도에 9.9%였고, 3차년도에는 16.6%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주당노동시간별로는 30시간 이상의 경우에 긍정적 응답이 2차년도 14.0%였고, 3차년도에는 16.8%로 나타나고 있다.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음에 대해서 긍정적 응답은 2차년도에 17.3%였고, 3차년도에는 25.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직종별로 서빙·배달의 경우에 긍정적 응답은 2차년도에 29.6%였고, 3차년도에는 38.8%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주당노동시간별로는 30시간 이상의 경우에 긍정적 응답이 2차년도 44.2%였고, 3차년도에는 41.6%로 나타나고 있다.

## V.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노동 영역에서의 인권을 노동참여권과 노동보호권으로 나누어 각각의 정확한 실태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는 인권과 청소년노동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청소년노동참여권과 노동보호권의 실태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실태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청소년인권실태조사(2007년)의 자료와 한국청소년패널 1차2차3차년도(2003년~2005년) 자료이다.

먼저 청소년인권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실태분석의 결과를 네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영역은 노동참여권과 관련이 있는 것이며, 세 번째와 네 번째 영역은 노동보호권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첫 번째 영역은 전반적인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에 관한 실태에 관한 것이다.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은 약 21%이고, 실업고의 경험율은 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적이 낮을수록, 아버지의 학력이 낮을수록,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아르바이트 경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동기는 원하는 물건을 사거나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하층의 경우 생활비나 학비 보조가 중상층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하는 동안 부당한 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41%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험은 30시간 이상의 주당노동시간을 하는 청소년에게서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에 최초로 참여한 시기는 중학교 3학년이 25%로서 가장 높았으며, 여자청소년보다 남자청소년의 진입시기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청소년들도 약 64%의 참여의도를 보이고 있다.

두 번째 영역은 현재 하고 있거나 가장 최근 참여했던 아르바이트에 관한 세부 실태에 관한 것이다. 직종으로는 전단지가 가장 비율이 높고, 다음으로 서빙·배달, 기타 직종의 순이다. 중학생과 일반고생이 전단지의 비율(67%와

39%)이 가장 높는데 비해, 실업고생의 경우에는 서빙·배달(58%)이 가장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구직 시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으로는 절반정도가 보수라고 응답했으며, 구직방법으로는 친구소개가 약 40%로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시간당 임금수준은 3001-4000원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여자청소년보다는 남자청소년의 임금이, 그리고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의 임금이 조금 높게 나타났으며, 전단지보다는 서빙·배달에서 임금이 높게 나타났다. 1주일 평균노동시간은 1-9시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시간 이상인 경우도 19%로 나타났다. 실업고생의 경우, 서빙·배달 직종의 경우, 부의 학력이 낮은 경우 각각 30시간 이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아르바이트에 대한 부모님의 인지율은 70%를 넘고 있으며, 실업고생에게서 이러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아르바이트가 미래 직업생활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은 실업고생의 경우, 주당노동시간이 길수록, 기타 직종에서 높게 나타났다.

세 번째 영역은 아르바이트 작업장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것이다. 신체적 구타 및 폭행경험은 8.3%로서, 남자청소년의 경우, 주당노동시간이 길수록 경험율이 높게 나타났다. 임금체불 경험은 19%로서, 주당노동시간이 길수록 경험율이 높았다. 부상경험은 27%로서 주당노동시간이 길수록 경험율이 높았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13%만이 작성경험이 있었으며, 서빙·배달 직종의 경우, 그리고 주당노동시간이 길수록 작성경험의 비율이 높았다. 부모동의서 제출은 24%만이 제출경험이 있었으며, 역시 서빙·배달 직종의 경우, 그리고 주당노동시간이 길수록 제출경험의 비율이 높았다.

네 번째 영역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실태에 관한 것이다. 수업시간에 잠을 잔 경험이 약 30%인 가운데, 실업고생의 경우, 그리고 주당노동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경우 경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성적이 저하된 경험은 약 25%인 가운데, 실업고생의 경우, 그리고 주당노동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경우 경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성이 향상된 경험은 약 50%인 가운데, 실업고생의 경우, 그리고 주당노동시간이 길수록 경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족과의 대화시간의 부족경험은

약 20%인 가운데, 주당노동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경우 경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청소년패널 1차·2차·3차 자료를 이용한 실태분석의 결과를 네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도 첫 번째와 두 번째 영역은 노동참여권과 관련이 있는 것이며, 세 번째와 네 번째 영역은 노동보호권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첫 번째 영역은 전반적인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에 관한 실태에 관한 것이다. 패널조사기간 3년동안 한 번이라도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은 28%로 나타났으며, 3년동안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성적이 낮을수록, 아버지 학력이 낮을수록,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바뀌면서 아르바이트의 횟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의 참여동기는 용돈의 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두 번째 영역은 현재 하고 있거나 가장 최근 참여했던 아르바이트에 관한 세부 실태에 관한 것이다. 직종으로는 전단지가 중2, 중3의 시기에 가장 참여비율이 높은 반면, 고1의 시기에는 서빙·배달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타직종과 전단지의 비율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력의 차이, 즉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차이에 따라 고용되는 노동부문의 차이와 고용주가 기대하는 역할 및 업무의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결과는 결국 청소년노동시장이 학력별로 분절화되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구직 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보수라는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아르바이트 지속기간은 1차에서 3차년도로 갈수록 점차 길어지는 추세로 나타나,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이 되면서 아르바이트의 횟수는 감소하는 반면, 한 번 시작한 아르바이트의 지속기간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주당근무일수는 고등학생이 되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증가는 서빙·배달과 기타 직종에서의 근무일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일근무시간도 6시간 이상 장시간노동의 비율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급증하였는데, 역시 서빙·배달과 기타 직종에서의 근무시간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일일근무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시간당 임금의 경우 시간이 흐를수록 임금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직업생활의 도움정도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 응답이 높았으나,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긍정적 응답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서빙·배달 및 기타직종에서 이러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주당노동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긍정적 응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세 번째 영역은 아르바이트 작업장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것이다. 임금체불은 약 12-15%정도로 나타났고, 야근 및 휴일수당 미지급은 2-6%로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는 응답은 9-11%로서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부상경험은 13-19%로 나타났으며, 서빙·배달 직종의 경우에 비율이 높았고, 3차년도의 경우에는 주당노동시간이 길수록 부상경험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폭언 등 인격모독의 경험은 5-12%로서 해마다 증가하였는데, 서빙·배달 직종과 기타 직종에서 고등학생의 시기에 급증하였으며, 주당노동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경우 3차년도에서 큰 증가를 기록하였다. 구타나 폭행의 경험은 1-3%로서 해마다 증가하였으며, 성희롱이나 성폭력 경험은 1-3%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 작성경험은 4-22%로서 해마다 급증하였는데, 서빙·배달 직종과 기타 직종에서 급증하였다. 그리고 노동시간이 길수록 작성경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부모동의서 제출경험은 8-34%로서 해마다 급증하였는데, 서빙·배달 직종과 기타 직종에서 급증하였다. 노동시간이 길수록 제출경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네 번째 영역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실태에 관한 것이다. 수업시간에 잠을 잔 경험의 비율은 14-21%로 나타났으며, 서빙·배달 직종의 경우, 그리고 주당노동시간이 30시간 이상의 경우 경험율이 높게 나타났다. 숙제를 제대로 해가지 못한 경험의 비율은 10-15%로 나타났으며, 서빙·배달 직종의 경우, 그리고 주당노동시간이 30시간 이상의 경우 경험율이 높게 나타났다. 성적저하의 경험은 6-11%로서 서빙·배달 직종의 경우, 그리고 주당노동시간이 30시간 이상의 경우 경험율이 높게 나타났

다. 친구교제시간의 감소경험은 17-26%로 나타났으며, 서빙·배달 직종의 경우, 그리고 주당노동시간이 30시간 이상의 경우 경험율이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노동참여권의 실태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아직도 현행 근로기준법은 청소년노동을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청소년들의 합법적인 노동참여의 범위를 매우 좁혀놓고 있다. 최근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15세 미만의 청소년(18세 미만 중학생 포함)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18세 미만 중학생들의 노동은 모두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불법노동의 영역에 놓여지게 되었다. 본문의 실태분석에 의하면 중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은 11-15%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변화에 따라 아르바이트 취업형태가 양산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법적으로 용인된 노동의 범위를 계속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청소년의 노동보호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아래, 청소년의 노동참여권을 소외시키는 것이며, 이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법적인 영역의 청소년노동을 계속 증가시킬 것이므로 결국 청소년의 노동보호권마저도 위협받게 할 것이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노동보호권의 실태는 더욱 열악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인권실태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신체적 구타 및 폭행경험은 8.3%, 임금체불 경험은 19%, 부상경험은 27%로 나타났고,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 의하면 구타나 폭행경험은 1-3%, 폭언 등 인격모독경험이 5-12%, 성희롱이나 성폭력경험은 1-3%, 임금체불이 12-15%, 부상경험이 13-19%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험은 고등학생의 시기에 더욱 증가하였다. 청소년기 노동의 가혹한 경험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왜곡된 직업과 노동가치관을 심어줄 가능성이 높으며, 성인이 되어서도 건전한 직업인으로 살아가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위의 실태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노동참여권의 측면에서 일하고자 하는 청소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선진외국의 경우 방학 중을 이용하여 공공기관에서의 일자리창출을 통해 빈곤층 청소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지원과 합

계 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다. 본문의 실태분석에 의하면 가족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청소년일수록 노동참여의 비율이 높고, 장시간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사회에서도 방학을 이용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빈곤층 청소년을 위한 일자리창출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청소년노동보호권의 측면에서 주당노동시간의 감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근로감독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아르바이트 작업장에서의 대표적인 인권침해, 즉 구타 및 폭행의 경험, 임금 체불경험, 부상경험, 폭언 등 인격모독의 경험은 일관되게 주당노동시간의 증가와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장시간의 노동, 특히 주당 30시간 이상의 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대책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시간의 노동은 수업시간의 줄음, 성적의 저하, 가족과의 대화시간부족, 친구와의 교제시간부족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장시간 노동의 비율이 실업고생, 서빙·배달 직종, 부의 학력이 낮은 경우에 높게 나타나는 점과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노동시간이 길어지는 현상이 고등학생의 시기에 더욱 뚜렷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정의 경제생활이 대체로 어려워면서, 서빙·배달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실업고생이 가장 취약계층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사회에서 일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청소년기의 아르바이트가 부모와 자녀간의 빈곤을 재생산시키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함축하고 있으며, 결국 우리사회 불평등구조의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시민단체는 장시간노동이 가져올 수 있는 나쁜 결과를 청소년들(특히 실업고생)에게 홍보하여, 청소년들 스스로가 장시간노동을 절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장시간고용하고 있는 서빙·배달 직종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인권침해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또한 법적인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장시간 일을 시키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기현(2003). 일하는 고등학생들: 재학 중 시간제 취업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37(6), 115-146.
- 김기현(2006). 청소년 아르바이트경험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중2에서 고1까지. 제3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자료집.
- 김중섭(2002). *아이들의 인권*: 이중성의 딜레마. 한국어린이·청소년의 인권. 오름.
- 박창남(2006). 중학생의 아르바이트경험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효과. 한국청소년학 연구, 13(5-2), 197 ~ 220.
- 성미영(2001). 국제 아동노동 반대운동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대응.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1997). *아이들의 인권, 세계의 약속. 내일을 여는 책*.
- 유성렬(2006). 청소년아르바이트의 변화추이 및 영향에 관한 연구. 제3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자료집, 187-229.
- 이봉철(1991). 인권,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권. 한국청소년연구. 제7권, 5-29
- 이철위, 박창남, 정혜영(2000). 청소년파트타임 고용실태와 제도적 지원방안 연구: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 전경숙, 노재봉(2003). 중퇴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와 보호대책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 정근식·김해식 역(1952). *사회변동의 이론과 전망*, R. H. Rauer, (Karl Mannheim,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ed. Paul Kecskemeti, Routledge & Kegan Paul)
- 차병직(2003). *인권의 역사적 맥락과 오늘의 의미*. 지산.
- 최윤진 외(1999). *청소년인권정책연구*.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 참여권 분야  
- 빈곤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현황과 대책

이 중 십(참여자치21)



# 목 차

I.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71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275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 인식과 관점 .....	276
2. 빈곤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	295
3. 빈곤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 .....	314
III. 영국의 빈곤 청소년 사회적 배제 해소대책: 경향과 함의	
1. 빈곤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실태와 현황 .....	318
2.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해소를 위한 정책 .....	337
3. 영국의 빈곤 청소년 사회적 배제 정책의 경향과 함의 .....	352
IV. 우리나라 빈곤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실태와 정책	
1. 빈곤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분석 지표 .....	357
2. 빈곤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실태와 현황 .....	359
3. 빈곤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해소를 위한 주요정책 .....	385
V. 빈곤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해소를 위한 정책 제언	
1. 빈곤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해소를 위한 정책의 방향 .....	405
2. 빈곤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해소 대책의 내용 .....	408
VI. 요약 및 결론 .....	417
참고문헌 .....	421



# I. 서 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해 가는 과정으로서 아동기의 발달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성인기에서 요구되는 직업의 선택과 결혼을 준비하기 위한 과도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김성이 외, 2004:37). 특히,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심리·사회적 독립을 이루기 위해 진로탐색과 준비를 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이지만 빈곤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가족해체나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인해 다양한 사회제도의 접근이 차단되는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 가정의 빈곤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협하는 핵심적인 위험요소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Albers(2001)의 지적처럼, 빈곤은 청소년의 인지적 기능, 학업성취, 신체적 건강, 심리사회적 적응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는 청소년의 안녕에 위협이 된다. 무엇보다도 청소년의 빈곤은 낮은 교육과 불안정한 고용 등의 향후 경제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영역으로부터의 박탈이라고 하는 사회적 배제를 초래하게 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청소년 빈곤의 원인은 고용능력의 저하, 낮은 학업 등 자신의 내적 요인에 의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가정의 빈곤이라고 하는 외적인 요인에 연유한다. Hill(1988)이 지적한 바와 같이 빈곤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승되는 생활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에 따르면, 오랜 기간동안 빈곤한 가정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은 낮은 교육수준과 낮은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높고, 향후 성인이 된 이후에 복지에 의존하는 가능성이 빈곤 청소년에 비해서 높다는 것이다. 청소년의 빈곤은 전술한 빈곤의 세대 간 전승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정이나 미혼모의 증가와 같은 가족구조의 관점에서 유효하게 설명된다. Assve et al(2006)가 청소년 빈곤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가족구조를 지적한 것도 최근 한부모가정이나 미혼모가정의 증가에 따

른 청소년 빈곤율의 상승이 현저하기 때문이다. 이들에 따르면, 빈곤의 위험은 가구주가 여성이거나 청소년이거나 한부모일 때 높아진다. 최근 미혼모의 증가로 인해 이들이 출산한 아동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이 우려되는 것도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sup>8)</sup>. 청소년에게 빈곤은 그들에게 장차 성인이 되어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습득하는데 제한을 가져옴으로써 청소년기부터 암울한 미래를 상정한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노혁, 2003:13).

청소년의 빈곤은 가정의 빈곤으로 인한 낮은 열악한 경제적 상황과 함께 노동환경의 변화로 인한 청소년 실업의 증가도 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물론 가정의 빈곤이 청소년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에 틀림없지만 경제상황이 유동적인 오늘날에는 고용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 실업의 문제도 청소년의 빈곤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sup>9)</sup>.

실업의 부정적인 결과는 단지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회라고 하는 더 광범위한 체계에 영향을 미친다. Isengard(2003)의 지적처럼 실업의 증가는 자신의 삶에 대한 개인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통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대 사회에서 노동은 경제적인 삶의 질뿐만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삶의 질과도 결부되어 있다. 특히, 물질적 부가 중시되는 현대 사회에서 독립적인 성인으로서의 이행에 있어 과도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실업은 심각한 공포로 인식된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실업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인적자본에 대한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고 이것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더 많은 교육을 받도록 강제하여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지연시키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계속된 교육은 부모로부터의 독립과정을 지연시키고

8)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미혼모가 출산한 요보호 아동수는 1995년 1,285명에서 2000년 2,938명, 2001년 4,897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9) 지난 30년 동안 광범위한 실업과 청소년 고용은 많은 산업사회에서 주요 문제가 되어왔다.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은 노동과 동시에 실업을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청소년 실업은 교육체계에서 노동시장으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25세 이하의 인구계층의 실업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유럽사회에서 높은 청소년 실업률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중요한 도전을 제공하고 있다. 만약 청소년들이 주요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고 사회보장체계에 의존한다면, 세대간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체제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Harten, 1983:22ff; Isengard, 2003).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연장시킴으로서 가정의 빈곤화를 초래함과 동시에 국가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게 된다. Kiesebach(2000)이 청소년들의 교육의 연장으로 인한 노동시장진입의 지연이 중국적으로는 복지에 의존하게 되는 실업 청소년들의 장기실업자화로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청소년의 실업이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는 이유는 직장이라는 공간이 다양한 접촉과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동료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는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결국 청소년의 실업은 청소년 자신의 경제적인 빈곤과 동시에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단절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어렵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사회적 고립과 배제를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Kronauer(1998)는 사회적 배제가 항상 실업과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청소년의 빈곤과 실업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과 개도국에서 공히 절박한 경제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ILO는 전체 실업인구의 2/5에 해당하는 7천4백만명의 청소년들이 실업자라고 추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실업률은 성인의 실업률에 비해서 거의 두 세배 높게 나타나고 설사 고용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고용된 청소년의 많은 수가 비공식 경제에서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5세에서 17세 사이의 5천9백만명의 청소년들이 위험한 노동시장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속적인 실업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제한된 직업전망, 미숙한 기술과 부족한 교육을 가지고 노동시장에 진입함으로써 장기실업이나 간헐적인 실업의 위험에 빠지거나 노동하는 동안 저임금 고용에 노출됨으로써 청소년들을 사회적 배제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sup>10)</sup>.

청소년의 빈곤과 실업은 단순한 경제적 빈곤을 초래하는 한 요인으로서 그리고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단절로 인한 경제적 박탈을 가져오는 한 요인으

10) Hammer(2003)의 Europe 국가에 대한 2000년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실업률은 16%로 성인실업률인 7%보다도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장기실업이 비율이 4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은 보다 높은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고용이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임금수준도 낮았다. 아울러, 성인들과 비교해서 주거문제와 약물남용 그리고 정신질환의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Aassve et al, 2005)

로서만 의미하지 않는다. 오늘날 경제적 빈곤은 그 자체로서 다양한 사회경제적 제도로부터의 배제를 수반하는 차별과 박탈 그리고 소외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Mayer(1997)의 지적처럼 아동기의 경험하게 되는 빈곤은 그 영향이 학업중퇴나 결혼 노동능력과 소득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큼 다른 시기보다도 더욱 부정적이다. 가정의 빈곤으로 인해 빈곤 청소년들은 일반적인 청소년들이 발달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공통적인 과정들에게 일탈하여 비행이나 범죄, 학업중단, 가출 등의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가정의 빈곤으로 인한 교육으로부터의 일탈은 고용능력의 상실로 인한 저임금과 장기적인 실업으로 이어짐으로써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 자립의 공간인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를 초래하게 된다. 15-24세 청소년 실업자들 중 중졸이하의 저학력 청소년들의 실업률이 13.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실업경향도 이를 방증하고 있다.

이처럼, 빈곤율의 증가로 인해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박탈과 배제도 심화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은 빈곤 청소년의 다차원적인 박탈과 배제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찾기 어렵다. 현재의 정책은 빈곤이라고 하는 경제적 궁핍의 시각에서 절대적 빈곤계층의 청소년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복잡한 공간과 다양한 제도적 영역에서 배제와 소외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빈곤 청소년들의 본질적인 문제가 외면되고 있다. 빈곤은 단순한 경제적 궁핍의 문제를 뛰어넘어 다양한 영역의 차별과 박탈을 유인하는 핵심적인 기제라는 점에서 빈곤의 영향과 결과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안과 대책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본 연구는 빈곤 청소년의 문제를 단순한 경제적 박탈의 관점이 아닌 사회적 배제라고 하는 다차원적인 박탈의 관점에서 빈곤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청소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배제 기구(Social Exclusion Unit:(SEU)를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정책을 평가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영국을 사례로 빈곤 청소년의 다차원적인 박탈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본 연구는 빈곤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결과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배제 기구(Social Exclusion Unit:SEU)를 구성하여 청소년의 구조적인 빈곤문제와 사회적 배제에 대응해 온 영국을 역사적 경험과 결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빈곤 청소년을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1990년대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사회적 배제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연구는 성인 실업자나 여성 등의 인구집단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빈곤이나 사회적 배제에 특히 취약한 집단으로서 청소년이라는 인구집단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크지만 연구영역에서 청소년을 주제로 한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는 극소수인 것이 현실이다. Aassve(2005:13)도 지적하고 있듯, 매우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문헌들이 존재하는 아동빈곤과는 달리 청소년 빈곤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장기실업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분석한 Kieselbach(2003)의 연구를 제외하면 사회적 배제라고 하는 다차원적인 박탈의 문제에 청소년이 개입된 연구는 찾기 힘들다.<sup>11)</sup> 우리나라에서는 노충래 외(2005)의 연구가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를 다루고 있는 논문이기는 하지만 이 논문도 청소년이라고 하는 인구집단의 특징이 갖는 사회적 배제의 다차원적인 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정책적 대안을 생산해 내지는 못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문제를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주기적으로 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빈곤 청소년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빈곤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사회적 배제를 노동, 빈곤, 교육, 주거 및 건강, 사회적 관계 그리고 비행 등 총 6가지 영역으로 범주화하여 관련 실태와 정책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1) Kieselbach는 유럽 6개국(독일, 스웨덴, 벨기에,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의 20세에서 24세의 청소년 300명(각 국가별로 50명)을 면접하여 1년 이상 공식적으로 실업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사회적 배제를 분석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 인식과 관점

#### 1) 사회적 배제의 개념과 정의

지난 10년 동안 사회적 배제는 사회과학에서 가장 자주 논의되는 주제들 중 하나가 되었다. 빈곤(poverty)이나 주변화(marginalization)와 같은 과거의 개념들을 대체하고 있는 사회적 배제는 오늘날 주요한 사회 쟁점 중 하나로 부각하고 있다. 사회적 배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의 중요성과 시대적 적절성으로 인해 사회적 배제는 사회적 권리에 관한 유럽위원회의 기본 문서인 유럽사회헌장(European Social Charter)의 전문에서도 제시되었다. 이 헌장은 1996년 개정을 통해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대한 보호권(the rights to protection against poverty and social exclusion)'이라고 하는 새로운 권리를 도입하였다.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은 2000년 리스본의 정상회담에서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사회정책의 중심에 두고 개별 국가들로 하여금 사회통합을 위한 2년 주기의 국가 행동계획의 수립을 요구하였다. 특히 1990년대 심각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영국에서는 관련 기구(Social Exclusion Unit:SEU)를 설치하여 노숙, 무단결석, 학교로부터의 배제, 10대 임신, 교육받지 않은 청소년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부처 간 조정과 협의를 시도하였다.

Giddens(2000:104)도 지지하고 있듯, 1970년대까지 정책 담론은 주로 빈곤이나 소득의 불평등에 그 초점이 맞추어졌고 이것은 사람 그 자체의 실패를 구체화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즉, 빈곤은 주로 안정적이지 못한 가족구조, 낮은 교육성취, 나태한 노동윤리, 그리고 개인적인 결점 등의 요인에 의한 것으로 설명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배제는 빈곤 그 이상을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정책의 방향을 박탈을 초래하고 유지시키는 사회적 매커니즘으로 전환시켰다.

1990년대 초반 경제환경의 지속적인 악화와 복지국가에 대한 계속된 압박

도 유럽연합의 사회정책이 '빈곤(poverty)'의 개념에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개념으로 전환(Evans, 1998)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특히, 현대 복지국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영구적이고 장기적인 실업과 빈곤, 가족구조의 변화, 복지국가의 쇠퇴 그리고 이주경향의 출현이라고 하는 새롭고 현대적인 빈곤과 연관되어 있다(Ebersold, 1998; Mierendorff, 1998; Klopogge, 1998; Sorensen, 1999). 즉 물질적 박탈의 해결하기 위해 소득의 지원에만 의존하던 과거의 빈곤정책과는 달리 사회적 배제와 관련된 오늘날의 사회정책은 개인적이고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결핍에서 오는 다차원적인 박탈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구상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사회적 배제의 시각에서 빈곤은 물질적 결핍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의 불이익이나 차별과 결부되어 있는 어떠한 '상태'라기보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배제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먼저 Kronauer(1998)는 프랑스 개념과 미국의 하위계급의 개념에 기초하여 사회적 배제의 이론적 정의를 광범위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사회적 배제는 노동시장의 배제, 경제적 배제, 제도적 배제, 사회적 고립, 문화적 배제, 공간적 배제 등의 여섯 가지 형태의 사회적 배제 결합이자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타난다. 노동시장의 배제는 경제적 힘이 상대적으로 미숙련의 기술을 가진 사람의 고용에 장애를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것을 의미하고 경제적 배제는 노동시장의 배제로 인해 초래되는 빈곤이 복지국가에 대한 재정적 의존을 초래하고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제도적 배제는 빈곤자들과 실업자들은 불확실한 생활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의 민간 제도에 접근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sup>12)</sup>.

사회적 배제를 배제가 발생하는 영역별로 분류한 Kronauer(1998)과는 달리

12)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1974년 프랑스의 사회부장관이었던 르네 르느와르(Rene Lenoir)의 저작에서 최초로 발견된다. 그는 자신의 저서인 'Les Exclus, un Francais sur Dix'에서 정신적, 육체적 장애인, 자포자기한 사람들, 장애노인, 학대받는 아동, 약물중독자, 문제가 있는 가정 등을 지칭하여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Subirats(2003)은 사회적 배제제가 가지는 특성과 그 원인에 따라 ① 구조적 요인, ② 역동적 요인, ③ 다면적이고 다차원적인 현상 그리고 ④ 정치적 현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구조적 요인으로서 사회적 배제는 단순한 산업모델의 수직적 불평등의 확대 재생산만을 의미하지 않고 통합의 기본적인 조화가 사라진 사회구조의 붕괴를 의미한다. 사회적 배제의 결과는 내부자(insider)와 외부자(outsider)를 구분하는 새로운 사회적 도식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역동적인 현상으로서 사회적 배제에 대해 Subirats는 사회적 배제는 고정적인 상황이라기보다는 한 가지 이상의 과정이자 일련의 과정들로 정의한다. 즉, 사회적 배제는 예정된 집단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서로 다른 개인과 집단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성역할의 변화라고 하는 맥락에서의 가족붕괴의 위험, 급속한 기술의 변화의 맥락에서 비전문성으로 인한 위험, 변화하는 노동관계의 맥락에서 저임금과 불확실한 직장으로 인한 위험 등은 인간의 생활주기의 매우 서로 다른 지점에서 많은 개인과 집단들을 취약한 영역에 놓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배제의 경계는 가변적이고 유동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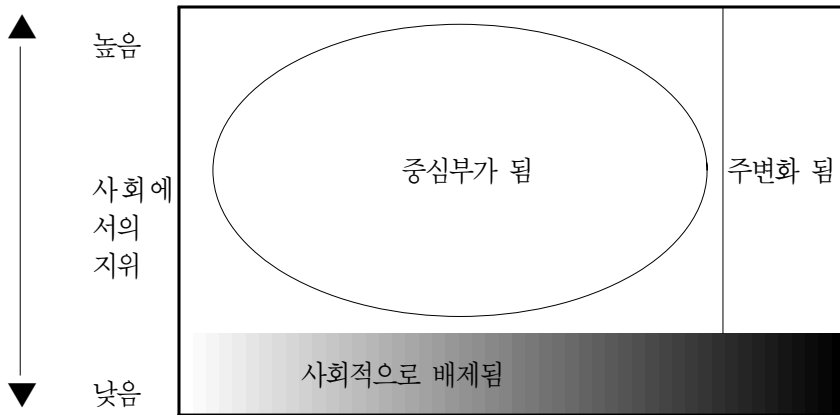
〈표 II-1〉 사회적 배제에 대한 정의

Micklewright (2002)	아동의 배제는 부모, 학교, 고용주, 정부 등 한가지 이상의 다양한 기관들의 행위로 나타난다.
Kronauer(1998)	사회적 배제는 노동시장의 배제, 경제적 배제, 제도적 배제, 사회적 고립, 문화적 배제, 공간적 배제의 결합과 상호작용으로 통해서 나타난다.
Batan(2005)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는 사회계층, 성, 인종/민족 그리고 지역성과 같은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특징적인 사회지표들의 역동적인 구성에 의해서 나타난다.
Lee-Murie et al (1999)	사회적 배제는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네트워크로부터 완전하게 혹은 부분적으로 배제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시민권 사상과 연관된 것이다.
Sen(2000)	사회적 배제는 다차원적 박탈의 상태(a state of multi-deprivation)를 초래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Levitas, et al (2007)	사회적 배제는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과정이다. 그것은 자원, 권리, 서비스의 부족이나 접근의 부정이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치적 영역에 관계없이 모든 영역에서 사회의 다수 사람이 이용하는 정상적인 관계로의 참여에 대한 제약이다. 사회적 배제는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전체로서 사회의 평등과 통합에도 영향을 미친다.
Duffy(2005)	사회적 배제는 빈곤보다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단순한 물질적 수단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정치적/문화적 삶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것까지 포괄하고 소외나 주류사회로부터의 격리의 특성을 가진다.
Social Exclusion Unit	사람이나 공간이 실업, 열악한 기술, 취약한 주거, 높은 범죄의 환경, 취약한 보건 그리고 가족붕괴와 같은 문제들의 결합으로 인해 고통받을 경우에 발생하는 개념이다.
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 (2004)	사회적 배제는 소득빈곤 그 이상을 의미한다. 사회적 배제는 사람이나 영역이 실업, 차별, 열악한 기술, 낮은 소득, 빈곤한 주거, 높은 범죄, 좋지 못한 건강 그리고 가족붕괴와 같은 관련 문제들의 결합에 직면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개념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연관되어 있고 서로 강화시켜주면서 사람들의 삶에 악순환을 만들어 낸다. 빈곤과 사회적 배제는 한세대에서 다음세대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기의 빈곤에 대한 경험과 부모가 학교나 대학을 다니지 못한 경우에는 이 아동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자신들의 삶의 기회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아동의 삶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Micklewright, J. 2002. Social exclusion and children: A European view for a US debate. CASEpaper51 February.

Subirats(2003)가 제시한 사회적 배제의 세 번째 특징은 다면적이고 다차원적인 현상이라는 점이다. 사회적 배제는 단일한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지 않는다. 사회적 배제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수많은 불리한 환경들로 구성된 복합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배제는 사회의 피할 수 없는 운명도 아니다. 따라서 사회적 배제는 가치와 집합적인 행동, 제도적 개입과 공공정책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다. 결국, Subirats에게 사회적 배제는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원인을 가진 불공평한 현상이지만 그것은 해결이 불가능한 불가피한 현상이라기보다는 정책과 제도 그리고 개인의 가치에 의해서 얼마든지 해소가 가능한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덧붙이자면, 사회적 배제는 종종 주변화(marginalised)의 개념과 동일하게 사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사회적 배제와 주변화는 다소 상이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써 이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는 있다.

<그림 II-1> 사회적 배제와 주변화의 차이



Jahnukainen(2001:3)에 따르면, 사회적 배제와 주변화는 일반적으로 주류의 외부를 논의할 때 사용된다. 다만,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심각한 불이익의 과정에 적용되고, 이 같은 과정은 스스로를 배제시키는 개인의 선택보다는 외부의 사회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반면, 주변화의 개념은 반드시 불이익이나 빈곤의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주변화된 사람들은 종교, 사

상, 혹은 문화적 이유로 인해 주류의 사람들과는 다른 생활을 선택한 사람일 수 있다. 때문에 배제된 사람들의 일부는 평안하게 생활하는 매우 건강한 사람일 수 있고,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과 똑같은 문제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Jahnukainen, 2001:3-4). 이처럼, Jahnukainen(2001)은 사회적 배제와 주변화의 개념을 개인의 선택의 여부와 외부적 요인에 따라 그 개념을 구별하고 있다.

<그림 II-1>에서와 같이 사회적 배제는 사회적 지위가 낮을 경우에 발생하는 반면, 주변화는 사회적 지위에 관계 없이 나타난다. 이처럼, Jahnukainen(2001)가 정의한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외적인 요인들에 의한 강제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정책과 제도의 문제를 강조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배제는 개인이 극복해야 할 개별적인 문제가 아닌 제도와 정책이 해소해야 할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사회적 배제는 그것이 발생하는 영역이나 그 원인에 따라 그 개념을 정의하지 않고 사회적 배제에 취약한 인구계층을 중심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특히, 사회적 배제는 빈곤자, 실업자, 청소년과 같은 특정 사회집단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자주 사용된다. 그래서 사회적 배제는 주로 빈곤, 실업, 불평등 혹은 차별의 개념과 관련있다. 배제의 개념을 사용하는 목적은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의 핵심적인 과정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고 자신의 사회적 접촉이 위축되는 사회참여의 문제를 조명하는데 있다. 심화된 사회적 배제의 위기를 경험한 사회집단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범주화될 수 있다.

아래 UN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사회적 배제는 경제적 지위, 가족구조, 정체성, 범죄, 교육, 건강 그리고 장애 유형에 근거하여 나타나고 각각의 배제 유형에 따라 사회적 배제의 집단들이 구체화된다. 가령, 경제적 지위에 기초한 배제 집단에는 빈곤자, 실업자, 노숙자, 가정부, 이주자 등이 해당되고 연령에 기초한 배제집단에는 청소년과 노인 등이 해당된다.

〈표 II -2〉 사회적 배제 집단

경제적 지위로 기초한 배제	빈곤자, 실업자(특히, 장기실업자), 노숙자, 가정부, 복귀자, 국내추방자, 이주자
가족구조에 기초한 배제	독신가구, 한부모 가정, 부모의 보호가 없는 아동, 세자녀이상을 둔 부부
정치성에 기초한 배제	민족적/인종적/종교적 소수자들, 성적소수자들, 대안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예: Punk)
연령에 기초한 배제	15-29세의 청소년 65세 이상의 노인과 연금생활자
범죄행위에 기초한 배제	수형자, 전과자, 비행청소년, 폭력희생자
교육에 기초한 배제	무학력 혹은 저학력을 가진 사람
건강에 기초한 배제	특별한 욕구를 가진 사람,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 HIV/AIDS, C형간염을 가진 사람,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중독과 같은 의존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
장애유형에 기초한 배제	신체장애나 감각기관과 관련된 장애를 가진 사람 정신상 어려움이나 지적 어려움을 가진 사람

출처: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2006. Poverty, unemployment and social exclusion. p12

또한, 사회적 배제를 배제가 형성되고 재생산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분류하지 않고 배제의 깊이나 정도에 따라 그 개념을 정의하는 일부의 시각도 존재한다. Miliband(2006)는 사회적 배제를 광범위한 배제(wide exclusion), 깊은 배제(deep exclusion), 그리고 집중된 배제(concentrated exclusion)를 분류하여 정의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광범위한 배제는 다수의 사람들이 한 가지 이상의 지표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의미하고, 깊은 배제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부분들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의미한다. 집중된 배제는 문제나 배제의 지리적인 집중을 의미한다(UK Cabinet Office). 결국,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빈곤의 문제를 단지 소득과 재산의 박탈이라고 하는 물질적 분배의 상태로 보지 않고 빈곤을 보다 종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차원에서 파악하고자 한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즉, 빈곤은 물질적 결핍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차원의

불이익이나 차별, 분리나 격리 등과도 연결되어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배제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무엇보다도 강조되어야 할 점은 사회적 배제의 개념과 정의가 특수한 이데올로기적 입장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는 점이다. Minujin도 지적하고 있듯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이해는 시대와 공간에 따라 다양하다. 즉, 사회적 배제는 이데올로기적 입장과 관점에 따라 그 원인과 국가의 역할 그리고 정책의 방향이 차별화된다는 점이다(Eschborn, 2000). Silver(1994)와 여러 학자들은(Cousins, 1999; Williams, 1998; Haan, 1998)은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적 관점이 반영된 사회적 배제의 모델을 제시하여 각각의 이데올로기가 지향하는 사회적 배제의 의미와 그 의미에 따른 국가의 정책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표Ⅱ-3> 세 가지 형태의 사회적 배제 패러다임

패러다임/ 이념적 토대	배제의 원인	국가의 역할	국가	정책의 예
분화 (신자유주의)	차별, 시장의 실패 실행되지 않는 권리	권리의 실행 자조의 촉진	영국 미국	동등 기회법 복지와 노동의 연계 프로그램
통합 (사회민주주의)	통합의 불충분 사회적 토대와 사회적 연대의 붕괴	재분배, 사회적·정치적 권리	프랑스	최저임금프로그램,
독점 (변화)	계급의 상호작용, 통합된 지위와 권력에 의한 배제된 지위와 권력의 주변화	시민권의 실현	스웨덴	프로그램에 대한 보편적 접근

Silver. 1994. social exclusion and social solidarity; Three paradigm. ILS Discussion papers no 69. ILO, Geneva

Silver에 따르면, 사회적 배제는 분화, 통합, 독점의 패러다임에 따라 다양한 각도로 설명된다. 먼저, 전문화 패러다임에 따르면, 사회적 배제는 차별과 시장의 실패 그리고 권리의 미실현 등이 그 원인이기 때문에 국가는 권

리를 실현하고 시장의 자유와 함께 개인들의 자조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배제에 대한 분화의 입장을 견지한 국가로는 영국과 미국이 그 예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통합의 패러다임은 배제의 원인이 사회의 연대의 붕괴와 사회통합의 부족에 있다고 보고 국가는 자원과 권력을 재분배하고 사회권과 정치권의 실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배제에 대한 통합의 패러다임을 지향하는 국가로 프랑스를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독점의 패러다임은 배제의 원인에 계급과 력의 역할을 강조한다. 때문에 국가는 모든 국민들의 시민권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 된다고 본다. 여기에 해당하는 국가로는 스웨덴을 제시하고 있다.<sup>13)</sup>

이 같은 Silver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분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사회적 배제가 국가와 이데올로기적 지향에 따라 그 의미가 다양하다는 점이고,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의미의 다양성은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과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199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 이후 노동빈곤층의 확대, 사회양극화의 심화 등에 대한 규명을 수행하면서 최근의 빈곤 양상이 과거와는 구조적으로 다른 신빈곤(new poverty)이라 규정하는 연구가 확대되었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 배제의 개념이 함께 사용되기 시작했다. 신빈곤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연구자들은 노동빈곤층의 확대와 사회양극화의 심화의 이면에는 각종 사회적 요인들이 경제적 요인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제기한다. 이에 따라 신빈곤을 제기하는 연구자들의 상당수는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노대명, 2002a; 신명호 외, 2003; 장세훈, 2003; 정원호, 2003; 신명호, 2004; 남기철 외, 2005; 김정원 2007:22 재인용)

13) Silver(1994)는 Kuhn(1970)의 패러다임론에 기초하여 사회적 배제의 패러다임을 연대, 분화, 독점 세가지로 나누고 이들 각 패러다임은 서로 다른 정치철학(즉 공화주의, 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Silver의 표현에 의하면, 각 패러다임은 경제적·사회적·정치적·문화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사회적 불의의 형태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며 빈곤 및 장기실업뿐만 아니라 시민권과 인종적, 민족적 불평등 이론들 까지 포함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문진영, 2004, 261).

## 2) 사회적 배제의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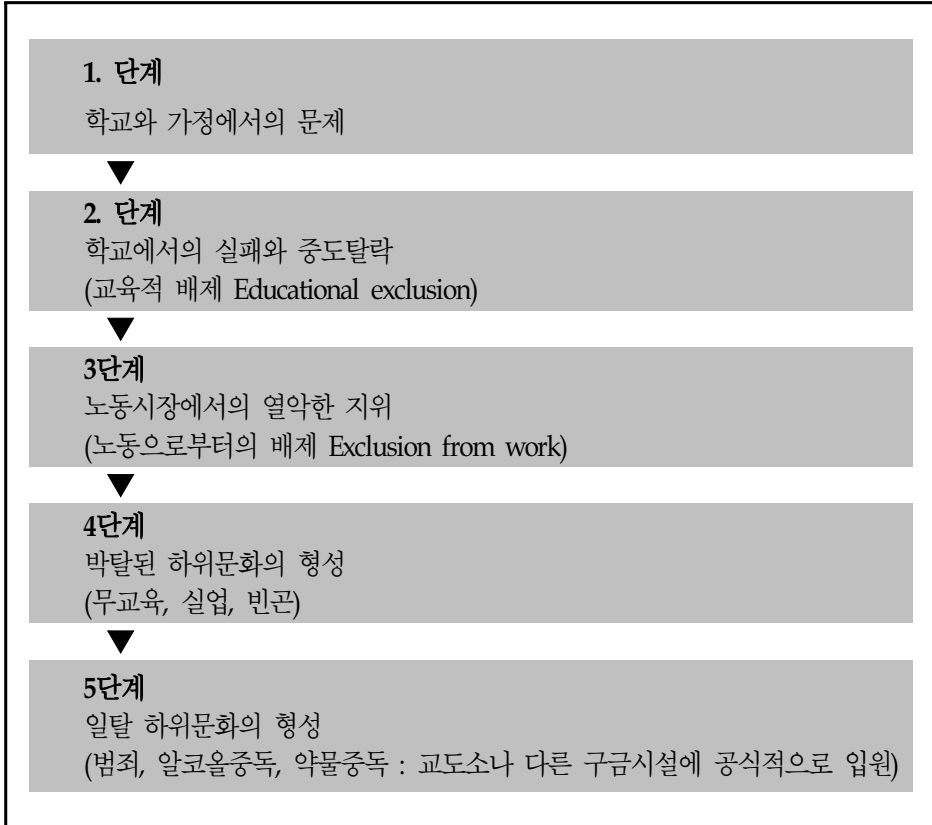
Jahnukainen(2001:2)는 <그림 II-2>과 같이 사회적 배제의 과정을 계층적 모델이자 점증적 모델로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사회적 배제의 첫 번째 단계는 학교,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문제로 나타난다. 이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두 번째 단계에서 학업의 실패와 중도탈락이라고 하는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이 단계가 소위 교육적 배제(educational exclusion)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교육의 부족은 세 번째 단계인 실업 그리고 실업으로 인한 노동생활로부터의 배제를 초래하게 된다. 네 번째 단계는 다섯 번째 단계를 초래하는 무교육, 실업, 그리고 빈곤의 단계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는 범죄, 약물이나 알코올중독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된 단계로서 그 결과는 교도소나 정신병원 혹은 치료감호소의 복역이나 입원으로 나타난다. Jahnukainen(2001:2)는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를 총체적인 사회적 배제의 단계로 명명하고 있다.

이 같은 계층적 모델은 이론적 수준에서 과정에 대한 사고를 제시해주고 있다. 개인적인 생활과정을 보면, 빈곤한 지역의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동에게서 이 같은 단계를 분명하게 볼 수 있고 동시에 사회적 배제가 진행되는 과정은 환경과 문화가 다른 어떤 가능성을 제공해주지 못함으로써 급속하게 발생하고 다른 단계들이 가속화된다.

Jahnukainen(2001)의 도식은 사회적 배제의 출발점으로서 학교와 가정을 제시했다는 점, 학업의 실패가 노동시장의 열악한 지위로 이어지는 고용능력의 저하를 초래한다는 점, 그리고 사회적 배제가 하위문화 형성을 통해 비행과 범죄로 결과하라는 점을 위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Jahnukainen은 사회적 배제의 출발점으로서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Klasen(1998)도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교육은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때문에 교육에 대한 접근은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권리로서 그리고 사회로의 참여에 필요한 한 과정으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교육으로부터의 배제는 결국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협하는 권리의 침해이자 사회

로의 참여를 제한하는 배제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II -2> 사회적 배제의 과정



출처: Jahnukainen, 2001. Social exclusion and dropping out of education. Emotional and behavioral difficulties in mainstream schools, vol1. p1-12.

### 3) 청소년과 사회적 배제의 관계

Eliadis(2004)의 적절한 지적처럼, 빈곤과 사회적 배제는 경제적·사회적 삶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없고 시민권의 혜택을 향유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또한 사회적 배제는 재정적 지원과 다른 자원들(개인, 가족, 사회, 문화)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사회적으

로 배제된 사람들은 일반적인 생활기준에 따른 혜택이나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없다.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를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한 논점은 바로 청소년들이 어느 성인들처럼 경제적·사회적 삶에 완전하게 참여하고 있고 그에 수반된 시민적 권리를 향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은 연령을 이유로 혹은 가정의 소득을 이유로 경제적·사회적 삶으로의 참여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청소년들의 사회적 배제를 설명하는 주요 논리를 제공한다.

사회적 부분이자 사회적 범주로서 청소년(youth)은 사회적 불평등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특정 연령집단이다. Wyn과 White(1997:5)는 청소년의 다양한 특성이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사회적·정치적 과정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때문에 일부 청소년들이 어떻게 배제되고 어떻게 주변화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성장과정에 대한 분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Batan(2005:2)은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가 사회계급, 성, 인종/민족, 그리고 지역과 같은 인간의 삶의 중요한 사회지표들의 역동적인 구성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보고 이 같은 여러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이 다양한 수준과 형태의 불평등과 상호작용하는 청소년들을 독창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Batan(2005:3)은 사회계급이 여전히 청소년의 사회적 삶에 있어 가장 설득력있는 지표라는 점을 강조하다.

〈표 II-4〉 성인기로의 변화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학교	대학이나 훈련체계	노동시장
부모의 집	동료와의 생활이나 독립적인 생활과 같은 중간적인 가정	독립적인 가정
가족내의 아동	한부모나 동거인등의 중간적인 지위	부부 혹은 부모
보다 안정적인 주거	청소년 주거시장으로의 변화	보다 안정적인 주거
용돈(pocket money) income	자신의 일정소득이나 부모의 소득	완전한 어른 소득
경제적인 의존	절반정도의 경제적 의존	경제적 독립

Jones. 2002. The youth divide diverging paths to adulthood. Jeseoph Rowntree Foundation.

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2004)도 지적하고 있듯, 사회적 배제는 특정 시점에서 더욱 취약할 수 있다. 즉, 중요한 전환기(transition points)라고 할 수 있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이나 부모가 되는 시기, 이혼이나 관계의 단절 이후, 혹은 은퇴 등의 시점에 놓인 인구계층이 사회적 배제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Bynner et al(2002)는 청소년이라고 하는 시기와 사회적 배제와의 관련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청소년이라고 하는 시기는 매순간 신속하고 역동적인 개인적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삶의 단계이고 이 같은 특징이 청소년들에게 특히 위험에 취약한 원인을 제공해 준다. 16세에서 18세까지의 시기는 중요한 발달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동안 청소년들의 경험은 향후 성인의 삶의 질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 시기에 교육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노동시장에 진입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Bynner et al., 2002).

이처럼, 청소년이 사회적 배제에 취약한 원인에 대한 대부분의 이론들은 청소년이 가족으로부터의 보호라고 하는 아동기와 경제적 자립이라고 하는 성인기의 중간에 위치하는 불안정한 과도기적 시기에 주목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경제적 자립을 통한 성인기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하지만 실업이나 빈곤과 같은 노동시장 요인이나 가족요인에 의해서 늘상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은 성인들에 비해서는 연령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도 높아 노동시장의 진입이 어렵고 설사 노동시장에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해 사회적 배제의 위험이 상시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Batan(2005)은 Bradley(1996)가 개념화한 사회적 역동의 상호작용(interacting social dynamics)이라는 개념을 차용하여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를 설명하고 있다. Bradley(1996)는 자신의 저서인 ‘Factured identities: changeing patterns of inequality’에서 사회불평등의 네 가지 차원들 간에 서로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역동들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사회적 불평등의 네 가지 차원에는 사회

계급, 성, 인종/민족, 그리고 연령이다. Bradley(1996)는 비록 각각의 차원들이 각자의 논리에 따른 특징적인 일련의 관계로 분석될 수 있지만, 이들 각 차원들이 사회적 관계를 구체화하는데 있어서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같은 Bradley의 사회적 역동의 상호작용이라는 개념은 Batan에 의해서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사회학적 관점을 제공해주는 개념적 도구이자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회불평등의 차원들을 밝혀내는 개념적 도구로 활용된다. 즉, 사회적 역동의 상호작용의 개념은 주변화된 청소년과 사회적으로 배제된 청소년들이 어떻게 사회문제로 범주화되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관계적이고 역동적인 불평등의 차원들을 검토함으로써 일부 청소년 집단들을 주변화하는데 개입하고 형성하며 조정하는 사회구조의 특성을 분석의 중심에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진다는 것이다.

사회적 역동의 상호작용은 단지 특정 청소년들이 어떻게 배제되고 주변화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방식들을 구체화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힘이 어떻게 청소년의 사회적 공간을 조건화하는지를 구체화한다(Batan, 2005:6)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가 사회계급, 성, 인종/민족 그리고 연령이라고 하는 사회적 역동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재생산된다는 Batan(2005)의 주장과 유사하게 Subirats(2003)도 사회적 배제와 관련된 영역을 성, 연령, 민족집단 그리고 사회계급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그림 II -3> 사회적 배제에 취약한 영역, 환경, 집단

CIE	배제의 요인이 작용되는 영역							
	노동의 배제	교육적 배제	사회-보건의 배제	도시-지리적 배제	가족-개인간 배제	정치적 / 시민적 배제	형벌적 배제	
성								
연령		사회적 배제의 과정에 매우 취약한 집단						
민족집단								
사회계급								

주1: CIE는 사회적 배제를 강화시키는 환경(Circumstances Intensifying Social Exclusion).

자료: Subirats. 2003. Some reflections on social exclusion and public policy response: a perspective from Spain.

Subirats(2003)는 다양한 공간이나 영역에서 작동되는 배제의 다양한 요인들과 배제의 위험을 강화시키는 환경으로서 서로 다른 구조적 요인들을 교차시킨 틀을 <그림 II-3>과 같이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배제가 발생하는 주요 영역은 노동, 교육, 사회보건, 도시공간, 가족/관계, 정치와 형벌 등이다. 그리고 이 같은 배제의 위험을 강화시키는 구조적 요인들로는 성(gender), 연령(age), 민족적 기원(ethnic origin) 그리고 사회계급 등이 있다. Subirats(2003)에 따르면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는 주로 연령에 따른 사회적 배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부모의 성이나 민족적 기원에 따른 빈곤과 사회적 배제도 청소년을 사회적으로 배제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2004)도 빈곤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아동이나 지역의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은 청소년, 10대의 부모와 미혼모 등 특정 인구집단이 다른 여타의 집단들보다도 사회적 배제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다양한 위험의 범주에 노출된 사람들이 단 한가지의 위험에만 노출된 사람들보다는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2004)에 따르면, 청소년과 아동은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서 사회적 배제에 취약한 인구집단이고 빈곤이나 임신, 출산 교육이나 훈련의 부족과 같은 다양한 위기에 노출된 청소년과 아동은 사회적 배제의 위험이 더욱 가중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적 배경(social background)도 개인들이 직면하게 되는 사회적 배제의 중요한 위험요인이다. 예를 들어, 아동의 빈곤이나 10대 미혼모들은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이 된다. 그러나 특정 형태의 위험은 신체적인 질환이나 정신적인 질환의 발병, 사별, 가족붕괴나 외상, 삶의 특정 단계에서의 전환기에서의 어려움 등과 같은 삶의 사건(life events)에 의해서 촉발될 수 있다. 이 같은 전환기의 위험은 인간의 삶 전체에서 나타날 수 있다. 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2004:27)는 삶의 전환기에 나타는 사회적 배제의 위험요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II-5〉 삶의 전환기와 위험요인

전환기	위험 요인
아동과 청소년기	가족붕괴와 가족의 재형성, 학교 입학,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진학, 부모의 고용변화, 졸업, 분가
노동연령대의 성인기	청소년기에 부모가 되거나 한부모(lone parent)가 되는 것, 노동시장으로 진입과 실업, 이혼이나 관계의 단절
노년기	퇴직, 독립적인 생활에서 의존적인 삶으로의 전환, 사별

자료 : 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 2004. Breaking the cycle taking stock of progress and priorities for the future. Social exclusion unit.

사회적 배경과 위험한 전환기에 덧붙여, 몇 가지 개인적인 위험요인들도 사회적 배제의 위험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불충분한 양육은 자동차 사고, 무단결석, 학교에서의 배제, 학력미달, 가출과 정신질환 등과 같이 아동과 청소년들의 많은 좋지 못한 경험들과 관련되어 있다. 부모의 부족한 지지와 지도도 아동의 감정적이고 행동적인 문제를 가중시킨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은 다른 청소년들보다도 사회적 배제

의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2004)는 사회적 배제를 세대간 대물림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이 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가 사람이 자신의 삶의 과정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결과로서 출생과 동시에 나타나는 불이익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즉 빈곤과 배제는 한세대에서 다음세대로 이어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아동기의 빈곤에 대한 경험과 부모가 학교나 대학을 다니지 못한 경우에는 이 아동들이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전술한 경험들이 자신들의 삶의 기회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결국, 부모의 빈곤과 낮은 학력이 아동과 청소년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되물림하는 사회적 배제의 세대간 이전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표 II -6>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의 원인과 내용

저자	배제원인	배제의 내용
Micklew right (2002)	부모	부모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가구소득의 빈곤을 초래하여 아동의 사회적 배제의 주요한 잠재적 행위자이다.
	학교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청소년들을 배제시킬 수 있다.
	고용주	고용주의 단기주의(short-termism) 공장이 일자리창출에 대한 투자를 제한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노동시장의 배제를 초래하게 된다. 단기주의는 청소년들을 직업훈련으로부터 배제시키고 임시직의 햄버거 배달 직업의 확산을 초래하게 된다.
	정부	정부는 교육, 보건의료 등의 공공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를 가져올 수 있다.
	자신	약물중독, 학교 중퇴 등으로 인해 청소년 자신이 스스로를 배제시킬 수 있다.
Toronto communi ty and neighbo urhood services	경제	낮은 기술, 저임금노동, 반복실업 혹은 영구적인 실업, 소비능력의 부재, 부채
	지역사회	낮은 시민의식과 시민참여, 제한된 사회적 연결망과 공동체 생활
	주관적	자신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낌으로 나타나는 무기력과 무력감
	공간적	열악한 대중교통과 열악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사회로 대표되는 저임금 계층들의 도시공간에서 나타난다.

저자	배제원인	배제의 내용
Evans & Deluca	아동	장애/무능력이 사회적 배제에 대한 근본적인 관계를 가속화시킨다는 점에서, 장애/무능력은 다른 위험요인들을 초래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열악한 식단, 시각을 자극하는 기술의 부족한 이해, 그리고 열악한 단어, 독해, 셈계산 능력도 여기에 해당한다.
	경제	물질적인 위험요인은 위협한 개인적 특성을 만들어내는 생물학적 위험들과 서로 사용작용하는 많은 개인적인 위험요인들의 이면에 놓여있다. 빈곤한 생활조건, 열악한 조건의 임차주거, 과밀주거, 낮은 가족수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부모	부모의 낮은 교육수준, 부모의 이해와 지지의 부족, 가족들내의 열악한 관계, 특별히 부모와 자녀간의 열악한 관계, 아동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부족, 가족붕괴, 양육자의 빈번한 교체와 부모의 부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많은 부모문제들은 부모 자신의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 나타난다.
	학교	취학전 준비의 부재, 학력별 학습의 부족, 보충교육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Kieselbach et al (2006:9)	낮은 자격요건	청소년들의 낮은 수준의 자격과 직업 훈련은 사회적 배제의 위험을 가중시킨다.
	불안정한 재정상황	가족과 국가의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은 사회적 배제의 위험에 더많은 노출된다.
	낮은 사회적 지지	낮은 사회적 지지는 높은 사회적 배제의 위험을 초래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다.
	낮은 제도적 지원	열악한 사회안전망과 낮은 복지소득지원, 그리고 직업훈련과 구직활동에 대한 불충분한 제도적 지원이 청소년들의 사회적 배제를 초래한다.
	개인적 요인	낮은 자존감, 열악한 정신건강이 사회적 배제의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
Brown (2002)	가족	부모의 열악한 지도, 가족갈등, 문제행동을 가진 가족력, 문제행동을 용서하는 부모의 개입과 태도, 낮은 소득과 열악한 주거
	학교	초등학교 초기의 낮은 성취, 공격적 행동, 결석을 포함한 노력의 결핍, 학교붕괴
	지역사회	열악한 지역사회, 지역사회의 해체와 방임, 약물의 사용,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의 부족과 높은 이동
	개인, 친구 동료	소외와 사회적 노력의 부족, 문제행동을 용인하는 태도, 문제행동에 대한 초기개입, 문제행동에 연루된 친구

저자	배제원인	배제의 내용
Klasen (1998)	경제적 요인	경제적 취약성을 가져오는 실업, 주거와 음식, 안정과 계층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저소득
	사회적 요인	가족요인(한부모가정), 사회심리적/경제적 조정 지역사회의 서비스 이용(교육, 교통, 안전)
	태생/ 배경요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다양한 장벽 새로운 이주민들의 언어적 문화적 장벽
	사회/ 정치요인	편견과 차별

Burchardt et al(1999)는 사회적 배제를 초래하는 원인을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개인과 개인이 경험하는 특정 사건 그리고 생활하고 있는 지역 혹은 공간의 특성과 사회/시민/정치 제도 등의 요인들이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이들이 제시한 각 영역별 요인들을 보면, 개인적 요인들로는 교육수준을 제시하고 있고 개인적인 생활과정에서의 특정 사건에는 실업이나 관계의 단절 같은 요인들을 예로 제시하고 있다. 생활공간의 특징에는 생활하고 있는 지역의 물리적 환경이나 교통연결망 등을 예시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사회의 사회/시민/정치제도 요인으로는 인종차별이나 복지국가 등을 그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Klasen(1998)은 사회적 배제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네 가지 영역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실업이나 저소득과 같은 경제적 요인, 가족요인, 사회심리적/경제적 적응, 지역사회 서비스의 이용과 같은 사회적 요인, 장애나 이주민들의 다양한 장벽 등과 같은 태생적 혹은 배경적 요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견과 차별 등의 사회/정치적 요인 등이 사회적 배제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에 해당한다.

기에 아동을 공장직공으로 유용하게 이용하면서도 그에 따른 급여는 아동이라는 이유로 매우 적게 지급한 사례가 있듯, 이러한 청소년 착취의 역사는 깊다. 환경적인 요소들이 이러한 청소년 특유의 취약성을 부각시키는 경

우도 있다. 흔히 말하는 유해환경이 바로 그것으로 청소년들의 지위비행을 부추기는 환경이나 성/노동 착취를 유발하는 조건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청소년들은 완전한 성인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입장이기애 이러한 청소년의 발달권(혹은 학습권)을 방해하는 요소들 역시 보호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 2. 빈곤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 1) 청소년 빈곤의 원인과 과정<sup>14)</sup>

빈곤은 사회적 차별과 취약, 그리고 배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상황 중 하나이다. Bhalla와 Lapeyre(1997)에 따르면 사회적 배제는 경제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을 뛰어넘어 국가와 사회에 대한 개인의 관계를 결정하는 시민권(civil rights)과 시민(chizenship)이라고 하는 정치적 범위를 포함한다. 때문에 여기서 빈곤의 개념은 취약성이나 사회적 배제의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 취약성의 개념이 불이익의 점진적인 누적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사회적 배제는 박탈이라고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 배제는 보건서비스나 쉼터, 교육과 같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제한을 의미할 때 사용된다.

과거에 청소년들은 다른 아동이나 노인 등 다른 연령계층에 있는 집단들 보다는 빈곤에 상대적으로 취약하지 않다는 인식이 강했다. Rowntree의 York

---

14) 청소년(youth)에 대한 유일한 명료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청소년 빈곤(youth poverty)은 어려운 쟁점 중 하나이다. 청소년은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에 위치하는 특정 인구집단으로 구성되지만 청소년은 아동(children)이나 노인(elderly)로 정의되는 것과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생활주기에 따라 정의되지 않는다. UN은 청소년을 15세에서 24세 연령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EU도 UN의 정의를 따르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01). 영국의 Economic and Social Research의 청소년, 시민권 그리고 사회적 변화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정의를 15세에서 25세로 정의하고 있다(Catan, 2004). 그리고 Joseph Rowntree Foundation의 청소년 프로그램에서는 청소년을 16-25세의 연령대에 있는 사람으로 파악하고 있다(Jones, 2002). 한편,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15세에서 29세의 인구집단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for Jordan, in 2000).

시에 대한 빈곤연구에서처럼, 삶의 주기에 있어 빈곤이라고 하는 사회적 위험은 아동기와 노년기에 특히 취약하고 청소년기는 앞선 두 시기보다는 보다 덜 취약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청소년기가 아동이나 노년기보다도 빈곤의 위험에 대한 취약성의 정도가 더 낮은 이유는 청소년들이 경제적으로 생산적일뿐만 아니라 부모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Aassve et al(2005:1)는 최근 여러 이유로 인해 청소년들이 과거처럼 생활주기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단계가 더 이상 아니라고 주장한다. Aassve et al(2005)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청소년들이 더 높은 교육에 참여하는 경향이 증가함으로써 자신의 근로소득 없이 더 오랫동안 국가나 가정의 재정적인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 10년 동안 청소년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해 노동시장에 진입할 시기에 직업이 없이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저임금과 불완전한 고용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sup>15)</sup>

무엇보다도 청소년의 빈곤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들은 주로 노동시장요인이나 인적 자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실업이나 낮은 임금 그리고 불완전한 고용 등의 노동시장요인과 낮은 교육수준 등의 인적자본이 청소년들의 빈곤의 원인을 설명하는 주요 논거로 활용된다. Sanchez와 Prats(1999)는 다양한 국가의 사례를 예시하면서 청소년의 빈곤화 경향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 
- 15) 청소년들의 빈곤과 관련된 요인들은 다른 인구계층, 특히 아동의 빈곤요인들보다도 더욱 복합적인데, 그 이유는 청소년들의 소득이 아동의 소득보다는 더욱 가변적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생활이 가정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아동들과는 달리 청소년들은 교육을 받고 있을 수 있고, 직장에서 일을 할 수도 있으며, 실업상태에 있을 수도 있다. 심지어 일부 청소년들은 아동들을 양육하고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청소년들의 생활은 아동의 생활보다도 더욱 다양하다. 많은 청소년들이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고, 집을 떠나거나 혼자서 생활할 수도 있다. 그리고 애인이나 친구들과 함께 생활할 수도 있다. 일부 청소년들은 애인과 함께 혹은 애인없이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생활할 수도 있다. 비록, 이들의 존재가 가정의 재정에 부담을 줌으로써 가정 전체를 빈곤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소득이 없거나 낮은 소득을 가진 청소년들에게는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빈곤을 예방할 수 있다. 소득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은 비록 가족들과 따로 생활한다고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빈곤의 위험성이 더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소득이 있는 청소년들이 가족과 함께 생활한다면, 가정의 평균소득을 더욱 높임으로써 청소년들은 가족들에게 어떤 자원으로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Canto-Sanchez & Mercader-Prats, 1999; Aassve et al.,2005:7 재인용)

들 따르면, 학교 졸업생이 맨 처음 일을 하게 되는 직장은 국가와 교육수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스페인의 경우 대다수의 졸업생들이 정규직을 찾지 못해 졸업생의 80%이상이 임시직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학교를 바로 졸업한 청소년의 경우 낮은 학력과 자격으로 인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빈곤과 사회적 배제가 이어진다는 것이다. Pavis et al(2000)의 연구에서는 교육이 청소년의 빈곤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이들은 청소년들이 직장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교육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은 여전히 낮은 임금의 열악한 고용에 노출되기 때문에 직장을 얻는 것만이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한다.

청소년들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인적자본과 노동시장 요인들 만큼이나 생활조건 역시 중요한 요인이 된다. 여성이 가구주이거나, 청소년인 경우 그리고 한부모이거나 기본교육을 마치지 못한 부모의 가정은 빈곤의 위험이 더욱 높아진다. 뿐만 아니라 성인이 실업상태에 있는 가정도 빈곤의 위험이 높다(OECD, 2001).

Mejer(200)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에게서 저소득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영국에서 10대 한부모들이 가장 높은 빈곤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Smeeding et al(1999) 그리고 Berthoud와 Robson(2003)의 연구에서도 대부분의 앵글로 색슨국가에서 한부모가정이 청소년을 빈곤의 위험에 빠뜨리는 가정 위험한 요인임이 지적되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10대 미혼모들이 20대에 아이를 가졌던 여성들보다도 노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았고 5분위의 소득분포에서 최하위에 위치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10대 부모들에 대한 이 같은 결과는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지만 많은 조사에서 10대 미혼모들은 상당히 불이익한 위치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Moore(2005)는 청소년의 빈곤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활주기(life-course)의 빈곤, 만성적인 빈곤, 그리고 세대간 빈곤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Moore는 ‘생활주기의 빈곤’이나 ‘만성적 빈

관'의 관점 서로 다른 빈곤집단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유용하다고 본다. 그는 생활주기(life-course)의 빈곤을 분석함으로써 특별한 삶의 단계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빈곤의 취약성을 구조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생활주기에 따른 빈곤은 가정에서 직장으로, 경제적 의존에서 경제적 자립과 독립으로의 인생의 전환점에 위치한 청소년들의 빈곤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Moore는 빈곤한 청소년들이 부모의 빈곤과 아동기의 박탈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세대간 관점을 통해서 청소년의 빈곤을 파악할 것을 강조한다.<sup>16)</sup> 특히, Moore(2005)는 만성적 빈곤을 유지시키는 요인들과 그 요인들이 청소년들에게 시사하는 함의를 <표 II-7>에서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

<표 II-7> 만성적 빈곤을 지속시키고 가속화시키는 핵심적 원인

만성적 빈곤의 핵심적인 유지원	청소년에게 시사하는 함의의 예
전무한 혹은 열악한 경제성장은 빈곤한 사람들이 자신의 소득을 늘리고 자산을 축적할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한 혹은 열악한 성장에 따른 고용 효과는 청소년에게서 극단적으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청소년의 실업은 25세 이상의 성인에 비해 2배에서 4배 이상이다(ILO, 2004). 이것은 불리한 청소년들의 실제로 혹은 인식된 낮은 기술수준을 반영한 것이고 보다 제한적인 사회적 네트워크를 반영한 것이다(CHIP, 2004). 좌절, 실망, 절망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적절하고 생산적인 노동을 발견하지 못하고 유지할 수 없게 할 있고, 청소년들의 안정감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무장집단이나 조직화된 범죄 집단에 가입되도록 하는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16) Moore(2005)의 ‘만성적 빈곤’, ‘생활주기빈곤’ 그리고 ‘세대간 빈곤’이라고 하는 관점이 청소년의 빈곤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이유로는 대부분의 청소년 빈곤이 아동기의 빈곤에 연유하고 있고 이 같은 아동기의 빈곤이 청소년 빈곤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즉, 이 같은 접근에 따르면, 청소년이 경험한 빈곤은 종종 아동기의 박탈과 부모의 빈곤과 연관되어 있다. 기성세대는 현세대가 필요로 하는 자산을 제공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청소년의 시기에 직면하게 되는 도전들을 효과적으로 충족할 수 없게 된다. Moore에 따르면, 이러한 도전들은 구조적인 것일 수 있고, 개인적인 것일 수 있다. 두 번째로 아동기의 빈곤이나 노년기의 빈곤처럼, 청소년기의 빈곤은 개인의 생활과정 전반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활과정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많은 경우, 빈곤한 청소년에게서 태어난 아동들은 빈곤이 영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p>사회적 배제와 적대적 결합(adverse incorporation)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차별과 낙인을 경험한 사람들로 하여금 열악한 임금, 불안정한 노동, 낮은 자산, 사회적 보호에의 최소한의 접근 등을 지속시키는 경제활동이나 사회적 관계에 강제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p>	<p>많은 맥락에서, 청소년들은 차별 특히 노동시장에서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성이나, 장애, 민족에 기초한 다른 형태의 차별에 직면한 청소년들은 특히 더욱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p> <p>만약 청소년들이 자신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면, 청소년들은 가정이나 지역사회의 정치적·사회적 자산에만 의존하게 될 것이다. 허약하고 해로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긍정적인 사회경제적 관계를 형성할 능력을 제약받게 된다.</p>
<p>열악한 지역과 농촌지역의 부족한 자연자원들과 설비 그리고 기초적인 서비스는 경제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적 배제와 정치적 주변화는 '불이익의 정체(logjams of disadvantage)'를 초래한다.</p>	<p>청소년들은 특히 동떨어지고 주변화 된 혹은 정체적 지역을 벗어나는 길을 선택하고 일부의 청소년들은 도시이주민들처럼 보다 나은 삶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열악한 기술과 사회적 네트워크, 민족적·언어적 소수자들의 결속력 그리고 부족한 정보의 접근은 많은 청소년들의 도시 생활을 위협한다.</p> <p>실망과 좌절은 이주를 할 수 없는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성과 질병, 장애로 인해 가족의 책임과 극단적인 박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뿐만아니라 청소년들의 안정감을 저해하고 무장집단이나 조직화된 범죄로 유입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p>
<p>특히 아동기 동안의 높고 영구적인 능력의 박탈은 영양상태를 열악하게 하고 질병을 치료하지 못하게 하며, 교육에 대한 접근을 제약한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인간의 발달을 저해한다.</p>	<p>아동기와 청소년기 동안의 건강과 영향의 부족은 임신여성이 더 높은 모성의 위험을 가지고 있고 아동의 질병과 사망률의 위험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위험이 초기의 양육과 결합이 된다. 2004년에만 개도국의 신생아의 17%가 15세에서 19세사이의 여성에게서 태어났고 더 큰 질병상태에 있었다.</p> <p>질병을 가지고 있고 열악한 교육을 받은 아동들은 더욱 제한된 학습능력과 노동능력을 청소년으로 성장한다.</p>

Moore, 2005. Thinking about youth poverty through the lenses chronic poverty, life-course poverty and intergenerational poverty. CPRC Working Paper 57. 재구성.

UN의 세계청소년보고서를 인용한 Moore(2005)의 주장을 요약해 보면, 청소년의 만성적 빈곤을 유지하고 가속화시키는 핵심적인 요인으로는 열악한 경제성장, 차별과 낙인, 기초적인 설비와 자원의 부족, 영구적인 능력의 박탈 등이다. 다소 거시적인 요인으로서 열악한 경제성장은 빈곤한 사람들로 하여금 소득의 증가와 자산축적의 기회를 제한한다. 특히 청소년에게는 빈곤으로 인한 좌절감과 실망감 그리고 절망감이 생산적인 경제활동의 참여를 제약하게 되고 청소년들에게 실업은 비행과 범죄의 가능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사회적 배제가 낙인과 차별이라고 하는 사회적 요인과 결합하는 것도 청소년들의 사회적 배제를 유지시키는 요인이 된다. 인종, 민족, 성, 장애 등이 사회적 배제가 결합될 경우 청소년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여성 청소년, 혼혈 청소년, 장애청소년, 이주청소년 등은 사회적으로 부여된 차별과 낙인으로 인해 사회적 배제에 노출될 위험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림 II-4> 청소년의 만성빈곤의 핵심적인 추동요인과 그 의미

만성빈곤의 핵심적 추동요인	청소년에게 시사하는 함의
<p>심각하고 반복된 충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병과 상해</li> <li>· 환경적 충격과 자연재앙</li> <li>· 시장과 경제의 붕괴</li> <li>· 폭력과 갈등</li> <li>· 법과 질서의 붕괴</li> </ul> <p style="text-align: center;">Plus</p> <p>의지할만한 사적 자산 혹은 집합적인 자산의 부족 (편협한 물리적/재정적/사회적 혹은 인적 자산)</p> <p style="text-align: center;">Plus</p> <p>비효과적인 제도적 지원 (효과적인 사회적 보호와 공공정보, 기본서비스, 갈등예방과 해결의 부족,</p> <p style="text-align: center;">Plus</p> <p>개인적인 생활주기나 가정의 생활주기의 특정시점의 빈곤 발생 (아동기, 노인, 청소년과 청소년 가정)</p>	<p>청소년은 물리적이고 재정적인 자산의 축적에 있어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들이 충격을 이겨내고 충격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렵게 된다.</p> <p>젊은 부부는 자산을 다소비하여 비싼 비용의 자녀의 건강과 교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줄이게 된다.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동시장에서조차도 청소년들은 급여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지 못한다.</p> <p>청소년들이 부수적인 자격이나 직업자격을 얻기 전에 교육을 불가피하게 받지 못할 경우, 청소년과 그 가족에 의해서 형성되는 자원과 교육에 대한 중요한 장기적 투자에 실패하게 된다. 이것은 생산적인 노동을 발견하고 자산을 재형성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한다.</p>
<p>빈곤에 빠질 가능성 증가</p>	

자료 : UN. World youth report 2005.

이외에도 Moore는 열악한 시설과 자원, 아동기의 능력의 박탈 등도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를 유지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본다. 한편, UN의 세계청소년보고서는 청소년의 만성적 빈곤을 추동하는 요인을 여섯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만성적으로 빈곤한 사람들 모두가 장기적인 박탈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회복할 수 없는 충격이나 계속된 충격들을 경험한 이후에 만성적 빈곤에 빠지게 된다. 이 점에 있어 청소년기나 청년기를 포함하여 개인이나 가정의 생활주기 중 특정 시기에 경험하게 되는 충격들이 특수한 손상을 줄 수 있다. 위의 <그림Ⅱ-4>은 만성적 빈곤의 핵심적인 추동요인들을 개괄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서로 다른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의미하는 함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sup>17)</sup>

<그림Ⅱ-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빈곤으로 인한 부족한 물질적/사회적 자산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위기와 충격으로 벗어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함으로써 만성적 빈곤의 위험을 가중시키게 된다. 또한 가정의 물질적/사회적 자산의 부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회적인 제도가 비효과적이고 미비할 경우, 청소년들은 저임금으로 인해 사회보험과 같은 사회적 보호제도를 활용할 수 없게 되고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만성적 빈곤의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결국, 교육에 대한 투자의 소홀은 노동시장에서의 고용능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자산의 형성을 어렵게 하고 이것이 청소년들의 만성적인 빈곤을 강화시키게 된다. 특히, 세계청소년보고서는 청소년의 만성적 빈곤을 청소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빈곤의 발생에 주목하고 있다. 청소년이 생활하고 있는 가정에서 빈곤이라고 하는

---

17) UN의 세계청소년보고서에 따르면, 만성적 빈곤의 원인은 복잡적이고 매우 다양하다. 이들 요인들은 빈곤의 원인과 동일한 것일 뿐 빈곤의 강도나 광범위함의 정도 그리고 지속성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어떤 경우, 일시적 빈곤의 원인과 만성적인 빈곤의 원인 간에는 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만성적 빈곤은 대개 가정에서 전세계적 환경에 이르는 광범위한 맥락에서 작동하는 복합적인 요인들의 결합이나 영향에 의해서 심화된다. 이들 요인들 중에는 만성적 빈곤의 유지원이면서 동시에 빈곤한 사람들의 빈곤을 지속시키는 기능을 하게 된다. 만성적 빈곤을 추동하는 또 다른 요인들은 취약한 비빈곤인과 일시적인 빈곤계층을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더 깊고 더욱 심각한 형태의 빈곤으로 빠뜨리기도 한다(World Youth Report, 45).

충격적인 경험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데 어려움을 제공함으로써 만성적인 빈곤을 심화시킨다. 그리고 이 같은 청소년들의 만성적인 빈곤은 노동시장의 변화와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사회적 보호체계의 부실이 결합됨으로써 나타나는 복합적인 과정이라고 본다.

## 2) 빈곤청소년 사회적 배제의 원인

Evans와 Delucad(2003:13)는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를 초래하는 위험요인으로 아동요인, 경제적요인, 부모요인, 학교요인으로 불규하고 각 영역별 위험 요인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위험요인들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요인들의 결합에 따른 결과를 분석한 많은 통계 모델의 공통된 결론 중 하나는 열악한 교육성취에 있었다고 보고 사회적 배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Evans와 Delucad(2003)가 제시한 위험요인을 논거로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의 원인을 정리해보면, 우선 아동요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장애를 들 수 있다. 장애아동들은 비장애아동들에 비해서 성인기에 이를 때 전일제 노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적고, 배우자와 함께 생활할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은 자신의 집을 소유하거나 삶의 만족감을 나타낼 가능성도 낮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저체중은 수많은 연구에서 장기적인 위험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저체중 아동들은 생후 28개월 안에 사망할 가능성이 거의 두배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아동의 이른 시기와 관련이 있는 다른 위험요인으로는 초기의 학습문제와도 결부되는 열악한 식단과 열악한 시각자극기술, 과잉행동과 같은 정신적 어려움 등이 있다.

〈표 II -8〉 아동위험요인

아동요인	경제적 요인	부모요인	학교요인
저체중 신체적/정신적 장애	빈곤한 생활여건	아동에 대한 낮은 기대와 이해의 부족	유치원에서의 지지의 부족이나 부재
빈약한 시각자극 기술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임대사회주거	가족내(부모들간, 부모와 아이들간)의 관계의 어려움, 가족 붕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의 불충분한 전환
열악한 초기 인지발달	과밀가정	아동을 위한 성인역할 모델의 부족	가정과 학교의 관계 약화
기본기술 이해 부족: 읽기, 셈계산	아동을 위한 무료 학교 식단	사회통제의 부족	열악한 리더쉽
정신적 어려움: 과잉행동, 충동, 주의력 장애, 공격성, 성인 역할모델에 대한 애착의 부족	낮은 가족의 소득	양육자의 빈번한 변화와 부모의 부재	아동에 대한 교사의 낮은 헌신
행동적 문제		부모의 장기실업	육체노동계급에 대한 조사
빈번한 결석		한부모	공영주택에 대한 조사
낮은 자존감		부모의 알코올중독, 양물중독, 정신질환	아동발달에 대한 모니터링의 부족

Evans, P & Deluca, M. Social exclusion and children: creating identity capital: some conceptual issues and practical solutions. OECD.

Evans와 Delucad(2003)가 제시한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를 초래하는 두 번째 위험요인은 경제적 요인이다. 이들에 따르면, 특히 두 가지 경제적 인 불이익이 사회적 배제를 초래하는데, 그중 하나는 실업과 관련된 것으로 실업은 자유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소득, 가치, 지위 그리고 자산형성 능력에 접근하지 못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부인한다. 특히, 매년 공식적으로 기록되는 장기 실업자들은 노동시장에 대한 접근을 거부당함으로써 배제를 경험하게 된다.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에는 실업이나 불안정한 고용과 관련이 있는 경제적 취약성에 따른 사회적 배제뿐만 아니라 가족형성이나 해체 그리고 사회협약과 같은 다양한 항목들의 영향도 포함된다 (Paugam, 1995; Walker, 1995; Bruegel and Ariane, 1994).

Wadsworth(1991)도 부모의 직업에 의해서 평가되는 사회경제적 지위나 사회계층이 많은 경제지표들을 대변하고 있고 사회계층의 하층에 위치하는 가족들의 자녀들이 위험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즉, 부모의 직업에 따른 사회적 계층화도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를 초래하는 중요한 위험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사회적 배제를 초래하는 두 번째 경제적 불이익은 낮은 소득과 관련된 것이다. 대부분의 OECD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시장경제에서 낮은 소득은 다양한 사회적 배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배제의 일부 형태는 거리에서 노숙을 하는 것, 자녀에게 음식과 의복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 안전하고 깨끗하며 쾌적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지 못하는 것과 연관된 배제로 경제적 수단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열악한 교통도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질의 상품이나 다양한 상품 그리고 저렴한 상품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사회적 배제의 경제적 토대를 강화시킨다(Lang, 1997). 뿐만 아니라 부족한 경제적 수단은 스포츠 경기, 영화, 극장을 포함하여 케이블 TV나 유료의 TV시청 등의 비용을 지불하는 수많은 사회적이며 공적인 활동들에 참여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아동들 사이에 인기가 있는 수많은 고비용 상품들을 이를 테면, 유명상표의 옷이나 사치스러운 취미, 최근 장난감, 해외여행과 같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상품들을 사줄 수 없는 부모의 무능력도 아동에게 낙인과 사회적 배제를 초래하게 된다.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물질적 위험요인은 대개 개별 가족생활 수준에서, 열악한 조건의 임대생활이나, 과밀공간에서의 생활 그리고 부족한 가족수입 등의 열악한 조건의 빈곤한 생활공간이라고 하는 상황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Hobcraft(1998)는 1958년 영국태생의 집단에 대한 종단적 연구를 통해서 지속적인 빈곤이 33세 성인의 열악한 능력, 낮은 수입, 10대 임신 그리고 좌절 등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혀냈다. Duncan과 Brooks-Gunn(1997)도 많은 미국인과 캐나다인에 대한 종단적 연구에서 빈곤이 아동의 능력과 성취뿐만 아니라 행동, 정신건강, 신체적인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또한 이들은 주요 빈

곤의 영향이 청소년기보다는 초기 아동기에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McLeod와 Shanahan(1990)도 Duncan과 Brooks-Gunn이 사용한 동일한 자료원을 사용하여 지속적인 빈곤이 청소년들이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우울과 같은 내적 증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처럼, 부모의 직업에 의해 평가되는 사회경제적 지위나 사회계층은 많은 경제적 지표들을 대신하고 있다. 하층의 사회계층에 위치한 가족들은 아동들이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Wadsworth, 1991; Silva, 1996). Stockholm에서 표집된 주요도시에 대한 Timms의 자료분석에서도 하층으로의 사회적 이동이 청소년들의 부적응과 향후 정신질환에 위험요인임을 입증했다(Timms, 1991, 1995). 결국, 부모가 낮은 소득의 직업에 종사하거나 실업으로 인해 소득의 단절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들은 빈곤으로 인해 열악한 건강, 낮은 학업성취, 실업에 따른 사회적 배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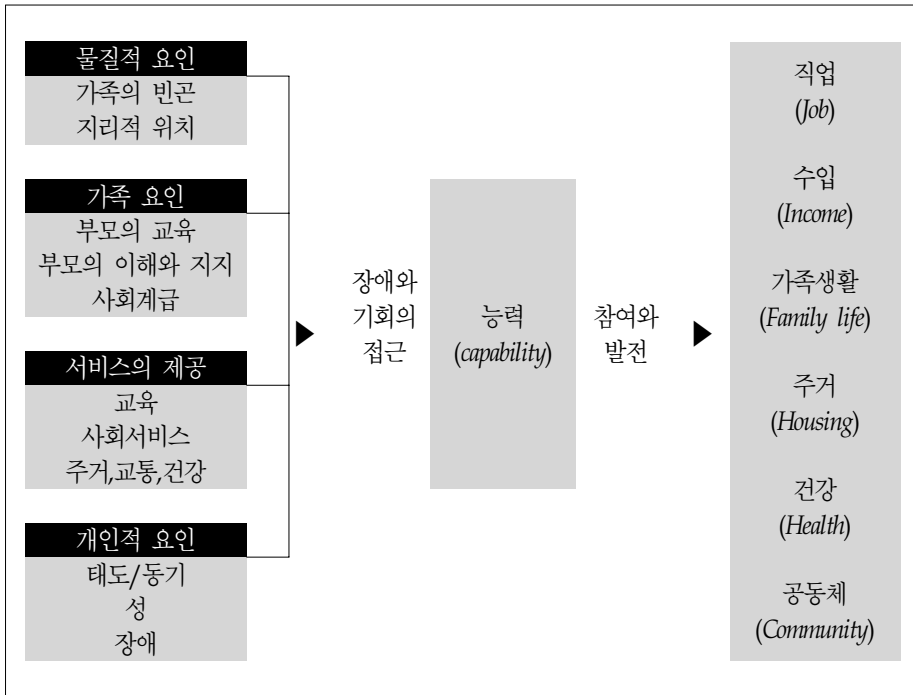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를 초래하는 두 번째 요인은 가족요인, 그중에서도 부모라고 할 수 있다. Micklewright(2002)의 지적처럼, 부모가 자녀의 복지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부모가 자녀의 배제(exclusion)의 주요한 잠재적 행위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부모는 직장을 찾는데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그로 인해 가정에 충분한 생활비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 그리고 부모들은 가족의 소득을 공정하고 현명하게 지출하지 못할 수도 있고, 자녀의 교육에 충분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의 사회적 기술과 접촉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 (Micklewright, 2002:18)

부모요인에는 부모의 교육부족, 부모의 이해와 지지의 부족 등이 포함된다. 부모요인은 아동들에 대한 낮은 기대와도 결부되어 있다. 가족들내의 취약한 관계, 특히 부모와 아동들 간의 열악한 관계와 가족붕괴나 양육자의 빈번한 변화와 부모의 부재 등의 아동에 대한 부족한 사회적 통제도 또 다른 위험요인이다(Kieman, 1995, 1997; Chase-Lansdale et al., 1995). 이 같은 부

모문제의 대부분은 부모 자신의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나타난다. 열악한 교육성취로 인한 노동시장의 문제가 10대 미혼모를 양산한다. 부모의 장기실업이 가족소득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교육적·직업적 성취의 중요성을 상실시킬 수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역할모델을 강화시킬 수 있다.

<그림 II-5> 청소년 빈곤의 위험요인과 결과



자료 : Klasen. 1998. Social exclusion and children in OECD Countries: some conceptual issues.

Klasen(1998:6)도 아동들의 사회적 배제를 심화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사회적 장애로 가족과 이웃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가족의 분리와 이혼, 부모의 사망, 그리고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적응의 어려움은 아동들의 사회적 배제를 심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아울러 지역사회(neighbourhood)도 그동안 좌시되어 왔지만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지역사회는 상업시설이나 여가시설과 같은 지역사회에 제공

된 서비스를 통해서 사회적 배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도 아동과 청소년을 배제시킬 수 있다. 정부는 교육과 보건의료 등의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청소년들이 노동시장에 쉽게 진입하는데 적절하게 개입하지 못할 수 있고 노동현장에 투입되는 부모들에게 적절한 유인책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정의 주간보호를 활성화하는데도 실패할 수 있고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소년들이 있는 가정에게 적절한 현금의 소득안전망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 정부는 주로 정책을 통해서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를 초래할 수 있다.

공공정책이나 공적인 제도들은 중요한 긍정적이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회, 정치체계, 언론 등과 같은 공적제도들이 도덕적인 설득이나 강제적인 반차별 입법을 통해서 그리고 이 같은 편견(차별, 편견)에 대응하는 정도에 따라 현존하는 편견과 결부된 사회적 배제를 감소시킬 수 있다(Klasen, 1998:9).

전술한 Klasen(1998)의 주장처럼, 공공정책이나 제도들은 정책이 지향하는 가치나 내용에 따라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의 긍정적 요인이자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Kieselbach et al(2006:9)는 청소년들이 사회적 배제를 초래하는 위험요인으로 낮은 자격(low qualification)을 강조한다. 즉, 높은 수준의 교육요건과 직업훈련을 취득한 청소년들은 사회적 배제의 위험이 낮은 반면 이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낮은 수준의 요건을 갖춘 청소년들은 사회적 배제의 위험이 높다는 점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훈련은 청소년들을 노동시장으로 통합시키는 기회이자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보호 요인이 된다. Kieselbach et al(2006:9)는 독일과 스웨덴 등 유럽의 6개국을 대상으로 한 장기실업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사회적 배제를 초래하는 취약요인과 사회적 배제를 위험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을 구분하고 있다.

〈표 II -9〉 유럽 6개국의 장기실업 청소년 사회적 배제 핵심요인

취약요인(Vulnerability factors)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s)	
낮은 자격요건	모든 국가	높은 자격요건(교육,직업)	모든 국가
수동적인 구직활동	모든 국가	적극적인 구직활동	모든 국가
불안정한 재정상황	모든 국가	경제적 지원	모든 국가
낮은 사회적 지지	독일 제외한 모든 국가	사회적 지원	모든 국가
낮은 제도적 지지	벨기에, 독일, 스웨덴	제도적 지원	모든 국가
일탈 행동	독일, 스웨덴, 스페인	사회문화적 활동	모든 국가
낮은 자존감	모든 국가	높은 자존감	모든 국가

Kieselbach. 2006. Youth unemployment and social exclusion: Objective dimensions, subjective experience, and institutional responses in six European Countries. Project supported by European commission-DG research in the 4th framework programme under the targeted socio-economic research programme.

이들의 주장을 논거로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를 초래하는 원인을 정리해 보면,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는 낮은 교육수준과 직업훈련 수준에 따른 낮은 자격, 그리고 수동적인 구직활동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고, 낮은 소득 등의 불안정한 재정상황이라고 하는 경제적 요인도 사회적 배제를 초래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사회적 지지와 제도적 지지 그리고 일탈행동과 낮은 자존감 등 개인적인 요인들도 사회적 배제를 초래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본문에서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Kieselbach et al(2006:9)는 가정의 재정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와 함께 청소년이 속한 낮은 사회계급도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를 가중시키는 요인임을 지적하고 있다.<sup>18)</sup>

18) 특히, Kieselbach et al(2006)은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의 원인으로 청소년의 장기실업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20세에서 25세까지의 청소년 인구계층에 대한 조사에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이들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노동시장의 배제, 경기침체, 경제적 배제, 제도적 배제,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배제, 문화적 배제, 공간적 배제 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상당수의 장기실업 청소년들이 높은 노동시장 배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교육과 직업훈련에서 낮은 자격수준은 주요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의 낮은 수요와 청소년들의 부족한 노동경험이 많은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고용으로의 진입을 제한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Kieselbach et al(2006)의 분석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사회적 배제의 취약요인은 국가마다 서로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특히, 청소년의 열악한 자격이나 수동적인 구직활동 그리고 불안정한 재정상황 그리고 낮은 자존감은 모든 국가에서 사회적 배제에 취약한 요인으로 나타났지만 낮은 사회적 지지나 낮은 제도적 지지 그리고 일탈 행동 등에서는 국가마다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분석은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라고 하는 현상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을 인과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특히, 국가 정책의 영향이나 사회문화의 배경 등에 대한 분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sup>19)</sup>

### 3) 빈곤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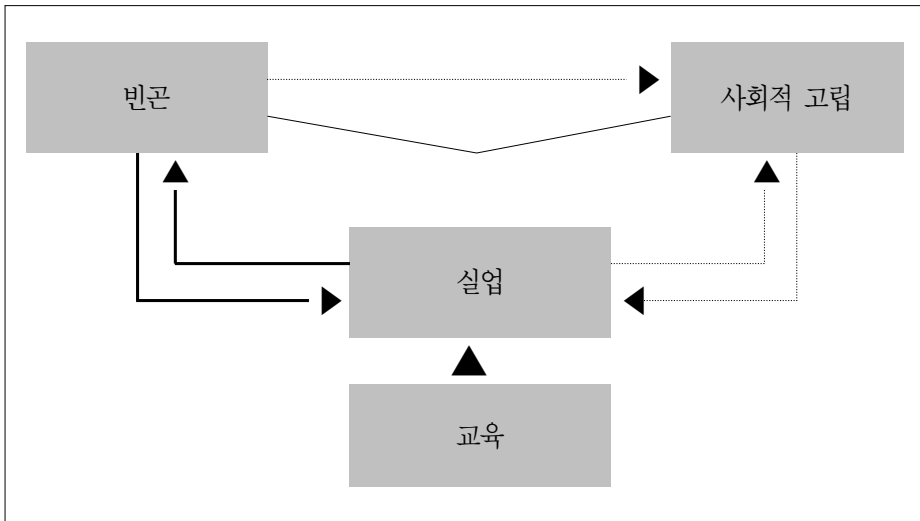
UNDP(2006:14)는 배제를 실업과 빈곤 그리고 사회적 고립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들과의 악순환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사회적 배제는 실업이나 빈곤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실업과 빈곤의 결과로 사회적 배제가 나타날 수 있다. 때문에 빈곤과 실업 그리고 사회적 배제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UNDP에 따르면, 박탈은 대개 생활수준의 심각한 저하를 가져오는 즉, 빈곤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실업에서 시작된다. 빈곤한 생활은 일자리를 찾는 데 있어 또 다른 어려움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장기실업에 빠지게 된다. 동시에 실업과 빈곤은 사회활동참여를 저해한다. 경제적인 궁

19) Kieselbach et al(2006)은 6개 국가의 실업청소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① 실업은 청소년의 핵심적인 위험요인으로 실업은 장기적으로 청소년의 전반적인 사회통합을 위협하게 된다. ② 장기실업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가장 중요한 취약요인으로는 낮은 자격, 노동시장에서의 수동성, 불안정한 재정여건, 낮거나 전무한 사회적 지지, 불충분하거나 거의 없는 제도적 지원 등이다. ③ 실업청소년의 가장 중요한 보호요인은 사회적 지지이다. ④ 남유럽국가의 개인화과정은 가족의 충격완화 효과(buffer effect)를 허약하게 한다. ⑤ 실업청소년의 정상화와 청소년 시기의 연장 그리고 광범위한 경기침체는 개인의 경험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⑥ 빈곤과 가족의 사회문제는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⑦ 남유럽국가에서 청소년의 불규칙한 노동의 높은 참여가 사회적 배제를 완충제가 될 수도 있고 사회적 배제를 초래하는 위험요인이 될 수도 있다. ⑧ 사회적 배제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실업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통제능력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스웨덴의 '100day guarantee'와 같은 개념이 혁신적이면서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핍과 실업으로 인한 낙인은 사회적 유대를 약화시키고 사회적 고립의 가능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만약 장기적인 실업과 그 결과로 인해 빈곤이 지속된다면, 가족 내에서 그리고 부부관계에서 긴장이 발생할 수 있다. 즉, 빈곤과 실업으로 인해 결혼생활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가족이 해체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교환이 사회적 관계를 유지시키는데 필요하다는 점에서 경제적 궁핍은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친구, 이웃, 친척들과의 관계도 약화시킨다 (UNDP, 2006:12).

<그림 II-6> 교육과 사회적 배제의 악순환



주 : 굵은 선은 보다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고, 점선은 보다 약하고 유동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자료 : UNDP. 2006. Poverty, unemployment and social exclu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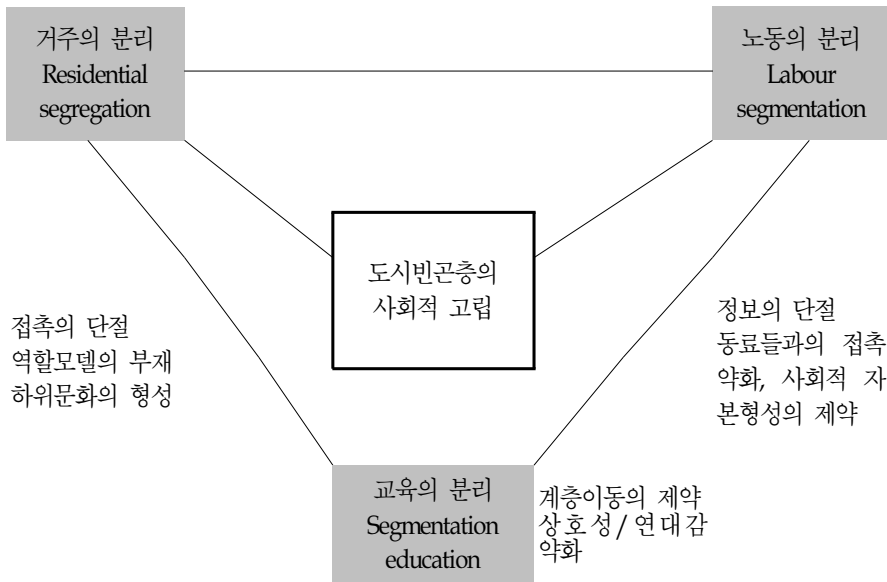
또한 빈곤한 사람들은 정보로부터도 고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찾는데 필요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고립은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Kieselbach et al(2006:4)는 일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비해서 일을 하지 않은 실업 청소년들은 더 많은 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고 본다. 이들에 주장에 따르면, 실업 청소년들은 우울증의 증가를 초래하는 정신건강 문제와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실업 청소년들에게

서 자살률도 특히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논의는 Kaztman(2001:166)에 의해서도 발견된다. Kaztman도 일터(workplace)를 접촉과 정보 그리고 시설의 형태로 받게 되는 자원을 통해 동료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파악한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보자면 사회적 배제로 인한 청소년들의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분리는 물리적 자원의 단절과 더불어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게 되고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사회와 격리되거나 분리되게 된다. 특히 청소년들의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분리는 사회적 관계의 형성을 통해서 습득되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로 인해 청소년들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존감을 고취시키는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 빈곤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은 경제적 박탈뿐만 아니라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거주공간의 분리와 함께 자신의 일터에서의 분리 그리고 학교와 교육으로부터의 분리로 이어지게 된다.

사회적 배제의 원인이자 결과로서 교육으로부터의 분리도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Kaztman(2001)의 지적처럼, 노동과 함께 교육은 사회이동의 주요수단이자 새로운 세대의 사회통합을 위한 핵심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Kaztman은 교육체계가 가난한 아동들과 청소년들이 다른 계층의 동료들과 일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공동 규범을 발전시키도록 한다는 점에서 여러 계층이 융합되는 중요한 제도적 공간으로 파악한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보자면 빈곤의 청소년들은 부유한 학생들 간의 교류를 위한 제도적 공간으로서 학교에 대한 접근을 차단됨으로써 동료 학생들과의 교류와 접촉을 통한 사회적 자본의 획득이 어려워지게 된다.

<그림 II-7> 도시빈곤층의 사회적 고립과 서로 다른 형태의 사회적 분리



자료 : Kaztman, 2001. seduced and abandoned : the social isolation of the urban poor.

한편, Kieselbach 등(2006)은 청소년들의 사회적 배제에 따른 결과를 심리 사회적 스트레스, 건강과 관련된 행동, 자존감 등과 결부시켜 논의하고 있다. 그는 스웨덴, 벨기에,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국가들 대상으로 실업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경험을 분석하면서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로 인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모든 국가들의 연구에서 높은 사회적 배제의 위험이 실업으로 인한 다양한 심리 사회적 스트레스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에는 기회의 부족에 대한 인식, 수동성, 무감정, 체념 등이 포함되어 있다(Kieselbach et al., 2006:11).

북유럽과 동유럽 국가의 비교연구에서는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는 벨기에나, 독일 그리고 스웨덴에서 더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적인 문제의

주요 스트레스원은 높은 사회적 배제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위험의 정도를 증가시키는데도 영향을 미친다. 미래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희망의 결핍, 의존감 등도 사회적 배제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남유럽국가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된 청소년들에게는 가족의 지원이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들 국가의 청소년들은 재정적인 스트레스를 거의 경험하지 않고 단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통제의 부족과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구조의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배제를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실업이 흡연, 알코올, 약물남용, 신체적 활동의 부족 등의 건강과 관련된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아울러 높은 사회적 배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서 낮은 자존감(low self esteem)이나 낮은 자신감(low self confidence)이 관찰되었다.

사회적 배제로 인한 결과는 비단 배제된 개인의 소득이나 심리사회적 안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을 사회와 국가가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서 보호하지 않을 경우 차별과 소외의 피해자들은 사회의 통합과 안정을 위협하는 보다 거시적인 사회문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배제된 빈곤 청소년들을 다양한 사회경제제도로 통합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 사회적 안정은 심각한 정도로 위협받을 수 있다.

사회적 배제는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갈등과 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다. 다양한 불이익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배제집단들은 자신들이 불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거나 정치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이 무시되거나 사회의 주류로부터 주변화된다는 느낌을 가질 때 서로 단결할 수 있다. 가두행진, 파업, 시위와 같은 단결의 첫 번째 단계는 평화로운 동원이지만, 만약 이 같은 동원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거나 정부가 이 같은 행동들에 대해 폭력적인 방법으로 대응할 경우, 배제된 집단들은

다른 대안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폭력적인 갈등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DFID, 2005:8)<sup>20)</sup> .

앞선 DFID의 주장처럼, 특정 사회집단이 사회의 다른 집단들에 대해서 불평등하다고 느끼고 고통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갈등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뿐만 아니라 DFID(2005:8)은 청소년과 관련하여 사회적 배제가 강폭력 형태로 불안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사회로부터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청소년들이나 직업의 기회나 정책결정과정으로부터 배제되었다고 느끼는 청소년들은 더욱 강력한 방식으로 폭력이나 범죄에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족한 일자리와 지역사회 시설로 인해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청소년들은 지리적으로 근접한 갭단이나 정체성이 동일한 갭단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같은 상황은 도시의 거주자들이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에 근거하여 더욱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배제된 도시의 우범지역을 만들어 내게 된다.

### 3. 빈곤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전통적으로 빈곤개념이 가구차원에서 일정수준 이하의 소비지출이나 소득으로 정의되던 것을 다차원적으로 확장한 것으로 금전적인 측면이나 노동시장에서의 실업 이외에 교육, 보건, 환경, 주거, 문화, 기본권 등에 대한 접근 등 다차원적인 사회적 박탈과 장벽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포착하기 위한 것이다(정미숙, 2007:12). 사회적 배제는 배제를 추동하는 요인이 존재하고 그 요인은 외부의 다양한 사회제도를 통해서 승인된다. 때문에 사회적 배제는 격리와 박탈을 초래하는 다차원적

---

20) DFID(2005)는 사회적 배제라 갈등과 폭력을 초래한 사례로 수단, 남북갈등, 인도의 힌두교와 무슬림간의 갈등, 부룬디, 르완다, 코소보의 민족집단들간의 갈등, 인도네시아 아세흐 지방의 분리주의 운동, 남아일랜드의 종파간 폭력 등을 그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인 요인들을 작동시키는 사회제도의 교정과 수정을 필요로 하고 그것은 합리적인 절차와 규정을 통한 권리의 실현으로 회복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토하는 것은 인간의 개발(human development)이나 인권(human rights)에 대한 논의와 연관되어 있다. 즉, 195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개발접근은 주로 개발과정의 결과인 사회적 개발과 경제적 개발에 그 초점을 맞추었고 시민권이나 정치권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이 시기동안 정부정책이나 지역개발도 성취된 결과에 의 과정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와 반대로, 인권접근은 바람직한 결과의 실현으로서 개발 그리고 이 같은 결과를 성취하고 유지하는데 있어서의 과정의 적합성을 강조한다. 때문에 권리중심의 접근은 바람직한 결과를 수행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참여, 주인의식, 임파워먼트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무엇보다도 중시한다. 과거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접근이 권리보다는 단순한 결과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오늘날 권리중심의 사회적 배제는 ‘결과의 바람직성’, 그리고 ‘과정의 합리성’ 초점을 맞춘다. 즉, 사회적 배제를 권리중심의 시각에서 파악할 경우,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개발이라는 결과는 다른 사회적 가치들에 비추어 타당하고 바람직해야 하며, 그 결과를 성취하기 위한 과정에서 있어 민주성과 참여의 원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인권관점에서의 이 같은 광범위한 변화는 사회적 배제 특히 교육영역에서의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는데 중요한 함의를 시사한다. 즉,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인권의 관점은 교육영역에서의 사회적 배제를 교육체제만의 문제가 아닌 광범위하고 체계적이며 보다 종합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때문에 인권중심의 접근은 사회적 배제의 쟁점을 해소하는데 있어서는 보다 광범위한 관점이 필요하고 결과만큼이나 그 결과의 산출하기까지의 과정과 결과의 합리성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인권 중심의 관점에서 빈곤은 단지 소득의 부족만을 의미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박탈이 존재하는 생활 조건으로 파악하는 인식의 확대를 유인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인권중심의 시각은 더욱더 포괄적이고 과정중심의 접근이

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권리의 관점은 다음과 같은 원칙 즉, 권리의 보편성, 권리의 불가침성, 권리의 상호의존성, 아동 최우선의 원칙, 아동의 관점에 대한 고려 등과 같은 청소년의 권리를 실현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기관의 책임성을 강조한다. 국가, 그리고 부모나 교사와 같은 여타의 의무자들은 이 같은 아동들의 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의무를 가진다. 권리의 소유자로서 아동은 의무자들에게 각자의 의무의 실현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자신들의 권리를 충족하고 보호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인권의 관점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는 아동과 청소년의 시민적/사회적 권리의 침해라고 할 수 있고 이 같은 권리의 침해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권리실현의 의무자인 사회와 국가 그리고 부모와 교사와 같은 관련 당사자의 책임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은 아동과 청소년 본인의 배제 극복을 위한 자구적 노력보다는 국가나 사회의 의무에 대한 실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배제가 단순한 박탈의 문제가 아닌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유발되는 사회문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적 배제의 해소에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인권중심의 관점은 사회적 배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도 논리적으로 일치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적 배제는 경제적 박탈의 의미만을 담고 있는 빈곤 그 이상의 개념으로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의 권리가 침해된 박탈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배제는 배제를 초래하는 다양한 기제들의 권리 침해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 배제를 정의하는데 있어 권리중심의 접근은 사회적 배제와 관련한 본질적인 문제에 그 초점을 둔다. 사회적 배제가 권리나 능력의 침해라고 한다면, 사회적 배제를 용인하는 사회가 본질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권리중심의 시각에서 사회적 배제의 책임은 개인이나 가족보다는 국가나 사회에 더 큰 무게중심을 둔다. 그리고 수많은 국가들이 서명하고 비준한 아동권리협약은 이 같은 국가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Batan(2005:2)의 지적처럼,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가 사회계급, 성, 인종/민족 그리고 지역성과 같은 인간생활의 광범위한 사회지표들의 역동적인 구성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청소년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대한 관점은 단순한 소득의 빈곤에 한정하지 않는 다양한 권리의 침해와 박탈의 관점에서 다차원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의 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배제에 대한 권리중심의 접근은 청소년의 빈곤을 청소년 본인의 문제가 아닌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제도와 환경의 문제로 정책의 방향성을 전환시키고 청소년의 인권과 권리의 시각에서 빈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준다.

결국, 권리 중심의 접근들은 주류 사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주류사회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 모든 시민들에게 개발되어야 할 기본적 권리의 침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래서 모든 구성원들의 참여와 통합의 책임을 사회에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배제된 사람들을 비난하는 경향을 줄이고 대신 빈곤(poverty)과 복지(welfare)를 논의하도록 유도하고 배제를 초래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제도의 역할과 함께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구성원들 간의 통합의 역할을 강조한다(Townsend, 1997)<sup>21)</sup>

21) Room(1995)은 권리중심의 언어로 사회적 배제와 관련된 쟁점을 제기함으로써 사회적 배제에 대한 논의를 새로운 범위로 확대했다. 즉, Room은 사회적 배제를 시민권, 정치권 그리고 사회권의 부정 혹은 비실현으로 이해한다. 권리중심의 접근은 Amartya Sen이 개발한 능력중심의 접근과 상당한 친화력을 갖는데, 능력중심의 접근에서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고 충분한 영양의 섭취, 좋은 주거공간의 생활, 지역사회로의 통합, 지역사회와 공적인 삶에의 참여, 그리고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기반의 향유 등의 기본적 능력들에 동등한 접근을 요구할 수 있다(Sen, 1992). 능력중심의 접근 그리고 권리중심의 접근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진다.

### Ⅲ. 영국의 빈곤청소년 사회적 배제 해소대책 : 경향과 함의

#### 1. 빈곤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실태와 현황

##### 1) 청소년의 빈곤화 원인과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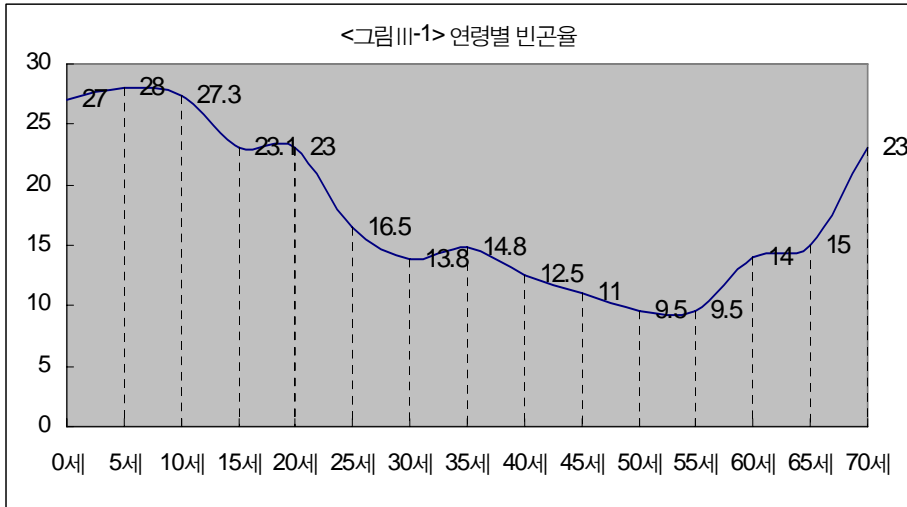
오늘날 저소득층은 의심할여지 없이 사회적 배제를 추동시키는 핵심적인 요인이다. 그리고 소득의 빈곤은 주로 가족의 형태나 고용환경에 의해서 가속화된다. 때문에 사회적 배제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은 대부분 가족의 형태나 고용여건에서 열악한 지위를 점하고 있거나 소득이 없는 빈곤가구에 속한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다.<sup>22)</sup>

영국 청소년의 빈곤율은 이탈리아, 스페인, 아일랜드와 함께 유럽국가들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아래의 <그림Ⅲ-1>에서와 같이 영국의 경우 15세 이상 25세까지의 중위소득 60% 이하의 빈곤율을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율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다른 인구집단, 특히, 30대부터 50대까지의 빈곤율과 비교를 해보면 15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들의 빈곤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사실이다.

물론 영국의 청소년 빈곤율은 영국 정부가 1997년부터 실시한 반빈곤정책에 정점에 있었지만 최근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림 Ⅲ-1>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아동기 이후 영국의 빈곤율은 다시 증가하게 되는 53세까지 감소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영국의 청소년 빈

22) 전반적인 사회환경의 변화가 반드시 청소년들의 빈곤이나 사회적 배제를 초래하는 것만은 아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기성세대와는 매우 다른 상황에 직면하고 있고, 그 상황도 여전히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 같은 많은 변화들은 대부분의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것도 있다. 이를 테면, 대부분의 기성세대보다는 청소년들이 보다 좋은 교육을 받고 있고, 물질적으로 더욱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신체적으로 더욱 건강하고 보다 오래 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긍정적인 변화와 더불어 청소년에게 새로운 위험과 도전을 제공해주는 가족관계나 사회구조도 변화하고 있고 이 같은 가족관계의 변화나 사회구조의 변화가 청소년의 빈곤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들이 되고 있다.

곤율은 아동의 빈곤율에 비해서는 낮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연령집단의 빈곤율과 비교해서는 높은 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Aassve et al(2005)은 청소년들의 연령이 더 낮을수록 더 연령이 많은 청소년들에 비해서는 빈곤의 위험이 높다고 본다.



자료 : Aassve. et al., 2006. Youth poverty and transition to adulthood in Eruope. Demographic resezrch vol.15 재구성.

Fahmy(2005)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빈곤율은 앞선 Aassve et al(2003)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표 III-1>에서와 같이 소득불평등의 정도는 사용된 지표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25세 이하의 청소년이 다른 연령집단들보다도 불평등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Fahmy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성별에 따른 빈곤도 큰 차이를 보이는데, 영국 청소년들 중 최저소득보장(MIG : Minimum Income Guarantee) 이하 소득가정의 비율은 16세에서 24세 남성가구와 여성가구에서 각각 8%, 27%로 나타나 다른 연령대의 빈곤율보다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16에서 24세 여성 청소년가구의 빈곤율은 다른 연령대의 남성 빈곤율보다도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I-1> 연령집단별 소득불평등과 PSE 빈곤지수

(단위 : %)

	연령집단			
	25세 이하	25-30세	35세 이상	전체
평균소득 50%이하(HBAI)	27	17	26	24
중위소득 60%이하(OECD)	33	16	25	24
평균소득 50%이하(PSE)	30	17	28	26
국민최저보장(MIG) 이하	18	11	22	20
PSE빈곤지수(%)	34	37	21	25

자료 : Fahmy, 2005. Youth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Townsend center for international poverty research.

청소년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중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이 청소년기의 시기동안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활동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청소년들이 무급의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 임금노동이나 자영업 혹은 유급의 도제학습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 실업이나 구직활동상태에 있는지의 여부 등이 청소년의 빈곤화나 빈곤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이다. 아래의 <표II-2>는 성과 연령대 별로 연구대상 국가인 영국을 비롯한 여러 유럽국가들의 청소년 들의 활동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Aassve et al(2005)가 ECHP(European Community Household Panel)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모든 유럽국가에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청소년의 비율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sup>23)</sup>. 남성과 여성의 참여율은 모든 국가에서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어 참여율에서는 성별 차이가 뚜렷하게 발생하지는 않

23) 유럽공동체가계조사(ECHP:European Community Household Panel)은 유럽연합이 지원하고 착수한 대규모 중단적 연구자료로 1994년에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의 국가를 대상으로 최초로 수집되었다. 오스트리아와 핀란드, 스웨덴은 각각 1995년과 1996년 그리고 1997년에 참여하였다. ECHP에서 영국 청소년의 표본수는 16세에서 19세 까지가 5,153명, 20세에서 24세가 7,389명, 25세와 29세까지가 7,675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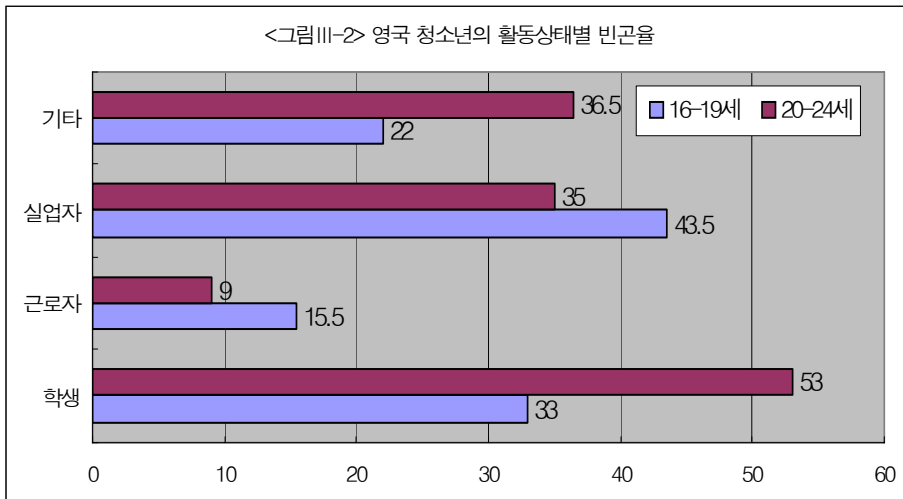
은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경우 16세와 19세의 청소년과 20세와 24세의 청소년들 중 학생의 비율은 낮은 반면 근로자의 비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남자 실업자는 16-18세가 8%로 평균 6%에 비해서는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고, 20-24세에서는 11.1%로 대 상국가의 평균 실업률과 동일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III-2〉 청소년들의 활동상태

연령 집단	국가	남자				여자			
		학생	근로자	실업자	기타	학생	근로자	실업자	기타
16-19	핀란드	76.7	10.7	3.8	8.8	86.7	7.9	3.4	2.0
	덴마크	62.2	32.2	3.8	1.8	73.4	20.8	2.4	3.5
	네덜란드	78.8	18.4	1.6	1.2	85.2	12.7	1.5	0.6
	영국	29.3	47.0	8.0	15.8	28.5	42.2	5.4	23.9
	아일랜드	57.9	30.3	9.8	2.0	68.1	19.9	8.6	3.4
	프랑스	76.9	13.3	6.2	3.7	87.3	5.3	4.8	2.6
	독일	85.5	8.5	2.0	4.0	88.3	6.4	1.7	3.7
	오스트리아	34.0	55.2	2.9	7.9	55.9	38.4	4.4	1.2
	벨기에	91.1	5.9	2.3	0.7	94.6	3.2	1.7	0.5
	포르투갈	49.8	38.5	4.5	7.3	62.6	24.4	5.7	7.3
	스페인	64.7	14.4	11.9	9.0	78.8	6.5	10.8	3.9
	이탈리아	66.8	13.1	15.6	4.6	73.2	7.6	13.9	5.3
	그리스	64.3	10.8	5.9	19.1	71.9	5.4	13.8	8.9
20-24	핀란드	35.9	40.8	13.0	10.3	49.7	31.8	8.6	9.9
	덴마크	25.4	64.5	5.9	4.2	32.8	52.3	7.8	7.2
	네덜란드	46.8	46.5	4.6	2.2	41.3	47.2	6.4	5.2
	영국	12.1	71.1	11.1	5.7	11.2	64.7	5.8	18.4
	아일랜드	22.2	60.3	13.7	3.8	22.1	54.5	10.4	13.1
	프랑스	37.1	37.7	13.2	12.1	42.7	31.8	16.2	9.3
	독일	35.5	43.2	7.8	13.5	37.6	46.8	7.6	8.1
	오스트리아	20.7	68.6	4.5	6.2	25.0	63.7	4.2	7.1
	벨기에	54.0	37.3	8.0	0.8	53.4	30.5	12.9	3.3
	포르투갈	24.2	59.8	7.9	8.1	34.8	49.5	8.4	7.4
	스페인	38.4	38.4	16.2	7.1	46.2	25.9	20.6	7.4
	이탈리아	31.1	36.4	24.2	8.4	38.8	25.4	24.2	11.7
	그리스	25.6	36.4	15.4	22.6	27.8	29.8	23.8	18.7

자료 : Aassve. et al., 2006. Youth poverty and transition to adulthood in Europe. Demographic reseazch vol.15 p2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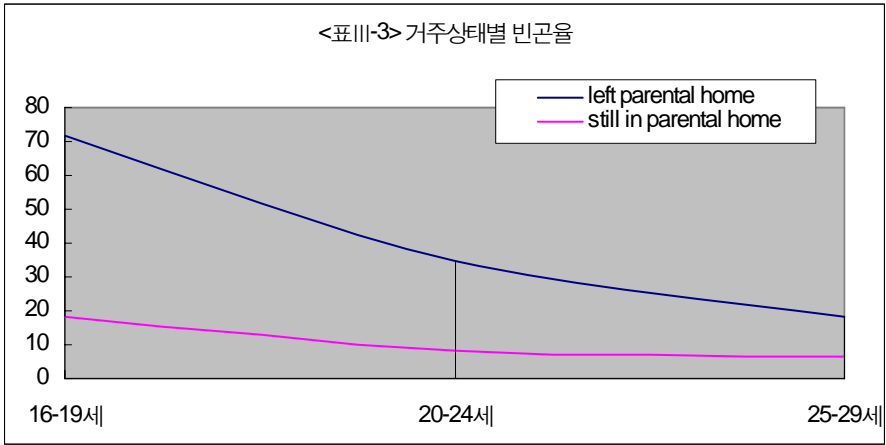
Aassve et al(2006)의 지적처럼, 청소년의 빈곤위험은 자신의 활동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이 없는 학생, 실업청소년,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노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비해서 빈곤의 위험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III-2>에서와 같이 실업자나 학생의 빈곤율은 근로청소년의 빈곤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일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빈곤가능성이 일을 하지 않은 청소년들보다도 일반적으로 더욱 낮게 나타난다.



자료 : Aassve. et al., 2006. Youth poverty and transition to adulthood in Europe. Demographic reseazrch vol.15 재구성.

또한, Aassve et al(2005)는 청소년의 높은 빈곤율을 청소년들의 거주상태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청소년들이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지 아니면 부모에게서 독립해서 생활하는지에 따라 청소년 빈곤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청소년의 거주상태에 따른 연령별 빈곤율을 분석하고 있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부모의 집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 중에서 빈곤 청소년의 비율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청소년들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직장을 가질 가능성이 많아지고 임금의 상승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계 소득이 더욱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에

서 독립한 청소년들의 빈곤율도 연령이 많아질수록 감소하는데, 이 같은 감소는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청소년들의 빈곤 감소율보다도 더욱 유동적인 것이 특징이다.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가정에서 독립한 청소년의 빈곤율이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청소년들보다는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자료 : Aassve. et al., 2006. Youth poverty and transition to adulthood in Europe. Demographic reseazrch vol.15 재구성.

<그림III-3>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영국의 경우도 청소년들의 모든 연령대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청소년들보다는 부모로부터 독립한 청소년의 빈곤율이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논의를 종합하자면, 영국 청소년의 빈곤화 경향은 주로 20세에서 24세의 연령대에 있는 청소년들보다는 16-19세이 연령대에 있는 청소년에게서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고, 학생이나 실업청소년이 일을 하고 있는 근로 청소년들 보다는 더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청소년이라는 발달단계상 특징이 학업의 지속과 가정으로부터의 독립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의 독립 여부에 따라서도 빈곤율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청소년들보다는 부모로부터 독립한 청소년들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 2) 빈곤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실태

오늘날 사회적 배제에 대한 접근은 사회적 배제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노동시장으로부터의 퇴출을 자주 인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 전략으로 장기 실업의 문제와 노동시장 비참여의 문제의 해결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sup>24)</sup> 영국이 특별히 청소년과 관련하여 정부산하에 사회적 배제기구(SEU: Social Exclusion Unit)를 설치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일을 하지 않고,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은 청소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이 기구가 무엇보다도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청소년의 장기실업과 노동시장 비참여문제이다<sup>25)</sup>. 2004년 현재 영국은 16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이 약 5천5백만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중, 16에서 17세까지의 약 200,000명 그리고 18세에서 24세까지의 약 900,000명 청소년들은 일도 하지 않고 학교에 남아있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인구 비율은 16세에서 17세까지의 청소년 8명 중 1명꼴이며, 18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 5명 중 1명에 이르는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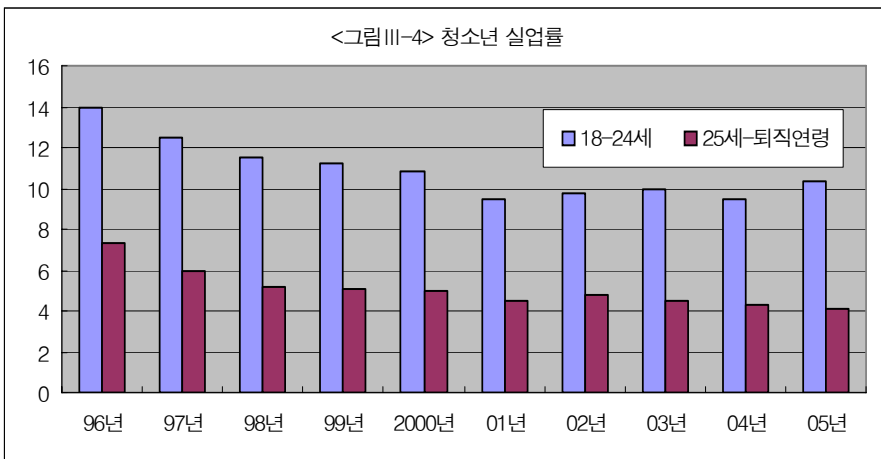
한편, Palmer(2005:57)에 따르면, 16-24세 청소년의 실업률은 25세 이상 성인 노동자들의 실업률보다도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Ⅲ-4>에서

---

24) 물론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만 있는 것이 아니다. Colley와 Hodkinson(2001)은 개인적인 책임과 도덕적 책임이 정부정책의 중요한 접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청소년 자신의 결점과 단점에 문제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25) 영국은 적어도 1970년대까지는 완전고용에 가까웠기 때문에 실업문제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1970년대 들어 국가의 실업률이 5%를 넘어서면서 실업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국가의 정책이 강구되기 시작했다. 초기 국가의 실업률 감소정책은 당연히 성인 실업자 감소를 위한 정책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다가 1975년에 이르면서 청소년 노동시장이 엄청난 불균형에 빠지면서 청소년 실업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즉, 1973년에 비해 3년 후인 1976년에 학교를 떠난 청소년의 실업률이 무려 6배에 달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전 까지만 해도 영국정부가 청소년들의 직업선택을 돕기 위해 취한 정책은 대부분 직업이나 진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진로상담을 해 주는 정도였다. 197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청소년 고용 문제가 고용수요의 감소와 청소년 인구의 증가라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심각해지면서 영국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청소년 고용 정책을 고안하게 된다(송병국, 2004:168)

와 같이 청소년의 실업률은 1996년도를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10%이상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OECD의 통계에서도 영국의 16-24세 청소년들의 실업률은 1984년에 24%에 최고에 달했다. 물론 1989년 경기 회복으로 청소년의 실업률은 남성과 여성에게서 각각 12%p와 10%p 감소하였지만 1990년대 중반까지 청소년 실업률은 남자와 여자가 각각 12%와 7% 정도로 고착화되었다.<sup>2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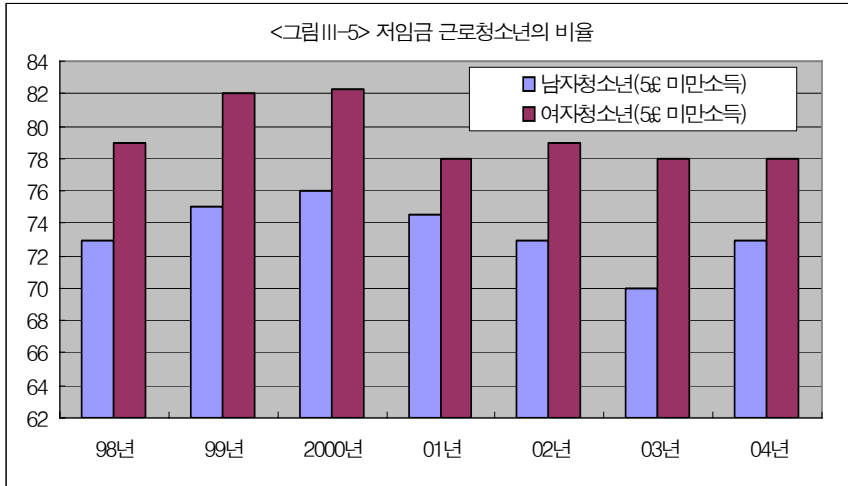


자료 : Palmer(2005). Monitoring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2005. Social Exclusion Unit.

청소년의 실업만큼이나 일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낮은 임금도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근로 청소년들의 열악한 임금수준은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의 위협요인이자 사회적 배제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아래의 <그림Ⅲ-5>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시간당 임금소득이 £5(1998년)~£6.46£(2004년)밖에 되지 않는 저임금 근로청소년의 비율은 거의 70~80%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 남자 청소년보다는 여자청소년들의 임금수준이 더욱

26)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관련한 또 다른 특징은 고용과 양육의 결합을 기대하는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들은 남성들의 직업에 비해서 더욱 광범위한 범위의 노동시장에 진입했다. 실제로 여성의 훈련은 여전히 대인서비스, 사무원, 비서 그리고 판매직과 같이 얼마 되지 않는 전통적인 여성 직종에 집중되어 있다(Raffe et al., 1998).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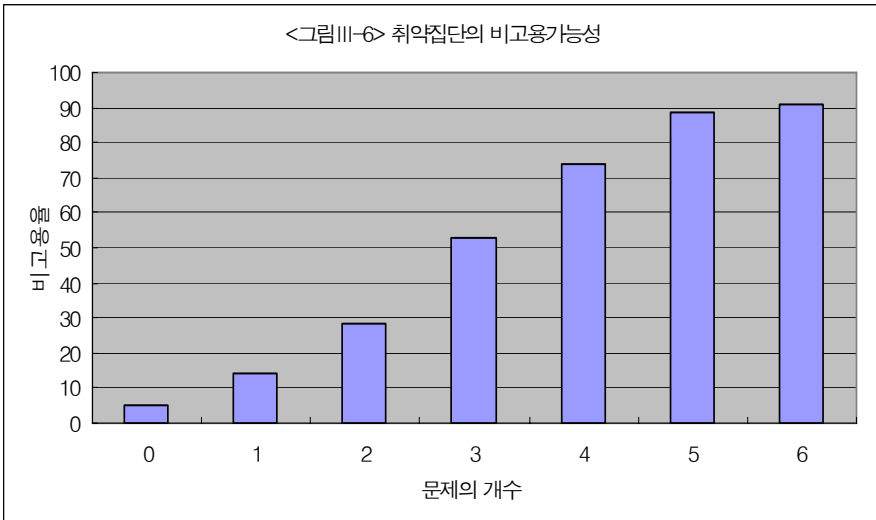
주: 저임금의 기준은 시간당 소득이 (5 £ ~6.46 £)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임  
 자료 : Palmer(2005). Monitoring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2005. Social Exclusion Unit.

Fahmy(2005)의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의 저임금 경향은 앞선 Palmer의 주장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Fahmy에 따르면, 1998년에 국민최저임금인 시간당 £3.50보다도 받지 못하는 21세 이하 청소년들의 비율이 40%이상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21세 청소년들의 비율인 10%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아울러, 16세에서 17세의 2/3에 이르는 67%의 근로 청소년과 18세에서 20세의 1/3 이상의 근로 청소년이 영국 노동인구의 가장 낮은 최하분위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인들의 임금수준과 비교했을 때 청소년의 임금수준도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79년부터 1996년까지의 기간동안 18세에서 20세의 청소년의 임금은 남성의 경우 62%에서 47%로 감소했고, 여성의 경우는 77%에서 57%로 감소했다<sup>27)</sup>.

빈곤에 더하여 청소년의 실업이 사회적 배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27) Fahmy(2005)는 청소년 임금의 이 같은 저임금 경향을 1986년에 청소년 임금보호 정책을 폐지한 1980년대 이후 노동시장정책에 따른 결과로 해석한다. 최근에도 청소년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재도입이 고려되지 않고 있고 18세 이하의 청소년들도 최저임금법안의 보호로부터 배제되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저임금 경향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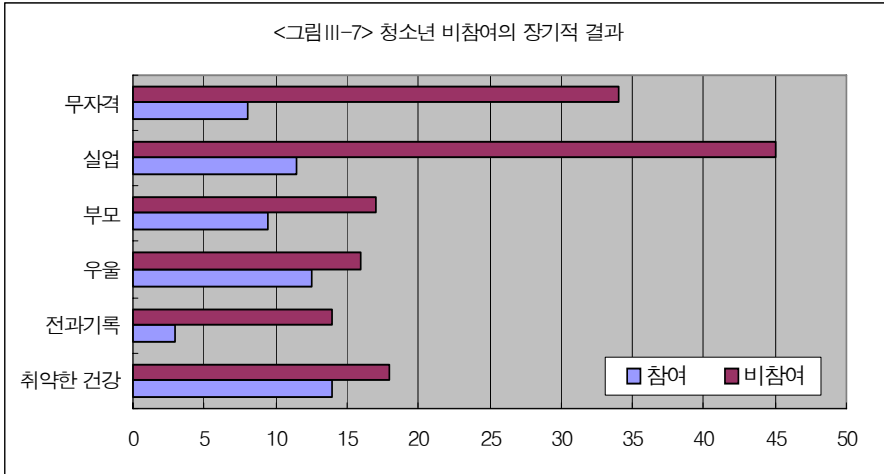
가지는 것은 다양한 문제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노동을 하지 않은 실업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Berthoud(2003)의 지적처럼, 실업은 개인이 경험하게 될 다양한 문제의 가능성을 가중시킨다. 예를 들어, 세 가지 이상의 노동시장의 불이익을 경험한 사람들의 50% 이상이 실업자인데, 이것은 불이익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의 3%만이 실업자인 경우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아래의 <그림Ⅲ-6>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비교용율이 높을수록 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문제도 많아진다. 16세에서 18세 사이에 노동이나 교육에 참여한 동료들과 비교했을 때, 이 두 가지 모두에 참여하지 않은 21세 청소년들의 경우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훈련도 받지 않고 실업상태에 있었다. 고용되었다고 할지라도 소득은 더욱 낮았다.



주: 비교용은 적어도 주당 16시간 이상 일을 하지 않거나 풀타임 교육에 참여하지도 않거나 직장동료가 없는 경우임. 자료 : Berthoud, 2003. Multiple disadvantage in employment; A quantitative analysis. York, Joseph rowntree foundation.

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노동에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일수록 21살의 이른 나이에 부모가 되었거나 우울증을 경험하였고 건강상태도 교육이나 노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에 비해서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남자 청

소년에게서는 비참여 청소년들에게서 고용에 장애가 되는 전과기록이 더 많았다.



주1: 조사대상청소년은 16-18세의 남자 청소년이고 장기적 결과는 3~4년 후인 21세 때의 결과로 비교함

주2: 비참여는 노동이나 훈련 그리고 교육을 모두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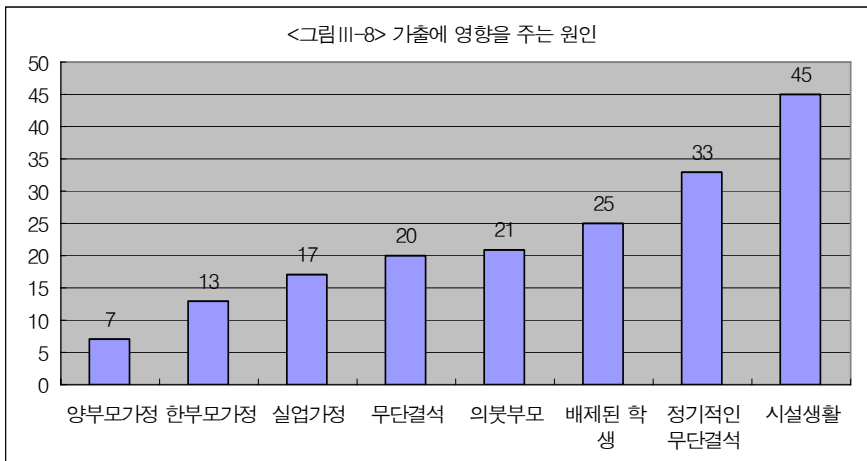
자료 : Social Exclusion Unit. 1999.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주거와 노숙문제도 비교적 소수의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주거문제와 노숙문제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매우 심각하고 절박한 상황에 있다. 2004년과 2005년에 청소년들의 10명 중 1명이 노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노숙을 하고 있는 비율은 1997년도에 3%에 불과했지만 2005년에는 9%로 증가하였다.

청소년의 노숙의 증가는 청소년들의 가출 증가로 인한 결과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청소년의 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를테면 16세 청소년의 9명 중 1명은 적어도 하루정도 가출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해 129,000건의 가출사고 중 약 2/3에 이르는 77,000명이 16세 이하의 청소년이라는 점, 그리고 가출청소년의 15%가 3번 이상 반복적으로 가출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영국의 청소년 가출이 얼마나 심각

한 사회문제를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가출청소년의 1/4는 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있고 14명 중 1명은 절도, 구걸, 약물매매, 매춘 등의 방법을 통해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출의 문제는 영국 청소년정책의 주요 정책의제가 되고 있다.<sup>28)</sup>

무엇보다도 청소년의 가출문제가 심각한 것은 가출 청소년들의 다수가 빈곤계층이거나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취약계층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Social Exclusion Unit(2001:11)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실업가정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의 17%가 16살 때까지 적어도 한번 이상 가출을 한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빈곤한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의 가출 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의 45%가 시설에서 생활하지 않은 청소년의 가출 비율인 9.5%보다도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은 3명 당 1명 정도가 10번 이상 반복적으로 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의 가출이 일반 청소년들의 가출보다도 더욱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료 : Social Exclusion Unit. 2001. Consultation on young runaways; Background paper by the social exclusion unit.

28) SEU(2001:7)는 청소년 가출의 주된 원인을 가족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주로 가출 청소년의 80%정도가 가족문제로 인해 가출을 하고 있고, 약 23% 정도가 왕따를 포함한 학교문제로 인해 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약물과 알코올 남용과 같은 개인적인 문제로 인한 가출은 약 35%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Social Exclusion Unit(2001:11)은 청소년의 가출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가족 배경을 강조하고 있다. 위의 <그림Ⅲ-8>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가출 청소년의 21%는 재혼가정에서 생활하고 있고 13%의 청소년이 한부모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양부모가정 청소년의 가출비율인 7%에 비하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빈곤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는 높은 실업과 낮은 고용, 저임금과 높은 가출 등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에서도 빈곤청소년의 사회적 배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Poverty와 Social Exclusion(PSE) 조사(1991, 1999)에 따르면, 고소득 집단과 저소득 집단 가정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제한을 비교해 보면, 1990년에는 가장 낮은 소득집단이 가장 높은 소득집단과 비교해서 아동여가시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그 접근과 제한이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져 소득격차에 따른 서비스 접근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1999년에는 공공운동시설과 버스서비스 그리고 아동보호서비스의 사용에 있어 저소득 집단에 대한 제한이 더 높아 이 서비스 접근에 대해서는 고소득집단과 저소득집단간의 격차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가정의 경우, 공공운동시설과 학교급식을 제외하고는 모든 서비스의 접근에서 빈곤하지 않은 가정에 비해 높은 제한을 보였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Bramley et al(2001:12)는 가장 빈곤한 사람들의 서비스의 질은 더욱 열악하고 박탈은 서비스의 이용을 제약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표Ⅲ-3> 소득계층별 사회서비스 제한 비율

	서비스에 접근하는데 제약이 있는 가구의 비율							
	등가소득				박탈여부			
	1990		1999		1990		1999	
	최상위	최하위	최상위	최하위	No	Yes	No	Yes
도서관	12	12	9	11	9	14	7	12
공공체육시설	20	18	20	11	20	15	13	11
박물관/갤러리	25	19	22	18	17	21	17	21
성인야간학습	9	16	9	11	9	20	7	15
버스서비스	35	24	22	24	25	29	19	27
이동보호	38	30	12	39	29	28	24	50
놀이시설	26	55	32	57	39	57	29	60
학교급식	35	33	13	15	19	33	11	14

주: 서비스를 사용하는 관련가구의 비율은 단지 서비스가 부적절한 경우, 부적절하거나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경우이고 모른다는 응답은 제외함.

자료 : Calculated from 1990 Breadline Britain Survey and 1999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Survey(final data).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Bramley et al(2001:12)는 박탈이 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제한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노동시장의 배제는 서비스의 배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배제를 초래하는 중요한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 같은 Bramley et al(2001)의 주장은 Gordon et al(2000:57)의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즉,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실업 가정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일을 하는 가정에 비해서 두 가지 이상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음의 <표Ⅲ-4>는 영국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현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표 III-4〉 영국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현황 : 규모, 경향, 국제 비교

영역	규모	경향	성, 소수민족, 위험집단 지역집중	국제비교
학교에서의 낮은 성적	청소년이 16명 당 1명(기의 40,000명) 매년 자격없이 학교를 그만두는 이고 80% 이상의 청소년들이 시험을 보지 않음.	무자격의 16세-18세 청소년 비율이 1980년대 이후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담보상태이며 학업을 마친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 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소년, 소수민족, 학교에서 배제된 영구적인 무단결석자, 보호아동, 무료급식을 받는 학생의 비율이 높은 학교	포르투갈을 제외하면 영국이 EU국가들 중 중도탈락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음.
특수교육 요구(SEN)	5명의 청소년들 중 한명이 특수한 교육 요구를 가지고 있음.	특수교육요구상태를 가진 학생들의 비율이 1980년대에 60%까지 증가함.	무료급식 자격이 있는 청소년들이 비율이 높은 학교 빈곤한 지역	캐나다, 덴마크,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영국보다 높음
문맹/수리 능력의 문제	16-25세의 청소년들의 17%가 문맹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22%가 셈을 계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	최근 경향을 보여주는 자료는 없지만 15-16세 청소년들의 문맹은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후반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음.	두 개 국어로 영어를 사용하는 청소년, 빈곤한 지역, 열악한 소수민족 거주지의 비율이 높은 지역	12개 산업국가의 독해와 산수수준을 비교할 경우, 폴란드와 아일랜드를 제외하면 영국이 가장 낮음.
학교배제	매년 초등학교에서 1,500명의 학생들이 영구적으로 배제되고 있고, 중학교에서는 매년 11,500명의 학생들이 영구적으로 배제되고 있음.	1990-91년까지 초등학교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 학생의 수는 400% 증가했고, 1995년부터는 안정화되고 있음 1990-91년까지 중학교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 학생의 수는 350% 증가했고 1997-98년사이에는 다소 감소함.	소년 혹은 카리브인, 흑인 아프리카인, 혼혈인, 보호아동, 특수한 교육요구를 가진 아동, 정서적 행동적 어려움을 가진 아동, 노숙 청소년, 청소년 범죄자, 빈곤지역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런던 내외지역	비교 자료가 없음.

자료 : Social Exclusion Task Force. 2000. Report of policy action team12: young people. National strategy for neighbourhood renewal.

〈표 III-4〉 영국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현황 : 규모, 경향, 국제 비교 - 계속

영역	규모	경향	성, 소수민족, 위험집단 지역집중	국제비교
청소년 가장	18세 이하의 청소년들 중 20,000에서 50,000명 정도가 청소년 부양자이고 이중 절반이 11세에서 15세 임.	관련 자료가 없음.	가사와 가정적인 돌봄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은 여성청소년, 소수민족 출신의 청소년 가장, 특히 부모나 형제없이 누군가를 돌봐야 할 가능성이 높은 여성청소년과 가정적인 돌봄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여성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청소년	관련 비교 자료가 없음.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청소년	1989년 아동법(children act)하에서 해당기간에 욕구를 가진 아동이 370,000명에 이룸. 55,300명(1,000명당 5명)의 청소년들이 지역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고 이들 중 6,300명이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음.	시설보호 아동 수의 상당한 감소추세는 1994년에 멈추었고 그 이후부터 약 11%까지 증가함.	남자 청소년, 혼혈 청소년, 소수민족의 청소년들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의 4명당 1명 꼴임.	관련 비교 자료가 없음.
십대 임신	10대 임신부의 수는 1년에 90,000명에 이르고, 이중 7,700명이 16세 이하임	20세 이하의 임신이 1970년대에 점차 고정되거나 증가하고 있음, 혼외 10대 임신의 비율이 1978년 40%에서 최근에는 90%까지 증가함.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프리카 카리브해 청소년, 시설청소년, 영구적인 무단결석 청소년, 학교로부터 배제된 청소년, 빈곤한 지역사회	전반적으로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서는 10대 임신 실태가 감소하지 않음. 10대의 출산물은 독일에 비해서는 2배 높고, 프랑스에 비해서는 세배 높고, 네덜란드에 비해서는 여섯배가 높음.

〈표 III-4〉 영국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현황 : 규모, 경향, 국제 비교 - 계속

영역	규모	경향	성, 소수민족, 위험집단, 지역집중	국제비교
자살을 포함한 정신건강	영국과 웨일즈에서, 15-24세 약 600명(100,000명당 10명)이 매년 자살을 하고 있음. 1982년부터는 10,000명 이상이 자살함.	청소년들의 자살율이 20년 전에 비해 서 더욱 높아짐 1980년 동안, 15-24세 남자 청소년의 자살이 75%까지 증가했지만 1990년대에는 약간 감소함.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19세 이하의 자해는 약 1/3정도까지 증가함 보다 어린시기에 우울증의 발병이 증가함	남자청소년: 자살, 여자 청소년: 자해, 우울, 식욕장애, 실업자, 시설아동, 영구적인 범죄청소년, 빈곤한 도시지역 노숙청소년은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거의 제배이고 이들은 만성적이고 심각한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 노숙 청소년의 1/3이 자살을 시도함.	15-24세 청소년의 자살률은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델란드, 포르투갈보다도 높지만, 다른 대부분의 유럽국가들보다는 낮음.
장애	영국의 0-16세 아동 중 360,000명이 장애를 가지고 있음. 거의 2/3명의 아동들이 한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음.	관련 자료가 없음.	소년, 5세 이하의 아동	관련 비교 자료가 없음.
아물남용	영국과 웨일즈에서, 16-19세 청소년의 절반(백만명이상)이 약물을 경험함. 100,000명 이상 마약을 경험했고 700,000명이 헤로인을 경험함. 16-24세 청소년의 약 400,000(약 7%)가 코카인을 경험함.	12-13세 청소년의 약물사용 실태가 4배 증가했고 14-15세 청소년은 1987년부터 8배 증가함 그러나 최근에는 고정적임. 최근에 16-29세 청소년들의 약물사용은 고정적이지만 코카인 사용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최초 약물사용 연령은 점차 낮아지고 있음	16-29세의 청소년(코카인) 무단결식, 노숙청소년, 학교에서 배제된 청소년, 시설아동, 정서적/행동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 런던(코카인), 빈곤지역, 빈곤밀집지역의 주택	영국의 15-16세 청소년의 약물사용자가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도 높음.

〈표 III-4〉 영국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현황 : 규모, 경향, 국제 비교 - 계속

영역	규모	경향	성, 소수민족, 위험집단 지역집중	국제비교
알코올 남용	15세 이상 청소년들 중 60% 이상이 적어도 두배 정도로 음주를 하고 있음. 18-25세 청소년의 4명 중 1명, 16-17세 청소년의 12명 중 한명이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음주를 함. 18-24세 청소년의 약 10%가 알코올 중독자임.	1990년대부터 음주를 하는 청소년 특히 남자 청소년들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최근에는 증가하지 않고 있음. 11-15세 음주청소년의 수는 1990년에서 19998년 사이에 두 배로 증가함.	18세 이하 남자청소년들에게서 정서적 음주를 할 가능성이 여성청소년들보다는 약간 높음 : 18-24세 청소년들 가운데 남자 청소년이 여성 청소년 보다 두배 의 음주를 함. 백인청소년이 소수민족의 청소년들보다도 음주를 할 가능성이 높음.	적어도 두 배의 음주를 한 15세 이상의 청소년 비율이 덴마크를 제외한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높음.
흡연	11-15세 청소년의 약11%(39,000) 그리고 16-19세 청소년의 3명 중 한명(700,000이상)이 정기적으로 흡연을 함	정기적으로 흡연을 하는 11-15세의 청소년의 수는 1980년대 후반부터 가파르게 증가하였지만 1996년부터는 2%감소하여 11%정도임.	여자 청소년	28개 국가의 연구에서 영국은 11세 13세 15세 청소년 흡연인구가 세 번째로 높음.
범죄	세 명의 청소년 중 한명이 30세까지 범죄기록을 가지고 있음. 40%의 범죄자들이 21세 이하이고 18세 이하가 1/4임	청소년들의 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최고 범죄 연령은 1986년 15세에서 1994년 18세로 올라감. 청소년들이 이후 재신범으로 성장함	아프리카 카리브 청소년이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형사사법과정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빈곤지역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도 영국의 여성청소년들의 폭력이 증가함.

〈표 III-4〉 영국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현황 : 규모, 경향, 국제 비교 - 계속

영역	규모	경향	성, 소수민족, 위험집단, 지역집중	국제비교
폭력의 피해자	<p>영국과 웨일즈에서, 16-24세 청소년들이 다른 집단들보다도 희생될 가능성이 높음. 예를 들어 모든 폭력범죄의 1/4가 남자청소년에게 가해짐</p> <p>20-24세 여성청소년의 28%가 남자친구로부터 폭력을 경험하였고, 34%가 위협을 받거나 성폭력을 당함. 16세와 19세 청소년들은 각각 15%와 20%정도가 폭력을 경험함</p> <p>14-25세 청소년 6명 1명이 매년 폭력범죄의 희생자가 되고 있고 12-15세 청소년들의 세명 중 한명 이상이 매년 성폭력을 경험함</p> <p>15,000명 이상의 아동들이 매년 성적인 학대와 신체적인 학대에 대해서 얘기함.</p> <p>매주 두명 이상의 아동들이 매년 학대나 방임으로 인해 사망함</p>	<p>1980년대 초에서 1990년대 중반사이 에 총 희생자의 비율은 75%증가하였고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다소 감소함</p>	<p>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장애 청소년과 학습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학대의 위험이 매우 높음. 물리적으로 황폐한 지역 빈곤한 지역에서 청소년이 가장인 가정</p> <p>25%의 청소년 수감자들이 노숙이나 불안정한 주거공간에서 생활함. 18세 이하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시설청소년이거나 사회서비스를 받는 청소년임.</p> <p>15-17세 청소년의 거의 2/3(약 80%)이 그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고 실업상태에서 수감됨</p>	<p>영국과 웨일즈는 네델란드와 함께 희생자의 비율이 다른 11개 산업국가들보다도 높음.</p> <p>폭력을 두려워하는 비율도 가장 높음.</p>
감금청소년	<p>11,5000명의 15-21세 청소년들이 감금되어 있고, 이들 중 적어도 3/4명은 출소한지 2년 내에 재수감됨</p> <p>출소한 21세 청소년 범죄자의 거의 3/4이 2년 내에 재범을 함.</p>	<p>감금청소년의 비율은 1990년대부터 약 50%까지 증가함.</p>	<p>15-17세 청소년들의 절반 이상이 학교로부터 배제됨. 거의 2/3이 약물을 사용하고 1/4가 현재와 과거에 음주문제를 경험함</p> <p>6명 중 한명이 학대를 받았고 10명 중 한명이 자해를 함.</p>	<p>29개 유럽연합 국가들 중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그리고 리투아니아를 제외하고는 21세 이하 청소년의 수감율이 가장 높음.</p>

## 2.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해소를 위한 정책

### 1)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집행

영국의 사회정책에서 사회적 배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게 된 것은 1990년대 후반 신노동당 정부의 참여를 통한 사회통합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되었다. Levitas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신노동당 정부는 분배적 평등에 대한 담론대신에 범죄의 감소와 복지비용의 절감을 포함하여 임금노동으로의 참여를 의미하는 사회통합을 강조하면서 실업과 사회적 배제의 해소를 위한 정책대안으로 근로에 기반한 통합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그리고 영국은 이 같은 정책적 지향을 통해서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고자 부총리 산하에 사회적 배제 기구를 직속으로 설치하여 전국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연구와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계획·평가하고 있다.<sup>29)</sup>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여 빈곤 문제에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도 빈곤의 문제를 사회적 배제의 시각으로 파악하고 있는 영국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사회적 배제에 대한 유럽국가의 대응은 유럽연합차원에서 회원국들에게 빈곤과 배제 극복을 위한 법률적 약속을 강제하여 공동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회원국가들은 핵심적인 문제와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기 위한 접근들이 개괄적으로 제시된 사회적 배제에 대한 국가행동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계획에는 주거, 고용, 건강불평등, 아동과 노인,

---

29) 1999년 Social Exclusion Unit는 ‘격차완화(Bridging the Gap)’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전술한 영국 청소년들의 사회적 배제의 심각한 실태를 제시하고 광범위한 청소년 지원서비스를 개발할 것을 권고했다. 2001년 4월, 정부는 Social Exclusion Unit가 제안한 여러 사항들을 수용하고 청소년들의 종합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접근을 제공하기 위한 연계서비스를 수행하기에 이른다. 당시 Social Exclusion Unit가 제시한 광범위한 청소년 정책의 네 가지 핵심적인 주제는 ① 서로 다른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자격을 고려한 적절하고 유연한 교육과정, ② 양질의 초등교육 제공과 더 나은 대학 그리고 직업 중심의 학습, ③ 청소년들의 교육에 대한 집중적인 재정지원, ④ 적극적인 봉사활동, 정보, 자문, 지원 그리고 안내 등의 제공이다.

장애, 혹은과 소수민족 그리고 성 등의 쟁점들을 모두 포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영국은 자체적인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까지 아동빈곤을 절반으로 감소시키고 2020년까지는 완전히 아동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였다.<sup>30)</sup> 특 특히 영국은 2001년 수립한 1차 국가행동계획에서 아동 빈곤의 해소를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하였고 아동빈곤의 문제가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2차 보고서에서 확인하였다. 영국에서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기 위한 주요 책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두고 있다. 특히 영국은 빈곤의 해소가 정부의 전반적인 사회경제프로그램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2003년 영국의 국가행동계획은 강력한 경제의 유지, 유연한 노동시장의 보장, 양질의 서비스 개발 이라고 하는 세 가지 기본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아래의 <표Ⅲ-5>는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2003-2005년)의 주요 내용과 세부정책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 국가행동계획의 정책 목표는 크게 ① 고용참여의 증진, ② 자원, 권리,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 ③ 배제위험예방 등이고 이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정책들로는 New Deal정책, Working Tax Credit 등이 시행되고 있다.

영국이 국가행동계획에서 무엇보다도 고용참여의 증진을 강조하는 이유는 노동이 빈곤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NAP(2003-200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여전히 노동은 노동연령대의 대부분의 사람들과 그 가족들의 빈곤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자 노령기의 뒤이은 빈곤에 대한 최선의 방어책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고용전략에는 ① 모든 사람에게 고용을 개방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② 세금혜택(Tax-benefit)의 개혁, 최저임금제(Minimum wage), 성별 임금격차의 해소를 통한 근로임금의 보장, ③ 전문적이고 적응할 수 있는 노동력 개발에 대한 지원, ④ 노동에 대한 가족우호적인 접근의 증진과 새로운 보육공간 설립의 지원 등이다.

30) 유럽연합도 노동시장의 인적 자원과 고용능력 개발을 위한 유럽사회기금(Social Social Fund)을 포함하여 회원국가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UK National Action Plan 2003-2005).

〈표 III-5〉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의 주요내용

정책목표	세부정책 과제와 대상	세부정책
고용참여 증진	고용증진, 일을 통한 소득(Working work pay), 노동기술, 일과 양육의 조화	New Deal(청소년을 위한 New Deal, 한 부모를 위한 New Deal, 장애인을 위한 New Deal, 50세 이상을 위한 New Deal 등), 노동소득감면(Working Tax Credit), 국가최저임금(National Minimum wage), 고용법(Employment Act), 법정출산수당(SMP), 아동양육기금
자원, 권리,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	사회적보호현대화, 세액공제, 주거급여 개혁, 취약계층 사회적 보호 개혁 안정적인 주거에 대한 접근과 에너지 빈곤 해소, 의료보험에 접근, 교육에의 접근, 사법체계의 접근, 문화/스포츠/여가에의 접근, 취약한 시민들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세액공제(Child Tax Dredit, Working Tax Credit), 주거급여, 저축창구(Saving Gateway), 아동신탁기금(ChildTrust und), 부가현금지원, NHS, 지역법률서비스(Community Legal Service), 국가문맹해소전략, 교육행동지역, Excellence in Cites, 교육유지수당(EMA)
배제위험 예방	건강불평등해소, 배제를 초래하는 생활 위기의 예방, 과중채무와 재정적 배제, Universal banking, 지식기반사회와 IT 능력의 개발, 노숙, 10대 임신, 약물, 가족과 가족구성원에 대한 지원,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 양육자에 대한 지원, 노인에 대한 지원, 국가연금개혁, 노인장기요양보험, 빈곤지역, 농촌지역의 배제위험 예방, 망명자와 난민, European Structural Fund와의 연계	건강불평등해소를 위한 행동프로그램, 사회기금, 저소득신용조합지원, The Public Internet Access Point Initiative, 아동기금(children's Fund), 특수교육구와 장애법, Sure Start, 연계(Connexions), 양육자 및 장애아동법, 최저임금보장(Minimum Income Guarantee), 국가망명지원서비스(The National Asylum Support Service), 유럽사회기금

주1: NMW의 적용은 16세와 17세의 청소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정부가 이 연령대의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이나 훈련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자료: Depart for Work and Pensions. 2003. UK National Action Plan on social inclusion 2003-2005.

무엇보다도 영국의 NAP(2003-2005)는 사회적 배제에 취약계층인 아동에 대한 빈곤해소에도 강조점을 두었다. 2020년까지 아동빈곤을 완전하게 해소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2010년까지는 아동빈곤의 수준을 절반이상까지 감소시키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처럼 NAP에서 아동빈곤의 문

제를 강조한 것은 아동이 소수민족이나 장애인 등과 함께 사회적 배제에 취약한 주요 집단 중 하나라는 점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영국의 전체 저소득가구에서 아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이를 만큼 영국의 아동빈곤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아동의 빈곤이 교육으로부터의 배제, 비행과 약물 남용과 같은 사회문제와 같은 이차적은 배제를 초래함으로써 빈곤과 배제를 고착화시킨다는 위기의식이 영국의 NAP에서 아동의 빈곤을 무게 있게 다루고 있는 이유이다. 이 같이 이유로 인해 NAP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Sure Start, Connexions**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의 내용 중 무엇보다도 빈곤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18~24세 청소년을 위한 뉴딜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책은 6개월 이상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16~24세의 청소년들이 장기실업자가 되기 이전에 필요한 지원과 고용,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처럼 영국은 빈곤과의 전쟁을 정부정책의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차별, 불평등, 기회의 부족과 같은 사회적 배제의 원인을 해소하는 것이 미래 사회의 성공과 번영에 있어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것이다.

영국 정부가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립하고 있는 계획은 비단 3년 주기의 국가행동계획에만 한정하지 않는다. 정부의 장기적인 지출 전망과 함께 향후 3년간의 부처별 예산 배분을 제시하고 있는 포괄적인 지출 보고서(Comprehensive Spending Review)도 사회적 배제를 체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영국정부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어떻게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배제를 초래하는 장기적 요인들을 분석하고 그 이 같은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들을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 배제에 대한 10년 전략 보고서(10-year Strategic Review of Social Exclusion)와 사회적 비제 행동계획 경과 보고서(Social Exclusion Action Plan Progress Report)도 사회적 배제 특별 전담기구(SETF)의 주관아래 2007년 여름부터 발간하고 있다. 이외에도 10대 임산부전략

(Teenage Pregnancy Strategy), 빈곤과 사회적 배제 해소의 성공여부를 평가하는 연간보고서(Opportunity for All), 위기집단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법들을 탐색하는 보호아동녹서(Children in Care Green Paper) 등도 고용연금국과 교육기술국에서 꾸준히 발간하고 있다.

한편, Social Exclusion Unit(2004)에서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한 정책들은 주로 노동, 교육, 주거, 청소년 범죄에 맞추어졌고 무엇보다도 이 기구가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와 관련하여 주목한 집단은 교육이나 훈련 그리고 고용체계에서 이탈한 청소년들이었다. 이른바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집단이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의 중심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sup>31)</sup> NEET 집단이 다른 인구집단들보다도 사회적 배제 해소를 위한 정책에서 강조된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교육이나 훈련 그리고 고용체계에서 이탈한 청소년들이 대부분 빈곤이나 실업, 학교로부터의 배제 등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영국의 사회적 배제 해소 정책이 가지고 있는 또다른 특징은 사회적 배제 해소정책이 주로 예방(Rrevention), 재통합Re-intergration),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보장(Minimum basic standards)을 그 목표로 했다는 점이다. 즉, 영국의 사회적 배제 해소정책은 사회적 배제의 위험요인과 함께 이미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을 감소시키는 것, 배제된 사람들을 사회로 재통합시키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이 중요한 정부정책의 목표였다.

---

31) Social Exclusion Unit는 아동, 청소년, 노인, 가출청소년 등 다양한 인구집단의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대안을 분석하고 정리한 여러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2004년 'The impact of government policy on social exclusion among young people'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영국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기 위한 추진된 다양한 정책들의 성과들을 평가하고 있다. 이 기구는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행된 여러 정책들을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범주화한 다음 각각의 범주에 해당되는 정책의 목표와 내용 그리고 그 영향들을 분석함으로써 각각의 정책들이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 기구가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해소 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분류한 네 범주는 ① 노동과 교육, ② 10대 임신과 부모역할, ③ 주거와 노숙, ④ 청소년 범죄 등이다.

<표 III-6> 영국의 빈곤 청소년 사회적 배제 해소를 위한 주요 정책

주요정책	정책목표 및 내용
New Start	중도탈락의 위험에 처한 학생들에게 학습기회의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New Start에는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졸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교과목을 개선뿐만 아니라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과 지문 서비스의 제공
부모지원	국가보험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저소득 빈곤가정의 여성들에게 출산수당을 지원. 2003년부터 법정출산급여의 수급기간은 18주에서 26주로 연장. 2003년부터 일을 하고 있는 아버지에게도 2주의 유급부모휴가의 권리를 부여함.
New Deal	저소득층 대한 소득분배보다는 근로능력 강화를 통한 노동유인하는데 목적이 있음.
현대 도제제도 (Modern)	고용중심의 훈련을 통한 보다 전문적인 직업능력을 습득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연계 (Connexions)	모든 청소년들에게 정보, 지문, 개인적인 발달기회, 욕구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육과 훈련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개선, 청소년 약물남용을 예방하며, 10대 임신과 10대 폭력의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교육지원수당 (EMAs)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자산조사에 기초하여 재정적인 지원
지역중심의 프로그램 (Excellence in Cities)	교육참여가 낮은 빈곤지역에 교육에 필요한 부가적인 자원을 집중지원함으로써 교육 참여의 확대와 생활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국정부는 1999년도에 주요도시의 교육을 변화시키고자 1999년 3월에 EiC(Excellence in Cities)를 수행.
10대 임신예방 전략	교육을 통해 10대 임신율을 줄이고 미혼모와 그 아이들의 생활 개선 도모. 성교육, 피임상담, 보건교육, 임신지속여부 결정에 대한 지원
미혼모의 사회적 배제 해소	교육과 아동양육 그리고 주거지원을 통해서 미혼모가 교육체계에서 배제되는 것을 예방
Sure Start	신생아와 취약한 아동들의 발달과 양육을 위해 임신여성가족들에게 양육기술에 대한 교육 제공, 봉사활동, 가정방문, 결연 양육정보와 후견과 같은 사회적 지지,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대한 지문 등 제공
청소년 범죄 예방팀	사법, 사회서비스, 교육, 보호관찰 보건 등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청소년의 범죄율 감소, 이미 반복적인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위해 새로운 Intensive Supervision and Surveillance Programme(ISSP)를 도입
지역방범활동 (Neighbourhood wardens)	지역사회의 환경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경찰과 협력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삶의 질 개선

## 2) 노동과 교육의 연계

영국이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비단 주기적인 국가행동계획의 수립에 한정하지 않는다. 사회적 배제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과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을 비교 분석하여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 배제 기구(Social Exclusion Unit)의 설치도 영국 정부의 빈곤 및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표현이다. 특히 2006년 설치된 Social Exclusion Task Force는 다수의 사람들이 향유하고 있는 기회를 박탈되고 배제된 사람들에게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정책결정을 위한 논거를 제공하고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집단의 권익을 대변하는 노력들을 수행하고 있다<sup>32)</sup>.

이 기구들이 빈곤 집단 특히, 청소년들의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기 위해 역점을 두는 정책은 노동과 교육을 소득과 연계시키는 활동들이다.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New Deal 프로그램이 이 활동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New Deal 프로그램은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①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계층인 청소년과 장기실업자, 미혼모, 노동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직장을 얻고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 ② 전술한 노동시장에서의 취약 계층들의 장기적 고용능력을 강화시키는 것 등이다.

Social Exclusion Unit는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의 한 요인으로 노동시장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영국은 지난 20년 동안 빈곤은 노동시장의 수요의 감소와 결합되면서 급속하게 증가했다. 이로 인해 실업은 1980년대 초와 1990년대 초에 3백만을 초과했다<sup>33)</sup>. 일을 하지 않는 가정이 빈곤에 빠질 위

32) 초기에 Social Exclusion Task Force(SETF)는 위험집단을 구체화하고 시설아동이나 정신건강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임신의 위험이 있는 10대 등의 특별히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집단에 초점을 두었다. 이 기구는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부서들과 함께 업무를 수행한다.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전 사회적 배제기구의 일부 전문가들과 부총리전략기구(Prime Minister's Strategy Unit)의 정책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33) 1970년대 중반, 새로운 기술과 세계 경제의 침체, 특별히 조기 졸업자들의 노동시장으로의 전통적인 진입 경로의 붕괴 등으로 인해 고용환경은 변화되었다(Bank et al., 1992). 노동시장이 제조업에서 정보기술 중심의 고용과 서비스 산업으로 재편됨으로써, 미숙련 육체노동의 범위는 계속해서 감소했다. 1970년대 중반, 청소년들의 2/3은 여전히 16세에 학교를 떠나고 있었고, 노동계급의 배경을 가진 다수의

험은 a무려 75%인 것으로 보고 되고 있을 만큼 실업은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초래한 주요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Social Exclusion Unit도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빈곤자들의 39%는 전일제 노동이라는 점에서 빈곤을 초래하는 노동시장요인으로는 실업과 함께 노동특성이나 임금의 변화 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테면, 청소년 노동자와 성인노동자간, 숙련노동과 미숙련노동자간,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노동자들간, 그리고 여성과 남자간의 소득분포의 증가와 저임금의 증가가 빈곤층을 양산함으로써 사회적 배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영국은 빈곤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노동과 교육을 소득과 연계시키는 ‘복지에서 노동으로’의 전략을 구사하게 된다.

1997년 선거이후 신노동당정부는 복지에서 노동(Welfare to Work)으로의 전략을 추진하였는데, 이 전략의 목적은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장기적으로는 복지급여에 대한 의존성을 약화시키고자 하는데 있었다. 그래서 이 전략은 세금과 급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New Deal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동시장에 개입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전자의 목적이 노동에 대한 유인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후자는 청소년 실업자나 장기실업자들이 일을 하도록 지원하고 이들의 장기적인 고용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처럼 고용과 소득을 연계하는 영국의 사회적 배제 해소정책의 중심에는 New Deal 프로그램이 있었다.

The New Deal과 Welfare to welfare’프로그램은 참여를 통한 사회적 배제 해소라고 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이었다. 특히 New Deal은 교육훈련을 중시하는 자립지원사업으로 빈곤청소년의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기 위한 주요 정책 중 하나였다. 금제호 외(2005:62)에 따르면,

---

청소년들은 이전의 많은 청소년들이 동일한 경로를 통해서 지역의 전통적인 노동시장으로 진입했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해 자격이 없는 청소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양질의 직장보다 이 같은 직업의 수가 크게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 분야와 산업단지에서 청소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의 수는 급격하게 감소했다. 이 같은 노동시장의 변화는 특히 남자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New Deal 프로그램은 현재 영국의 근로연계복지(Welfare to Work)라는 틀 안에서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구조적 실업을 줄이고 장기실업자의 경쟁능력을 길러주며, 장애인이나 기타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른바 복지수급자들과의 일련의 고용협정 프로그램이다.

다양한 New Deal 정책 중 전술한 청소년을 위한 뉴딜은 직업안정기관에서의 상담과 조언을 통한 구직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실업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이 청소년 New Deal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18세 이상 24세미만의 청소년으로 구직급여를 6개월 이상 받고 있는 장기실직자로 직업준비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지는 도입단계와 자원봉사나 교육 혹은 훈련을 선택하는 선택단계 그리고 기업체로의 취업을 도모하는 취업단계를 거쳐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된다.

〈표 III-7〉 청소년 주요 고용지원 프로그램 내용

정책	목적 및 대상	지원내용
청소년고용보조 (Youth Employment Subsidy)	실직상태에 있는 20세 이하의 청소년 고용 사업장	청소년 1인당 10£
직장체험프로그램 (Work Experience Programme)	16-18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산업현장의 직업체험기회제공	참여청소년 1인당 주당 18£ 지원
청소년 기회프로그램 (Youth Opportunity Programme)	직장체험: 사기업고용주들이 6개월간 직장체험기회제공 직업준비: 기술교육센터나 계속교육대학 또는 고용주가 약속한 장소에서 13주 단기훈련과정 운영 신규훈련: 12개월간 청소년을 대상으로 훈련교육	-
청소년훈련계획 (Youth Training Scheme)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에게 직장체험 및 직업준비기회의 제공하여 청소년의 고용능력 신장	-
청소년을 위한 뉴딜 (New Deal for Young People)	18-24세의 6개월 이상 실업청소년들을 대상으로 Gateway, Option, Follow through 과정 제공	

청소년을 위한 뉴딜은 전술한 바와 같이 **Gateway, Option, Follow-through**의 세 단계로 구성된다. 세 과정에의 참여는 시간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정해진 기간 이후에는 강제적으로 다음 과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Gateway**는 최대 4개월까지이며 이 기간동안 청소년 실업자는 집중적인 상담과 함께 구직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다음 단계인 **Option**단계에서는 재취업을 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개별 취업상담가가 참가자의 욕구와 능력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제공된다. 이 단계에서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고용, 교육과 훈련, 환경사업, 자원봉사기관 참여 등 4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마지막 과정인 **Follow-through**에서는 실업청소년의 구직활동이 집중적으로 지원된다.

영국은 청소년을 위한 뉴딜과 함께 가족의 빈곤으로 인한 양육의 어려움이나 빈곤의 대물림 문제를 차단하고자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위험에 취약한 한 부모 가정을 위해서도 **New Deal** 정책이 추진되었다. 한부모가정을 위한 뉴딜프로그램에는 2002년 12월까지 326,280명이 참가했고 이중 175,810명이 노동시장에 진입했다.

한편, 영국 정부가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역점을 두고 있는 또다른 정책은 학습과 기술(**Learning and Skill**)의 강화에 있다. **Hasluck**와 **Green(2004)**의 지적처럼, 부족한 기술과 자격 그리고 노동경험이 빈번한 실업이나 장기적 실업과 관련되어 있고 이것이 빈곤과 열악한 건강 그리고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이 유급노동시장에의 진입을 지원하는 것이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영국 정부 전략의 핵심적 요소라고 본다.

한편, 고용능력을 신장하는데 기초가 되는 학습능력을 재고하고자 언어와 수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영국은 **Skill for Life**라는 국가 전략을 수립하여 2001년부터 시행하였다. 이 전략의 일부로서 **DfES**는 청소년들의 기본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많은 기관들 그리고 조직들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과 기술의 향상을 담당하는 정부조직은 연령에 따라 이분화되어 있는데, 16세 이전의 교육에 대한 전달은 교육기술

성(Depart for Education and Skill)에서 담당하고 16세 이후의 교육에 대한 전담은 국가 학습 및 기술위원회(National Learning and Skill Council)에서 담당한다. 특히 청소년의 기술과 고용능력 강화를 위해 현대 도제제도를 1995년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주로 16세-19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시행되며 프로그램의 개발은 각 산업의 산업훈련조직과 TEC이 담당하고, 실제훈련을 기업, 훈련생 그리고 TEC등의 삼자간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제도의 주된 목표는 청소년에게는 전문인이 되기 위한 경력 개발을 도와주고 최소한 국가기술자격 Level3 이상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에게는 필요한 기술 특히 중간기술자 또는 감독자 수준의 기술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훈련과정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과 자격제도를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3) 빈곤 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

아동의 빈곤을 해소하고 노동유인을 확대를 통해서 가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03년부터 아동세액공제(Child Tax Dredit:CTC)와 근로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WTC)를 시행하였다. 아동세액공제는 출생~16세 9개월의 기간에는 £26, 16세 9월~18세 기간에는 £26.75에 대한 세액공제혜택을 제공하며, 장애아동감면은 £30, 최고 아동감면급여는 한 명의 경우 £70, 두명 이상일 경우에는 £105를 지급한다. 아동세액공제는 아동 또는 학업 중인 청소년의 부모 및 보호자에게 지급되는 자산조사형 급여로서 종전의 ‘아동을 고려한 소득세 수당(children'stax credit)’을 대체하여 2003년 4월에 시행되었다. 아동세액공제(CTC)는 기존의 피부양아동 세대를 지원하던 다양한 제도들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효율적인 지원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16세 미만의 피부양아동이 1명 이상이며 부부의 연간 총수입이 £50,000 이하인 가구이며 근로활동 유무와 상관없이 지원한다. 단, 16~18세까지의 피부양아동의 경우에는 정규교육을 받고 있어야만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아동급여세액 공제의 급여는 가족요소(family element) 및 개별 아동 또는 해당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아동요소(child element) 등 두 가

지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1세 미만의 영아나 장애아가 있을 경우에는 보다 높은 금액을 산정하여 추가 지급한다(금재호 외, 2005:66).

〈표 III-8〉 빈곤 가정 지원 정책

1997	한부모를 위한 New Deal(New Deal for Lone Parents, NDLP)
1998	신복지계약(A New Contract for welfare) 발표 장기실직자를 위한 New Deal(New Deal for Long-term Unemployed, NDLU) 고용구역(Employment Zone) 프로그램 국민아동보육전략(National Childcare Strategy)
1999	아동부양저소득가족급여(Family Credit) 장기실직자 배우자를 위한 New Deal(New Deal for Partners of the Unemploymented)
2003	아동세액 공제(Child Tax Credit) 근로세액 공제(Working Tax Credit)

금재호 외, 2005.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개편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재구성

한편, 근로세액공제는 노동시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비기여형 급여제도로서, 기존의 근로가족세액공제(WFTC) 및 근로장애인세액공제(Disabled Person's Tax Credit)를 대체하여 2003년 4월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다. 피부양아동 유무와 무관히 근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저소득근로자가구에 대한 소득지원과 근로유인을 목표로 한다. 지원대상은 피부양아동 유무에 따라서 구분된다. 피부양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당 최소16시간 이상 근로하는 양육 책임을 진 근로자(16세 이상)이고, 피부양 아동이없는 경우에는 다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첫째, 주당 근로시간이 최소 30시간 이상인 25세 이상의 근로자, 둘째, 주당 근로시간이 최소 16시간이상인 16세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 셋째, 본인 혹은 배우자가 실업급여 수급 이후 노동시장으로 복귀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최소 16시간 이상인 50세 이상의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다.

이처럼 영국은 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한 급여로 아동급여(Child Benefit),

근로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 아동세액공제(Child Tax Credit), 법정출산수당(Statutory Maternity Pay) 등을 제공하고 있고, 실업자를 위한 급여로 구직수당(Jobseeker's Allowance), New Deal 프로그램 등이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자를 위해서 소득지원(Income Support), 주거급여(Housing Benefit), 지방세공제급여(Council Tax Benefit) 등을 제공하고 있고, 환자와 장애인을 위해서 무능력자급여(Incapacity Benefit), 참석수당(Attendance Allowance), 장애생활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 중증장애수당(Severe Disablement Allowance), 장애개호수당(Invalid care Allowance), 산업재해장애수당(Industrial Injuries Disablement Allowance) 등을 제공하고 있다. 유족을 위해서도 미망인과 유족급여(Widow and Bereavement Benefit), 산업사망급여(Industrial Death Benefit)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모든 급여나 수당이 빈곤청소년의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기 위한 직접적인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빈곤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가 주로 저소득 가정이나 미혼모 가정 그리고 실업가정에서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정책들은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Social exclusion Unit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혼은 감소했지만 한부모가 가장인 가정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이 같은 경향이 사회적 배제의 추동시킨 상당한 요인이었다. 결국, 영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급여나 수당은 직간접적으로 가정의 소득 안정에 기여함으로써 빈곤 청소년이 사회적 배제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34)</sup>.

34) SEU(Social exclusion Unit)도 영국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를 추동하는 요인으로 인구학적 요인, 노동시장요인 그리고 사회정책의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기구가 제시한 인구학적 요인에는 청소년의 실업과 노령화 그리고 한부모가정의 증가 등이 있다.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와 관련하여 인구학적 요인에서 주목해야 할 요인으로는 무엇보다도 청소년 실업의 증가와 한부모가정의 증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청소년 실업의 경우 1980년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특히, 1980년대는 1960년대 베이비붐 세대의 등장으로 인해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노동시장으로 배출되었지만 당시 고용율은 하락했고 여성도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함으로써 여성들 과다 경쟁해야 했던 시기였다. 따라서 고용여건은 갈수록 악화되어 노동수요는 감소한 반면 노동인력은 수요를 초과하여 과잉 배출됨으로써 청소년들의 실업이 증가한 것이 영국의 사회적 배제를 초래하는 요인이었다는 점이다.

#### 4) 사회적 배제 지표의 개발과 주기적인 평가

영국의 사회적 배제 해소 정책은 빈곤과 사회적 배제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에 근거하여 정책의 영향정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영국 정부도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정책의 주체는 국가와 지방정부와 함께 자발적인 민간단체의 역할도 강조되고 있다. 이는 사회적 배제의 문제가 국가차원의 정책적 지원만으로는 부족하고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만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실태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위해 다양한 지표를 생산하고 있는 NPI(New Policy Institute)가 사회적 배제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핵심적인 민간단체라 할 수 있다. NPI는 1996년 설립된 진보적인 연구소로서 재정적인 후원자나 정치적인 지원자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이 단체의 대부분의 재원은 연구사업비나 비영리재단, 무역노조, 자원봉사부문조직, 그리고 공공부문의 기구들에서 충원된다. 무엇보다도 이 기구는 영국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와 관련된 50여개의 지표를 개발하고 이 지표들의 실태들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기구가 매년 빈곤과 사회적 배제 실태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지표는 연령대별로 아동과 청소년, 노동연령, 노인 등으로 범주화하고 관련 분야로 소득, 노동, 저임금, 교육, 건강, 주거, 범죄, 서비스 그리고 사회통합 등으로 대별하고 있다. 이 기구가 개발한 지표 중 청소년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측정하기 위한 사용된 지표는 실업, 저임금 경향, 자격, 노동에의 효과, 결과, 자살, 약물남용 전과기록 등 8개 지표이다.

빈곤청소년의 사회적 배제가 정책의 실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문제점을 극복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과학적인 지표의 생산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비록 민간단체 차원이기는 하지만 영국의 사회적 배제 실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NPI의 노력은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연구조차도 미진한 우리나라에게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III-9> 영국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 평가 지표

	모든 연령	이동	청소년	노동연령	노인
소득	전반적인경향 지역별 연령집단별 가족형태별 민족집단별 성별 지속적인저소득 소득불평등 자원의 부족 지속성의 부족 급여수준	전반적인 경향 세액공제	전반적인경향	노동지위별소득 장애별 연령별 지방의회세	전반적인경향 사회적소득 급여
	급여수혜자 장기급여수혜자 세액공제	실업가정	실업	개인의 실업 장애별 한부모 인종별 성별 직장 실업가정 직업의 불안정 훈련	
저임금			경향	경향 산업별 지역별 장애별 인종별 불평등	
교육		11세 16세 배제 보호아동	자격 노동에의 효과 결과		
건강		저출산 유아사망 치아건강 사고	자살 약물남용	사망 질병 정신건강 비만	사망 질병
주거	중앙난방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 에너지 빈곤 노숙 과밀주거 주거욕구미충족 임대료 체납 주거급여				
사회통합	양극화 비참여	집중 임신 전과기록	전과기록	집중	

자료 : Palmer et al. 2006. Monitoring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Joseph Rowntree Foundation.

특히,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를 연령집단에 따른 위험요인에 기반하여 지속적으로 지표를 생산하여 그에 따른 실태를 주기적으로 평가분석하고 있는 NPI의 정책방향은 청소년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와 관련한 민간단체 차원의 노력과 함께 정책의 방법론에 중요한 사례를 제공해 주고 있다.

### 3. 영국의 빈곤청소년 사회적 배제 정책의 경향과 함의

영국은 1990년대 중반에 유럽연합의 경쟁국가를 보다도 높은 수준의 사회적 배제를 경험했다. 실업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비율과 10대 임신부의 비율 그리고 청소년의 약물사용에서 영국은 유럽국가 중 최고를 기록했다. 영국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 문제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더욱 악화되었다. 1980년과 1995년 사이에 범죄는 두 배로 증가했고, 아동의 빈곤율도 1979년과 1995년 사이에 세배로 증가했다. 학교로부터의 배제도 1990-91년에서 1996-97년 사이에 4배로 증가했고 1986년부터 1996년까지 10년 사이에 약물 중독은 4배로 증가했다. 1990년대 초 약 2,000명의 사람들이 매일 런던의 중심부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SEU, 2001)<sup>35</sup>. 이 같은 청소년들의 심각한 사회적 배제로 인해 영국 정부는 SUE의 구성과 함께 사회적 배제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하기에 이른다.

영국의 빈곤청소년 사회적 배제 해소를 위한 정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객관적 자료에 대한 분석’과 ‘주기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종합적이고 체계

---

35) 영국의 Social Exclusion Task Force(2006)는 청소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위험과 도전은 주로 특성에 관련된 것이라고 본다. 이 기구에 따르면, 오늘날 많은 직장들이 자격을 가진 청소년들에게만 개방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청소년들이 보다 많은 시간을 공부하는데 투자하고 있고, 특히 기술이 없는 청소년들에게는 거의 기회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직업이 사라지고 평생직장의 가능성도 사라짐으로써 모든 노동연령대에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이 같은 상황변화는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변화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부모에 대한 의지 기간을 연장하고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결혼을 늦춤으로써 가정의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본다

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은 중앙정부차원에서 **Social Exclusion Unit**를 구성하여 청소년을 비롯한 다양한 인구집단의 사회적 배제 실태와 정책의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에 따라 국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단체가 상호연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주기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영국의 사회적 배제 해소대책은 사회적 배제를 초래하는 원인에 대한 소급적 분석을 통해 그 대안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특징이 있다. **Social exclusion Unit**는 영국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를 추동하는 요인으로 인구학적 요인, 노동시장요인 그리고 사회정책의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기구가 제시한 인구학적 요인에는 청소년의 실업과 노령화 그리고 한부모가정의 증가 등이 있다.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와 관련하여 인구학적 요인에서 주목해야 할 요인으로는 무엇보다도 청소년 실업의 증가와 한부모가정의 증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1990년대 여러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고용여건은 갈수록 악화되어 노동수요는 감소한 반면 노동인력은 수요를 초과하여 과잉 배출됨으로써 청소년들의 실업이 증가한 것이 영국의 사회적 배제를 초래하는 요인이었다는 점이다.

〈표 III-9〉 청소년 문제의 핵심적 위험요인

위험요인	불리한 결과					
	약물남용	청소년 범죄	학령기 임신	학업실패	정신건강 문제	노숙
<b>가족</b>						
취약한 양육	●	●	●	●	●	●
가족갈등	●	●	●	●	●	●
낮은 소득/ 열악한 주거	●	●	●	●	●	●
보호가정	●	●	●	●	●	●
<b>학교</b>						
낮은 학업성취	●	●	●	●	●	●
무단결석	●	●	●	●		●
배제	●	●	●	●	●	●
<b>지역사회</b>						
열악한 지역사회	●	●	●	●	●	●
위험행동을 하거나 참여하는 친구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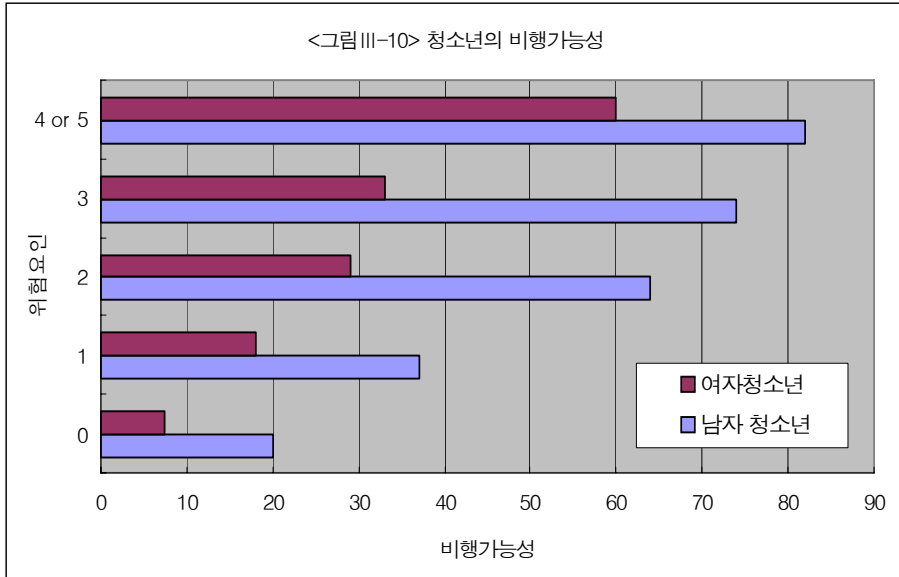
자료 : Social Exclusion Task Force. 2000. Report of policy action team12: young people. National strategy for neighbourhood renewal.

영국은 빈곤청소년의 사회적 배제가 한부모가정이나 가출청소년, 노숙청소년, NEET 청소년 등 주로 취약계층의 청소년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빈곤 청소년의 문제를 단지 경제적 빈곤상태에 있는 청소년의 문제로만 한정하지 않고 청소년이 처한 사회경제적 환경과 빈곤을 결합시켜 가며 그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즉, 배제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범죄청소년, NEET, 약물남용, 10대 임신 등의 문제는 빈곤을 위시로 한 열악한 양육, 행동상의 문제, 지속적인 무단결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본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와 관련해서는 가출청소년, 10대 미혼모, 노숙청소년, 약물 청소년 등을 별도로 사회적 배제 실태를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사회적 배제의 위험에 노출된 가장 심각한 위기집단으로 10대 미혼모와 한부모 가정의 증가에 주목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한부모가정의 절반 이상인 53%가 중위소득 60%이하의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고 모든 빈곤인구의 21%가 한부모가정에서 나타나고 있을 만큼 한부모가정의 빈곤율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sup>36)</sup>. 이처럼, Social Exclusion Unit를 중심으로 사회적 배제의 원인을 다양한 각도에서 제시하고 그 원인에 따른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sup>37)</sup>.

36) 한부모가정의 빈곤위험은 1980년대 3배로 증가했지만 1990년대에는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를 SEU는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 한부모가정의 고용율이 1990년대 중반 40%에서 최근에는 50%로 증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한부모가정의 특성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한부모가정의 가장들과 그 아이들의 연령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고, 이들은 기술과 노동시장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한부모가정보다는 경제적 자립의 가능성이 더 높았다는 점이다.

37) 영국의 Social Exclusion Task Force(2006)는 청소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위험과 도전은 주로 특성에 관련된 것이라고 본다. 이 기구에 따르면, 오늘날 많은 직장들이 자격을 가진 청소년들에게만 개방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청소년들이 보다 많은 시간을 공부하는데 투자하고 있고, 특히 기술이 없는 청소년들에게는 거의 기회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직업이 사라지고 평생직장의 가능성도 사라짐으로써 모든 노동연령대에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이 같은 상황변화는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리고 이 같은 노동의 변화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부모에 대한 의존기간을 연장하고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결혼을 늦춤으로써 가정의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본다.



자료 : Bradshaw., et al. 2004. The drivers of social exclusion. 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 London.

위의 <그림 III-10>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영국은 청소년 문제를 발생시키는 결과에 따른 위험요인으로 가족, 학교, 지역사회차원에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가족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청소년 문제로 분류된 약물남용, 청소년 범죄, 학령기 임신, 학업실패, 노숙 등의 문제를 초래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분석과 그에 따른 관점을 토대로 각 사안별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 문제를 청소년 자신의 문제로 파악하지 않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의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구체화하는데 영국은 의미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을 개발하는 것과 동시에 그 정책들의 영향과 효과성을 평가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다. 예를 들어, 'The impact of government policy on social exclusion among young people'라는 보고서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미친 정책들을 분류하면서 ① 노동과 교육, ② 10대 임신과 부모역할, ③ 주거와 노숙 그리고 ④ 청소년 범죄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내용들을 분석한 반면, 'Preventing social exclusion'는 ① 아동, 가족, 학교, ② 기술, 직업, 소득, ③ 가정, 이웃, 지역사회, ④ 인종, ⑤ 범죄, ⑥ 노인, ⑦ 건강과 장애 등으로 분류하여 관련 정책의 내용들을 분석하고 있다. 전자의 보고서가 사회적 배제의 결과에 측면에서 그 원인을 진단하고 관련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면, 후자의 보고서는 사회적 배제에 취약하거나 사회적 배제의 가능성이 가진 집단과 관련 주제별로 그 실태와 관련 정책들을 정리하고 있다.

## IV. 우리나라 빈곤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실태와 정책

### 1. 빈곤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분석 지표

서문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적 배제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대부분의 지표들은 성인이나 근로계층의 빈곤실태나 사회적 박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영국의 SEU가 인종이나 10대 임신 등의 사회적 배제가 나타나는 현상을 중심으로 사회적 배제의 실태를 분석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측정은 소득이나 실업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빈곤이나 박탈의 형태와 유형을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도 사회적 배제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보다는 구체적인 사회적 배제 현상을 중심으로 빈곤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 배제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영역을 근로, 빈곤, 부모의 경제적 상황, 교육, 주거/건강, 사회적 관계망, 비행과 일탈 등 6개 영역으로 분류하였고 각 영역은 대표성을 가진 3~5개의 세부적인 관련 지표들로 구성하였다. 지표들의 분석에는 청소년 패널 3차 자료가 활용되었고 일부 지표들은 통계청이나 보건복지부 등의 객관적인 지표들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청소년패널데이터는 청소년 가구의 월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이하를 빈곤선으로 설정하고 빈곤선 이하의 가구에 속한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실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sup>38)</sup>. 여기서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38) 청소년패널데이터는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사회경제적 실태를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주로 청소년패널데이터는 가구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조사보다는 진로나 학교생활, 교사나 동료와의 관계에 대한 조사가 대부분이어서 가구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사회적 배제의 분석에 다소 한계가 있다. 또한 조사대상청소년도 고등학교 청소년이 누락되어 있어 청소년 인구계층의 다양한 욕구와 사회경제적 상황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영국의 SEU의 청소년 사회적 배제와 관련된 지표들에는 청소년의 비행이나 범죄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가정 및 학교생활에 대한 방대한 자료가 담겨있는 청소년패널데이터는 장점을 가진다.

의 빈곤선은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의 차이를 보정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실태에 대한 분석은 앞서 사례로 제시한 영국의 **Social Exclsn Unit**의 분석처럼 빈곤 청소년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배제 정도에 초점을 맞추었다.

〈표 IV-1〉 빈곤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실태 분석지표

영역	지표	자료원
노동시장	실업률(16-24세)	통계청(2007)
	장기실업률(16-24세)	원종학 외(2005)
	연령별 임금격차	노동부(2004)
경제적 빈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청소년 인구의 비율	보건복지부(2005)
	근로청소년 빈곤율	김종숙(2006)
	소년소녀가정의 빈곤율	강신욱 외(2005)
	한부모가정의 빈곤율	류연규·최연수(2003)
교육	월소득수준별 사교육비	한국교육개발원 (2003)
	가구주의 학력별 교육비 격차	통계청(2004)
	가구주의 소득수준별/학력별 학업성취도	김경근 (2005)
	청소년 출생아수(15-24세)	통계청(2007)
주거/건강	주거소유형태가 월세, 무상, 임대인 경우	청소년패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경우	청소년패널
	빈곤 청소년 가구원 수별 방수	홍인옥(2006)
	소년소녀가장가구/한부모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 규모	건교부(2004)
	빈곤청소년의 1일 식사 횟수	류연규·최연수(2003)
	청소년 자살률	통계청(2007)
사회적 관계망	급우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	청소년패널(2005)
	부모의 가정불화, 이혼 등으로 가정에 불만이 높은 경우	'
	선생님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	'
	동네 사람들을 자주 만나지 않은 경우	'
비행/범죄	청소년 범죄자 현황	대검찰청(2003)
	지난 1년 동안 가출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	청소년패널(2005)
	지난 1년 동안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는 경우	'
	지난 1년 동안 다른 사람을 때린 경우가 있는 경우	'
	지난 1년 동안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우	'
	정학이상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경찰서에 잡혀간 적이 있는 경우	'
	가출청소년의 경제적 수준	이용교 외(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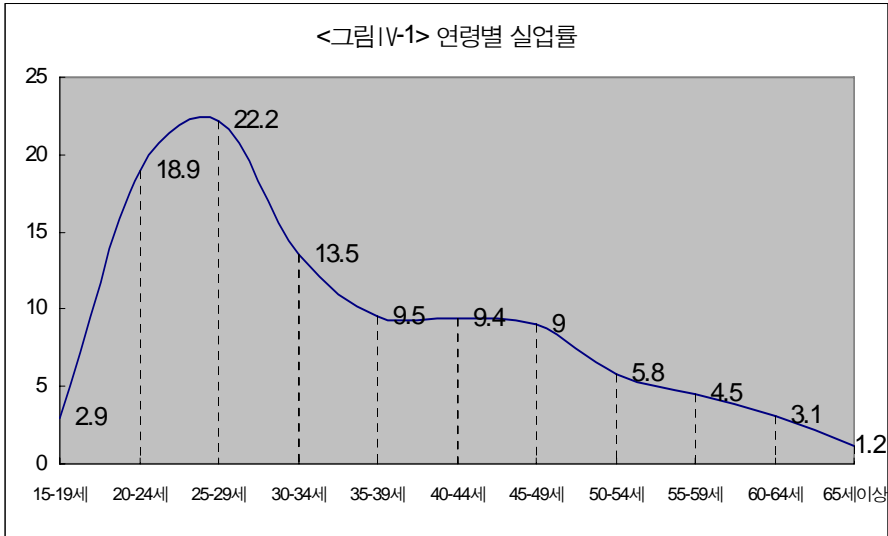
## 2. 빈곤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실태와 현황

### 1)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

실업으로 인한 청소년의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는 소득의 단절과 빈곤으로 인해 다양한 박탈을 초래하는 사회적 배제로 이어지기 쉽다. 때문에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의 여부가 청소년들의 발달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Kieselbach et al(2006:5)가 청소년의 전반적인 사회통합의 주요 기제로 노동을 강조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빈곤 청소년의 노동시장의 배제를 논의하면서 강조되어야 할 점은 실업 청소년들의 다수가 낮은 학력과 자격 등으로 인해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고용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같은 낮은 고용능력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청소년의 노동시장의 배제를 논의할 때는 청소년 실업자들을 학력과 연령 그리고 성별로 분류하여 그 분포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실업과 관련된 사회적 배제의 지표는 실업률과 장기실업률 등을 사용한다.

2003년 전체 실업자는 77만 7천명으로 실업률은 3.4%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도에 비해 실업자는 6만 9천명, 실업률은 0.3%p 증가한 것이다. 전체 실업자 중 15-24세의 청소년 실업자는 21만 4천명으로 실업률은 9.6%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에 비하여 실업자는 3만명, 실업률은 1.5%p 증가한 것이다. 이와 같이 청소년계층의 실업률은 다른 연령계층보다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15-24세 청소년 실업률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11.4%, 여자가 8.5%로 나타나 남자 실업률이 여자보다 높았으며, 연령계층별로는 15-19세 실업률이 12.0%, 20-24세는 9.2%로 나타나 15-19세 연령계층의 실업률이 20-24세 실업률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청소년백서, 2004:132).

아래의 <그림IV-1>은 2007년 현재 연령별 실업률을 도표화한 것이다. 아래의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인 연령대는 25-29세 구간으로 이 연령대의 실업률은 22.2%를 보이고 있다.



자료 : 통계청, 2007

15-24세 청소년 실업률을 교육정도별로 보면, 전체로는 중졸이하가 13.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별로는 남자가 중졸이하에서 13.6%, 여자도 중졸이하가 1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 실업자 수를 교육정도별로 보면, 고졸이 14만 1천명, 대졸이상은 5만 6천명, 중졸이하가 1만 7천명이다(청소년백서, 2004:132). 일반적으로 청소년 실업률은 대졸이상의 학력에서보다는 고졸이하의 학력에서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아래의 <표IV-2>는 해당 성별·연령별 전체 실업자 가운데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실업자의 비율과 실업기간이 1년 이상인 실업자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표 IV-2> 실업기간별 실업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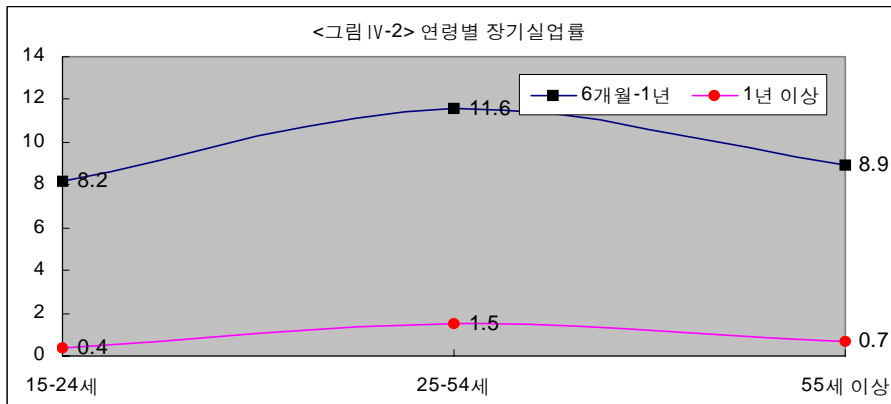
(단위: %)

연령	실업기간	1996	1998	2000	2002	2004
15-24세	6개월~1년	10.0	11.4	8.1	8.2	8.2
	1년 이상	2.3	1.0	1.0	1.1	0.4
20~24세	6개월~1년	10.6	13.0	9.2	8.6	9.1
	1년 이상	2.3	1.2	1.4	1.2	0.4
25~54세	6개월~1년	13.1	14.0	13.4	12.7	11.6
	1년 이상	4.7	1.7	2.7	2.9	1.5
55세 이상	6개월~1년	16.3	12.1	12.1	11.2	8.9
	1년 이상	4.8	1.0	2.8	3.2	0.7

자료 : OECD. 원종학 외. 2005. 실업의 원인과 재정에 미치는 장기효과: 청소년실업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우선 전체의 경우를 보면, IMF 위기 이전인 1996년 실업기간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단기실업자의 비중은 12.1%, 실업기간 1년 이상의 장기실업자의 비중은 3.8%였다. IMF 직후인 1998년에는 각각 13.2%, 1.5%로 단기실업자가 증가한 반면 장기실업자의 비중은 줄어들었다(원종학 외. 2005:32).

15세에서 24세까지의 1년 이상 장기실업률은 IMF 이전인 1996년에 2.3%로 최고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차츰 감소하여 2004년 현재 그 비율은 0.4%까지 감소했다. 청소년의 장기실업률은 25세 이상 54세까지의 성인인구의 장기실업률인 1.5%에 비해서 낮을 뿐만 아니라 55세 이상의 인구계층의 장기실업률인 0.7%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아래의 <그림 IV-2>에서도 이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연령계층별 임금수준에 대한 추이를 보면 40-44세 계층 까지 임금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임금수준이 근로시간과 경력에 따라 높아지는 정의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45세 이후 연령계층부터는 임금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에는 주로 병역과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는 25-29세 계층부터 45-49세 계층까지 임금수준이 계속 높아지다가 그 이후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여자의 경우는 30-34세 계층까지 높아지고 35세 이상 계층부터는 낮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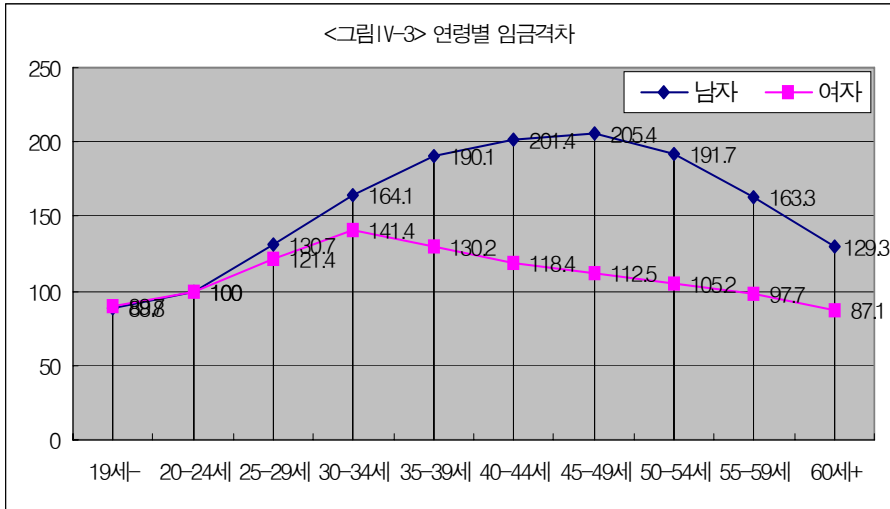
<표 IV-3> 연령계층별·성별 임금격차

		전연령	19세 이하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세 이상
계	01	158.8	90.2	100	128.8	161.2	185.4	189.1	189.8	180.8	158.9	137.8
	02	156.7	89.4	100	129.1	163.3	183.3	186.9	185.9	173.2	151.3	124.4
남자	01	176.3	90.1	100	133.4	165.7	195.1	207.4	214.4	203.2	173.8	144.2
	02	169.8	88.8	100	130.7	164.1	190.1	201.4	205.4	191.7	163.3	129.3
여자	01	116.0	90.3	100	120.7	138.4	132.8	118.7	114.9	109.0	103.6	102.5
	02	115.5	89.7	100	121.4	141.4	130.2	118.4	112.5	105.2	97.7	87.1

주: 임금격차는 20-24세 계층의 임금을 100.0으로 하였을 때 임금 수준임.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문화관광부(2004) 청소년백서.

20-24세의 임금을 100으로 보았을 때, 19세 이하 청소년의 임금수준은 2002년 현재 89.4%에 불과하고, 25세 이상 성인의 임금은 162.1%에 이른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임금수준은 연령이 많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래의 <그림 IV-3>은 연령별 임금격차를 성별로 도표화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20세에서 24세를 기준으로 임금 수준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남성과 여성의 임금상승정도는 큰 차이를 보이는데, 여성의 경우 연령의 증가에도 임금 상승의 수준이 완곡한 반면, 남성의 경우는 상승의 수준이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다.

## 2) 경제적 배제

연령대별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15-24세의 청소년 인구비율을 살펴보면, 2001년에 15-24세 청소년들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215,656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16%로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 수급율을 보였다. 2006년도에 이 연령계층의 수급자는 207,643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14.3%로 나타나 2001년보다는 다소 감소하였지만 0-14세 연령집단, 그리고 40-49세 연령집단을 제외하면 여전히 다른 연령집단보다도 높은 수급율을 보였다. 빈곤이 사회적 배제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2006년 현재 약 15-24세 청소년들 중 약 20만명의 청소년들은 사회적 배제의 위험에 이미 노출된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비율은 전체 15-24세 청소년인구의 약 3%에 이르는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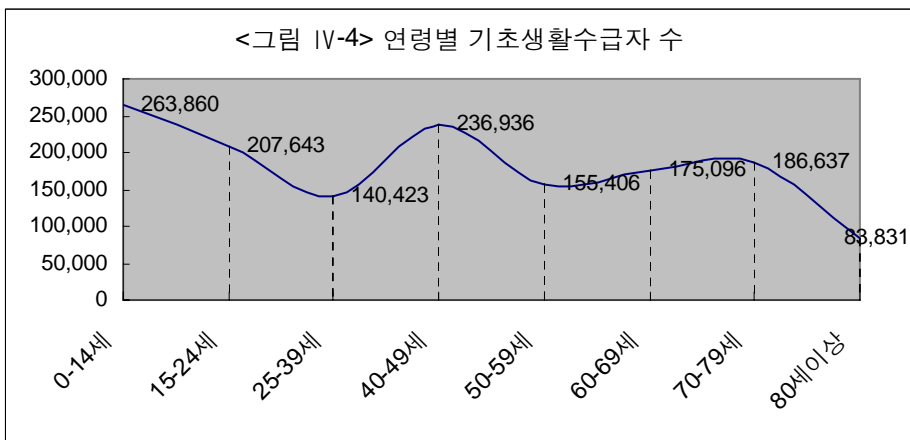
<표 IV-4> 연령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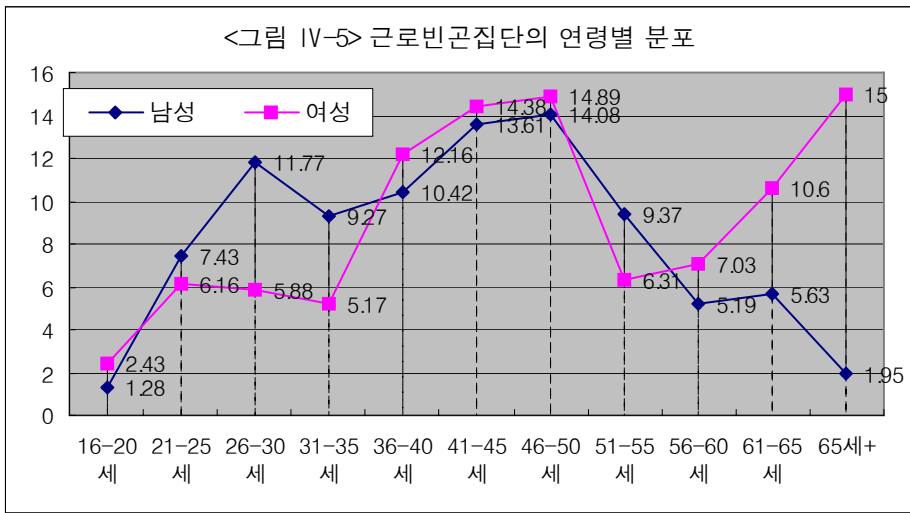
	계	0-14	15-24	25-39	40-49	50-59	60-69	70-79	80세 이상
2001	1,345,526 (100)	233,035 (17.3)	215,656 (16.0)	151,229 (11.2)	203,529 (15.1)	125,127 (9.3)	181,326 (13.5)	161,373 (12.0)	74,251 (5.5)
2002	1,275,625 (100)	218,631 (17.1)	197,960 (15.5)	103,305 (8.1)	195,983 (15.4)	118,198 (9.3)	179,561 (14.1)	162,258 (12.7)	69,569 (5.5)
2003	1,292,690 (100)	225,910 (17.5)	191,627 (14.8)	131,393 (10.2)	201,767 (15.6)	121,180 (9.4)	179,730 (13.9)	166,830 (12.9)	74,253 (5.7)
2004	1,337,714 (100)	240,616 (20.0)	192,050 (14.4)	134,359 (10.0)	211,509 (15.8)	129,284 (9.7)	178,607 (13.3)	174,286 (13.0)	77,003 (5.8)
2005	1,425,684 (100)	262,440 (18.4)	202,448 (14.2)	142,003 (10.0)	229,128 (16.1)	145,627 (10.2)	179,343 (12.6)	183,010 (12.8)	81,686 (5.7)
2006	1,449,832 (100)	263,860 (18.2)	207,643 (14.3)	140,423 (9.7)	236,936 (16.3)	155,406 (10.7)	175,096 (12.1)	186,637 (12.9)	83,831 (5.8)

자료 : 보건복지부. 2006.

아래의 <그림 IV-4>은 연령대별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를 도표화한 것으로 다른 연령집단과 비교해서 15-24세 청소년들의 기초생활수급자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연령대로 보면, 가장 높은 수급율을 보이는 집단이 40-49세의 인구집단이다.



일반적으로 근로청소년의 임금수준은 성인 근로자 임금수준에 비해서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근로청소년의 빈곤율도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근로청소년의 빈곤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 IV-5>과 같다. 25세 이하 근로청소년의 빈곤율은 남성이 8.71%, 여성이 8.59로 여성보다는 남자 청소년에게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아래의 그림에서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차상위계층은 25세 남자 청소년이 6.27%, 여성이 11.59%로 차상위계층은 남자보다는 여자청소년에게서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근로 빈곤계층 중 가장 높은 빈곤율을 보이는 연령대는 41세에서 50세의 구간에 해당하는 인구집단이다.



자료 : 김종숙, 2006. 여성 근로빈곤계층의 특성과 정책 시사점. 노동리뷰

한편, 소년소녀가장세대의 빈곤율도 다른 가족유형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사회적 배제에 특히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2000년 이후 소년소녀가장세대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청소년들이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재혼 등으로 인해 어린 나이에 가정을 책임지는 청소년 가장이 되고 있다. 청소년백서(2004:512)에

따르면, 소년소녀가장의 발생원인은 부모의 사망, 부모의 가출, 부모의 이혼, 재혼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5> 소년·소녀가장 세대현황

(단위 : 명)

	세대주	세대원 <sup>1)</sup>	재학상태별				
			미취학	초등	중학	고교	기타
2000	6,229	9,579	121	1,862	3,217	4,041	338
2001	5,248	8,060	133	1,640	2,611	3,414	262
2002	4,531	6,947	115	1,478	2,232	2,936	186
2003	3,994	6,184	99	1,309	1,966	2,668	142
2004	3,504	5,444	87	1,244	1,681	2,331	101
2005	2,755	4,332	85	901	1,343	1,923	80
2006	2,086	3,271	39	572	1,031	1,570	59

주: 세대주 포함,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년도

소년소녀가정은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부터 교육문제, 주택문제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 등 많은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이로 인해 소년소녀가정의 빈곤율은 다른 가구 유형보다도 높게 나타난다. 가구유형을 65세 이상 노인이 가구주인 경우를 노인가구, 어머니와 18세 미만 자녀가 생활하는 경우 모자가구, 아버지와 18세 미만 자녀가 생활하는 경우부자가구, 18세 미만 아동이 가구의 실질적인 가구주인 경우를 소년소녀가구, 나머지를 일반가구로 분류하여 빈곤율을 살펴보면, 먼저 전체 절대빈곤율 이하 가구를 절대수로 비교하면 일반가구의 빈곤율이 70.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노인가구가 25.4%, 모자가구 2.1%, 부자가구와 소년소녀가정이 각각 0.8% 차지했다. 그러나 가구유형별 분류내 빈곤율을 비교하면 소년소녀가정가구 중 절대빈곤율 이하 가구는 55.3%로 가장 그 비율이 높았고, 노인가구는 40.5%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부자가구 25.0%, 모자가구 22.4%로 부자가구의 빈곤율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

빈곤율로 비교하면 노인가구내 빈곤율은 61.9%로 월등히 비율이 높아지며, 소년소녀가정은 67.3%의 비율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강신옥 외, 2005:130). 가구유형별로 살펴본 빈곤율에서 볼 수 있듯이 소년소녀가정가구와 한부모가정가 노인가구와 함께 빈곤의 심각성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IV-6> 가구유형별 빈곤율

(단위 : %)

	절대빈곤율	상대빈곤율	상대빈곤율
노인가구	40.5(25.4)	61.9(26.6)	69.7(23.1)
모자가구	22.4(2.1)	34.9(2.2)	51.7(2.6)
부자가구	25.0(0.8)	30.3(0.7)	53.2(0.9)
소년소녀가정	55.3(0.8)	67.3(0.7)	69.4(0.5)
일반가구	10.7(70.9)	15.6(69.9)	21.0(72.9)
Total	13.5(100)	19.9(100)	25.8(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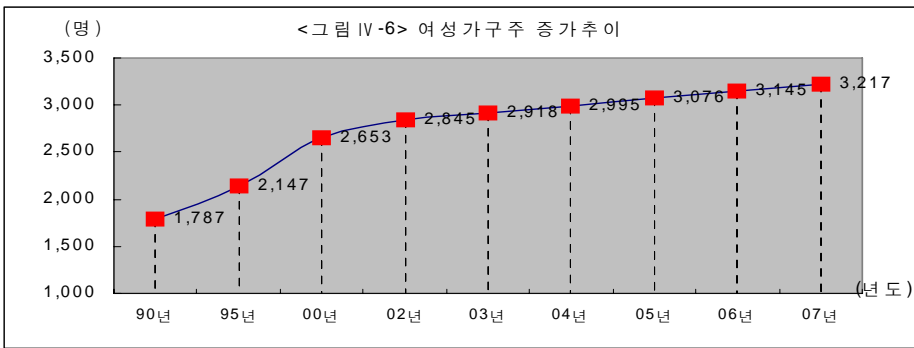
주: 상대적 빈곤율1은 중위소득 50%기준 빈곤율을 의미하고 상대적 빈곤율2는 중위소득 60%기준 빈곤율을 의미함.

자료 : 강신옥 외, 2005. 사회적 배제의 지표개발과 적용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년소녀가정과 함께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가장 위험한 집단은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다. 옥선화(2004)의 지적처럼, 여성 한부모가족은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나 사회적 자원의 부족을 경험하기도 한다. 사별과 이혼으로 인한 여성 한부모가족은 부양자 역할수행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역할긴장이나 과부담 및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 이들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 등으로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껴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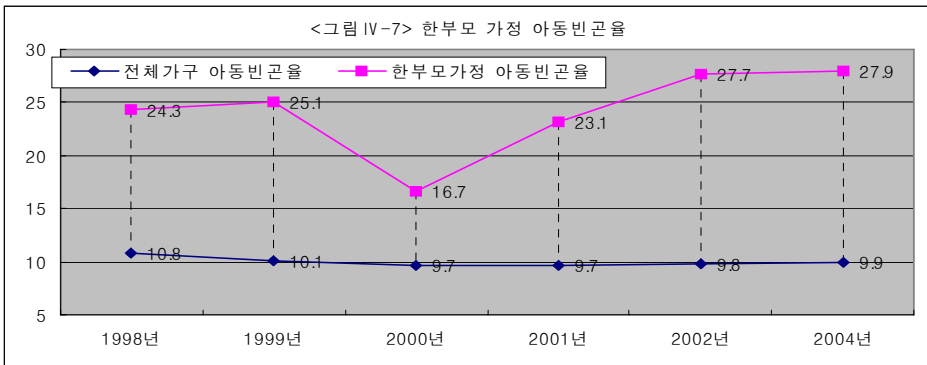
장혜경 외(2001)의 연구에서도 이와 동일한 결론이 도출되고 있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성 한부모가 된 이후 친구관계는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하는 등 다양했지만 이웃과의 관계는 단절하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한부모가정의 부모 자신과 함께 자녀들은 경제적 박탈과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이웃이나 지역사회와의 단절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양부모 가정에 비해서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부모 가정은 양부모가정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빈곤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에서 경제적 박탈과 배제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자료 : 통계청

전체 가구주에서 여성가구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1980년 14.7%, 1990년 15.7%, 2000년 18.5%로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IV-6>에서와 같이 여성가구주는 9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2007년 현재 여성가구주는 3,217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 한부모가정 아동빈곤율은 2002년 기준 전체 가구 아동빈곤율의 3배 추정치임.

자료 : 류연규·최연수, 2003.

여성가구주로 대표되는 한부모가정의 증가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의 빈곤화 정도에 있다. 한부모가정, 특히 여성한부모가정은 양부모가정이나 남성한부모가정에 비해서 경제활동참여율이 낮고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빈곤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 같은 빈곤의 결과는 자녀의 교육과 건전한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위의 <그림 IV-7>에서와 같이 한부모가정의 아동빈곤율은 일반 가정의 아동빈곤율의 2배~3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부모가정의 높은 빈곤율은 한부모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그리고 교육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배제와 관련하여 한부모가정의 비율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3) 교육으로부터의 배제

Sucur et al(2006)은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엇보다도 교육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사회적 배제가 주로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라고 한다면, 다른 말로 고용이 통합을 위한 선결조건이라면 교육은 사회통합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사회적 배제와 교육의 실패는 서로 인과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은 지식과 기술의 부족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처럼, 교육은 청소년들의 향후 직업적 지위나 소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으로 교육정책을 제시하는 것도 교육이 가지고 있는 빈곤감소 효과의 절대적인 영향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육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모든 청소년들에게 참여의 기회가 균등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교육의 팽창과 공교육의 붕괴는 소득계층별로 학업의 성취에 있어 격차를 심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적 배제를 추동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래의 <표 IV-7>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소득수준별 연간 1인당 사교육비 규모는 상층 435만원, 중상층 308만원, 중하층 218만원, 저소득층

151만원으로 소득수준별로 사교육비 차이가 심함을 알 수 있다. 단순히 상층과 저소득층의 연간 사교육비 규모를 비교하면 연간 284만원의 차이를 보이며, 저소득층 대비 사교육비 비중은 중상층은 2배, 상층은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투자는 결국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자녀의 교육기회가 단절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빈곤의 세습·빈곤의 고착화를 가져옴으로써 교육으로 인한 사회적 배제를 영속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강신욱 외, 2006:165).<sup>39)</sup>

<표 IV-7> 월소득수준별 연간 1인당 사교육비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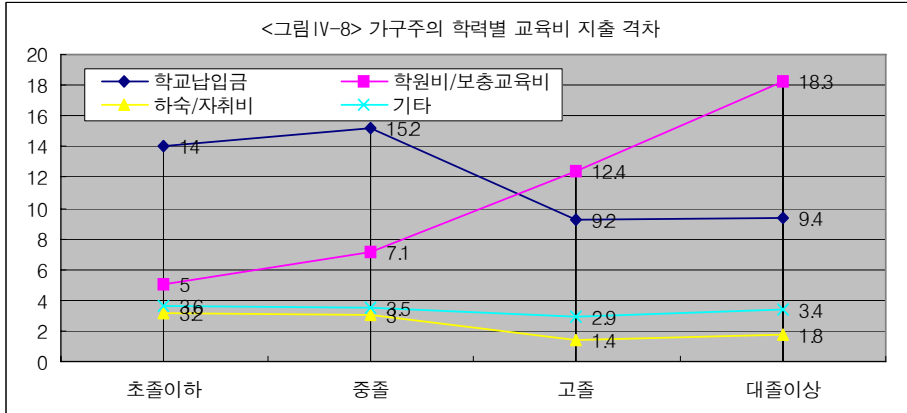
월소득수준	연간 1인당 평균 사교육비	사교육비 비중 (저소득층=100)
저소득층(150만원 미만)	151	1
중하층(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18	1.4
중상층(300만원 이상~450만원 미만)	308	2.0
상층(450만원 이상)	435	2.9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2003. 사교육비 실태

사교육비의 격차는 가구주의 학력에 따라서도 큰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가구주의 학력이 초졸이하인 경우 학원비/보충교육비 등 이른바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는 비용이 월평균 5만원에 불과한 반면 대졸 이상 가구주의 경우 월평균 사교육비로 12만 4천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졸 가구주의 경우는 7만 1천원, 고졸 가구주의 경우는 12만 4천원을 지출하고 있어 가구주의 학력이 높을수록 사교육비에 지출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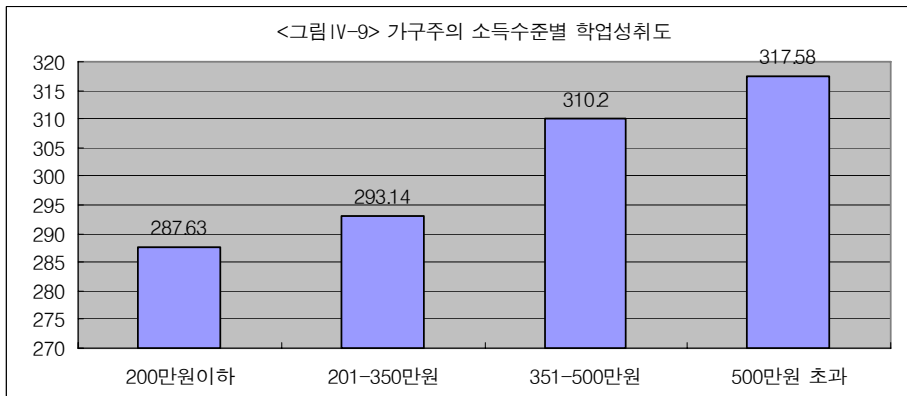
39) 한편, 한국교육개발원의 2003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2003년 전체 사교육비는 13조 6천억원이며, 학생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평균 23만 8천원으로 2003년도 불변가를 기준으로 볼 때, 2001년 조사때보다 2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거주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29만 4천원, 광역시와 중소도시는 약 23만원, 읍면지역은 약 17만원으로 지역별로도 사교육비의 지출의 자차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강신욱, 2005:166-167).

금액이 증가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자료 : 통계청,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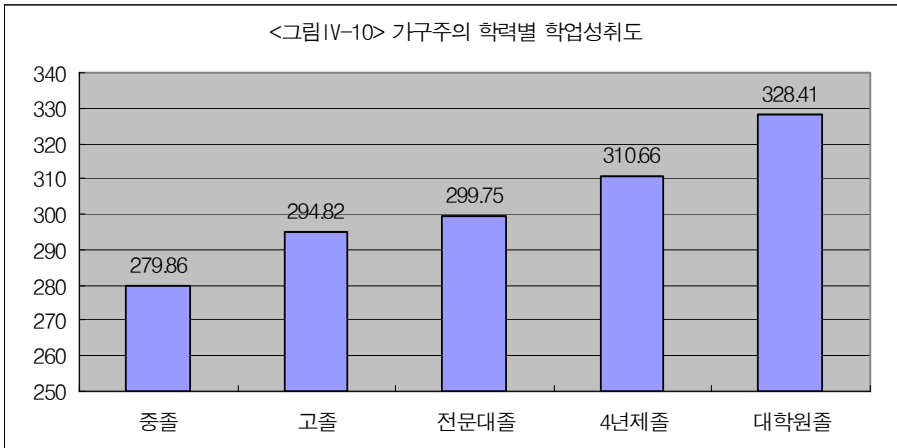
가구소득과 가구주의 학력별 사교육비 격차가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교육비에 대한 지출상의 차이가 청소년들의 학업성취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경근(2006)의 연구에 따르면, 가구주의 소득정도에 따라 청소년의 수능점수는 큰 차이를 보인다.



주. 단위는 수능점수임.

자료 : 김경근, 2005. 한국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15(3).

김경근(2005)의 연구에서도 분석된 바와 같이 가구주의 학력과 소득 정도에 따라 청소년들의 성적에 큰 차이를 보인다. 가구주의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청소년의 평균 수능점수는 287.63점인 반면, 가구주의 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한 청소년의 수능점수는 317.58점으로 약 30점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가구주의 소득 정도에 따라 수능점수가 일관적인 차이를 보인다는 점인데, 이를테면 가구주의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능점수도 이에 비례해서 높아진다는 점이다. 결국, 가구주의 소득이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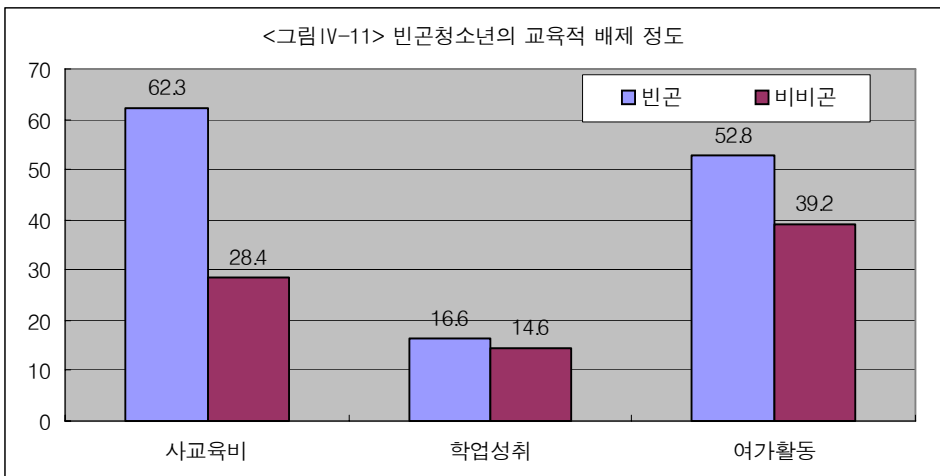
주. 단위는 수능점수임.

자료 : 김경근. 2005. 한국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15(3).

가구주의 학력에 따라서도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도는 차이를 보이는데, 가구주의 학력이 중졸인 경우 평균 수능점수는 279.86점인 반면 가구주의 학력이 대학원 졸업인 경우 청소년의 평균 수능점수는 328.41점으로 나타났다. 앞서 제시한 가구주의 소득에서와 유사하게 가구주의 학력에서도 수능점수가 학력에 정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에서도 빈곤청소년의 교육으로부터의 배제는 비빈곤청소년에 비해서 그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위소득

50%이하의 빈곤가구의 청소년들 중 사교육비를 전혀 지출하지 않은 가구는 62.3%에 이르고 학업성적 등수가 30등 이하의 낮은 학업성취를 보이는 청소년의 비율에 있어서도 빈곤 청소년이 16.6%로 비빈곤청소년보다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교육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여가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빈곤청소년의 비율도 절반이 넘는 52.8%에 이르고 있다.



- 주1. 사교육비의 배제정도는 사교육비를 전혀 지출하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을 의미함.
  - 주2. 학업성취는 학교성적 등수가 30등 이하인 청소년의 비율을 의미함.
  - 주3. 여가활동은 경제적인 이유로 여가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청소년의 비율을 의미함
- 자료 : 청소년패널데이터 3차 원자료.

한편, 18-24세의 교육·훈련을 받지 않는 조기 탈락자의 비율(NEET)도 유럽연합이나 영국의 SEU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를 분석하는데 사용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이다. 교육도 훈련도 받지 않는 이른바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청소년도 사회적 배제의 위험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영국의 사례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영국의 SEU는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위험집단의 범주에 NEET 청소년을 무게있게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대학진학률이 상승하여 2004년에는 일반계와 실업계가 각각 89.9%, 62.3%에 이르고 있어 고등학교가 계속교육기관으로서의 형태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반계 고등학생의 10.2%, 실업계고등학생의 37.7%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이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말해준다(청소년백서, 2004:146) 우리나라의 교육지표에서 18-24세의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조기탈락자의 비율과 동일한 관련 배제지표는 없지만 취학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교육으로부터 배제되는 집단의 비율을 추측해 볼 수 있다.<sup>40)</sup>

취학률은 순취학률과 총취학률로 구분되는데, 사회적 배제지표로는 순취학률이 적절해 보인다. 우리나라의 순취학률은 2000년 52.5%에서 2004년 61.7%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약 40%에 달하는 취학적령인구가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

<표 IV-8> 취학률

(단위: 명, %)

구분	취학적령인구	고등교육기관
2000	3,274,558	52.5(95.7)
2001	3,270,212	55.3(99.6)
2002	3,170,465	56.6(104.5)
2003	2,984,232	58.7(110.1)
2004	2,787,857	61.7(1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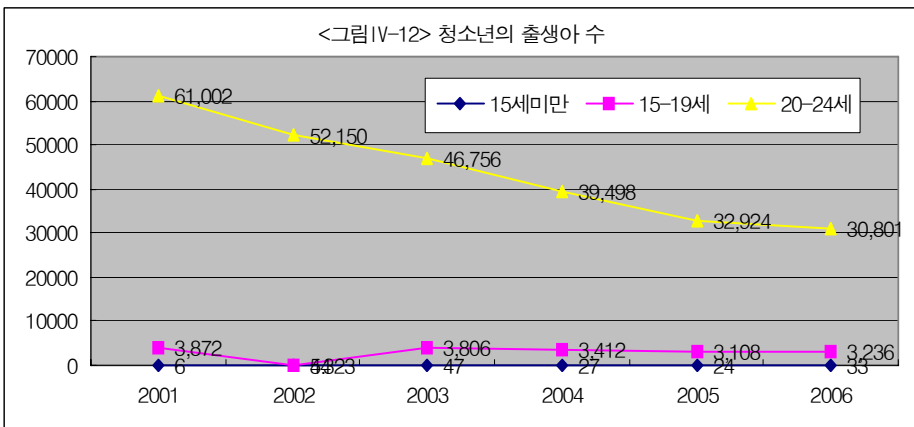
주.( )안은 총취학률임.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통계청(20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재인용.

또한, 10대 미혼모도 학업상태에서의 임신과 자녀양육의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으로부터의 배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Luker(1996)의 지적처럼, 10대 미혼모는 학교 중퇴, 저임금 업종에의 종사, 건강, 등에 있어 다른 또래 집단

40)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를 지난 1주간으로 볼 때, ① 정규기관이나 입시학원 또는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기관에 통학하고 있지 않고, ② 일하고 있지도 않으며(즉 취업자가 아니며), ③ 가사나 육아를 주로하고 있지 않고, ④ 배우자가 없는(즉 독신인), ⑤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개인으로 정의할 때, 우리나라 NEET의 규모는 1995년에 15-34세 인구 중 3.3%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04년에는 8.4%로 크게 증가하였다(청소년백서, 2004:102).

이나 20대 이후 미혼모들에 비해서 취약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10대 미혼모들은 임신과 동시에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10대 미혼모 문제가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심각한 것은 학업의 중단으로 인해 미혼모 자신의 경제적 빈곤과 박탈은 물론이고 자녀의 건강과 교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부모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41)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 한해, 15세 미만 중학생의 출생아는 33명, 15세 19세의 중고등학생의 출생아 수는 3,236명, 20-24 대학생의 출생아 수는 30,801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세 이하 청소년들의 임신과 출산은 중퇴나 학업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배제에 가장 취약한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0대 미혼모의 다수가 가정불화나 이혼 등 가족해체로 인한 취약한 가정의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미혼모의 발생을 가족의 경제사회적 지위와 연

41) 10대 미혼모는 나이가 많은 미혼모 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즉 10대 미혼모는 학업중단으로 미래에 비전문직에 고용될 가능성이 높고, 그중 18세 미만의 미혼모는 생물학적인 미성숙으로 인해 건강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임신합병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20세 이상의 미혼모들보다 크다. 또 그로 인해 10대 미혼모들은 그들이 아이를 키우게 될 경우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학대와 방임의 가능성까지 지니게 된다(Donnelly & Voydanoff, 1991; 윤미현이재연 외, 2002 재인용)

관시켜 논의하는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다. 윤미현 외(2002)의 연구에 따르면, 10대 미혼모들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알 수 있는 가족수입은 50만원에서 150만원까지가 62.3%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미혼모들의 가정이 빈곤가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학력은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이 63.8%로 10대 미혼모들의 다수가 고교 중퇴 및 졸업의 학력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중학교 중퇴 및 졸업도 30%로 나타났다.

<표 IV-9> 10대 미혼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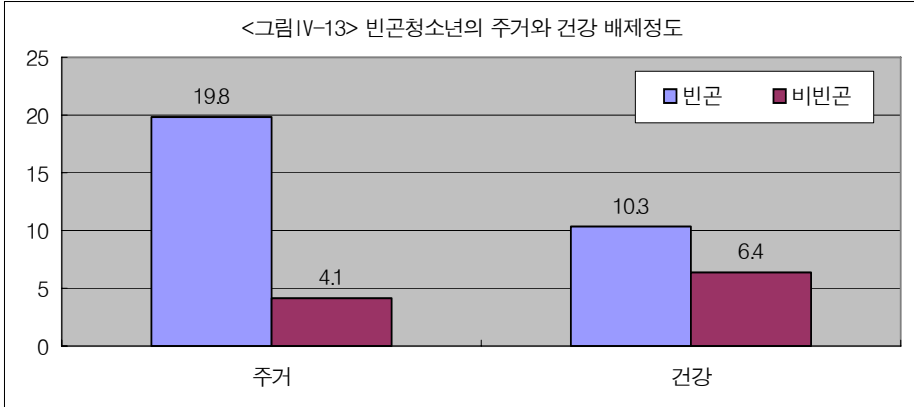
(단위 : 명, %, N=130)

학력	중학교중퇴 및 졸	4(31.6)	수입	50만원 미만	15(11.5)
	고등학교중퇴 및 졸	80(61.5)		51-100만원	29(22.3)
	대학교 중퇴 및 전문대 졸	3(3.2)		101-150만원	37(28.5)
	기타	6(4.6)		151-200만원	18(13.8)
				201-350만원	8(6.20)
				251-3000만원	5(3.8)
				301-350만원	7(5.4)
				350만원 이상	6(4.6)
				무응답	5(3.0)

자료 : 윤미현이재연. 2002. 한국 10대 미혼모의 특성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제23권 3호

#### 4) 주거와 건강으로부터의 배제

빈곤청소년의 주거실태를 청소년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해 보면, 청소년이 생활하고 있는 주거형태가 월세, 무상, 임대인 경우를 배제로 보고 그 비율을 비빈곤 청소년 가구와 비교해 보면, 빈곤 청소년이 주거로부터 배제된 비율은 19.8%에 이르는 반면, 비빈곤 청소년은 4.1%밖에 되지 않는다.



주1. 주거의 배제는 청소년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의 주거소유형태가 월세, 무상, 임대인 경우임.

주2. 건강의 배제는 청소년들 중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편이라고 답한 경우임.

자료: 청소년패널데이터 3차 원자료.

빈곤청소년 가구의 주거실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연구는 강북구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시범사업 대상학교의 교육복지서비스 수혜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홍인옥(2005)의 연구를 통해서 분석되고 있다. 홍인옥의 연구에 따르면, 빈곤청소년들이 거주하는 방의 개수는 최소 1개에서 최대 5개로 나타났고, 가구당 평균 사용방수는 2.3개인데, 이는 2000년 전국 평균 가구당 평균 방수인 3.4개에 비해 상당히 작은 편이다. 더구나 이를 최저주거기준에서 제시한 가구원 수별 방 구성기준을 적용하면, 응답자의 53.6%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고 있는데, 일부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방 2개 심지어 단칸방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주거여건이 극히 열악한 상태를 알 수 있다(홍인옥, 2006:70).

<표 IV-10> 빈곤 청소년 가구원 수별 방수

(단위 : 가구, %)

구분	취학적령인구	고등교육기관
2000	3,274,558	52.5(95.7)
2001	3,270,212	55.3(99.6)
2002	3,170,465	56.6(104.5)
2003	2,984,232	58.7(110.1)
2004	2,787,857	61.7(117.6)

자료 : 홍인옥, 2006. 저소득 아동·청소년의 주거실태 조사결과 및 주거빈곤 유형구분. 도시와빈곤. 통권79호.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황인옥(2006)은 조사대상가구의 48%가 최저주거기준 방수 미달가구에 해당하는 등 자가가구의 상당수가 과밀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고 있다. 최저주거기준은 가구원 수 대비 방 구성, 총 주거면적 등을 토대로 산출된 것으로 3인 가구의 경우 최저주거기준은 침실 2개, 부엌이 있는 공간으로 주거면적 8.8평 이상이어야 한다.

가구유형별로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규모를 살펴보면, 소년소녀가장 가구의 50.8%, 편부가구의 31.4%, 편모가구의 36.3%, 노인가구의 36.3%가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주거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년소녀가장가구는 시설기준 미달비율이 86.0%로 일반 가구의 시설기준 미달보다도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표 IV-11〉 가구유형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규모

		일반가구	현연가구	1인가구	소년소녀 가장가구	편부가구	편모가구
가구수		14311.8	11928.1	2224.4	18.7	2220.0	903.7
주거기준미달가구		3344.0	2393.4	890.2	9.5	69.0	237.4
기준 미달 유형	면적기준미달가구	39.1	48.4	12.3	41.7	46.8	42.9
	시설기준미달가구	74.3	66.5	95.8	86.0	76.7	73.8
	침실기준미달가구	14.8	21.3	1.6	19.9	17.2	18.8
	면적/시설/침실 모두 미달가구	5.3	7.1	3.2	11.5	10.4	9.4

자료 : 건설교통부, 2004. 2003-2012 주택종합계획.

한편, 건강과 관련된 사회적 배제를 측정하는데 있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지표는 결식 청소년의 비율과 자살률에 관한 지표이다. 최선희와 김희수(2004)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빈곤여부에 따라 1일 식사횟수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학생의 경우에 두 끼 이하의 식사비율은 비빈곤층 24.3%, 빈곤층 37.6%로 빈곤층의 하루 2회 결식률이 약 1.5배 높게 나타났다. 한끼 식사 비율도 비빈곤청소년이 1.5%, 빈곤청소년이 3.1%로 나타나 1회 결식률도 빈곤청소년에게서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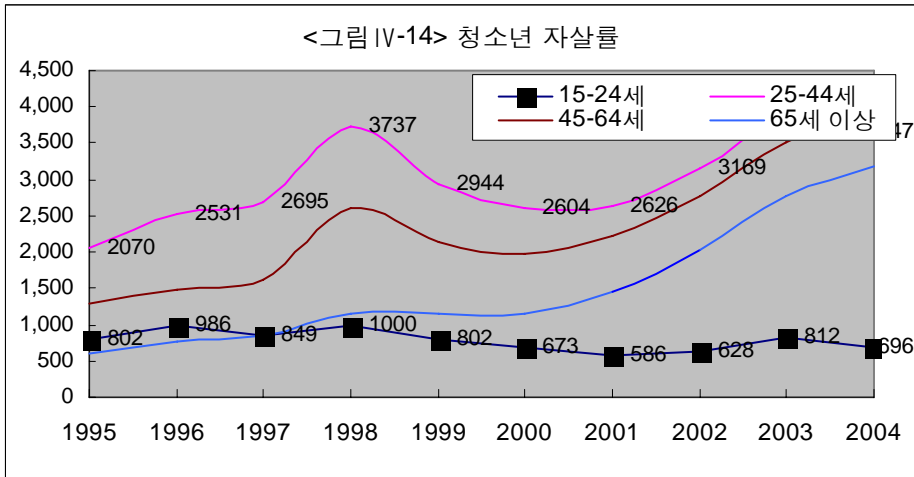
〈표 IV-12〉 빈곤여부에 따른 1일 식사횟수

(단위: %, 명)

식사횟수	중학생		
	비빈곤	빈곤	전체
1회	1.5	3.1	1.7
2회	22.8	34.5	23.7
3회 이상	75.7	62.3	74.5
계(수)	100.0(2,469)	100.0(22.3)	100.0(2,692)

자료 : 최선희·김희수, 빈곤아동·청소년 실태파악 및 정책방안 연구;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4 재구성

청소년의 건강과 관련된 사회적 배제 지표에는 정신적 건강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자살률을 포함하고 있다. 물론 일부 연구에서는 자살률을 가족관계나 사회적 관계망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자살건수는 2000년 6,460건에서 2004년 11,523건으로 4년 사이에 5천 건 정도가 증가하였고,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도 200년 14.6명에서 2004년 25.2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강신욱 외, 2005:177). 이중 15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 자살건수는 1998년 1,000건으로 1995년 이래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인 이후 2004년 현재 696건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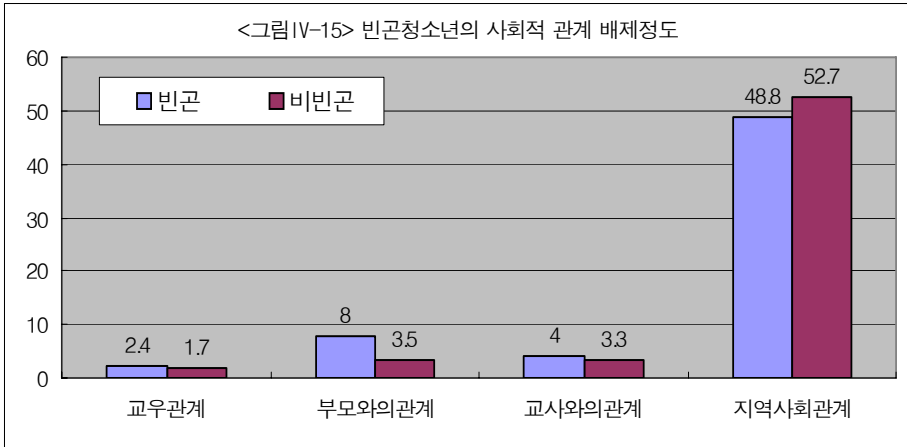
특히, 청소년인권설문조사(2007)에서도 가정의 소득과 청소년의 자살이 서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중간보다 못하다고 보는 빈곤 청소년 중 자살을 시도한 경험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22.8%로 나타난 반면, 중간 층 이상의 비빈곤 청소년들의 경우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비율이 18.6%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청소년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결과라는 점에서 청소년의 빈곤이 청소년의 자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이 둘간의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5)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배제

빈곤 상황에서 사회적 관계망은 빈곤층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물질적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빈곤 청소년에게 사회적 관계망은 또래집단이나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서적 교감을 통해서 빈곤상황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다. 하지만 물질적 부가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관계망은 경제적 소득의 높고 낮음에 따라 그 정도가 결정된다. 즉, 빈곤한 청소년은 경제적 빈곤을 이유로 다양한 사회적 제도들과의 교류가 차단됨으로서 사회적 관계망의 정도가 비빈곤청소년에게 비해서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사회적 관계망의 이론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신이 관여하고 있는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는 커진다고 한다(김안나, 2003; 강신욱 외, 2005:179 재인용). 개인이 취득한 교육적 기반을 인적자원(human capital)이라고 한다면 개인이 소유한 관계망은 사회적 자원(social capital)이라 칭할 수 있다(Coleman, 1990; 강신욱 외 2005:179 재인용). 이러한 사회적 자원 역시 사회경제적 지위와 연관되어 있는데,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개인이 보유한 사회적 자원이 낮음을 보여줌으로써 사회적 관계에서도 이들이 배제된다는 것이다. 개인이 소유한 사회적 자원은 흔히 연결망으로 크게 대변된다. 연결망을 측정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80년 초기부터 이루어져 왔으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재 생존하고 있는 친인척이나 힘들 때 논의할 수 있는 사람의 수 등으로 전반적인 연결망의 크기를 보유한 사회적 자원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이세용(1998)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사회적 관계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변수로 부모와 자녀의 가정 내의 사회적 관계, 또래나 교사와 학생간의 학교내 사회적 관계, 지역사회내 사회적 관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패널자료를 토대로 사회적 연결망을 친구들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관계로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빈곤청소년에게서 교유관계와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교사와의 관계에서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1: 교우관계는 급우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
  - 주2: 부모와의 관계는 부모의 가정불화, 이혼 등으로 가정에 불만이 높은 경우
  - 주3: 교사와의 관계는 선생님들과의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
  - 주4: 지역사회와의 관계는 동네 사람들을 자주 만나지 않은 경우
- 자료 : 청소년패널데이터 3차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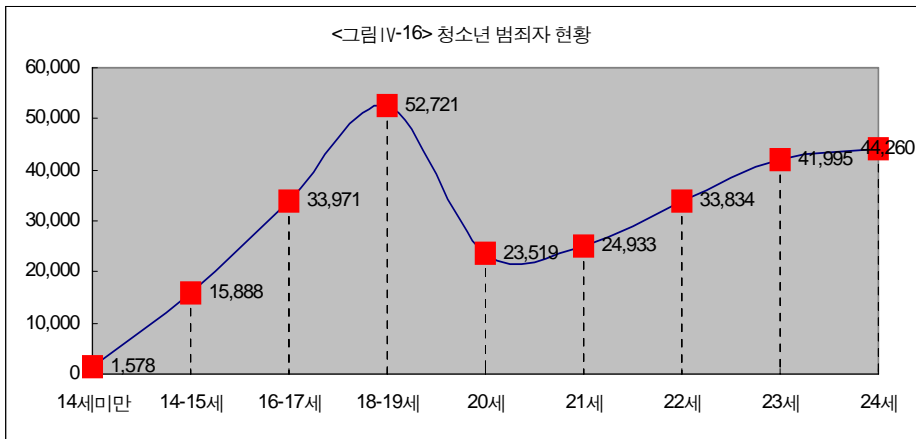
빈곤청소년들이 비빈곤 청소년들보다도 급우들과의 사이가 좋지 않고, 부모의 가정불화 등으로 가정에 대한 불만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같은 결과는 선생님들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물론, 사회적 관계에 대한 배제 정도에 빈곤 청소년과 비빈곤 청소년들 간의 차이는 다른 배제의 영역보다도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신명호(2003:213)도 지적처럼, 우리 사회와 같은 심각한 연줄사회, 학벌사회에서 부모의 빈곤으로 인한 자녀의 낮은 학력은 학연이라는 사회적 관계망의 형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학력에 따른 사회적 관계의 분절과 층화 현상을 낳게 된다. 따라서 저학력 청소년들은 교육 수준이 유사한 빈민층내부에서만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되는 사회적 관계의 제약을 받게 되고, 이들과 고학력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서로 넘나들기 힘든 높은 벽이 쌓이게 된다. 빈곤 청소년들의 사회적 관계망이 빈곤을 고리로 지속적인 악순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 6) 비행과 범죄

청소년의 비행과 범죄는 사회적 배제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사회적 배제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비행과 범죄청소년의 경우 사회적인 편견과 낙인으로 인해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범죄청소년의 사회적 배제는 다른 인구집단보다도 더욱 첨예하게 표면화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의 비행이나 범죄의 원인이 주로 우발적인 충동에 의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비행이나 범죄의 가능성에서 비빈곤청소년보다는 빈곤청소년이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빈곤 청소년의 비행이나 범죄를 사회적 배제와의 결부시켜 논의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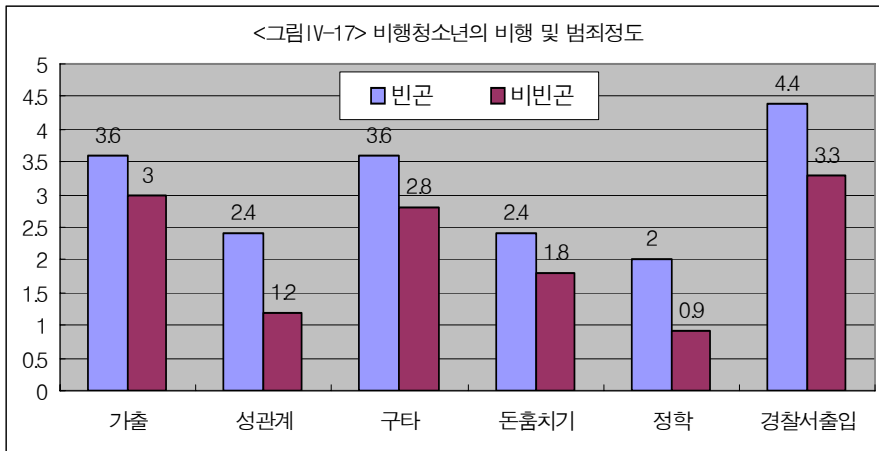
먼저, 소년범죄자의 현황을 연령별 상황을 보면, 15세 이하의 범죄소년은 1999년에 21%이던 것이 2003년에는 16.8%로 4.2%p가 낮아지고 16-17세의 범죄청소년은 1999년 35.7%에서 2003년의 32.6%로 3.1%p가 낮아진 반면, 18-19세의 범죄소년은 1999년에 43.2%에서 2003년에는 50.6%로 7.4%p가 낮아졌다.



자료 : 대검찰청, 2003. 재구성.

위의 <그림 IV-16>에서와 같이 청소년 범죄자의 수를 연령별로 분류해 보면, 청소년들 중 가장 높은 범죄비율을 보이는 연령대는 18-19세의 청소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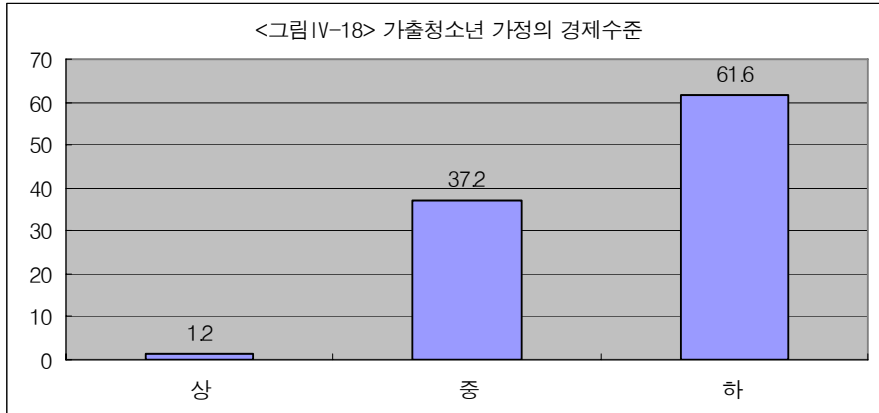
로 2003년 현재 52,721명에 이른다. 빈곤 청소년의 비행이나 범죄의 정도를 비빈곤 청소년과 비교해 보면, 빈곤 청소년에게서 가출과, 성관계, 구타, 돈 훔치기, 정학, 그리고 경찰서 출입이 더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인 빈곤에 따른 청소년들의 비행이나 범죄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 주1. 가출은 지난 1년 동안 가출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
  - 주2. 성관계는 지난 1년 동안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는 경우
  - 주3. 구타는 지난 1년 동안 다른 사람을 때린 경우가 있는 경우
  - 주4. 돈훔치기는 지난 1년 동안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훔친 적이 있는 경우
  - 주5. 정학은 학교에서 정학이상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주6. 경찰서 출입은 지난 1년 동안 경찰서에 잡혀간 적이 있는 경우
- 자료 : 한국청소년패널데이터 3차 원자료.

가출청소년을 보호하는 컴퓨터용 청소년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분석한 이 용교 외(2006)에서도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는 가출청소년들의 61.6%가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가정의 소득정도에 따른 객관적 수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청소년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결과라는 점에서 한계는 있지만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청소년의 가출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에서는 가출컴퓨터 이용청소년의 부의 직업이 무직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1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국, 아버지의 무직으로 인한 경제

적 빈곤이 청소년의 가출과 직간접적인 관련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자료 : 이용교 외, 2006. 가출청소년 및 청소년쉼터 실태조사. 국가청소년위원회

### 3. 빈곤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해소를 위한 주요 정책

#### 1) 빈곤청소년의 사회적 배제해소를 위한 주요 정책의 범주와 내용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빈곤 청소년들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조건들을 개선하고,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들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는 빈곤탈출 경로의 개발을 포함한 성장 단계별·통합적·단계적 접근 모형을 제시하였고, 참여복지기획단에서는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사회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자활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와 청소년보호위원회, 노동부 등에서도 청소년의 진로지도를 위한 상담과 취업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 계획하고 있다(손치훈·박미란, 2003; 노동부, 2003).

빈곤 청소년과 관련된 국가수준의 종합적인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총괄·조정하여 매 5년마다 청소년정책기본계획으로 수립되고 추진된다.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1993년부터 시행된 제1차 청소년육성5개년 계획(1993-1997)을 시발점으로 하여 1998년에는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 계획(1998-2002)을 수립하였다.

년육성5개년 계획(1998-2002년)이 수립되어 시행되었고, 2003년도에는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2003-2007)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제3차 청소년 기본계획 2006년 시행계획에서는 청소년 5대 정책과제로 청소년 권리신장 및 자발적 참여기반 구축, 주5일제 대비 창의적 청소년활동 여건 조성,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지원강화, 청소년건강 보호 및 유해환경 정화, 추진체제 정비 및 범국민적 참여의 확산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1388서비스를 포함한 위기청소년 지원체계의 구축, 청소년 공부방 등 청소년 지원서비스의 확대, 폭력추방을 위한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의 확산 등을 정책과제와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이처럼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빈곤 청소년들을 정책 대상으로 탈빈곤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기보다는 모든 청소년들을 정책대상으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청소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빈곤 청소년의 정책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확충도 위기 청소년의 내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을 뿐 빈곤 청소년을 둘러싼 외적 위험요인 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들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의 빈곤을 초래하는 원인이 청소년 자신의 내적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가족의 빈곤이나 전반적인 경제여건 등 외부의 위험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빈곤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은 청소년을 주된 정책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함께 청소년이 생활하고 있는 가족,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전반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청소년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는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다차원적 특징 때문에 종합적이면서도 포괄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빈곤 청소년을 위한 사회보장정책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중심으로 한 공공부조제도와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 사회보험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 청소년과 관련된 보다 직접적인 사회보장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제도는 정책의 주된 대상이 청소년이라기보다는 노인이나 의료수요자, 실업자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빈곤 청소년과 관련된 사회보장정책의 범주를 정리해 보면, 아래의 <표 IV-13>와 같다.

<표 IV-13> 빈곤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정책의 범주

배제 영역	정책 영역	위험/욕구 속성	급여의 기본속성 및 대응제도	위기청소년 범주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	실업	소득상실 대체	고용보험, 자활급여, 직업훈련, 현금지원	실업가정의 청소년
	고용	고용보장/자활	현물, 직업훈련, 취업알선, 자활지원사업, 여성고용촉진지원	실업청소년, 중도탈락학생
경제적 빈곤	빈곤	최저생계 보장	현금(+현물)/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수급청소년 기초생활수급가정의 청소년, 차상위계층 청소년
	장애	근로능력 상실보장	현금, 산재보험 장애연금, 국민연금 장애연금, 장애수당	장애청소년, 장애인부모가정의 청소년
	사망	소득상실 대체	현금, 국민연금 유족연금, 공적직역연금 유족연금, 산재보험 유족연금	한부모가정청소년 소년소녀가장
교육으로부터의 배제	교육	교육보장	현물(급식지원, 방과후 아카데미), 교육급여(학비지원), 공부방운영	기초생활수급청소년 급식지원청소년 한부모가정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가출청소년, 미혼모 청소년, 학습부진 청소년
주거 및 건강으로부터의 배제	건강	의료보장	현물, 건강보험, 의료급여, 청소년 상담(1366상담활동), 가출청소년상담, 가출청소년 쉼터운영.	기초생활수급청소년 한부모가정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가출청소년
	주거	주거보장	현물(주거급여), 임대주택제공 및 대출, 주거급여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청소년, 기초생활수급청소년, 소년소녀가장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의 배제	사회적 지지	사회적/경제적 지지	소년소녀가정 결연, 가정위탁보호, 수련사업, 청소년상담원운영	소년소녀가정, 가출청소년, 한부모가정, 비행청소년
비행범죄	범죄 예방	범죄예방과 치료	24시간 원스톱상담서비스, 청소년고충상담실 운영, 청소년약물남용예방사업, 가출청소년 쉼터 운영	가출청소년, 비행청소년 약물남용청소년, 범죄청소년

## 2) 빈곤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해소를 위한 주요 정책과 세부내용

### (1) 노동시장 배제 해소 관련 정책

빈곤청소년의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은 청소년 본인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에서부터 청소년이 생활하고 있는 가정의 고용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까지를 포함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청소년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는 청소년의 그 자체가 가지는 노동시장에서의 취약성도 문제이지만 가정의 빈곤에 따른 열악한 교육성취와 고용능력이 보다 근본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 해소를 위한 정책의 범주에는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위험이 있는 청소년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노동정책이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를 해소하기 위한 주요 정책은 고용보험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현재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직업훈련이 있다. 직업훈련에는 재취직 훈련, 취업훈련, 여성가장 실업자 취업훈련, 정부 위탁훈련, 자활직업훈련, 고용촉진훈련 등이 있다. 모든 훈련은 국가가 훈련비를 부담하면서 훈련 과정에 따라 교통비와 식대 그리고 가족수당이 지급된다. 특별히 여성가장 실업자 취업훈련은 가계보조금과 가족수당도 함께 지급된다. 2003년도 훈련실시인원 108,187명 중 12월 현재 40,238명이 수료하였고, 취업자는 18,703명으로서 취업률은 39.0%로 나타나 훈련의 효과성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한편, 노동부에도 저소득자층을 위한 자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취업대상자에 대한 자활지원프로그램으로는 직업적응훈련, 자활직업훈련, 자활촉진사업 등이 있다. 직업적응훈련은 취업대상자의 자활의지 및 근로의욕의 고취와 다양한 취업정보를 획득하고,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컴퓨터 활용능력, 자동차 운전능력 등을 배양하는 프로그램이며, 자활직업훈련은 자활대상자를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 지원 및 취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자활프로그램이다. 또한 자활취업촉진사업은

당장 취업이 가능한 취업대상자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직업상담을 통해 대상자에게 적합한 사업체를 지정, 알선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보건복지부, 2004d; 석재은 외, 2005:220).

이처럼 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저소득 빈곤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고용정책은 직접적으로 빈곤 청소년의 고용능력 증진을 위한 정책이라기 보다는 빈곤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의 고용능력의 증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물론 대부분의 직업훈련이 16세 이상 실업자나 구직자를 대상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청소년의 고용능력 증진과도 연계되어 있다.

비진학 청소년과 중도탈락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반계 고등학교에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빈곤 청소년의 고용능력 증진을 통한 사회적 배제 해소정책과 연관된다. 일반계 고교에 2-3학년 재학생이 교육감이 인정한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해당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중도탈락 고등학생을 위해서도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할 경우 고졸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중앙 및 지역단위의 경제단체 및 노조단체 등과의 파트너쉽을 강화하고 협의체제를 구축하여 고졸취업자의 작업환경, 임금 등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산업체의 직무내용과 학교 교육내용의 불일치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시 지역 산업체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중앙 및 지역단위의 진로정보센터 운영을 통하여 졸업생의 취업 및 진학지도를 강화하고 있다(청소년백서, 2004:102).

청소년들의 실업대책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2004년 청년실업대책 T/F를 구성하여 2005년에 청년고용대책을 마련하였다. 이 대책은 학교-노동시장간 이행 원활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기존의 일시적인 실업해소 대책보다는 중장기적인 청소년 고용안정 촉진 방안을 수립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동시장 공급측면에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한 진로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직업현장체험 확대, 산업별·지역별 수요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체계의 혁신 등이 제시되었고, 노동시장 인프라측면에서는 노동시장 통합정보시스

템 구축 및 청소년 워크넷 구축 및 운영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표 IV-14>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 해소를 위한 주요 정책

	훈련대상	지원내용	실시현황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	여성가장 실업자 (고용보험적용/ 미적용)	교통비, 식대, 가족수당, 가계 보조금	-
정부위탁훈련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15세 이상 실업자, 인문고 3학년 재학중 인자 중 상급학교 비진학자	교통비, 우선직종수당, 식대 :	11,662명
고용촉진훈련	15~65세 고용보험 미적용자, 군전 역자, 기초생활수급자, 모자보호대 상자, 영세농어민 등	교통비, 우선직종수당, 식대	11,805명
자활직업훈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직업훈련 이 가능한 자	자활수당, 교통비, 우선직종수 당, 식대	48,000명
여성 고용촉진장려금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 성을 고용한 사업주, 가족부양의 책임있는 여성가장을 고용한 사업 주	재고용(월30만원) 신규채용(월 60만원)	4,630명
육아휴직장려금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하고 육 아휴직이 종료된 후 30일 이상 당 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휴직기간동안 월 20만원	-
청소년 자활지원관 운영	저소득 청소년	진로지도, 직업교육/훈련, 직 업체험, 벤처기업창업지원	-
청소년직업지도 프로그램	고등학생, 대학생, 직업훈련생 등 (15-29세)	진로지도, 직업탐색기회제공, 취업기술습득지원	-
청소년Work-net	고졸이하 비진학 청소년	구인 구직관련 정보제공	-
청소년직장체험프 로그램	15-29세의 미취업 혹은 취업준비 청소년	직장체험/진로설계능력제고	-
직업체험 프로그램 (잡스쿨)	중고생	대학전공체험/기업체견학	1,572명(2005)
진로/직업지도	실업계 고교생 및 졸업생	진로직업지도, 구인구직정보 제공, 개별/집단상담	-
일반계고교 직업교육과정	고교 23학년 재학생	직업훈련기관의 직업훈련	8,548(2005)
중도탈락 직업훈련	고교 중도탈락자 중 직업훈련과 정 이수	고졸자와 동등한 학력인정	24,037(2005)

주. 직업체험프로그램, 일반계고교직업교육과정, 중도탈락자 직업훈련은 2005년 자  
료이고 나머지 자료는 2003년 노동부통계에 의한 자료임.

## (2) 경제적 빈곤 해소 관련 정책

빈곤 청소년의 소득지원 정책의 핵심에는 2001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제도와 사회보험제도가 있다. 빈곤 청소년이 생활하고 있는 가정의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으로는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생계급여와 장애수당이나 장애아동부양수당과 같은 범주적 공공부조제도가 있고 근로유인을 위한 근로소득공제제도가 있다. 근로소득공제제도는 근로빈곤층과 차상위계층에게 근로유인장치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층의 자활과 자립을 도모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근로소득공제제도는 소득평가 산정시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공제하는 것으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근로소득공제 대상 및 공제율은 아래의 <표 IV-15>와 같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 청소년과 빈곤 청소년이 생활하는 가정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고 사회보험제도는 근로 청소년의 소득안정과 청소년이 생활하는 가정의 소득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는 빈곤 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함으로써 소득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해야 하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한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소득평가액과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차액을 각종 급여로 지급하는 보충급여제를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라 현금급여기준에서 주거급여와 가구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된다. 이때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 교육비, 타법지원액(주민세, 교육세, TV수신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취약한 모부자가정에 대해서도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모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은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 별거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거나 또는 배우자가 있어도 폐질, 불구 등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선정기준은 2인은 84만원 이하, 3인은 111만원 이하, 4인은 130만원 이하 5인은 145만원 이하의 가구로 18세 미만(취학시 20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우선,

자녀에 대하여 자녀학비와 아동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활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리 4%, 5년거치 5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최대 1,500만원까지 복지자금을 대여함으로써 가정의 생업기반 조성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다른 가구형태보다는 여성가구주의 가정의 빈곤율이 높다는 점에서 여성가구주와 함께 생활하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사회적 배제는 불가피하다. 따라서 여성가구주의 창업을 지원하여 소득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여성 본인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여성가구주와 함께 생활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삶의 질도 개선할 수 있다. 때문에 여성가구주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와 여성부 등의 창업지원정책은 한부모가정의 빈곤을 해소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표 IV-15>에서와 같이 창업지원정책의 주요 대상은 장기실업자, 실질적인 부양역할을 수행하는 실직여성가장, 차상위 혹은 저소득 여성가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와 자활공동체,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저소득 모부자가정 등과 같이 실질적인 저소득층에 속하는 여성이다.

〈표 IV-15〉 빈곤 해소를 위한 주요 소득지원정책

	대상	지원내용	실시현황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장애인자녀	장애정도에 따라 월 3만원~13만원	338,659명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정	장애정도에 따라 월10만원~ 20만원	-
모부자 가정 지원	18세(취학시 20세)의 자녀를 둔 가정에 학비와 양육비 지원	1인 50,000원	-
	18세의 자녀를 둔 가정에 복지자금대여	최대 1,500만원	-
	무주택 저소득모자가정에 모자보호시설 입소		-
여성가장 창업지원	실직여성가장 자영업지원 :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실직여성가장	1억원 이내 연 4.5% 금리	118명
	저소득층생업자금융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 위(150%)	가구당 2000만원 이하 연 3% 금리	303명
	전세점포임대지원: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단, 개인창업자 대상	2천만원 한도내 연 3%	52명
	모부자가족 복지자금대여 : 배우자 없는 모 또는 부과 18세 미만의 자녀가정	1인당 2천만원 이내 연 3%	-
	여성가장창업지원 : 창업희망 차상위계층 여성	1인당 5천만원 이내	96명
소년소녀 가정 지원	생활비(김장비/도시락반찬대/건물유지비 등)	세대당 약 200만원(교육비 제외)	-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125만명	-
근로소득 공제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	30% 공제	-
	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30% 공제	-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30% 공제	-
	공공근로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30% 공제	-

주. 기준연도는 2006년임

### (3) 교육적 배제 해소 관련 정책

빈곤 청소년의 교육적 배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저소득 빈곤 청소년에 대한 학비지원과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 등 교육격차 해소 정책 등이 대표적인 정책이

라고 할 수 있다. 빈곤 청소년에 대한 학비 지원의 경우, 교육기본법 제28조는 국가의 장학제도 등의 실시 의무 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정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제도 및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장학금 규정이 제정되어 있으며,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들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저소득층 빈곤 청소년에게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학용품비와 기타 수급품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의 교육배제로 인해 빈곤이 되물림되는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부터 기회균형선발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층 자녀가 대학에 갈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정원외 특별전형 중 농어촌(4%), 전문계고(5%), 재외국민 및 외국인(2%) 전형을 모두 통합해 정원의 11% 범위 안에서 저소득층을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대학이 정원의 농어촌과 전문계고,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을 실시해도 채우지 못하는 정원의 11%의 나머지를 저소득층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권장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원 내외로 입학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청소년에게는 4년제 국공립대 평균등록금수준(2007년 기준 43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학비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장학금은 정원내외를 불문하고 고교1·2학년 내신 이수과목의 1/2이상이 6등급 이상이거나 수능 언어·수리·외국어 영역 모두 6등급 이상인 신입생이나 학점 평균 3.0(B)이상인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또한 모부자가정에게도 복지급여 중 하나로 아동교육지원비를 지원하고 있고 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와 장애인인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sup>42)</sup>. 2004년 현재, 학비지원내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87천명, 저소

42)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청소년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③ 동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에 한함) ④ 동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학교 ⑤ 평생교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중학교·고등학교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한다) 중 하나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학생이고 지원내용은 입학금·수업료(제5호의 경우에는 학습비를 말함) 및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이하 '학비'라 함)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농어민 자녀 87천명, 장애인과 모부자가정 자녀 14천명, 그리고 기타 저소득층 자녀 124천명 등 총 358천명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저소득 근로자 자녀에 대해서도 근로자 장학사업을 통해서 학비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업의 대상은 3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월평균 급여가 170만원 이하인 자 및 그 자녀이며 소년소녀가장근로자, 모자가정근로자, 세대주 근로자 등이 우선 선발대상이고 이들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및 육성회비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이처럼,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지원 대상을 계속해서 확대해 왔지만 교육부가 지원하고 있는 교육비는 여전히 학비지원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2004년 현재 입학금, 수업료 등 학비를 지원하는 대상 규모는 총 293천명으로 의무교육대상인 중학교 학생을 제외하면 고등학교 총학생 중 16.7%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다.

저소득 빈곤 청소년의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교육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청소년 밀집지역에 대한 집중지원사업으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중심이 되는 지역교육공동체 형성을 지향한다는 점,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삶을 총체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이다. 특히 이 사업은 청소년 개인에 대한 일부 교육비의 지원만으로는 빈곤 청소년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반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목표는 빈곤 청소년의 학습결손 예방 및 치유를 통한 학력의 증진, 빈곤 청소년의 건건강한 신체 및 정서발달과 다양한 문화적 욕구의 충족, 가정/학교/지역사회 차원의 지원망 구축을 통한 교육·문화·복지수준의 제고와 교육격차의 해소에 있다. 이 사업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서울과 부산의 8개 지역에서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5년에 15개 지역, 2006년 현재 전국 30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표 IV-16> 교육으로부터의 배제 해소를 위한 주요 정책

	대상	지원내용	실시현황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입학금, 수업료	87,000명
저소득층 교육비지원	차상위저소득층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140,000명
	중고생	학교운영비	107,000명
기회균형 선발	정원의 특별전형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	정원내 선발	21,345명(추정)
장학금지급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청소년 중 재 학생 학점평균 3.0 이상	4년제 국공립평균등록금	-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지원	저소득밀집지역 선정 교육/문화/복 지수준의 향상	저소득층 우수학생 학습지도, 교사연수 학부모연수 등	260개 학교
근로청소년 특별학급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
모부자가정/ 장애인가정	모부자가정의 자녀/장애인이 부양하 는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	교육비 지원	14,000명
근로자자녀 교육지원	월평균급여가 170만원 이하인 근로 자 및 자녀(소년소녀가정, 모자가정 근로자 우선 선발)	입학금/수업료 및 육성 회비 전액 지원	37,008명
정부보충 학자금 용자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 운 대학재학생	입학금/등록금/생활비 (100만원한도)	-
저소득층 수능고재지원	소년소녀가장, 사회복지시설청소년, 장애청소년, 기초생활수급청소년	EBS수능규제 무상지원	28500명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사업	저소득가정의 청소년	PC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100,000명
청소년공부방	저소득빈곤 청소년의 학습지원	운영비 지원	623개소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지원	빈곤청소년에게 학습기회 부여	운영비 지원	157개소

이외에도 근로청소년의 교육기회확대와 관련하여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에 대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위하여 산업체에 인접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야간수업을 주로 하는 특별학급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야학형태로 운영되어온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는 정규학교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열악한 시설과 부족한 교사 등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 16개 시도 157개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에 운영경비를 지원하고 비정규학교 청소년, 산업체학교 근로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문예·체육행사를 지원해왔다.

#### (4) 주거 및 의료 배제 해소 대책

현재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만을 대상으로 특별한 주거지원 급여는 전무하다. 단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동일 순위내 경쟁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 수에 대한 가점부여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간접적으로는 자녀의 유무나 자녀의 수와 관계된 주거지원형태라고 볼 수 있으나 부양가족에는 아동이나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원이 다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빈곤한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의 일환으로서 저소득 한부모가정이나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자격을 주는 사업 등이 현재 추진 중이다(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4). 최근 정부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건설(2003-2012),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영세민 전세자금 등 주거비지원확대,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장기주택종합계획 수립 등 저소득층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빈곤 청소년과 관련된 주거지원정책은 주로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정, 시설퇴소아동 등을 중심으로 주거급여 지급, 공공임대아파트 우선입주, 전세자금 대출 등을 시행하고 있다.

<표 IV-17> 주거와 의료 배제 해소 관련 정책

유형	대상	정책	실적
소년소녀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중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끄는 가정	가구당 임차전용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주택에 대한 전제자 금대출 무이자	442 가구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18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		621 가구
대리양육가정	18세 미만의 아동이 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와 동거하는 경우		216 가구
친인척 위탁가정	18세 미만의 아동이 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인척과 동거하는 경우		225 가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로서 해당 지자체에 신고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한 경우		-
공동생활가정 생활자	장애인, 보호아동, 미혼모,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전세임대	-
영세민 전세임대	당해 시군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모부자가정(1순위), 장애인(2순위)	전세임대	5,800 가구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월 33,000~55,000원	-
의료급여	1종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수급권자(희귀난치성질환자, 입양아동)	의료급여지원	1,028,536명
	2종 : 기초생활수급자(근로능력세대), 차상위 수급자(만성질환자, 12세 미만아동)	의료급여지원	800,091명
미숙아 의료비지원	도시근로자가가구 월평균 가구소득 130%이하의 가구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인 경우	500만원-1000만원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도시근로자가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 이하의 가구	100만원이하 전액지원	-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저소득산모가정(최저생계비 160% 이하인 가정)	도우미 파견	-

주. 미숙아/선천성이상아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의 기준년도는 2007년이고 나머지는 2006년임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의료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건강보험에서 6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을 면제해주고 있고, 이에 의료급여대상 아동의 경우도 동일연령에 한해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 차상위계층 중 1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지원아동의 연령을 18세까지로 상향조정하였다. 이외에 빈곤 청소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의료보장 정책으로는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산모/신생아 도우미 제도 등이 있다.

#### (5)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배제 해소 관련 정책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인접환경, 즉 가정,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간의 연계와 그 구성원들간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는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자원에 해당한다.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 사회적 관계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자원이라고 한다면, 경제적인 빈곤과 다양한 영역의 차별과 배제로 인해 사회적 관계가 취약한 빈곤 청소년의 사회적 자원은 열악한 수준일 수밖에 없다.

빈곤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단절이나 배제를 해소하기 위한 주요 정책으로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운영, 청소년 동아리 지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다. 2006년도에는 청소년위원회에서 전국 16개 시도 청소년종합상담센터를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청소년상담과 위기 청소년에 대한 긴급구조, 일시보호, 치료·자활 등 통합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121개 시군구 청소년상담센터를 청소년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청소년 상담, 위기청소년 지원활동 이외에 청소년 활동·자원봉사·참여·인권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 같은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이 구축됨에 따라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자활 등 기능이 보다 체계적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등과 연계되어 위기 청소년 역량강화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너지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청소년백서, 2006:260).

〈표 IV-18〉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배제를 해소하기 위한 주요 정책

	내용/목적	설치기관	실시현황
청소년상담지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 위기청소년에 대한 긴급구조, 일시보호, 치료 및 자활 등 통합지원 기능의 수행	광역시도	전국 16개소
	청소년상담센터 : 청소년상담, 위기청소년 지원활동, 청소년활동·자원봉사·참여·인권 등에 대한 정보제공	시군구	121개소
	청소년인권보호법률지원단 : 성매수 등 성착취 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	청소년 보호위원회	-
청소년동반자(YC) 프로그램운영	전문가들과 청소년들과 유기적인 관계 형성을 청소년의 생활 지원	8개 시도	301명(2006)
청소년 1388전화상담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원봉사 및 수련활동 정보제공, 인터넷 중독치료 등 청소년 관련 모든 문제에 대해 365일 24시간 원스톱서비스 제공	청소년상담 지원센터, 청소년 상담센터	이용자수: 98,466명(2006)
청소년통합지원 체계	위기청소년에게 각종 상담, 심리·정서적 지지, 자활지원, 학습·진로지도, 문화체험 등 제공	8개 시도	29,190명(2006)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원 운영	민간	151개소 /6116명
청소년문화존 지원사업	방과후 시간대에 청소년들로 하여금 문화향수, 문화감성, 문화창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	8개 광역시도	41개소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	학교동아리 지원	초/중/고등학교	546개소
	수련시설동아리지원	수련시설	180개소
	특별동아리 육성사업(YP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 자원봉사동아리지원)		199개소
청소년활동 진흥센터운영	청소년들의 사회참여를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과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16개 시도 민간단체	539,767명
	청소년자원봉사 교육/연수		390,944명

주: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청소년1388전화상담, 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2006년, 나머지 자료는 2003년 기준임.

특히 청소년 동반자(Youth Companion)프로그램은 지역연계망을 동원하여 전문가들과 위기 청소년들을 연계해 줌으로써 빈곤 청소년과 같은 위기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해 주고 있다. 청소년 백서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존의 지원체계는 위기청소년의 정보부족, 전문가에 대한 신뢰부족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위기청소년에게는 지원이 단절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점에 착안하여 청소년이 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서 지원해 주는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 (6) 비행과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

앞서 영국과 한국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환경 요인은 청소년 범죄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비행과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은 가정의 빈곤이나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결손 가정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최근 청소년 범죄의 경향이 빈곤한 가정보다는 일반 가정에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소년범죄자의 다수는 빈곤한 가정의 청소년이다. 따라서 가정의 빈곤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소년 비행과 범죄의 대책과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비행 청소년이나 범죄청소년과 관련된 대표적인 정책은 경찰이나 검찰을 중심으로 한 예방 및 교화활동과 함께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쉼터운영 등이 있다.

검찰은 소년비행의 예방을 위하여 선도성과 우수소년에 대한 표창, 우범소년 결연, 소년선도 가두캠페인 및 강연, 비행청소년취업알선, 재소자에 의한 비행 소년 정신교육 등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지역실정에 밝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우며 일정한 직업과 시간적 여유가 있고 소년비행의 예방과 교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을 위촉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은 학교폭력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주관으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에서도 학교주변의 청소년 유해환경을 정화하기 위하여 교육관계자 및 자치단체 공무원, 시민단체 등 총 104,076명의 민관합동단속반을 편성,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표 IV-19〉 비행과 범죄로부터의 예방 관련 정책

	내용/목적	설치기관	실행현황
청소년고충 상담실운영	청소년 문제의 사전진단과 해결	경찰서, 청소년선도단체	상담건수: 18,671
청소년유해 환경감시단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감시와 고발	민간단체	단속건수 : 44,564건
범죄예방교실	학교를 방문 청소년들이 범죄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예방교육실시	경찰관서	230만명
사랑의 교실	비행청소년/불량소년/중고등학교 문제학생의 자성교육을 통해 비행예방 성인범죄화 방지	한국BBS, 한국 청소년육성회	참여학생: 6456명
청소년 풍기단속	경찰이 지도교사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청소년 풍기문란행위 단속	경찰관서	단속건수: 125,108명
미아·가출 청소년 선도	미아 청소년 발견시 보호자나 보호시설에 인계	경찰관서	인계건수: 3,206명
	가출청소년 발견시 보호자나 보호시설에 인계		인계건수: 60,628명
가출청소년 쉼터운영	가출청소년의 일탈행위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활동, 생활지도, 교육수련활동을 지원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이용자: 68,918명
소년비행 예방활동	소년비행의 예방을 위하여 선도성과 우수소년에 대한 표창, 우범소년 결연, 장학금지급 등	검찰청	-
범죄예방 자원봉사제도	국가의 범죄활동에 자원봉사자가 제도적으로 참여하여 소년범죄자에 대한 상담/특별지도, 취업알선/직업훈련 등을 제공	각지방검찰청	범죄예방 위원 16,384명
명예경찰제도	경찰/학교/선도단체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청소년 스스로가 범죄 및 제반 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지원	경찰청	명예경찰 인원 42,402명

주. 자료의 기준연도는 2003년 임.

한편,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 청소년의 비행과 범죄예방을 위해 청소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가출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화지원과 선도, 가정사회복귀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쉼터를 설

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쉼터는 이용기간에 따라 일시쉼터와 단기쉼터, 중장기쉼터로 나뉜다. 2005년 청소년 쉼터의 현황을 보면, 단기청소년 쉼터가 전국에 41개소, 일시쉼터가 서울, 인천, 대전, 부산 등 총 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 운영되는 쉼터를 퇴소하고도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청소년을 위해 전국적으로 15개의 중장기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폭력과 가출, 성범죄 등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2003년부터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다.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는 가출청소년, 성범죄 피해청소년, 학대와 폭력의 피해청소년, 약물남용 청소년 등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통합적인 one-ste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청소년 범죄나 비행으로부터 선도하고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고충상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청소년들이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 등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청소년통행제한구역도 설치 운영하여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빈곤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해소와 관련된 정책을 가정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분류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IV-20〉 비군청소년 사회적 배제 해소를 위한 주요 정책과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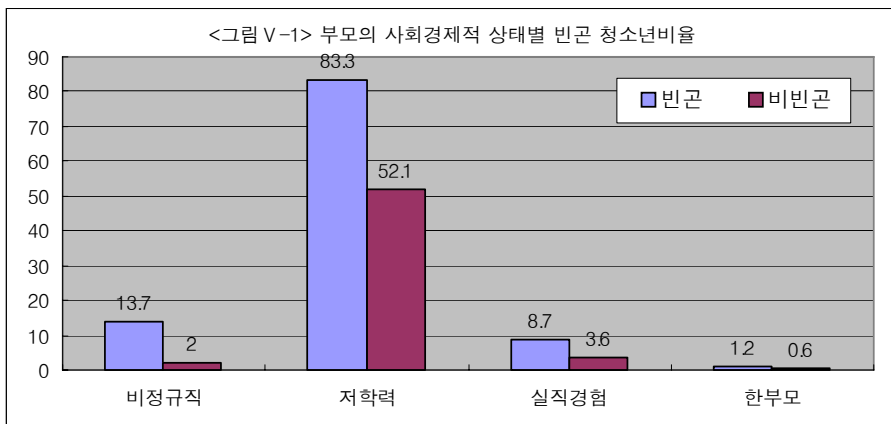
	빈곤가정	한부모가정	청소년
노동으로부터 배제	자활사업, 실직자 직업훈련,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여성고용촉진장려금(여성가장:월50만원 6개월간, 재고용:월30만원 6개월간), 육아휴직 월20만원, 미혼모직업훈련(6개월), 모부자가정 직업훈련수당, 재고용장려금,창업지원, 신규모용촉진장려금,	취업지원프로그램(15-29세), 연소근로자근로조건 보호 지도점검, 최저임금제도, 산학연계연구학교 시범운영, 직업전문학교 운영, 청소년자활지원관 운영(25개소), 직업진로지도 및 교양직업교육강화, 청소년직장체험, 해외취업지원, 연소근로자근로조건보호, 직업체험프로그램
경제적 빈곤	기초생활수급자생계비지원, 장애수당	모자 및 부자가정 생계비, 아동양육비지원, 학비지원, 방과후지도, 모부자가정 보육료지원, 모성보호급여	청소년수가정결연, 가정위탁, 시설아동 직업훈련 및 자립지원, 불우아동결연후원사업, 장애아동부양수당
교육으로부터 배제	청소년상담원운영(부모교육 프로그램운영)	청소년상담원(부모교육프로그램운영)	기초생활수급청소년 학비지원, 대안학교운영, 외국어교육지원, 대안학교운영, 외 국어교육지원, 대학생활자금대출, 방과후학교운영,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 전국상당수회교사배치, 특수교육센터운영, 지역아동센터 지원, 저소득학생 수능부방지원,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저소득학생수능EBS지원
주거와 건강으로부터 배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의료비지원, 영세민/근로자 서민 전세자금대출,	모부자가정임대아파트우선임주지원, 자립정착금지급, 주택자금융자제도, 미혼모시설운영, 상담서비스제공(청소년종합상담소, 여성복지상담소, 임양달선거관 등)	급식지원, 기초생활수급청소년과 차상위계층(12-18세) 청소년에 대한 의료비지원, 소년소녀가장 전세자금대출
사회적 관계로부터 배제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부모교육교수원 양성 및 위촉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부모교육교수원 양성 및 위촉	1388 청소년지원단, 드롭인(dropin) 센터운영, 청소년스포츠클럽, 청소년수련관운영
비행과 범죄	-	-	1388 청소년지원단, 범죄예방위원회, 청소년야목남육단속,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교육, 휴먼일코올예방사업, 소년원교육기반조성, 소년원 직업훈련강화, 소년원특성화학교교육, 가정관운영

## V. 빈곤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해소를 위한 정책제언

### 1. 사회적 배제 해소를 위한 대책의 방향

청소년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소득의 빈곤에 있다. 빈곤한 가정은 다양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공공서비스 접근의 어려움은 청소년들의 고용능력과 학업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빈곤을 영속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한다. 특히, 특정 지역 사회에 집중된 빈곤은 다차원적인 박탈과 결합되어 낮은 기대와 열망 그리고 하위 문화를 초래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청소년의 비행이나 범죄는 증가하고 가족의 붕괴는 가속화될 수 있다.

아래의 <그림 V-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가정의 빈곤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상태에 영향을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청소년의 빈곤은 부모의 직업이 비정규직인 경우, 그리고 부모의 학력이 고졸이하의 저학력인 경우, 그리고 부모가 실직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와 한부모 가족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빈곤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빈곤 가정의 소득을 적절하게 보장해 주는 제반 사회경제적 제도의 개선이 광범위하게 요구된다. 보다 거시적으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학력의 차별을 해소함으로써 학력별 임금격차를 완화시켜야 한다. 실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도 넓은 의미에서 빈곤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기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 동시에 빈곤한 가정의 불안정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사후대책도 요구된다. 빈곤의 위험에 노출된 가정이 장기실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되도록 빠른 시기에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공공부조정책과 사회보험정책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빈곤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포괄적인 빈곤 정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만큼 광범위한 접근이 요구되는 이유는 전술한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배제가 다차원적인 박탈이라고 하는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배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배제의 해소는 좁게는 빈곤 청소년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공공부조제도의 개혁에서부터 넓게는 빈곤 가정의 경제적 지원과 동시에 사회적 능력의 형성을 위한 노동정책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있다고 할 수 있다.

<표 V-1> 사회적 배제의 위험이 높은 청소년 인구 수

영역	지표		자료원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	실업청소년 16~24세)	132,000명(2007년)	통계청
	비경제활동 청소년(16-24세)	4,079,000명(2006년)	통계청
	장기실업청소년(1년 이상)	156,000 (전체 청소년 대비 2.2%)	추정
	NEET	15-34인구의 8.4%	추정
빈곤	청소년 가구의 빈곤율	207,643명(2006년)	보건복지부
	소년소녀가정	2,399명(2007년)	보건복지부
	시설아동	18,817명(200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요보호아동	6,688명(2007년)	보건복지부
	급식비지원아동	229,361(2003년)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으로부터 의 배제	학업중단 청소년	57,686명(2004년) : 중학생 (30,056명)+일반고(10,485 명)+실업고(17,145 명)	교육통계연보
	학습부진(초등~고등학교생)	487,437명(2004년)	교육인적자원부
	미혼모 청소년	6,000(추정)	국가청소년위원회
	결식청소년		
사회적 관계망으로부 터 배제	이혼자녀	150,00명(2004년)	통계청
	장애청소년	159,047명(추정)	보건복지부
	북한이탈청소년	1,706명(2004년)	통일부
	다문화가정의 자녀(8세-19 세)	25,270명(2003년)	교육인적자원부
	외국인근로자 자녀(8세-19 세)	1,209명(2007년)	교육인적자원부
비행/범죄	흡연청소년	248,184(추정)	국민건강증진연구소
	음주청소년	2,594,473명(추정)	청소년보호위원회
	가출청소년(9세-20세)	경찰청 접수 : 12,836명 (2005년) 가출경험 자:303,993명(추정)	경찰청 청소년보호위원회
	폭력가해청소년	폭력가해경험자 193,130명 (추정)	청소년보호위원회
	성관계경험 청소년	141,760명(추정)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범죄자	104,158명(2003년)	대검찰청
	청소년 마약사범자(14-19세)	37명(2003년)	대검찰청
	환각물질흡입청소년(15-19 세)	180명(2003년)	대검찰청

한편, 사회적 배제에 대한 광범위한 인식을 토대로 빈곤 청소년이 경험하고 있는 배제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영역별로 배제의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의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한 노력도 강조되어야 한다.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효과성은 구체적인 정책목표와 전문적인 정책적 개입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적 배제의 위험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위험이 있는 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의 <표 V-1>는 빈곤으로 인해 사회적 배제의 노출될 위험이 높은 청소년

년 집단과 배제의 위험이 높은 청소년의 수를 제시한 것이다. 빈곤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대상과 목표가 구체화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각 영역별로 배제되었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는 청소년 집단을 세부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 2. 빈곤 청소년 사회적 배제 해소 대책의 내용

### 1) 체계적인 사회적 배제 해소대책 마련

청소년의 빈곤을 해결하는 것은 청소년기가 이후 삶의 토대를 이룬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앞서 다양한 이론과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소득 가정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도 열악한 건강 상태, 낮은 학업성취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리고 빈곤 청소년들에게서 높은 경향을 보이는 비행과 범죄로 인해 빈곤 청소년들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청소년기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이탈되어 편견과 낙인 속에서 생활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청소년의 빈곤 해소를 위한 정책은 현재 처한 아동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청소년이 생활하고 있는 가정이 경험하고 있는 빈곤의 악순환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국의 **HM Treasury**가 현재와 미래의 아동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적절한 가족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동과 청소년의 빈곤에 있어 가정의 소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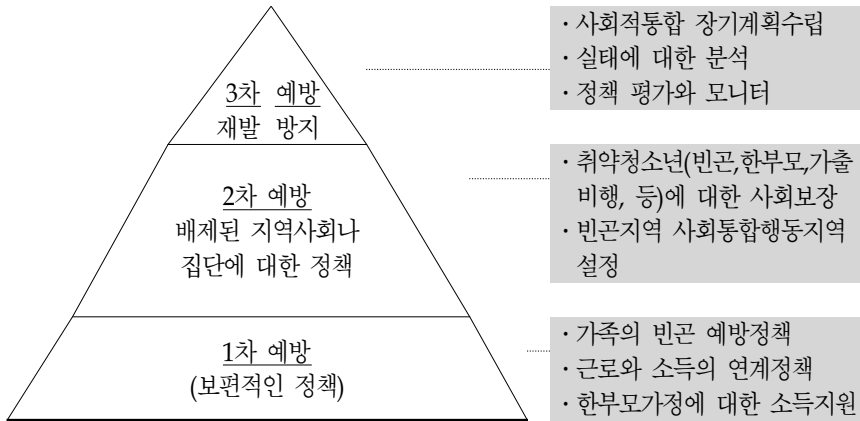
빈곤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대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정책은 개입대상에 따라 정책의 목표와 영역 그리고 정책의 범위를 차별화해야 한다. <그림 V-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은 먼저,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이전인 1차적 예방단계와 문제의 출현으로 사회적으로 배제된 특정 집단에 초점을 맞추는 2차적 예방 단계 그리고 각 단계에서 시행된 정책들을 모니터하고 평가함으로써 문제의 재발을 차단하는 3차적

예방단계로 나누어진다. 1차적 예방단계에서는 빈곤이라는 경제적 문제의 출현을 예방하기 위해 빈곤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위기집단을 중심으로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부모가정이나 여성가구의 가정 그리고 실업가정 등 빈곤에 빠질 위험이 있는 가정에 대한 소득지원, 근로와 소득의 연계, 근로소득공제, 보편적인 아동수당, 교육비와 의료비 지원 등의 정책은 이 단계에서 제시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방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시장의 진입을 앞둔 청소년들을 위해 진로지도와 진학상담을 하는 단계도 이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직업진로교육은 교육인적자원부와 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초중등학생의 직업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진로지도관련 정책연구, 진로정보 및 프로그램 개발, 진로지도교사 양성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노동부도 청소년의 실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업정보, 심리검사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고,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규교육과정에서 진로교육에 대한 학교와 학생의 호응이 낮은 편이고 진로교육 담당교사의 전문성도 여전히 부족한 실정(금재호, 2005)이어서 현행 진로교육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빈곤 청소년들의 다수가 고졸이하의 저학력 청소년이나 중퇴 청소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 집단에 대한 고용지원과 진로지도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청소년이라고 할지라도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인해 빈곤으로 빠질 위험이 높은 근로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도 이 단계에서 구상된다. 단순직무의 비정규직으로 취업해 있는 청소년, 영세기업의 저임금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청소년, 숙련수준이 낮아 상시적으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훈련과 고용지원 정책도 1차 예방단계에서 제시될 수 있는 정책들이다.

<그림 V-2> 빈곤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해소를 위한 정책 단계



2차적 예방단계는 빈곤에 빠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자활정책, 직업훈련 그리고 창업지원 등을 통해서 빈곤 탈출을 도모하는 단계이다. 빈곤 가정에 대한 생계비의 지원은 빈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라고 하는 청소년 정책의 기본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이다. 그리고 생계비 지원을 통해서 빈곤 가정의 청소년들이 빈곤을 탈출하고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게 된다. 때문에 현행 공공부조 제도는 까다로운 수급조건과 낮은 급여로 인해 빈곤 청소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를 상향조정하고 수급자격을 완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빈곤 가정의 열악한 경제상황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빈곤의 대물림과 영속화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빈곤 가정 청소년들의 교육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도 강조되어야 한다. 현재 저소득층 가정에 한하여 교육비와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교육빈곤층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아직까지 미흡한 것이 현실이고 지원되고 있는 급여수준도 매우 열악하다. 따라서 한번 빈곤에 빠진 빈곤가정의 청소년들이 자립과 자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단계에서 빈곤 청소년들은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비를 지원받고 자활을 위해 직업훈련과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장기실직 청소년들은 실업급여와 훈련수당을 통해 소득을 유지하면서 노동수요에 맞는 고용능력을 습득하게 된다. 실업 청소년들은 이미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업기간동안 소득보전을 통해서 경제적인 안정이 확보되어야만 직업훈련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실업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은 적절한 소득보전이 있어야만 적극적인 구직욕구를 가질 수 있게 되고 직업훈련 기간동안 더 높은 빈곤화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임금보조제의 경우 실업청소년이나 실업가정의 실업의 장기화를 예방하고 빈곤탈출의 시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정책적 대안이다.

2차적 예방단계에서는 임금보조제도와 함께 실업청소년과 실업 가정에 다양한 구직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빈곤 가정과 빈곤 청소년들은 경제적 능력뿐만 아니라 정보측면에서도 매우 열악한 지위에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 및 정보제공서비스, 자격정보 제공, 필요훈련 내용 및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과 상담, 그리고 직업알선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마지막 3차 예방단계에서는 1차 예방정책과 2차 예방정책의 결과를 평가하여 동일한 문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들이 포함된다. 이 단계에서는 빈곤 청소년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이 실행되기보다는 시행된 정책들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관련 정책의 지속이나 중단여부를 결정하는데 초점을 둔다. 앞서 영국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은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의 실태를 다양한 지표를 토대로 분석하고 있고 관련 정책에 따른 사회적 배제의 해소효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빈곤 청소년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다양한 지표를 통해서 구체화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대안을 주기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빈곤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기 위한 논리적 토대를 제공해 준다. 사회적으로 배제된 빈곤 청소년의 규모를 파악하고 다양한 배제 영역에 따른 위기 상황들을 구체화하는 것은 필요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기적인 계획과 평가는 필수불가결하다.

## 2) 청소년의 교육과 고용정책 강화

실업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일 만큼 핵심적인 변수임에도 우리나라 청소년의 실업문제는 성인 실업문제와 비교할 때 국가의 정책이나 사회적 논의에서 늘상 소외되어왔다. Aassve(2005:14)의 주장처럼 낮은 교육수준과 실업 그리고 낮은 임금 등과 같은 인적 자본과 노동시장요인은 청소년들의 빈곤을 초래하는 위험요인임에 틀림없다. 낮은 교육으로 인한 고용능력의 부재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급변하는 노동수요에 적응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초래하게 된다. 교육과 직업훈련을 통한 고용능력의 확대가 빈곤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해소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되는 것도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빈곤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통한 노동시장에의 참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은 유동적인 노동시장의 수요에 대응하여 적절한 고용능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자립과 경제적 안정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이 과정에서는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교육에서의 이탈가능성이 높은 빈곤 청소년이나 미혼모 청소년 등에 대한 집중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빈곤청소년의 경우 부모로부터의 적절한 사회경제적 지지를 받지 못함으로써 학업의 필요성과 열의에 있어 비빈곤 학생들에 비해서 뒤떨어 질 수 있고, 미혼모 청소년도 아동에 대한 양육의 문제로 인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도 다니지 않고 일도 하지 않은 이른바 NEET 청소년들의 경우는 노동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실질적인 고용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양질의 직업훈련이 제도화되어야만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를 차단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대상의 특성과 능력에 따라 다양한 훈련과정을 마련하고 자격증제도와 연계하여 훈련이수 후 바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훈련과정을 전문화하고 체계화해야 한다. 특히, 실직이나 중도탈락 등의 문제를 가진 취약청소년을 위해서 이들의 특성과 취향에 맞는 특성화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직업훈련의 내용을 다양화하고 체계화하는 것

과 함께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는 빈곤 청소년의 고용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과 고용과 소득의 연계를 지원하는 통합적인 접근을 도모할 행정체계의 마련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고용능력 개발은 전 생애의 경제적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산업수요에 맞는 직업능력과 고용능력을 개발하여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도모하는 것은 청소년의 빈곤을 해소하는 출발점이 된다. 청소년의 고용능력의 신장이라고 하는 중요한 정책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직업훈련이 지금까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같은 부정적인 평가는 직업훈련 내용이 급변하는 산업수요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훈련과정이 자격증과 연계되지 못함으로써 취업률이 낮다는 비판때문이다. 전술한 영국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영국은 오랫동안 청소년 기술력 향상과 고용증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총체적으로 직업훈련과 직업교육 개혁을 추진하여 청소년들의 고용증대를 추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영국정부는 고용증진과 연관을 가진 고용지원서비스와 전달체계는 물론 훈련의 내실화의 기반이 되는 근본적인 요소들이 고용증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도록 개혁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연령별로 그리고 위험의 요소별로 청소년들을 노동시장에 흡수하기 위한 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다. 뉴딜정책을 통해서 청소년들을 연령대별로 그리고 위험요소별로 분류하여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도모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빈곤 청소년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 해소도 교육이나 직업훈련의 중요성만큼이나 강조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배제의 문제는 단순히 교육체계의 개혁과 보다 높은 교육적 열망의 고취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즉 더 나은 교육이 반드시 사회적 배제를 자동적으로 제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배제와 교육 그 자체는 소득의 불평등, 계급 그리고 사회의 인종적 구분, 물리적 분리, 세계화, 권력의 분리, 교육시장의 계층화된 특성 등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교육의 변화 그리고 교육에 대한 열의의 변화만으로는 부족한 일자리와 매우 경쟁적인 오늘날의 노동시장을 해소하는데

충분하지 않다. 사람의 교육성취는 연령과 성에 기초한 고용주의 차별로 인해 무시될 수 있다. 그래서 교육성취는 노동에서의 성공과 삶에 있어서의 만족을 제공해주는 다른 요소들과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Sucur et al, 2006:12-13).

Sucur et al(2006)의 주장처럼, 교육의 성취는 노동시장의 평등한 접근과 처우라고 하는 노동에서의 성공적인 삶과 연계되어야 한다. 아무리 빈곤 청소년의 교육적 성취가 높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에 대한 노동시장의 접근과 처우 등에 있어 차별적 요소가 존재한다면, 빈곤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를 일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빈곤 청소년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정당화하는 법규의 개정하고 빈곤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을 해소하기 위한 문화적인 운동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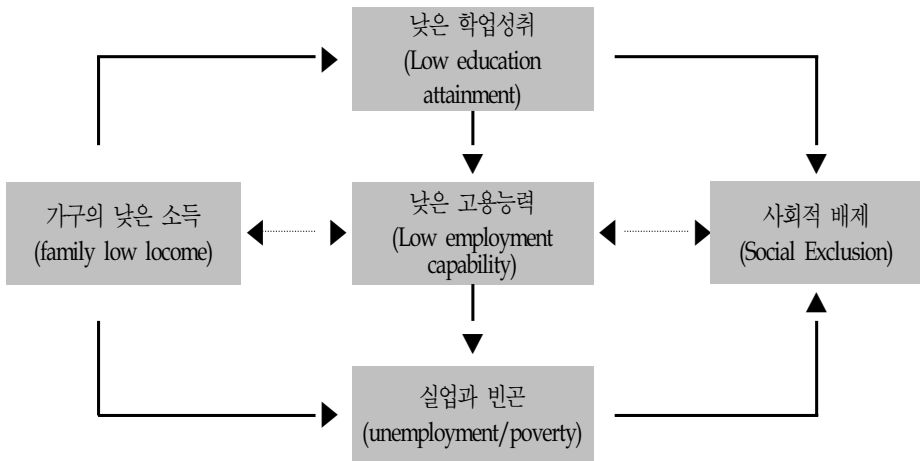
### 3) 가족 중심의 종합적인 접근

가족은 사회의 기초단위로서 개인의 성격형성은 물론 성장발달의 근원적인 토대가 되는 물리적·정서적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게 있어서 가족변화는 이들의 사회화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건강한 발달과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건이 확보될 필요가 있으며 가족은 이들 보호의 최적의 단위라는 점에서 그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가족의 구조적 및 기능적 결손으로 인하여 가정이 해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가정들이 기본적인 양육과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 및 국가가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이다(장혜경 외, 2006:3)

이처럼, 가족은 사회와 역동적인 상호작용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내외적 요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사회제도이다. 그리고 이 같은 가족이라는 기본적인 사회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가족관계와 함께 경제적인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 가구주의 실업이나 빈곤 등은 기본적인 사회제도로써의 가족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데 위협이 된다.

오늘날 실업으로 인한 다양한 자원의 부족은 가정의 빈곤에 있어 핵심적인 요인이다. 그래서 청소년의 빈곤은 청소년의 성적이나 학업 성적 등의 내적 요인에 의한 결과라기보다는 가족의 빈곤이라고 하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족의 빈곤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강제되고 있는 실업이나 비정규직의 확산이라고 하는 유동적인 노동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그림 V-3> 가정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와의 관계



위의 <그림 V-3>은 가구의 낮은 소득에 따른 사회적 배제의 결과를 도식화한 것이다. 가구의 낮은 소득은 낮은 학업성취로 이어지고 이것이 낮은 고용능력으로 이어짐으로써 실업과 빈곤으로 연결된다. 이처럼, 빈곤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는 가정의 낮은 소득이라고 하는 가족요인과 실업이라고 하는 노동시장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빈곤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은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서부터 노동시장의 구조적 결함을 치유하기 위한 노동정책에 이르는 통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장혜경 외(2006:5)의 지적처럼, 넓은 의미에서 가족정책은 가정 구성원의

안정과 복지를 강화하고 가족생활과 관련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가족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서 정책단위는 가족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 개인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가족정책에는 보육지원저액이나 아동 및 청소년 복지정책과 같이 가족구성원의 삶의 변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책에서부터 산업, 교통, 환경, 노동정책에 이르기까지 간접적인 방식으로 가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면의 정책에 이르기까지 매우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빈곤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는 아직까지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아동수당(Child Credit)과 가족수당(Family Credit)제도 그리고 근로가족세금환급공제(Working Family Tax Credit)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빈곤가정은 경제적인 능력에서뿐만 아니라 정보의 접근에서도 상당한 제약이 뒤따르기 때문에 노동시장이나 고용환경의 변화나 자격정보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상담, 그리고 직업에 대한 알선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만 빈곤의 탈출이 가능하다. 또한, 가족의 빈곤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국에서 탈빈곤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근로세액공제제도, 복지와 노동의 연계,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직업훈련 등이 통합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특히, 빈곤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와 주거, 교육 등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노력과 함께 민간의 다양한 복지자원들이 서로 연결되는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VI. 요약 및 결론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해 가는 과정으로서 아동기의 발달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성인기로의 이행을 준비하기 위한 과도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특히,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심리·사회적 독립을 이루기 위해 진로탐색과 준비를 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이지만 빈곤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가족해체나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인해 다양한 사회제도의 접근이 차단되는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 가정의 빈곤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협하는 핵심적인 위험요소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무엇보다도 청소년의 빈곤은 낮은 교육과 불안정한 고용 등의 향후 경제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영역으로부터의 박탈이라고 하는 사회적 배제를 초래하게 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청소년 빈곤의 원인은 고용능력의 저하, 낮은 학업 등 자신의 내적 요인에 의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가정의 빈곤이라고 하는 외적인 요인에 연유한다. 부모의 저학력이나 저임금 그리고 실업은 청소년의 학업능력과 고용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일부의 학자들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승되는 생활방식의 관점에서 청소년 빈곤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오랜 기간 동안 빈곤한 가정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은 낮은 교육수준과 낮은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높고, 향후 성인이 된 이후에 복지에 의존하는 가능성이 비빈곤 청소년에 비해서 높다는 것이다. 청소년의 빈곤은 전술한 빈곤의 세대 간 전승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정이나 미혼모의 증가와 같은 가족구조의 관점에서 유효하게 설명된다.

이처럼, 빈곤율의 증가로 인해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박탈과 배제도 심화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은 빈곤 청소년의 다차원적인 박탈과 배제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정책은 빈곤이라고 하는 경제적 궁핍의 시각에서 절대적 빈곤

계층의 청소년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복합적인 공간과 다양한 제도적 영역에서 배제와 소외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빈곤 청소년들의 본질적인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빈곤은 단순한 경제적 궁핍의 문제를 뛰어넘어 다양한 영역의 차별과 박탈을 유인하는 핵심적인 기제라는 점에서 빈곤의 영향과 결과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안과 대책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본 연구는 빈곤 청소년의 문제를 단순한 경제적 박탈의 관점이 아닌 사회적 배제라고 하는 다차원적인 박탈의 관점에서 빈곤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청소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배제 기구(Social Exclusion Unit:(SEU)를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정책을 평가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영국을 사례로 빈곤 청소년의 다차원적인 박탈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영국의 빈곤청소년 사회적 배제 해소를 위한 정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객관적 자료에 대한 분석’과 ‘주기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은 정부차원에서 Social Exclusion Unit를 구성하여 청소년을 비롯한 다양한 인구집단의 사회적 배제 실태와 정책의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에 따라 국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단체가 상호연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주기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실업문제와 더불어 가정의 빈곤으로 인해 깊은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영국은 사회적 배제를 초래하는 원인에 대한 소급적 분석을 통해 그 대안을 생산하고 있다. Social exclusion Unit는 영국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를 추동하는 요인으로 인구학적 요인, 노동시장 요인 그리고 사회정책의 요인을 제시하고 청소년을 위한 뉴딜, 현대식 도제제도, 연계, 교육지원수당(EMAs) 등을 비롯한 다양한 노동시장정책과 소득지원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The New Deal과 Welfare to welfare’프로그램은 참여를 통한 사회적 배제 해소라고 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빈곤 청소년들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조건들을 개선하고,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하고 있는데, 최근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는 빈곤탈출 경로의 개발을 포함한 성장 단계별·통합적·단계적 접근 모형을 제시하였고, 참여복지기획단에서는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사회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자활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청소년보호위원회, 노동부 등에서 청소년의 진로지도를 위한 상담과 취업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빈곤 청소년 정책은 경제적 박탈에 집중한 소득지원정책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다차원적 박탈의 시각에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사회적 배제 해소정책은 이루어지고 못하고 있다. 아울러 빈곤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최저생계비로 산출된 절대빈곤가구에 한정되고 있어 그 대상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매우 협소한 것이 현실이다. 빈곤 청소년은 경제적 박탈에 더불어 학업중단, 학업능력저하, 사회적 관계의 단절, 그리고 실업 등의 다양한 차원의 사회문화적 박탈을 경험하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 중심의 현재의 정책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빈곤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대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정책은 개입대상에 따라 정책의 목표와 영역 그리고 정책의 범위를 차별화해야 한다.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은 먼저,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이전인 1차적 예방단계와 문제의 출현으로 사회적으로 배제된 특정 집단에 초점을 맞추는 2차적 예방 단계 그리고 각 단계에서 시행된 정책들을 모니터하고 평가함으로써 문제의 재발을 차단하는 3차적 예방단계로 체계화시켜야 한다. 1차적 예방단계에서는 빈곤이라는 경제적 문제의 출현을 예방하기 위해 빈곤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위기집단을 중심으로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부모가정이나 여성가구주의 가정 그리고 실업가정 등 빈곤에 빠질 위험이 있는 가정에 대한 소득지원, 근로와 소득의 연계, 근로소득공제, 보편적인 아동수당, 교육비와 의료비 지원 등의 정책은 이 단계에서 제시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방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2차적 예방단계는 빈곤에 빠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자활정책, 직업훈련 그리고 창업지원 등을 통해서 빈곤 탈출을 도모하는 단계이다. 빈곤 가정에 대한 생계비의 지원은 빈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라고 하는 청소년 정책의 기본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이다. 그리고 생계비 지원을 통해서 빈곤 가정의 청소년들이 빈곤을 탈출하고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게 된다. 때문에 현행 공공부조 제도는 까다로운 수급조건과 낮은 급여로 인해 빈곤 청소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를 상향조정하고 수급자격을 완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빈곤 가정의 열악한 경제상황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빈곤의 대물림과 영속화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빈곤 가정 청소년들의 교육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도 강조되어야 한다. 아울러, 2차적 예방단계에서는 임금보조제도와 함께 실업청소년과 실업 가정에 다양한 구직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빈곤 가정과 빈곤 청소년들은 경제적 능력뿐만 아니라 정보측면에서도 매우 열악한 지위에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 및 정보제공서비스, 자격정보 제공, 필요훈련 내용 및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과 상담, 그리고 직업알선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마지막 3차 예방단계에서는 1차 예방정책과 2차 예방정책의 결과를 평가하여 동일한 문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들이 포함된다. 이 단계에서는 빈곤 청소년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이 실행되기보다는 시행된 정책들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관련 정책의 지속이나 중단여부를 결정하는데 초점을 둔다. 영국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은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의 실태를 다양한 지표를 토대로 분석하고 있고 관련 정책에 따른 사회적 배제의 해소효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빈곤 청소년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다양한 지표를 통해서 구체화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대안을 주기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빈곤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기 위한 논리적 토대를 제공해 준다. 사회적으로 배제된 빈곤 청소년의 규모를 파악하고 다양한 배제 영역에 따른 위기 상황들을 구체화하는 것은 필요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기적인 계획과 평가는 필수불가결하다.

## 참고문헌

- 강신욱 외 (2005). 사회적 배제의 지표개발과 적용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경근 (2005). 한국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5(3), 1-27.
- 김재엽 외 (2005). 아동,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고찰: 위기 아동, 청소년을 중심으로. 연세사회복지연구소.
- 김종숙 (2006). 여성 근로빈곤계층의 특성과 정책 시사점. *노동리뷰*
- 김정원 (2007). 사회적 배제 완화를 위한 사회적 자본의 역할 : 한국의 비영리자활지원조직 사례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금재호 (2005). 고용서비스 선진화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 노혁 (2003). 빈곤계층 밀집지역 청소년 공부방의 실태와 역할 재조명. *청소년복지연구*, 5(2), 17-32.
- 류연규·최연수 (2003). 우리나라 아동빈곤율 수준과 변화경향: 1982~2002년 도시근로자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제16권, 135-165.
- 문진영 (2004). 사회적 배제의 국가간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6(3), 253-277
- 문화관광부 (2004). *청소년백서*.
- 청소년보호위원회 (2005). *청소년백서*.
-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4). 빈곤대물림 차단을 위한 희망투자전략 - 빈곤 아동, 청소년 종합대책. 제49회 국정과제회의자료.
- 석재은 외 (2005).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민의 기본생활보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송병국 (2004). 영국과 독일의 청소년 고용정책 성과. *진로교육연구*.
- 원중학 외 (2005). 실업의 원인과 재정에 미치는 장기효과: 청년실업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 이세용 (1998). 사회적 관계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10(2), 41-71.
- 이용교 외 (2006). 기출청소년 및 청소년쉼터 실태조사. 국가청소년위원회
- 윤미현·이재연 (2002). 한국 10대 미혼모의 특성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3(3), 149-169.
- 장혜경 외 (2006). 주요 선진국의 가족 및 자녀사회화 지원정책 비교연구; 영국·프랑스·호주·핀란드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개발원/한국여성개발원.
- 정미숙 (2007). 사회적 배제, 빈곤, 빈곤과 젠더의 상호연계성에 대한 시론. 페미니즘연구.

- 홍인옥 (2006). 저소득 아동·청소년의 주거실태 조사결과 및 주거빈곤 유형구분. 도시와빈곤. 통권79호.
- 최선희·김희수 (2004), 빈곤아동·청소년 실태파악 및 정책방안 연구,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 건설교통부 (2004). 2003-2012 주택종합계획.
- 보건복지부 (2005, 2006).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
- 보건복지부 (2007). 보건복지통계연보.
- 신명호 (2003). 빈곤가정 청소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도시와 빈곤.
- Aassve, A., Lacovou, M., and Mencarini, L. (2005). Youth poverty in Europe what do we know?. *ISER working paper number 2005-2*.
- Alber, A. B. (2001). *Poverty, social context and children's mental health across the early life course*.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sociology. Univ of Virginia.
- Batan, C. M. (2005). Interacting social dynamics in young people's social exclusion. Paper presented to the 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sian youth issue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of youth in new reas on December 5-9.
- Berthoud, L. (2003). *Multiple disadvantage in employment; A quantitative analysis*. York, Joseph rowntree foundation.
- Berthoud, L. and Robson, K. (2003). Teenage motherhood in europe: a multi-country analysis of socioeconomic outcome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9
- Bhalla, A.S and Lapeyre, F. (1997). Social exclusion: towards an analytical and operational framework. *Development and Change*, vol 28.
- Bradley, H. (1996). *Fractured identities: changing patterns of inequality*. Cambridge:polity press.
- Bradshaw., et al. (2004). *The drivers of social exclusion*. 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 London.
- Brown, A. (2002). *The impact of social exclusion on rural children and young people*. A paper to the rural affairs forum for England.
- Bruegel, I & Ariane H. (1995). *Flexibilization and part-time work in Europe*. in Crompton. Rosemary and Phillip Brown (eds.): Economic Restructuring and Social Exclusion. London: UCL Press.
- Burchardt, T., Le Grand, J. and Piachaud, D. (1999). Social exclusion in Britain 1991-1995.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33(3).
- Bynner, J., Elias, P., McKnight, A., Pan, H. and Pierre, G. (2002) *Young people's*

- changing routes to independence*, York: Joseph Rowntree Foundation.
- Canto-Sanchez, O. & Mercader-Prats, M. (1999). *Child poverty in Spain: what can be said? Paper presented at conference on child well-being in rich and transition countries*. Luxembourg.
- Catan, L. (2004). *Becoming adult: changing youth transition in the 21st century. trust for the study of adolescence*. Brighton, UK.
- Chase-Lansdale, P. L. Cherlin, A. J. and Kiernan, K. E. (1995). The long-term effects of parental divorce on the mental health of young adults: a developmental perspective. *Child development*, 66.
- Colley, H and Hodgkinson, P (2001), 'Problems with bridging the gap; the reversal of structure and agency in addressing social exclusion', *Critical Social Policy* 21(3).
- Cousins, C. (1999). Social exclusion in Europe: paradigms of social disadvantage in Germany, Spain, Sweden and the United Kingdom. *Policy and Politics*, vol. 26.
- De Haan, A. (1998). Social exclusion: an alternative concept for the study of deprivation? *IDS Bulletin*, vol. 29.
- Depart for Work and Pensions. (2003). *UK National Action Plan on social inclusion 2003-2005*.
- DFID. (2005). *Reducing poverty by tackling social exclusion: A DFID policy paper*.
- Duffy, K. (2005). *Social exclusion and human dignity in Europe*, Council of Europe.
- Eliadis, F. P. (2004). *Poverty and exclusion : Normative approaches to policy research*. PRI project new approaches for addressing poverty and exclusion.
- Eschborn, (2000). *Youth between political participation, exclusion and instrumentalization*  
<http://www2.gtz.de/dokumente/bib/00-0878.pdf>
- European Commission. (2001). *European Commission White Paper: A new impetus for European youth*.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Brussels.
- Evans, P & Deluca, M. (1998). *Social exclusion and children: creating identity capital: some conceptual issues and practical solutions*. OECD.
- Evans, M. (1998). Behind the rhetoric: The institutional basis of social exclusion and poverty. *IDS Bulletin*, vol. 29.
- Fahmy. (2005). *Youth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Townsend center for international poverty research.
- Giddens, A. (2000). *The third way and its critics*. Cambridge: policy.
- Gordon, D. et al. (2001).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in Britain*. York. Joseph Rowntree

Foundation.

- Hasluck, C., & Green, A.E. (2004). *A review of the literature for the Social Exclusion Unit in the breaking the cycle series*. Social Exclusion Unit.
- Hills, J. (1998). 'Does Income Mobility Mean that We Do Not Need to Worry about Poverty?' in Atkinson, A.B. and Hills, J. (eds.) *Exclusion, Employment and Opportunity*, CASEpaper 4, London: Centre for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London School of Economics
- Isengard, B. (2003). Youth unemployment; individual risk factors and institutional determinants. *The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6*.
- Jahnukainen, (2001). Social exclusion and dropping out of education. *Emotional and behavioral difficulties in mainstream schools, vol1. p1-12*.
- Jonsson, U. (2003). *Human rights approach to development programming, Eastern and Southern Africa regional office*, UNICEFF, Nairobi.
- Jones, G. (2002). *The youth divide: diverging paths to adulthood*, Joseph Rowntree Foundation, York, UK.
- Kaztman, S. (2001). Seduced and abandoned : the social isolation of the urban poor. *CepalReview 75*. [www.eclac.org/publicaciones/xml/5/20115/lcg2150i\\_Kaztman.pdf](http://www.eclac.org/publicaciones/xml/5/20115/lcg2150i_Kaztman.pdf)
- Klasen, S. (1998). *Social exclusion and children in OEC countries: some conceptual issues*.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munich schackstrasse 4.
- Kieselbach, T., Beelmann, G., & Traiser, U. (2006). *Youth unemployment and social exclusion: Social Exclusion Unit. 2005. Transitions young adults with complex needs: A social exclusion unit final report*. 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 London.
- Kieselbach. T. (2006). *Youth unemployment and social exclusion: Objective dimensions, subjective experience, and institutional responses* in six European Countries. Project supported by European commission-DG research in the 4th framework programme under the targeted socio-economic research programme.
- Kronauer, M. (1998). *Social exclusion and underclass; new concepts for the analysis of poverty*. In H. Andress (ed.) *empirical poverty research in comparative perspective*. Ashgate. aldershot, United Kingdom.
- Lang, T. (1997). *Transport and poverty*. in Walker, Alan and Carol Walker: *Britain Divided: The*
- Lee, P. and Murie, A. (1999). *Literature review of social exclusion*. Scottish office Central

- Research Unit. Edinburgh: Stationery Office.
- Levitas, R. et al. (2007). *The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London: Cabinet Office
- Mejer L. (2000). *Social exclusion in the EU member states*, Statistics in focus, Theme three, March 2000
- Micklewright, J. (2002). Social exclusion and children: A European view for a US debate. *CASEpaper, 51 February*.
- Moore, (2005). Thinking about youth poverty through the lenses chronic poverty, life-course poverty and intergenerational poverty. *CPRC Working Paper 57 Objective dimensions and institutional responses in six European Countries. Project supported by the European Commission-DG research in the 4th framework programme under the targeted socio-economic research programme(1998-2000)*.
- OECD. (1996). *The OECD observer No.2o2 October/November*.
- 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 (2004). *Breaking the cycle taking stock of progress and priorities for the future*. Social exclusion unit.
- Palmer et al. (2006). *Monitoring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Joseph Rowntree Foundation.
- Pavis S., Platt S and Hubbard G. (2000). *Social exclusion and insertion of young people in rural areas*, York Publishing Services.
- Raffe, D. (1998). Does learning begin at home; the use of home-international comparisons, *UK polick-making. Journal of education policy. 13*.
- Room, G. (1995). *Beyond the threshold. The measurement and asalysis of social exclusion*. Bristol' polity press.
- Rramley, G & Ford, T. (2001). *Evidence from the 1999 PSE survey of Britain*. CRSIS research reports.
- Sen, A. (1992). *Inequality reexamine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Sen, A. (1990). *Justice: Means versus freedoms*. Philosophy and public affaris.
- Sen, A.K. (2000). *Social exclusion: condept, application, and scrutiny, social development paper No.1*, office of environment and social development, Assian Development Bank, January.
- Silver. H. (1994). social exclusion and social solidarity;Three paradigm. *IILS Discussion papers no 69*. ILO, Geneva
- Silver, H. (1995). *Fighting social exclusion. in social exclusion and social inclusion*. Belfast: regency press.
- Silva, P.A. (1996). *Health and Development in the Early Years*.

- Silva, P.A. Stanton, W.R. (1996) *Child to Adult*, Oxford University Press.
- Smeeding T.et al., (1999), *Poverty across states, nations and continents*, paper presented at the September 1999 LIS Child Poverty Conference
- Social Exclusion Task Force. (2000). *Report of policy action team12: young people*. National strategy for neighbourhood renewal.
- Social Exclusion Unit. (2005). *Young adults questionnaire, analysis*.
- Social Exclusion Unit. (2001). *Consultation on young runaways*; Background paper by the social exclusion unit.
- Social Exclusion Unit. (2006). *UK national action plan on social inclusion 2003-2005*.
- Sorensen, A. (1999). Family decline,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The mediating effects of family Policy. *Comparative social research, vol. 18*.
- Subirats. (2003). *Some reflections on social exclusion and public policy response: a perspective from Spain*.
- Timms, D.W.G. (1991). *Individual characteristics, parental ideology and mental health in adolescents. project metropolitan research. project metropolitan report no.34*, Stockholm: Department of Sociology, University of Stockholm.
- Toronto community and neighbourhood services. (2004). *Social assistance and social exclusion: Findings from Toronto social services's 2003 survey of single parents on Ontario works*.
- Townsend, P. (1997).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in Walker, Alan and Carol Walker: *Britain Divided: The growth of social exclusion in the 1980s and 1990s*. London: Child Poverty Action Group
- UK Cabinet Office. <http://www.cabinetoffice.uk>.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2006). *Poverty, unemployment and social exclusion*.
- UN. (2005). *Youth in a global economy*. World youth report.
- Wadsworth, M. (1991). *The imprint of time*. Oxford: Clarendon Press
- Walker, R. (1995). *The dynamics of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in Beyond the threshold; the measurement and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edited by. G Room. Bristol: Policy Press.
- Williams, F. (1998). *Agency and structure revisited: rethinking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Social Exclusion and Social Work: Issues of Theory, Policy and Practice*. London: Russell House Printing.
- Wyn, J., & White, R. (1997). *Rethinking youth*. London:Sage.

---

##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 집 필 진 ◆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박창남 나사렛대학교 교수

이중섭 참여자치21 사회연대팀장





## 200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 기관고유과제

- 07-R0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 - 조사개요 보고서 / 이경상·김기현·임희진  
07-R01-1 청소년 비행의 발전형태에 관한 연구 / 이경상·이순래·박철현  
07-R01-2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실태의 변화와 특성 / 이경상·유성렬  
07-R01-3 청소년 사교육 이용 실태 및 효과에 대한 분석 / 김기현  
07-R01-4 청소년 진로상황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의 탐색 / 임희진·유제민  
07-R02 한국 청소년발달 지표조사 II : 청소년발달지표 종합부문 / 임지연·김신영·김정주  
07-R02-1 한국 청소년 발달 지표조사 II : 청소년발달지표 결과부문 / 김신영·임지연  
07-R03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 연구 II -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 백혜정·최우영·길은배·윤인진·이영란  
07-R04 뉴거버넌스를 통한 청소년행정체계 운영모형 정립 / 오해섭·김영호·이민희  
07-R05 국제기준 대비 청소년인권 실태조사 연구II - 청소년 인권실태 및 정책방안 / 이종원·장근영·김형주  
07-R05-1 국제기준 대비 청소년인권 실태조사 연구II - 청소년인권 영역별 실태분석 / 이용교·박창남·이중심  
07-R06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체체계 정비방안 연구 / 이춘화·김희균·조아미·황성기  
07-R07 신종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와 대책 - 신종·변종 청소년유해업소를 중심으로 / 김영한·권일남·주동범  
07-R08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I : 청소년 디지털과소비 실태와 대책 / 성운숙  
07-R08-1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I : 청소년 디지털소비격차 실태와 대책 / 황진구·유지열  
07-R09 소수집단 청소년들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조사개요보고서 / 이창호·오성배·정의철·최승희  
07-R10 청소년 우대제도의 국제적 동향과 개선방안 / 김경준·최인재·설인자·원구환  
07-R11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실태와 적응과정 연구 / 이해연·서정아·조흥식·정익중

###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 - 부모자녀관계, 교  
사학생관계, 또래관계를 중심으로 / 김현철·김은정·민경석 (자체번호 07-R1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2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 국제비교 / 김  
현철·김은정·손승영·함인희·최연혁·Bahira Sherif Trask, Gudrun Quenzel, Yasuaki  
Aota (자체번호 07-R12-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3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비교 : 면접조사자료집 / 김현철·  
김은정·손승영·함인희·최연혁·배지혜·Bahira Sherif Trask, Melina McConatha Roske,  
Bethany Willis Hepp·Gudrun Quenzel·Michaela Janotta·Janina Herrmann·Hideki Watanabe·  
Shigeki Matsuda·Yasuaki Aota·Masayuki Ozawa·Peter Strandbrink (자체번호 07-R12-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4 변화하는 가족과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 국제비교 / 김현철 · 김은정 · 최연혁 · 윤인진 · 정재영 · 임창규 · 이선이 · 김현주 · 이여봉 · 박천식 · 배지혜 · Gudrun Quenzel · Katherine Conway-Turner · Hideki Watanabe · Shigeki Matsuda · Yasuaki Aota · Masayuki Ozawa (자체번호 07-R12-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5 청소년기 사회화 담론의 근대적 기원과 그 영향 / 김현철 · 고미숙 · 박노자 · 권인숙 · 나임윤경 (자체번호 07-R12-4)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02-01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조혜영 · 문경숙 (자체번호 07-R1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02-02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II : 국내체류 해외 한민족청소년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조혜영 · 문경숙 · 박동숙 · 양한순 · 최진숙 (자체번호 07-R13-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02-03 북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 윤인진 · 채정민 (자체번호 07-R13-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02-04 중국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 김익기 · 이동훈 (자체번호 07-R13-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02-05 일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 김태기 · 임영연 · 박일 · 배광웅 (자체번호 07-R13-4)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02-06 독립국가연합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 임영상 · 황영삼 · 고기영 · 박지배 · 이병조 · 권주영 · 김석원 · 최소영 · 최인나 (자체번호 07-R13-5)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02-07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 중장기 대책방안 연구 / 강일규 · 전재식 · 길은배 · 배기형 (자체번호 07-R13-6)

#### ■ 수시과제

- 07-R14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실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방안 / 정하성 · 우룡
- 07-R15 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 방안 / 권일남 · 김혁진 · 오해섭
- 07-R16 청소년육성기금 확충방안 / 원구환 · 김현철 · 백혜정
- 07-R17 YP(청소년 스스로 지킴이)프로그램의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연구 / 우형진 · 김성벽 · 성윤숙
- 07-R18 특별지원청소년 세부 선정절차 및 지원방법 연구 / 김경준 · 서정아 · 정익중
- 07-R19 한류가 베트남 청소년의 문화의식에 미치는 영향 / 서동훈 · 박영균
- 07-R20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상근지도자(PM·SM)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 김호순 · 김기현 · 최병훈 · 한도희 · 박재환
- 07-R21 고교생의 생활의식 국제비교 연구 / 이종원 · 이경자 · 임희진
- 07-R22 초등학교생의 생활습관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 김현철 · 이경자 · 임희진
- 07-R23 고교생의 소비행동 및 소비의식에 관한 국제의식 연구 / 김현철 · 김진숙

## ■ 용역과제

- 07-R30 청소년특별회의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오해섭·장근영·김남정·박정배  
07-R31 청소년지도사 자격 필기시험 면제에 따른 제도 개선 연구 / 김영한·서정아  
07-R32 2007년도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 시설·안전·프로그램 평가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연구 / 김신영·오성배·양계민  
07-R33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 성윤숙·임희진  
07-R34 청소년 자율참여형 학교단체 수련활동의 운영모델 개발 / 임지연·연구철·이교봉  
07-R35 2030 청소년 희망세상 비전과 전략 / 김기현·조혜영·장근영·이창호·강홍렬·고원·김민·김은경·김지선·김현주·나의순·마경희·손승영·손유미·우명숙·이승현·임천순·전상진·주용국·진미석·채재은·최규종·최순종·최화영  
07-R36 청소년희망세상비전 2030총괄분야연구 / 김기현·조혜영·장근영·이창호·고원·강홍렬  
07-R37 청소년 통계 혁신방안 / 이경상·김기현  
07-R38 다문화가족자녀의 교사생활과 교사학생의 수용성 / 조혜영·이창호·권순희·서덕희·이은하  
07-R39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 프로그램 및 가해학생선도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최인재·김경준·백혜정·강진구·김태희·송미경·이유미  
07-R40 제4차 청소년기본계획 수립 연구 / 맹영임·조혜영·이춘화·김경준·김현철·김기현·임희진·임지연·길은배·김민·유홍식·전명기  
07-R41 청소년독서활성화 종합대책 연구 / 황진구·김은정·백원근·허병두  
07-R42 2007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 김은정·황진구  
07-R43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규제순응도 조사 연구 / 김영한·송병국·오홍석  
07-R44 청소년활동 참가실태 조사연구 / 이종원·장근영·김호순  
07-R45 자연(생태)환경활동 영역의 학교교과를 연계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이명자·김승규·송순재  
07-R46 2007 청소년백서 / 문경숙·김기현  
07-R47 한국 청소년의 행복지수 조사연구 / 김신영·오성배·이명진  
07-R48 질적수급전망분석 / 김기현  
07-R49 2007 서울시 청소년 건전활동 프로그램 운영평가 / 김현철·백혜정  
07-R50 2007 청소년육성기금공모사업평가 / 김현철·백혜정·김형주  
07-R51 2007 청소년쉼터시설종합평가 / 황진구·이경상  
07-R52 2007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 / 김경준·오해섭·이혜연  
07-R53 한국 청소년의 가치관 조사연구 / 김신영·오성배·이명진

##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07-S01 「2008년도 고유연구과제 발굴·선정과 경영혁신 방향설정 워크숍」(1.23~24)  
07-S02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hanging Family Relationships & Socialization in Adolescence」(4.20)  
07-S03 「청소년의 역사사랑 토론회」(5.12)  
07-S04 「제주세계자연유산과 함께하는 청소년」(8.17~18)

- 07-S05 「청소년지도사 자격 필기시험 면제에 따른 전문성 함양 방안」 (6.28)
- 07-S06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방향과 과제(안)」 (7.3)
- 07-S07 「패널데이터 분석방법론 세미나 자료집」 (7.5)
- 07-S08 「청소년 우대제도 국내·외 사례 워크숍」 (7.20)
- 07-S09 「다문화 청소년정책의 과제와 방향」 (7.20)
- 07-S10 「일본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 연구 포럼」 (9.11)
- 07-S11 「청소년 인터넷중독 상담과 치료에 관한 국제심포지움」 (9.13~14)
- 07-S12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 (9.14)
- 07-S13 「뉴거버넌스를 통한 청소년행정체계 운영모형 정립」 (9.14)
- 07-S14 「한민족 청소년과 글로벌 네트워크」 (10.30)
- 07-S15 「2007 고유과제 정책제안 검토 및 중장기 경영목표 수립을 위한 직원 워크숍」 (11.1~2)
- 07-S16 「제4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11.9)
- 07-S17 「질적연구를 통한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연구 세미나」 (11.27)
- 07-S18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사회화과정 연구 포럼」 (11.29)
- 07-S19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안)」 (12.7)
- 07-S20 「한국의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근대적 담론 형성의 기원과 그 영향」 (12.24)

#### ■ 학술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1호 (통권 제45호) / 연구정보지원팀
-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2호 (통권 제46호) / 연구정보지원팀
-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3호 (통권 제47호) / 연구정보지원팀

####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 기타 발간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타 발간물 01 「자녀의 성공을 위해 부모가 함께 읽어야 할 73가지 이야기」



연구보고 07-R05-1

**국제기준 대비 청소년인권 실태조사 연구Ⅱ**

- 청소년인권 영역별 실태분석 -

인 쇄 2007년 12월 28일

발 행 2007년 12월 28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이 중 태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 계문사 전화 (02)725-5216 대표 류윤희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정보지원팀)

ISBN 978-89-7816-693-5(93330)